

Military History

2020.3. 제114호



- 제1공화국기(1948~1960)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 베트남전쟁기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과정 고찰
- 소련의 전략문화와 적군(赤軍)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
- 고려의 동북 9성 개척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 조선시대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위치 비정
- 아리마 세이호(有馬成甫)의 『조선역 수군사(朝鮮役水軍史)』 (1942)에 보이는 이순신 비판론





第114號 2020. 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0. 3. 제114호

1	▶ 제1공화국기(1948~1960)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윤시원
37	▶ 베트남전쟁기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과정 고찰	이신재
71	▶ 소련의 전략문화와 적군(赤軍)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정하
123	▶ 고려의 동북 9성 개척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윤경진
159	▶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김경록





Contents | 2020. 3. 제114호

199	▶ 조선시대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위치 비정	홍영호
TOO		0 0 -

243 ▶ 아리마 세이호(有馬成甫)의 『조선역 수군사(朝鮮役 김준배 水軍史)』(1942)에 보이는 이순신 비판론

	1. ビイエ 60	201
	2. 신간 도서 소개·····	283
부 록	3.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285
	4. 『軍史』誌 投稿案内	287
	5. 연구윤리예규	290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공화국기(1948~1960)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유시워*

- 1. 서론
- 2. 6 · 25전쟁 이전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 시도와 호국군
- 3. 6·25전쟁기 육군 예비전력 <mark>동원</mark>체제 구축의 실패: 국민방위군과 민병대
- 4. 1950년대 중반 예비사단 창설과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
- 5. 결론

1. 서 론

한국의 징병제는 1949년 병역법 공포를 통해 제도화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징병제가 제도적으로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확립은 중요한 위치를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징병제의 제도화와 국민개병주의의 형해화』의 3, 4, 5장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차지하고 있다. 프로이센이 1814년 9월 제정한 병역법을 통해 병역 자원의 역종을 구분하고 예비역 자원을 관리한 이래!)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프로이센의 방식을 따라 예비역 자원을 관리했다. 병역자원을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하고 유사시 예비역을 현역으로 동원하는 병력동원체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그 위력을 입증했다. 징병제를 통해 평시에 축적한 예비 병력자원을 전시에 동원함으로써 병력 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의 인력 소모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비전력 동원체제는 징병제를 완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징병제와 예비역 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역사학 분야의 징병제 연구 중에서도 예비전력 동원체제에 중점을 둔 논문이 수 편 생산되었다. 6·25전쟁 시기의 예비전력 동원체제에 대한 연구는 예비군의 전사(前史)로서 창군기의 호국군과 6·25전쟁 시기의 국민방위군을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2) 국민방위군과 관련해서는 남정옥의 국민방위군 연구와 이상호의 예비 제5군단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남정옥은 호국군 창설기에 형성된 인적 자원이 청년방위대를 거쳐 국민방위군 창설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3) 이상호는 예비 제5군단이 단순히국민방위군의 후속 조직으로 노무단 임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투임무를 동시에 수행했음을 규명하였다. 4) 1960년대 후반 향토예비

¹⁾ Heinz Stübig, "Die Wehrverfassung Preußens in der Reformzeit. Wehrpflicht im Spannungsfeld von Restauration und Revolution 1815–1860", *Die Wehrpflicht:* Entstehung, Erscheinungsformen und politisch-militärische Wirkung (München: Oldenbourg, 1994), p.46.

²⁾ 신영진, 「한국전쟁시 동원연구」, 『한국전쟁연구: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국방 군사연구소, 199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 인사·군수·민사지원』, 국방 군사연구소, 1997.;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 운 연구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³⁾ 남정옥, 『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한국학술정보, 2010.

⁴⁾ 이상호, 「한국전쟁기 예비 제5군단과 육군예비사관학교」, 『아세아연구』62-4, 고려

군 창설을 다루는 연구들은 향토예비군 창설이 이루어진 정치적 배 경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5) 그러나 이 연구들은 예비군 제도 형성과정에서 등장한 특정 제도를 설명하는데 집중했 다. 이 때문에 창군 이후의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통사적으로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1공화국 시기는 징병제가 형성되는 과정이 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다가 폐기되었 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징병제의 기틀이 잡혀간 것이다. 그러므로 징병제의 기반이 형성된 제1공화국 시기의 예비전력 동원체제 형성 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표는 제1공화국 시기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 성 과정을 통사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다. 징병제 도입 초기 병력동 원체제의 발전 과정을 시기적으로 파악하고 각 단계별로 시행된 제 도의 특징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징병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호국군과 국민방위군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주목을 받 지 못했던 민병대의 조직과 한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징병제 하 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완성한 육군 예비사단의 편성에 대해 다 룰 것이다.

대학교 아세이문제연구소. 2019.

⁵⁾ 강민철. 『1968년 안보위기론 조성과 향토예비군 창설』.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주영윤, 「예비군 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군사연구』 143. 육군군사연구소. 2017.

2. 6·25전쟁 이전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 시도와 호국군

징병제에서 예비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무병역을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유사시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단기간에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창군 초기부터 예비전력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국방부는 1948년 8월부터 15개 연대, 병력 50,000명 규모의 예비군 편성을 준비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 부족과 무기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편성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6) 1948년 9월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군사고문단장은 예산 부족을 감안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현역부대의 간부를 활용해 호국군을 편성하고, 현역 1개 연대당 호국군 1개 연대를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7)

호국군이라는 명칭은 미국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한국 어로 옮긴 것이다.8) 그 기본 개념도 미국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미국 주방위군의 특징은 모병제하에서 예비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데 있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독일식 징병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병역제도로 확산되었다. 1870년 이후 미국에서도 징병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정치 문화로 인해 주류가 되지는 못했다.9) 미국이

⁶⁾ Weekly Items of Major and Minor Importance as concerns DIS(Aug. 16, 1948), RG554 Entry UD-UP19 Box4.

⁷⁾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Lee Bum Suk, Mr, Hwang(Interpreter), Col Wright, Lt Col Voss and General Roberts, 20 September 1000 to 1145. RG554 Entry UD-UP19 Box4.

⁸⁾ 대한독립청년단 「징병제즉시실시!」, 『현대일보』 1948년 7월 8일 1면. 호국군 의 영문번역명은 National Guard이다. 6·25전쟁 시기의 국민방위군도 동일하게 National Guard로 번역되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영문초록에서는 호국군을 National Guard로, 국민방위군은 second National Gurad로 지칭할 것이다.

현대적인 예비군 확보를 위해 택한 방식은 기존에 주 단위로 편성 되어 있던 민병대를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미국 의회는 1903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민병대법을 개정해 전쟁을 비롯한 유사시 민병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민병대법 개정안 으로 각 주의 민병대는 연방정부의 예산 및 장비지원을 받고 전시에 는 대통령의 완전한 통제를 받았다. 1908년의 민병대법 개정은 전시 민병대의 복무기간과 복무장소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도록 했다. 10)

한국 국방부가 징병제를 추진하면서도 예비군 제도로 모병제 국 가의 제도를 채택한 점은 이례적이다. 이 당시 국방부가 징병제를 추진하면서도 예비전력 동원체제만은 모병제에 기반을 두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1948년 12월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국방경비대가 국군으로 개편된 직후였다. 국방부는 징병제 실시 를 천명하고 있었으나 국군 조직 자체는 여전히 모병제하에 있었고 예비군을 확보할 인적 자원이 부족했다. 예비군을 조직하기 위해서 는 처음부터 모병을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호국군 편성의 법적근거인 「국군조직법은 1948년 11월 30일에야 공포가 되었다. 법적 근거가 늦게 마련되어 국방부의 호국군편성계 획은 1948년 12월 초가 되어서야 완성됐다. 국방부의 계획안은 군 사고문단의 제안을 수용해 현역 보병여단이 각각 호국군 1개 여단 의 편성을 담당하고 무기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했다.11) 육군본부 는 창설계획에 의거 육군본부에 호국군무실을 설치하고 초대 군무

⁹⁾ John Whiteclay Chambers II. "American Views of Conscription and the German Nation in Arms in the Franco-Prussian War" in The People in Arms: Military Myth and National Mobilization since the French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95~96.

¹⁰⁾ Michael D. Doubler, Civilian in Peace, Soldier in War: The Army National Guard, 1636-200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3) pp.144~151.

¹¹⁾ Organization of Reserve Army(Dec. 16, 1948), RG554 Entry UD-UP19 Box2.

실장에 신응균 중령을 임명했다. 호국군의 실제 편성과 교육훈련을 담당할 현역 보병연대는 '편성담임연대(編成擔任聯隊)'로 지정되었다. 편성담임연대에는 현역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된 호국군 고문부가 설치되었다. 12) 1948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제1, 2, 3, 5, 6, 7, 8, 10, 11, 13 등 10개 연대에 호국군 고문부가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13)

호국군 담당 현역 여단	호국군 여단	호국군 연대
1여단	101여단	101, 111, 121연대
2여단	102여단	102, 103, 113연대
3여단	103여단	106, 105, 115연대
6여단	106여단	107, 108, 110연대

〈표 1〉 호국군 편성 계획안(1948년 12월)

호국군 편성은 모병제의 원칙에 따라 12월 초 간부모집으로 시작됐다. 호국군 제1기 모집은 12월 7일 시작됐다. 1차로 모병을 시작한부대는 제1연대(서울, 개성, 의정부 지구), 제11연대(수원, 인천 지구), 제12연대(온양 지구), 제2연대(대전, 공주 지구), 제3연대(이리, 전주 지구), 제6연대(대구, 김천 지구), 제7연대(청주, 충주 지구), 제8연대(춘천, 원주 지구), 제10연대(강릉 지구) 등 9개 연대였다. 14)

호국군 장교는 만 21세부터 60세까지, 하사관은 만 20세부터 35 세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사병은 만 17세부터 28세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장교 및 하사관 지원 자격은 과거의 장교경력자, 군사지식과 통솔능력이 있는자. 호국군 간부가 될 경우 생활에 지장이 없는

^{*} 출처: Organization of Reserve Army(Dec. 16, 1948), RG554 Entry UD-UP19 Box2.

¹²⁾ 신응균, 「대한육군호국군의 병제적 고찰」, 『국방』 제3호, 1949년 3월, 27쪽.

¹³⁾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 1954, 20쪽; 『육군발전사 상』, 226쪽.

^{14) 「}호국군 장교모집」, 『한성일보』 1948년 12월 9일 2면.

자로 한정했다. 15) 간부후보생 지원자의 합격 여부는 편성담임연 대의 연대장이 결정했다.16) 사병은 과거 군사교육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청년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자였다. 지원자는 호적초본과 이 력서 외에 지역 유지의 추천서와 경찰서장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했 는데 이것은 현역 지원자의 제출 서류와 거의 동일했다 17) 간부 지 원 자격 요건 중 두 번째 조항은 모호하지만 과거 군사경력이 있는 자가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 반이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병 지원요건은 청년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간부 및 사병의 지원자격은 현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49년 2월 24일에는 시흥에 호국군 간부 훈련소가 개설되었 다.18) 초대 훈련소장으로는 호국군국장 신응균 중령이 임명됐다. 호국군 간부후보 1기생은 총 119명으로 3월 16일 교육을 수료했다. 국방부는 3월 4일 호국군 간부훈련소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의 제1지구경리대로 이전하고 3월 25일 2기생 75명의 교육을 시작했 다. 호국군 간부훈련소는 4월 1일 호국군 간부학교로 개칭되었다. 호국군 간부학교는 6월 30일 영등포로 이전했으며 7월 16일 호국 군사관학교로 개칭됐다. 호국군사관학교는 8월 8일 제4기 수료생 548명을 임관하고 같은 달 15일 호국군 해편과 함께 해체되었 다.19) 한국군의 부대증편에 맞춰 호국군 편성계획도 변경됐다. 변 경된 계획에 따라 1949년 3월 중순까지 편성된 호국군 부대 현황 은 다음 표와 같다.

^{15) 「}호국군 간부요원모집」, 『경향신문』 1948년 12월 19일 1면.

¹⁶⁾ 신응균, 앞의 글 27쪽.

^{17) 「}호국군모집요강」、 『호남신문』 1949년 1월 21일 2면; 「제일차호국군대모집요항」 『민주중보』1949년 6월 21일 1면.

¹⁸⁾ Weekly Activities of KMAG(Feb. 28, 1949), RG554 Entry UD-UP19 Box9.

¹⁹⁾ Korean Reserve Corps(Mar. 14, 1949), RG554 Entry UD-UP19 Box9; 『육 군발전사 상』, 227쪽,

부대		X ETI	7151704	병력		
		주둔지	관할구역	인가병력	실제병력	
	여단본부	서울	서울, 경기도	289	0	
101여단	101연대	서울, 의정부		3,054	968	
	111연대	수원, 인천		3,054	1,569	
	여단본부	대전		289	0	
1020451	102연대	대전, 공주, 논산	충청남도,	3,054	2,006	
102여단	103연대	전주, 이리, 남원	전라북도	3,054	811	
	113연대	온양, 예산, 홍성		3,054	836	
	여단본부	부산		289	0	
1020151	106연대	대구	경상북도,	3,054	635	
103여단	105연대	부산	경상남도	150	0	
	116연대	마산		150	0	
	여단본부	광주		289	0	
105여단	120연대	광주	전라남도	150	0	
	115연대	여수		150	0	
	여단본부	청주		289	0	
106 ME	107연대	청주, 보은	충청북도,	3,054	1,678	
106여단	108연대	춘천, 원주	강원도	3,054	1,961	
	110연대	강릉, 삼척		3,054	1,315	

(표 2) 호국군 편성 현황(1949년 3월 14일 기준)

1949년 3월 기준의 호국군 편제표는 정규군의 확장에 맞춰 호국 군 1개 여단이 추가로 증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대의 단대호가 한자리 숫자에서 100단위로 변경된 점이 특징이다. 제105 여단은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 출처: Korean Reserve Corps(Mar. 14, 1949), RG554 Entry UD-UP19 Box9.; 육군본부 편. 『육군발전사 上』, 육군본부, 1970, 226쪽.

또한 제101, 102, 106여단은 본부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하 연대 편성이 먼저 추진되고 있다.

호국군은 예비군의 일환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간부를 충원하는데 있어 현역 전투부대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 점은 호국군 여단장으로 부임한 장교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호국군 주요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현역 장교들은 다음 표와 같다.

호국군 여단	여단장		여단참모장
제101여단	오광선 대령		
제102여단	유승렬 대령 박시흥 중령		조개옥 중령 ²⁰⁾
제103여단	안병받		
제105여단	김관오 대령 김정호 중령		
제106여단	권 <mark>준 대령</mark>		
호국군 사관학교	신응균 중령 장석윤 중령		

(표 3) 호국군 주요 지휘관

호국군의 주요 지휘관 중 광복군 및 중국 국민당군 계열은 오광선, 김관오, 권준, 박시흥, 조개옥 등 5명이다. 일본 육군사관학교계열은 유승열, 안병범, 신응균, 장석윤 등 4명이다. 만주국군 계열은 김정호 1명이다. 오광선 대령과 권준 대령의 경우 군사적 능력보다는 독립운동경력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직이지만 예우는 할수 있는 호국군 여단장에 임명됐다는 설이 있다.²¹⁾ 권준 대령은 제106여단장을 역임한 뒤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됐다는 혹평을 받았다.

^{*} 출처: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편. 『호국군사』,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2001, 26-35쪽,

^{20) 「}군산호국군 조직에 난삽」, 『군산신문』 1949년 2월 25일 2면.

²¹⁾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111쪽.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신응균 또한 낡은 일본 군사교리를 고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2) 이렇듯 호국군 여단장에 임명된 고급 장교 중에는 미국 군사고문단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연령대가 비교적 높아 일선 전투부대의지휘관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도 있었다. 호국군의 하급 간부는 지역유지 계층을 중심으로 충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국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지역유지 계층이 호국군 간부로 충원되어 40대 이상의 장년층도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3)

호국군 병력 모집은 청년단을 활용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이루어 졌다. 문제는 호국군 훈련 임무를 맡을 현역 기간요원과 무기 보급이었다. 1949년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호국군 사령관 송호성 준장이 군사고문단을 대동하고 강원도의 호국군 제106여단 사령부 및 예하연대, 그리고 경기도의 제111연대 예하 부대들을 시찰한 결과 호국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사교육을 실시할 자질을 갖춘 현역 군인이 부족해 호국군의 군사훈련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호국군을 지원해야 할 정규군 부대도 장비가 부족해 호국군 부대는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상당수의 부대는 훈련용 목총만 지급받은 상태로 군복조차 없었다. 정규군의 지원을 받은 일부 부대가 일본 제 소총을 소수 보급 받았지만 상당수는 녹이 슨 상태였다. 24)

호국군 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한 호국군사관학교 조차 화기학(火 器學) 수업에서 실사격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 25) 6·25전쟁이 발 발한 뒤 동원된 호국군 간부들은 기초적인 전술 교육은 커녕 사격

²²⁾ Roberts to Bolte(August 19, 1949), RG554 Entry UD-UP19 Box 8. pp.4~5.

²³⁾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편, 『호국군사』,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2001.

^{24) &}quot;Report of Inspection, Reserve Units, Kangwando Province(May 31, 1949), RG554 Entry UD-UP19 Box10. pp.3~4.

²⁵⁾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편, 『호국군사』, 2001, 호국군사관학교총동창회, 38-39쪽.

한번 못해본 경우도 있었다. 소집된 호국군 간부가 받은 군사교육이 기초적인 제식훈련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²⁶⁾ 호국군은 예산 및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병사구사령부 설치가 결정되자 해체되었다. 국방부는 호국군 여단 본부를 해체해 병사구사령부 편성에 사용하고 여단 이하의 부대에 속한 호국군 대원을 예비역으로 편입했다.²⁷⁾

병역법 시행과 함께 기존의 제도 일부가 변경되었다. 국방부는 호국군 해체에 따라 현역에 충원할 수 없는 병역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청년방위대를 조직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1949년 11월 27일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병력 20만의 청년방위대를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28) 방위대 편성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 및 도청년단에는 사단에 해당하는 방위단을 설치하고, 군 단위에는 연대급인 지대, 읍·면 단위에는 대대급인 편대, 동·리 단위에는 중대급인 구대 혹은 소대를 편성했다. 청년방위대 편성은 1950년 4월 말 완료되었다. 29)

청년방위대의 교육은 호국군에 소속되어 있던 현역 간부 일부가 담당했다.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청년방위대를 17개 사단 규모로 증강할 계획이었으며, 경찰 보조 임무를 수행하던 민보단도 청년방위대에 통합하려 했다. 경찰은 청년방위대가 급속히 확장되어 민보단을 흡수하는 상황을 반대했다. 청년방위대는 군사조직으로 만들어졌으나 기존 청년단체 출신의 간부들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공연히 정치 개입을 꾀했다. 방위대 차장 문봉제(文鳳濟)는 청년방위대 간부들의 총선 출마를 시도하기도 했다.30)

²⁶⁾ 육군사관학교제팔기생회, 『노병들의 증언: 육사8기사』, 1992, 593~594쪽.

^{27) 「}호국군을 예비군으로 개편」, 『동아일보』 1949년 9월 3일 2면.

^{28) 「}청년방위대 편성 예비역임무 담당」, 『동아일보』 1949년 11월 28일 1면.

^{29) 『}육군발전사 상』, 228쪽.

³⁰⁾ Korea Youth Guard Corps(Apr. 10, 1950), RG554 Entry UD-UP19 Box19. pp.1~2.

6·25전쟁 이전 국방부가 시도한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은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호국군을 편성 단계에서 해체하고 청년방위대를 창설한 결과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실질적인 전력으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예비전력으로 동원할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징병제를 추구하면서도 예비군제도는 모병제에 의존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졌다. 예비군 조직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한 점도 한계로 작용했다. 국방부가 조직한 호국군은 무기 및 장비 부족으로 예비군의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6·25전쟁이 발발한 뒤에야 국방부는 징병제의 틀 안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3. 6·25전쟁기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의 실패: 국민방위군과 민병대

6·25전쟁 초기 대한민국 육군의 병력 동원은 현역 사단의 병력 손실을 보충하는 데 주력했다. 예비전력 동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중공군의 참전이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으로 동원되지 않은 제2국민병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방위군은 1949년 해체된 호국군이 가지고 있던 예비군의 성격을 이어받은 조직이었다. 31) 국민방위군 편성은 정규군 숫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병역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정규군 규모의 제한으로 징집할 수 없는 인력을 예비군으로 동원하려 했다. 미국의 대한군사

³¹⁾ 남정옥, 앞의 책 51~57쪽.

원조는 원조를 제공할 한국군 병력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었다. 한국 군 병력 상한선은 1950년 9월 205.000명에서 1952년 1월 250.000명 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32)

국방부차관 장경근(張暻根)은 195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국민방 위군 편성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비 군의 역할을 해온 청년방위대는 사설단체에 불과해 법적근거가 없고 명령계통이 불확실하므로 폐지하고 미국의 내셔널가드를 본받아 국 방부가 통제하는 예비 병력을 집단적으로 훈련해 확보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경근은 국민방위군 편성의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요인이다. 재정적 인 측면에서는 국민방위군을 둔다면 정규군에 소요되는 예산의 10분 의 1 수준으로 같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개병 사상에 부합하며, 일종의 예비군으로 육군의 지휘명령 계통에 속하는 점도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편리성이다. 평시에 예비군 조직이 없다면 유사시 소집 수속에 시간이 많이 걸려 융통성이 떨어진다. 국방부는 국민방위군을 조직해 훈련을 시키면 유사시 바로 소집해 현역 동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33) 정부는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했다. 국민방위군 대상 자는 만 17세부터 40세까지의 제2국민병에 해당하는 남성이었다. 34)

1951년 1월 3일부터 2월 5일에 걸쳐 국민방위군 10개 사단이 편 성되었다. 편성 당시 국민방위군 사단의 단대호는 제1사단부터 제11 사단이었다.35) 1951년 2월 초에 국민방위군 단대호는 호국군과 유 사한 세자리 숫자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방위군 사단의 단대

³²⁾ Kenneth W. Myers, KMAG's Wartime Experience: 11 July 1951~27 July 1953(May, 1958), RG550 Entry 2A1-2AA1 Box85, p.46.

³³⁾ 국회사무처, 「제2대 국회 제9회 제5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50년 12월 15일, 6쪽,

^{34) 「}국민방위군설치법」(법률 제172호), 『관보』 419호, 1950년 12월 21일 1쪽.

³⁵⁾ 남정옥, 앞의 책 117~120쪽. 국민방위군사단의 편성은 사단장의 임명일을 기준 으로 하였다.

호는 제101사단에서 제111사단으로 변경되었다. 36)

그러나 소집된 국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국민방위군 지휘부가 예산을 부정 착복하는 사고가 더해져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어 집결지까지 도착했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국민방위군 교육대에 입소하지 못하고 떠돌이신세가 된 경우도 있었다. 37) 1951년 2월 중순까지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의 국민방위군 훈련소및 예비사단에 수용된 국민방위군의 숫자는 435,038명에 달했다. 이중 257,610명이 경상남도, 101,951명이 경상북도, 40,872명이전라남도, 34,053명이 제주도, 288명이 전라북도, 264명이 충청남도에 수용되어 있었다. 38) 단기간에 40만 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었으나 이들을 지원할 준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헌병사령부제2처가 각지의 국민방위군 교육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배급되는식사는 하루 쌀 4홉에 미치지도 못하는 사실이 적발됐다. 39) 영양실조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국민방위군은 많은 병사자를 냈다.

국민방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처는 1951년 2월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1951년 2월 9일 국무회의에는 「제2국민병해당

³⁶⁾ Korean National Guard, Memorandum by Major Sam J. Adams Jr.(Feb 15, 1951),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77_00C0016_017), pp.2~3.; 국민방위군 사단의 단대호가 변경된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제11사단 사단장 임명일이 1951년 2월 5일이라는 점, 그리고 세자리 단대호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김윤근 명의의 문건이 첨부된 유엔한국민사지원단 문서의 생산일이 1951년 2월 15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2월 초에 단대호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방위군 사단의 세자리 단대호는 호국군 여단의 세자리 단대호와 유사한 면이 보이므로 양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³⁷⁾ 국회사무처. 「제2대국회 제10회 제6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51년 1월 15일, 3쪽.

³⁸⁾ Korean National Guard, Memorandum by Major Sam J. Adams Jr.(Feb 15, 1951),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 77 00C0016 017), pp.2~3.

³⁹⁾ 尹字景, 『晚省錄: 단 한번 잠시 느껴본 행복감』, 서울프레스, 1992, 251쪽.

장정대책안이 상정됐다. 대책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40)

- 1, 각 수용소에 수용 중인 35세 이상의 장정과 신체검사에 불합격된 장정은 불합격증 명서를 발부하여 귀향시킬 것
 - (1) 귀향에 필요한 급양을 지급할 것
 - (2) 신체 쇠약 또는 병환 중에 있는 자는 사회부에 넘기여 구호할 것.
- 2. 수용 중에 있는 장정에 대하여서는 식량 증배(增配), 의료대책을 세울 것.
- (1) 수용소에 전염병이 발생 중에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발생할 우려가 많음으로 보건부와 국방부가 상호협의하여 적절한 의료대책을 세울 것.

정부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귀향 대상을 만 36세 이상으로 조정 하고 대책안을 통과시켰다. 41) 정부의 대책은 뒤늦은 것이었다. 이미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는 상황이 되어서야 의료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있었다. 한국 육군본부는 2월 중순부터 국민방위 군 훈련소에서 예방접종 및 살충제 살포를 담당할 반을 편성했다. 각 반은 소위 계급의 군의관 1명과 사병 4명으로 편성되었다. 경상 남도의 경우 2월 21일부터 예방접종 및 살충제 살포가 시작됐다. 42)

정부의 뒤늦은 대책과 더불어 국민방위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 도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국민방위 군 사건 수사책임자인 헌병사령부 제2처장 윤우경(尹字景)에게 국민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명령했다. 윤우경은 사 건을 송치한 뒤 신성모를 찾아가 사망자와 화자가 대규모로 발생했 으므로 여론을 고려해 장기형을 언도할 것을 건의했다. 1차 공판에 서는 김윤근이 기소각하로 무죄 판결을 받고 부사령관 윤익헌(尹益憲)

^{40) 「}제2국민병해당장정대책안」 1951년 2월 9일,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5060. 134쪽.

^{41) 「36}세이상의 국민병 등 귀향시키기로 결정」、 『조선일보』 1951년 2월 11일 조간 2면.

⁴²⁾ ROK National Defense Camps. National Guard and Youth Groups(Feb. 22. 1951),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 77 00C0007 042)

이 3년 6개월, 기타 피고들은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헌병대의 수사 초기에는 김윤근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태연자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신성모가 재판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 결과 다수의 고급 장교들이 김윤근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헌병사령부는 이 사실이 공개될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김윤근이 뇌물로 사용한 기밀비 관련 사항은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43)

국민방위군 교육대가 해산되고 2주가 지난 1951년 4월 16일 기준으로 여전히 10,654명의 환자가 소집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44)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었다가 귀향하게 된 대원들에 대한 지원도 부실했다. 국민방위군에서 소집 해제된장정들을 수송할 수단이 부족해 도보로 귀향해야 했다. 귀향 여비로는 현금 3천 원이나 쌀 몇 되, 북어 몇 마리를 받는 게 고작이었다. 이것은 2~3일치의 여비에 불과했다.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소집된 장정들이 귀향하는 데 10~15일 가량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부족한 조치였다. 45)

1951년 4월 30일에는 국회에서 「국민방위군설치법폐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5월 12일에 공포되었다. 46) 이로써 국민방위군은 정식으로 해체되었다. 국민방위군이 해체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감독 및 관리 소홀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국민 여론이 악화된 데 있다. 그러나 당장 현역으로 보충하지 않아도 될 인원을 불필요하게 잡아두는 것이 농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⁴³⁾ 유우경, 앞의 책 253~257쪽.

⁴⁴⁾ 남정옥, 앞의 책 111쪽.

⁴⁵⁾ 국회사무처, 「제2대국회 제10회 4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1년 3월 23일, 3쪽; 767쪽.

⁴⁶⁾ 법률 제195호 「국민방위군설치법폐지에 관한 법률」, 『관보』 470호 1951년 5월 12일, 1쪽.

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7)

국민방위군 해체에 따라 예비전력을 운용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 할 필요가 생겼다. 국방부는 국민방위군이 수행한 예비군 임무를 대 행하기 위해 1951년 5월 5일 예비 제5군단을 창설했다. 예비 제5군 단은 제101사단(마산). 제102사단(통영). 제103사단(울산). 제105사 단(창녕). 제106사단(여수) 등 5개 예비사단으로 편성됐다.⁴⁸⁾ 예비 사단의 주둔지는 기존의 국민방위군 사단 및 교육대 주둔지와 동일 했으며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었던 인원 중 상당수가 소속되었 다 49) 국민방위군 사단의 주둔지와 단대호를 예비사단과 비교해 보 면 제101사단(마산). 제102사단(통영). 제103사단(울산). 제105사단 (창녕)은 예비 제5군단 예하의 예비사단과 단대호 및 주둔지가 동일 하다. 다만 여수의 국민방위군 사단은 단대호가 제107사단이다.50) 국민방위군이 해체되고 조직이 축소되면서 국민방위군 제107사단이 예비 제106사단으로 개칭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 편성된 예비사단은 미 제8군을 지원하는 노무부대로 조직되 었다. 다만 제102. 106사단은 후방의 공비토벌 작전 같은 전투임무 도 수행했다.51) 육군본부는 1951년 9월 병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제102사단과 제106사단을 해체했다. 동시에 작전지시 제58호를 내 려 제101사단은 미 제1군단에, 제103사단은 미 제10군단에, 제105 사단은 미 제9군단에 배속시켰다.52) 예비사단이 노무부대로 개편되

⁴⁷⁾ Letter from Jack McFall(assistant secretary of state) to Senator Sparkman (May 8, 1951). 국방군사연구소편, 『한국전쟁자료총서57: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 관계문서 XIX 1951.4.13.~6.18』, 국방군사연구소, 1999, 253쪽.

⁴⁸⁾ 남정옥, 앞의 책 156쪽.

⁴⁹⁾ 양영조,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선인, 2007, 298~302쪽.

⁵⁰⁾ Korean National Guard, Memorandum by Major Sam J. Adams Jr. (Feb 15. 1951).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 77 00C0016 017), pp.2~3.

⁵¹⁾ 남정옥, 앞의 책 158쪽; 이상호, 앞의 글 149쪽.

⁵²⁾ 양영조. 앞의 책 298~299쪽.

어 미군 전투부대에 배속됨에 따라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한국인 노무인력은 예비사단으로 대체되었다. 미군의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한 예비사단은 전투부대와 달리 1개 사단이 6개 연대로 편성되었다. 53) 6개 연대로의 편제개편은 1951년 8월 20일 완료되었다. 54)

국민방위군은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해체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노무사단으로 개편되어 6·25전쟁 휴전시까지 전투지원 임무를 담당했다. 노무사단의 병력 충원도 제2국민병 소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무사단에 배치된 노무자는 현역 군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55) 그러나 이들은 주로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었으므로 넓은 범위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방위군사건은 병역법 개정 논의를 일으켰다. 1951년 4월 28일 제10회 국회 67차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김의준(金意俊) 의원 외 109명이 병역법 개정 및 향토방위대령 폐지안을 제출했다. 56) 국회의 병역법 부분개정 논의는 국민방위군의 법적근거가 된 제2국민병역 관련 조항과 6·25전쟁 이전에 폐지되어 유명무실한 호국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5월 11일의 79차 본회의병역법 수정안 제1독회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 병역법의 호국군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한 내용이었다. 57) 이날 독회에서 무소속 김종회(金從會) 의원은 국민방위군의 법적 근거인 병역법의 제2국민병역조항이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폭넓은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어 불

⁵³⁾ Organization of Korean Services Corps(KSC) (Jul. 14, 1951), RG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1953 Box 38,(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 번호 AUS004_36_00C0241_130) p.2.

⁵⁴⁾ 양영조, 앞의 책 302쪽.

⁵⁵⁾ Status of Korean Service Corps(KSC) (Sep. 19, 1951), RG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1953 Box 38,(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 번호 AUS004 36 00C0241 115)

⁵⁶⁾ 국회사무처, 「제2대 국회 제10회 제67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1년 4월 28일, 37쪽.

⁵⁷⁾ 국회사무처, 「제2대 국회 제10회 제7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1951년 5월 11일, 19~20쪽.

합리한 점이 많았고. 그 폐해로 인해 징병기피 풍조가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58)

호국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1951년 5월 25일 부분 개정된 병역법이 공포됐다. 59) 개정된 조항은 대부분 육군의 병역 동원체제에 관한 내용으로 호국군 관련 조항이 주를 이루었다. 청년 군사훈련을 명시한 제77조도 삭제됐다. 국민방위군 사건의 교 훈과 전쟁 중의 현실을 반영해 소집 절차에 대한 조항도 개정됐다. 제58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기타 필요에 의해 소집을 하게 될 경우 소집할 병종, 소집 연령을 공고하도록 했다.

6 · 25전쟁을 계기로 대규모의 예비역 자원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서 예비역 군인을 관리하고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시점에서는 대한재향 군인회가 현역에서 제대해 예비역에 편입된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 도 담당했다. 국방부는 대한재향군인회가 예비군을 관리하고 유사시 에 동원할 조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60) 대한재향군인 회는 1953년 11월 12일 사단법인 제대장병직업보도회로 개편되어 제대군인 직업알선 및 군사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61) 그러나 제대 장병직업보도회는 개편 당시의 목표와 달리 제대군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회원으로 가입된 제대군인들을 각종 명목으로 소집 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도 제식훈련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62) 예비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별 도의 조직이 필요했다.

국민방위군이 해체된 이후 국민병을 동원할 조직은 존재하지 않

⁵⁸⁾ 국회사무처. 「제2대 국회 제10회 제79차 국회본회의」 1951년 5월 11일, 21쪽.

^{59) 「}병역법」(법률 제203호), 『官報』제477호 1951년 5월 25일, 1쪽.

^{60) 「}징소집의 능률화 도모」, 『동아일보』 1953년 11월 2일, 2면.

^{61) 「}재향군인회를 직업보도회로 개편」, 『동아일보』 1953년 11월 11일 2면.

^{62) 「}국방장관에 고함」、 『동아일보』 1955년 5월 11일자 3면.

는 상태였다. 정부는 1952년 말부터 제2국민병 훈련 및 동원을 위 해 민병대 조직을 추진했다. 1953년 1월 6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작성한 민병단(民兵團)안이 논의되었다.63) 국방부가 작성 한 「민병단창설요강」은 민병단 창설 취지를 "이러한 초비상적인 국 난의 경우를 예상한 우리의 선배들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총력 전을 수행하여 민족과 국토를 방위할 수 있도록 헌법 제30조에 '모 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병역법 제58조에는 전시·사변 시에는 모든 병역의무 자는 소집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 입각 하여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멸공통일전을 조속히 최소한의 희생으 로. 그리고 완전한 전승으로써 종결시키기 위하여 민병단을 창설하 는 바이다."라고 규정했다.64) 민병단이 총력전 수행을 위한 병역동 원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가 작성한 방안은 민병단의 운영을 국방부, 내무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할 것을 규정했 다. 국방부는 민병단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내무부는 재정. 경 리를 담당하며, 문교부가 학과 교육 및 시설을 담당하는 것이었다.65) 1953년 7월 23일 대통령령 제813호 「민병대령 을 공포와 함께 민 병대 조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5일 민병대총 사령부가 설치되고 예비역 육군 중장 신태영(申泰英)이 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총사령부가 설치된 다음 날인 7월 26일에는 국방부 본 부에 민병총사령부 창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에는 민병대 총사령관인 신 태영이 임명되었고 위원으로는 공군대령 양정수(楊正秀). 육군대령 고재필(高在珌), 이영주(李永周), 김문경(金文經), 공군중령 한갑수 (韓甲洙)가 임명되었다. 민병대 창설 사무가 과중해 7월 31일에는

^{63) 「}제2회 국무회의록」1953년 1월 6일,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085168

⁶⁴⁾ 국방부, 「민병단창설요강」 1953년 1월, 국가기록원관리번호 BA0084192, 234쪽.

^{65) 「}민병단창설요강」 235쪽.

육군대령 김귀암(金貴巖). 신능기(申能綺). 김기훤(金基暖) 등 3명이 추가로 준비위원에 임명되었다. 민병대 총사령부는 1953년 8월 12 일 편성을 완료했다. 그 구성은 총사령관 예하에 참모장과 제1. 제2 국을 두었다. 제1국은 예하에 기획과와 통계과, 경리과를 두고 제반 행정 및 운영을 담당했으며 제2국은 예하에 훈련과 및 정훈과, 검 열과를 두어 교육훈련을 담당했다. 66) 각 지역의 민병대 운영 책임 은 병사구사령부가 지고 있었으며 실제 운영은 구청장, 시장, 군수 를 통해 이루어졌다.67)

민병대의 소집 대상은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및 국민병 에 해당하는 인적자원으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이었 다. 68) 다만 최초 창설때인 제1기 민병대원 모집 시에는 만 36세 이 하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의원과 공무원, 학생을 제외했다 69) 민병대는 국민학교를 하나의 부대 단위로 편성되었으며 민병대장은 국민학교장이 임명되었다. 70) 군사훈련교관은 민병대가 설치된 지역 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행정적인 면에서 군사훈 련은 병사구사령부가 담당하고 일반적인 감독 책임은 구청장·시 장·군수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택하고 있었다.71) 훈련은 민 병대원의 생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와 시간을 택하여 실시하도록 했 다. 훈련 내용은 연간 군사훈련 90시간과 학과교육 180시간 내외로 하도록 했다. 72) 국민학교를 기반으로 민병대를 조직했기 때문에 민 병대 조직은 외형적으로 단기간에 구축되었다. 1953년 8월 23일 서

⁶⁶⁾ 민병총사령부, 『민병대1년지』. 1954. 29~31쪽.

^{67) 「}민병대령」(대통령령 제813호), 『관보』 제941호, 1953년 7월 23일, 1쪽.

^{68) 「}민병대령」(대통령령 제813호), 『관보』 제940호 1953년 7월 23일, 1쪽.

^{69) 「}지방공무원 및 의원 민병대훈련서 제외」, 『자유신보』 1953년 12월 13일 2면.; 민 병총사령부, 위의 책 8~9쪽.

⁷⁰⁾ 단. 교장이 여성일 경우에는 교감이 민병대장에 임명되었다. 민병총사령부, 앞의 책 54~55쪽.

^{71) 「}민병대령」(대통령령 제813호), 『관보』 제941호, 1953년 7월 23일. 1쪽.

⁷²⁾ 민병총사령부, 앞의 책 28쪽.

울특별시의 9개 구에 민병대가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 15일까지 목표의 50%인 1,459개 민병대가 조직되었다. 10월 6일에는 전국 민병대의 조직이 완료되었다. 1954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4,018개의 민병대가 편성되었으며 훈련교관 12,497명, 대원 1,201,203명을 두었다.73)

민병대는 평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유 시간에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호국군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74) 그러나 호국군이 지원제로 대원을 모집한 반면 민병대는 만 17세 이상 40세이하의 남성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어 징병제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 한편 민병대는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인목적도 띄고 있었다. 정부는 민병대 창설과 함께 대한청년단을 해체해 민병대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53년 9월 17일 대한청년단중앙단부와 각 도 단장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대한청년단 해체와 민병대 편입을 선언했다. 75)

민병대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된 점은 예산 및 교육이었다. 민병대령은 민병대의 예산을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즉 운영예산을 국방비에 계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국민학교 사친회에서 민병대 운영비의 상당액수를 부담했다. 1954년 12월 27일 문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953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민병대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18,200,456원으로 이중사친회비가 절반을 넘는 10,815,212원에 달했다. 국방부예산인 민병대보조금은 4,246,408원에 불과했다. 76) 교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민병대는 군사적 목적을 띄고 있었으나 전체 교육 시간 중에서 실질적인 군사훈련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⁷³⁾ 민병총사령부, 50~51쪽, 앞의 책 부록1 민병대조직현황통계표.

^{74) 「}손국방장관 민병대령 공포에 담」, 『경향신문』 1953년 7월 26일.

^{75) 「}한청해산성명」, 『동아일보』, 1953년 9월 19일 1면.

^{76) 「}민병대경비에 골치앓는 국민교」, 『조선일보』 1954년 12월 29일 조간 2면.

훈련과목	연간 훈련시간	비고
군사예절	5	
개인위생	10	
체 육	14	
내무위생	15	
제식훈련	26	
방공훈련 및 군법교육	(7)	과외 과목
총 계	70, (7)	() 과외 과목

(표 4) 민병대원 훈련 내용

민병대의 교육 과목 중 실질적인 군사훈련에 해당하는 것은 연간 26시간을 차지하는 제식훈련과 정규과목 이외의 과외과목으로 실시하는 방공훈련이 있었다. 실제 전투에 필요한 화기 교육은 기초적인소총 조작뿐이었다. 77) 자질이 부족한 민병대장의 가혹행위도 문제가 되었다. 1953년 9월 6일에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민병대장 겸 진부국민학교장 장태갑(張台甲)이 민병대원 20명을 곤봉으로 구타하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78)

민병대는 병역의무 대상자 전체를 동원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호국군보다 징병제에 부합하는 예비전력 동원체제였다. 그러나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국방부와 내무부, 문교부 등 3개 부가 공동으로 운영에 관여해 행정적으로 관리가 복잡한 점도 문제였다. 민병대 또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군사조직은 아니었다. 예비사단이 편성되면서 예비전력교육훈련 및 동원을 담당할 수 있게 되자 민병대는 존립 이유를 상

^{*} 출처: 민병총사령부, 『민병대1년지』, 1954. 99쪽.

⁷⁷⁾ 민병총사령부, 앞의 책 27쪽.

^{78) 「}대장 기압에 20명이 부상」, 『조선일보』 1953년 9월 19일 조간 2면.

실했다. 정부는 1955년 5월 9일자로 민병대령 폐지를 공포했다. ⁷⁹⁾이로서 민병대는 편성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해체되었다. 국방부가 6·25전쟁기에 추진한 예비전력 동원체제는 모두 단기간 동안 존속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1950년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예비사단을 통한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4. 1950년대 중반 예비사단 창설과 육군 예비전력 동원체제 구축

정전 이후 국방부는 6·25전쟁기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구상했다. 정전 이후 한국 정부는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두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첫번째는 미국의 군사원조 증대였다. 두 번째는 6·25전쟁기에 본격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예비역이 육성된 것이었다. 195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육군을 전역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인원은 155,351명에 달했다. 80) 1952년부터 징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비역 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동원체제 개편의 첫 단계로 제대장병직업보도 회와 민병대로 이원화된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일원화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 동원 및 훈련을 전담할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79) 「}민병대령 폐지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027호), 『관보』 제1322호, 1955년 5월 9일, 1쪽.; 「민병대정식해체」, 『동아일보』 1955년 5월 9일 2면.; 「민병대의 해체」, 『마산일보』 1955년 5월 9일 2면.; 「제대장병보도회 불일내로 해체」, 『동아일보』 1955년 5월 13일 3면.

⁸⁰⁾ HQ Republic of Korea Army, Recommendations(Undated), RG330 Entry NM-12 185 Box12(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30_08_00C0011), p.30.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임시예비군훈련단이었다. 1954년 초 육 군본부는 미국 측에 임시예비군훈련단(Provisional RTC)을 창설해 만 30~33세의 예비역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군본부는 각 예비군훈련단을 하루에 1.000명의 예비군을 훈련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하고, 한 기수당 8주간의 교육과정을 9개월 동안 시행하면 156.000명의 예비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럴 경우 임시 예비군훈련단에서 배출한 인력과 현역에서 전역한 인원 54,000명을 합하면 210.000명의 훈련된 예비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81)

육군본부가 제시한 방안을 검토한 미 제8군사령부는 자체적으로 한국 예비군 편성 방안을 연구했다. 미 제8군사령부의 연구는 일일 평균 징집 인원을 900명으로 늘려서 9개월 내로 11만 명에 달하는 연령 19~20세의 현역 대상자를 모두 징집하고, 이와 비슷한 숫자 의 장기복무자를 전역시키면 164.000명의 예비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82) 충분한 예비군을 확보하면 현역 병력을 감축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 맥스웰 테일러(Maxwell D. Taylor) 미 제8군사령관은 장기적으로 한국군 현역 병력을 20~25만 규모로 감축하고 80~90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도 했다.83)

육군본부의 임시예비군훈련단 편성 제안은 임시적인 조치였다. 육군본부는 장기적으로 15개의 예비사단을 동원해 예비군 훈련 및 전시동원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15개의 예비사단을 편성해 각 사단이 8주마다 1.000명의 예비군을 훈련하면 8개월 내에 22~

⁸¹⁾ Survey of Republic of Korea Manpower Reserves (May. 20, 1954). RG330. Entry NM-12 185 Van Fleet Report Files. 1954-1954. Box 10. (국사편찬위원 회 사료참조번호 AUS030 08 00C0005), pp.5~6.

⁸²⁾ Survey of Republic of Korea Manpower Reserves (May. 20, 1954), pp.5~6.

⁸³⁾ Memorandum: Debrifing of General Maxwell Taylor (Jun. 9, 1954), FRUS 1954 Korea Part2, p.1805.

25만 명의 예비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⁸⁴⁾ 국방부는 1954년 5월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사절단에 예비사단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군사원조 및 예비군 편성에 대한 설명은 5월 9일에 있었다.⁸⁵⁾ 육군본부의 예비사단 편성 계획이 포함된 제안서는 이날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 상반기까지는 예비군 육성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정해지지 못했다.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인원을 관리하고 훈련을 실시할 조직이 필요했다. 윌슨(Charles E, Wilson) 미 국방부장관은 1954년 7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군에 10개의 예비사단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개사단은 철수하는 주한미군의 장비로 무장시키고 나머지 6개 사단은 편제의 20% 수준의 소화기를 제공하는 방안이었다. 86) 미국 정부는 1954년 9월 14일 한국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제시한 한미합의의사록 초안에서 1955년 말까지 10개 예비사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87) 1954년 11월 17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합의의사록에 서명하면서 10개 예비사단 편성이 시작됐다. 예비사단의 편성 경과는 다음과 같다.

⁸⁴⁾ HQ Republic of Korea Army, *Recommendations(Undated)*, RG330 Entry NM-12 185 Box12(국사편차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O30 08 00C0011), pp.22~25.

^{85) 「}국군증강책숙의」, 『경향신문』 1954년 5월 10일 1면.

⁸⁶⁾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08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ursday, July 29, 1954, FRUS 1954 Korea Part2, p.1855.

⁸⁷⁾ DA967743(Sep. 15, 1954), FRUS 1954 Korea Part2, p.1879.

사단명	편성일	창설 지역	비고
제30사단	1955년 2월 20일	경기도 포천군	1955년 4월 19일 경기도 고양군으로 이동
제31사단	1955년 2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1955년 4월 15일 전남 광주시로 이동
제32사단	1955년 3월 20일	경기도 포천군	1955년 5월 10일 충남 조치원으로 이동
제33사단	1955년 3월 20일	강원도 양구군	1955년 5월 8일 경기도 부평으로 이동
제35사단	1955년 4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1955년 6월 6일 전북 전주시로 이동
제36사단	1955년 4월 20일	강원도 인제군	1955년 6월 6일 경북 안동군으로 이동
제37사단	1955년 5월 20일	강원도 양구군	1955년 7월 12일 충북 증평군으로 이동
제38사단	1955년 5월 20일	경기도 포천군	1955년 7월 15일 강원도 원주군으로 이동
제39사단	1955년 6월 20일	경기도 포천군	1955년 8월 1일 경남 창원군으로 이동
제50사단	1955년 6월 20일	강원도 화천군	1955년 8월 2일 경북 달성군으로 이동

(표 5) 한국군 예비사단 편성

국방부는 10개 예비사단 창설을 완료한 뒤 1956년부터 예비군 소집과 동원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다. 1956년 1월 11일 오후 2시 육군제30사단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손원일 국방부장관, 정일권 육군참모총장, 미 제8군사령관 참석하에 첫 번째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식이 있었다. 88) 예비사단이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연 6회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되는 상반기 동원훈련은 전역 1년차 예비역을 대상으로 했고 8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되는 하반기 동원훈련은 전역 2년차 예비역을 대상으로 했다. 89) 1960년 당시 각 예비사단의 동원훈련 실적은 다음과 같았다.

^{*} 출처: 육군본부 편, 『육군발전사 2』, 육군본부, 1970, 279~282쪽.

^{88) 「}예비군입소식 11일 이대통령 임석하 거행」, 『경향신문』 1956년 1월 13일 3면.

⁸⁹⁾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육군사 제4집』. (육군본부. 1962). 494쪽.

예비사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
30사단	3,220	1,095	1,925	1,605	1,356	2,157	11,358
31사단	3,313	2,024	3,389	3,364	3,365	3,376	18,831
32사단	2,745	2,231	2,909	3,036	3,257	3,125	17,303
33사단	3,081	1,852	2,805	2,794	3,381	3,119	17,201
35사단	2,515	1,835	1,855	2,974	2,930	2,091	14,205
36사단	2,563	2,105	1,788	3,134	3,423	3,422	16,435
37사단	3,051	1,719	674	2,846	3,011	3,371	14,672
38사단	2,617	1,247	903	2,738	2,550	2,666	12,721
39사단	3,3	343	1,091	2,805	3,265	2,770	13,274
50사단	3,152	1,220	1,594	3,369	3,562	3,460	16,357

〈표 6〉 1960년 육군 예비사단의 동원훈련 실적(예비역 사병 수료인원 기준)

예비군 동원훈련은 첫 해부터 물의를 일으켰다. 동원훈련 기간이 35일에 달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김용우(金用雨) 국방부장관은 1956년 8월 20일과 9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육군본부에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5일에서 25일로 축소할 것을 명령했다. 지나치게 긴 동원훈련 기간으로 예비군 소집 응소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매 훈련마다 평균 2,700명 중 1,500명 정도만 소집에 응하는 실정이었다. 소집대상 예비역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에 지장을 주는 점 때문에 예비군동원훈련을 기피했다.90) 동원훈련이 1년에 35일에 달해 훈련을 받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예비군을 기피했다.

^{*} 출처: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육군사 제4집』, (육군본부, 1962) 494~517쪽

^{90) &}quot;Command Report No.57, United Nations Command and Far East Command, October-December 1956", RG550 Entry 2A-2A(A) Box85, Record of HQ, U.S.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pp.52~54,

예비군의 처우가 열악한 점도 불만을 가중시켰다. 학도병 출신의 한 예비역은 동아일보에 익명으로 기고한 글에서 예비군의 열악한 처우를 비난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어려우므로 웬만한 천대는 감수 하겠으나 예비군 훈련에서 받는 처우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 다. 예비군 한명 당 하루 72화 60전의 부식비가 책정된다고 하나 훈련소에서는 약간의 된장으로 간을 한 '오렌지국' 같은 부실한 식 사를 내놓고 이로 인해 입소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백여 명의 환자 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유사시에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91) 생계 문 제. 열악한 예비군 처우 등의 이유로 1956년에는 예비군 훈련 불참 율이 40%에 달했다.92)

국방부는 예비역들의 민원 제기와 농림부 등 타 부처의 건의를 받아들여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갔다. 예비 군 제도는 1958년 1월 5일 개정되어 동원훈련 기간이 28일로 축소 됐다. 예비사단의 예비군 소집은 연간 9회로 제한하고 매년 6월 22 일부터 35일간, 9월 21일부터 35일간 총 70일은 농번기로 지정해 이 기간은 동원훈련을 중지했다. 그러나 이것도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농림부는 농번기를 매년 6월 1일부터 40일간, 10 월 1일부터 40일간 총 80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육 구본부와 미 제8군사령부는 농림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다.⁹³⁾

^{91) 「}훈련병의 부식물을 개선시키라」、 『동아일보』 1956년 8월 7일 3면.

^{92) &}quot;Command Report No.57, United Nations Command and Far East Command, October-December 1956", RG550 Entry 2A-2A(A) Box85, Record of HQ, U.S.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pp.52~54.

^{93) &}quot;Staff Study on Partial Revision of the ROK Army Reserve Training System" (Dec. 1958), RG338, Entry A-1 257, AG Central Files, General Correspondence, 1958: 326. Reserve Organizations (C). 1958. [국사편차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23_0000012], pp.3-4; "Recommendations on Partial Revison of the ROK Army Reserve Program(U)"(Dec. 22, 1958), RG338, Entry A-1 257, AG Central Files, General Correspondence, 1958: 326, Reserve Organizations (C), 1958, [국사편 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 23 00C0012], pp.1~2.

이에 따라 1958년 12월 한국 육군본부가 제시한 예비군 훈련 개선 안은 훈련일수는 28일로 유지하되 예비군 동원 기간은 농림부의 방안을 수용해 연간 6회로 축소하고 매회 소집 인원을 늘리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는 전역 후 3년간 동원훈련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전역 후 2년간만 동원훈련을 받도록 했다. 94) 예비군 훈련 개편안은 1959년 2월 27일 도입되었다. 95)

1950년대 중후반 예비사단의 예비전력 동원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춤으로써 징병제의 한 축인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예비사단의 창설로써 한국은 완결적인 징집 및 소집 체계를 갖추게 된것이다.

5. 결 론

제1공화국 시기 육군의 예비전력 동원체제 형성 과정은 징병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징병제를 통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 교육훈련을 마친 인력은 사회로 복귀한 뒤 예비전력을 형성하고 유사시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징병제는 평시 징병을 통해 확보한 예비전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1공화국 시기 육군의 예비전력 동원체제 형성 과정은 예비사

^{94) &}quot;Partial Revision of ROK Army Reserve Program" (Dec. 30, 1958), RG338, Entry A-1 257, AG Central Files, General Correspondence, 1958: 326, Reserve Organizations (C), 1958,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번호 AUS004_23_00C0012], p.1.

⁹⁵⁾ 육군본부 군사감실, 『육군사 3』, 1961, 34쪽.

단 편성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공화국 시기 국방부는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 서 수년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1948년부 터 추진된 호국군 편성이다. 호국군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주방위군 제도의 영향을 받은 모병제 성격의 제도였다. 이 때문에 1949년 병 역법이 선포되고 징병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자 모병제에 기반한 호국군은 모순적인 존재가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징병제를 통 해 예비역이 배출되면 민간인을 모병 대상으로 한 호국군은 존립할 근거가 없었다. 또한 건군 초기 부족한 물질적 기반 때문에 호국군 을 원활히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훈 련에 필요한 장비 부족 때문에 호국군의 군사적 기능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호국군은 1950년 해체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다시 구축하려고 시도한 계기는 중공군의 참전이었다. 국방부는 제2국민병 대상자를 동원하 여 국민방위군을 편성하고 이를 예비전력으로 육성하려 했다. 병역 법에 규정된 제2국민병 대상자를 동원한 것에서 나타나듯 국민방위 군은 본격적으로 징병제의 성격을 가진 예비전력 동원체제였다. 그 러나 국민방위군은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급조되면서 많은 물 의를 일으켰고, 호국군과 마찬가지로 군사 훈련에 필요한 물적 기반 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체되고 말았다. 이후 국민방위군의 조직은 노무사단 등으로 전환되었다. 국방부는 국민방위군의 실패를 교훈 삼아 1953년 민병대를 조직했다. 민병대의 운용방식은 호국군 에 가까웠으나 동원 방식에서는 징병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5년 육군이 예비사단을 편성하면서 민병대는 존립할 근 거를 잃었다. 국방부는 예비사단을 통해 예비전력 동원을 국방부의 지휘계통으로 일원화시켰다. 효율적인 예비전력 동원체제가 수립되 면서 민병대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육군의 예비사단 창설은 징병제의 틀 안에서 예비전력 동원체제를 완성하는 계기였다. 징병을 통해 현역병으로 군사교육을 받은 인력은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예비사단에 동원되어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의 징병제는 징집 및 소집 체제를 완전히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2020. 1. 3. 심사수정일: 2020. 2. 6. 게재확정일: 2020. 2. 18.)

주제어: 징병제, 예비군, 동원, 한국전쟁, 호국군, 국민방위군, 민병대, 예비사단

〈참고문헌〉

- RG330, Entry NM-12 185. Box 10
- RG338, Entry A1-1301 Box 17(국사편찬위원회 등록번호 CO6365)
- RG338, Entry A-1 257, AG Central Files, General Correspondence, 1958: 326, Reserve Organizations (C), 1958, (국사편찬위원회 등록번호 IM28276)
- RG550, Entry 2A-2A(A) Box85
- RG554, Entry UD-UP19 Box2~Box10
- 국방부. 『國防部史 第1輯』. 서울: 국방부. 1954.
- 國防軍史研究所,『韓國戰爭支援史: 人事·軍需·民事支援』,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7
 -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164009
- 國防軍史研究所編,『韓國戰爭資料叢書57:美國務府 韓國國內狀況關係 文書 XIX 1951.4.13.~6.18』,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999.
- 남정옥, 『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民兵總司令部. 『民兵隊一年誌』, 1954.
- 양영조, 『한국전쟁과 동북아 국가정책』, 서울: 선인, 2007. http://uci.or.kr//G701:B-00091455647@N2M
- 尹宇景, 『晚省錄 : 단 한번 잠시 느껴본 행복감』, 서울: 서울프레스, 1992.
-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육군사 제4집』, 서울: 육군본부, 1962.
- 육군본부 편, 『육군발전사 上』, 서울: 육군본부, 1970.
- 陸軍士官學校第八期生會,『老兵들의 證言: 陸士八期史』,서울: 1992.
- 韓鎔源,『創軍』, 서울: 博英社, 1984.
-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編,『護國軍史』, 서울: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 2001.
- Michael D. Doubler, Civilian in Peace, Soldier in War: The Army National Guard, 1636–200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3.

-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http://uci or kr//G901:A-0006035661@N2M
- 申應均、「大韓陸軍護國軍의 兵制的 考察」、「國防」利3호、1949년 3월
- 申英鎭,「韓國戰爭時 動員研究」,「韓國戰爭研究: 占領政策・勞務運用・動員」, 국방군사연구소, 1995.
- 이상호, 「한국전쟁기 예비 제5군단과 육군예비사관학교」, 『아세아연구』 62-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 주영윤, 「예비군 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군사연구』 143, 육군군사연구소, 2017.
- Heinz Stübig, "Die Wehrverfassung Preußens in der Reformzeit. Wehrpflicht im Spannungsfeld von Restauration und Revolution 1815–1860", Die Wehrpflicht: Entstehung, Erscheinungsformen und politisch-militärische Wirkung "München: Oldenbourg, 1994.
- John Whiteclay Chambers II, "American Views of Conscription and the German Nation in Arms in the Franco-Prussian War" in The People in Arms: Military Myth and National Mobilization since the French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Abstract)

The Process for Development of the reserve forces mobilization system of the R.O.K Army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republic in Korea between 1948-1960

Yoon, Si-won

The conscription system of Korea was established by the 1949 military service law.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stabilization of the draf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a reserve manpower mobilization syste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Defense suffered trial and error over the years to form a reserve power mobilization system. The first stage is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Gurad. The National Guard was essentially the type volunteer military system borrowed by the US National Guard system. As a result,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declared in 1949, and conscription was introduced systematically. In the long term, if the reserves were discharged through conscription, the National Guard that recruited civilians had no basis for existence. In addition, it was difficult to keep the National Guard forces smoothly due to the lack of material base in the early days of the military. Due to the lack of manpower to train and the equipment necessary for training, the military functions of National Guard were limited. Because of this, the National Guard was disbanded in 1950.

The ROK Ministry of Defense attempted to reestablish the reserve mobilization system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army during Korean War. The Ministry of Defense mobilized the 2nd grade to form the National Defense Forces and foster them as reserve forces. The National Defense Forces based upon the characteristics of conscription system. However, the National Defense Forces dismantled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 causing a lot of controversy. Since

the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Forces has been transformed into labor divisions. The Department of Defense organized a Citizen Armed Forces in 1953, learning from the failure of the national defense forces.

In 1955, however, the Army organized 10 reserve divisions and the Citizen Armed Forces lost its ground for existence. The Ministry of Defense has unified reserve power mobilization into the command system of itself through the Reserve Division. The Citizen Armed Forces dismantled naturally as an efficient reserve power mobiliz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establishment of the Army's reserve division was an opportunity to complete the reserve mobilization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raft system, Personnel trained in military service as active duty soldiers were able to be regularly called up into the reserve division to receive military education after they returned to society. As a result, the conscription system of Korea could be completed.

Keywords: Military Conscription, Army National Guard(Ho Guk Gun), National Guard(Guk Min Bang Wi Gun), National Militia, Reserve Division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37-69 https://doi.org/10.29212/mh.2020..114.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베트남전쟁기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과정 고찰

이신재*

- 1. 서론
- 2. 파월한국군의 전투식량 문제
- 3.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군납
- 4.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 결과
- 5. 결론

1. 서 론

"군대는 위(胃)로 행군한다"는 말이 있다.¹⁾ 전쟁에서 식량의 중요 성을 강조한 말이다. 전쟁에서 식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는다. 인간이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식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¹⁾ 마르틴 반 크레펠트 저, 우보형 역, 『보급전의 역사』, 플레닛미디어, 2010, 79쪽.

주에 대한 논의에서 식(食)의 문제는 전쟁에서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전쟁에서 먹는 문제, 즉 식량보급의 중요성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강조되어왔으며, 전사에서 식량보급을 포함한 군수 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군대가 자국이 아닌 해외의 전쟁에 참가해 낯선 환경 속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면 식량문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적시에 식량을 보급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낯선 환경에서 부패와 변질 없이 전투식량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전쟁에서 군인들의 먹는 문제는 전투식량(MRE: Meal, Ready—to—Eat)의 발전을 가져왔다. 전투식량의 휴대와 보관, 이동, 그리고 조리의 편의성에 대한 강조는 평시에도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군의 경우 크게 A, B, C—레이션(Ration) 등 세 가지 형태의 전투식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 당시에도 식량보급 문제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여 명이라는 대규모 군대가 한반도와는 전혀 다른 열대성기후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었다. 한반도와 베트남 간의 지리적 거리 또한 한국군에 대한 보급지원 측

²⁾ A-레이션은 주둔지역에서 냉장시설이 완비된 부대에 한해 보급되며, 신선한 식품을 다양한 기호를 고려해 조리해 급식하는 식단이다. B-레이션은 취사장비는 갖추고 있으나, 냉장시설이 없는 부대에 적합하도록 부패성 식품을 변질되지 않게 캔 (CAN)에 포장한 식단이다. C-레이션은 작전 또는 이동이 빈번하여 취사를 할 수 없는 야전에서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바로 취식할 수 있도록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식단이다.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 주월사정리단, 1974, 1198쪽. 한편 미국은 현재도 병사들의 종교와 식성까지 고려해 24종의 전투식량을 운영 중이고, 영양소와 맛을 증대하고, 사막이나 극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투식량을 개발 중이다. 『중앙일보』, 2015년 11월 4일.

면에서는 어려운 과제였다 3) 이로 인해 참전이라는 파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먹는 문제는 다른 분야의 문제와 함께 파병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될 수 밖에 없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이 'K-레이션'이라고 불린 한국형 전투식 량을 사용했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4) 그러나 K-레 이션에 대한 내용은 참전자 회고록이나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일부 자료에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이다. K-레이션의 개발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보급과 사용실태에 대한 사항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더 나아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식량보급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베트남전쟁이 한국군 의 첫 해외파병이고, 한국군 현대화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당시 한국군이 자체로 개발한 첫 전투식량인 K-레이 션과 한국군 식량보급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을 당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와 연계해 볼 때 전 쟁과 경제의 관계에서도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당시 식량문제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파병 당시 한국군의 식량보급 문제에 대한 고 민과 준비과정, 한국형 전투식량의 등장 배경, 한국형 전투식량의 제작 및 보급과정,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베트남 파병당시 한국군의 전투식량 문제에 대한 미군 및 남베트남과의 협의사항과 한국형 전투식량 문제의 제기과 정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한국형 전투식량 문제 해결을 위 해 당시 한국정부가 만들었던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Korea General

³⁾ 부산항에서 베트남의 깜란(Cam Ranh)까지는 2.124해리로 베트남전쟁 당시 수송선 으로 약 5일이 걸렸다.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제10집』, 전사편찬위원회, 1985, 598쪽.

⁴⁾ K-Ration은 미군의 C-레이션과 같은 휴대용 전투식량의 일종으로 여기서 K는 영어단어 Korea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Foods Co)의 설립과 운영, 국산 전투식량 개발 및 미국과의 군납 교섭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 결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5장은 이 연구의 결론이다.

2 파월한국군의 전투식량 문제

가. 파월한국군의 식량문제 협의

한국은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군인들의 먹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본국의 식량을 베트남 현지로 수송해 활용하는 것이었지만, 기후 차이와 지리적 거리, 그리고 경제여건 등의 제한으로 국내 식량을 보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에 대한 식량보급 문제는 비전투부대에서부터 전투부대의 파병에 이르기까지 남베트남 및 남베트남 주둔 미군과 협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당시 한국군이 남베트남 및 미군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항은 큰 틀에서 보면, 남베트남 측으로부터는 쌀, 소금, 설탕, 식유(食油), 차(茶)를 제공받고, 미군으로부터는 미군이 사용하는 전투식량을 제공받는 것이었다. 한국군이 본국으로부터 별도로 준비하는 사항은 없었다. 이것은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먼저, 1차 파병이었던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 파병에서 식량문제에 대한 논의는 선발대의 베트남 파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선발대의 임무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비롯해 주둔지선정과 파병에 따른 각종 준비사항 등 50가지에 달했다. 5)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 선발대장 이훈섭 준장은 남베트남군 주

⁵⁾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 「선발대장에게 부여할 임무(1964.7.10)」.

둔 미 군사원조사령부(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이하 USMAC-V로 표기) 및 남베트남군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먼 저, USMAC-V의 대표였던 아담스(M. B. Adams) 소장, 오스만스 키(F. A. Osmanski) 준장과 협의를 거쳐 1964년 9월 6일 '한미실 무자급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6) 합의서에는 한국군 식량문제에 대해 남베트남군에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식량(쌀, 소금, 설탕, 식유, 차)을 남베트남군 총사령부가 한국 이동외과병원 요원에게 공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태권도교관단에 대해서는 숙소가 위치한 지 역을 관할하는 USMAC-V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군 에 대한 식량보급은 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단(10명)에 대해 각각 남베트남 및 미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1차 파병당시 별도의 '전투식량'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1차로 파병 된 부대는 의료부대와 태권도교관단으로 전투와는 무관하였기 때문 이다

2차 파병을 위해 파견된 선발대 역시 남베트남 및 USMAC-V측 과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1965년 2월 7일 선발대 대장으로 다시 파견된 이혼섭 준장과 남베트남군 대표 부이 휴 논(Bui Huu Nhon) 준장 간에 '한월(韓越)군사실무자 협정서'가 체결되었다.7) 이 협정서 제9조에는 남베트남군에 지급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한 기본식량품 목(쌀, 소금, 설탕, 식유, 차)을 남베트남군이 한국군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1차 파병 때와 동일하였다. 선발대는 USMAC-V와도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미군의 처음 입장은 "한국 군에 대한 급식은 한국군이 본국에서 지급받는 수준과 같은 금액을 베트남 현지에서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Same Base, Same Level', 즉 국내의 한국군이 아니라 베트남에 주둔하

⁶⁾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샘터, 1991, 483~484쪽.

⁷⁾ 이훈섭. 위의 책. 485~491쪽.

고 있는 미군과 같은 기준의 보급을 요구하였고, 이를 관철시켰다. 이것은 이후 3차 파병이었던 전투부대 파병에서도 계속 적용되었다. 8) 이러한 합의내용은 1965년 2월 8일 USMAC-V의 참모장인스틸웰(R. G. Stillwell) 소장과 체결한 '한미군사실무자협정서'에 포함되었다.9)

그러나, 협정서에는 하나의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한 국인의 독특한 지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품목은 미군 군 원에서 제공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식량은 바로 된장, 고추장, 김치 등 한국인들이 주로 먹 는 식량을 말하는 것이었다.

3차 파병에서도 2차 파병 당시 체결된 식량보급에 관한 합의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전투부대 파병에 앞서 베트남에 파견되었던 연락장교단장 이세호 소장은 1965년 9월 6일 USMAC-V 참 모장인 로손(W. B. Rosson) 소장과 '한미군사실무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 약정서 제9조에는 "USMAC-V는 미군에게 공급되는 동일한 기준금액을 초과치 않는 동일한 수준의 식량을 한국군에게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2차 파병 때와 동일하게 한국인의 독특한 지방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은 미군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포함되었다.10) 1965년 9월 5일 남베트남군 대표 짠 응옥 땀(Tran Ngoc Tam) 소장과 체결한 '한월군사실무약정서'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베트남군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기준의 쌀을 남베트남군이

⁸⁾ 이훈섭, 앞의 책, 165-167쪽.

⁹⁾ 이훈섭. 위의 책. 492-497쪽.

¹⁰⁾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국방부, 1981, 251쪽. 1965년 12월 15일 체결된 '한미경리실무 약정' 제2부(직접경리지원) 제1조(급식)에는 "주월한국군에 대한 급식은 1965년 9월 6일부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간에 체결된 군사실무협정 조항에 의거 지급되는 군량의 종류 및 가용성에 따라 1일 1인당 \$1.05부터 \$2.04범위의 달러액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된다"고 명시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258쪽; 이훈섭, 앞의 책, 511쪽.

한국군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11)

이로써.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식량보급은 남베트남과 미 군으로부터 2중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남베트남으로 부 터는 쌀을 포함해 소금. 설탕. 식유. 차를 보급받고. 미군으로부터 는 미군에게 공급되는 동일한 기준의 식량을 지원받는 것이었다. 그 러나 김치로 대표되는 한국식품에 대한 공급은 미군이나 남베트남 측 모두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 한국형 전투식량 보급 문제 제기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식량문제는 남베트남 및 미군과 협 정을 체결하면서 해소되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식량과 관련된 문제 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파병초기 남베트남으로부터 지원 받기로 한 쌀이 적시에 보급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는 곧 해 결되었다 12) 미군 전투식량을 처음 사용하는 데 따른 조리법의 실 수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응할 수 있었다 13)

그러나. 한국군이 미군과 체결한 협정에서 명시되었듯. 미군은 '한국인의 독특한 지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품목은 미군 군원에서 제공치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여기서 특히

¹¹⁾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255쪽.

¹²⁾ 파병초기 미군으로부터 C-레이션은 보급을 받았지만, 남베트남군으로부터 쌀의 보 급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월한국군 사령관 채명신이 남베트남군 고위당 국과 혐의하여 3개월이 지나서 쌀을 보급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3개월간은 미군 C-레이션만 먹었다는 것이다.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13, 225쪽.

^{13) 1965}년 10월 해병 제2여단 대대장으로 참전했던 오유진은 '식량으로 B. C-레이 션이 나왔는데, 우리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다. 취사병들이 B-레이션 깡통 속의 내용물도 모르고 요리를 할 줄도 몰라 처음에는 솥에 넣고 물을 부어 꿀꿀이 죽처 럼 그냥 끓여 먹었다. 그러니까 맛이 시끔털털하고 괴상하였다. 처음에는 엉망이었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차츰 나아졌다'고 회고하였다. 군사편찬연구소, "증언 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권』, 국방부, 2003, 30쪽,

한국인 고유의 식문화라고 할 수 있는 '김치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한국인의 매끼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김치였는데, 이 것을 남베트남군이나 미군은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으로부터 충분한 열량의 식량을 보급받기는 했지만, 시간이지나면서 한국군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주월한국군 채명신 사령관의 언급은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월남쌀로 밥을 짓고, C-레이션으로 찌개나 국을 끓여 먹이니 장병들이 입맛이 살아나 살이 찌는 현상까지 생기게 되었지만 C-레이션 찌개나 국도 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음식에 길들여진 장병의 입맛에 맞을 리 없었던 것이다. 내가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듣는 건의사항이 무기나 탄약 그리고 한국에서는 귀했던 휘발유 같은 보급품이 아니라 된장, 고추장, 김치가 먹고 싶다는 것이었다.14)

파병 초기 김치 문제는 많은 참전 장병들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1966년 제6후송병원 간호장교로 근무한 김영숙 대위는 환자들을 위해 김치를 직접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이때가 제일 기뻤고, 환자들도 이때가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한다. 15) 포병대대 관측장교로 파병되었던 지만원 대위는 야외에 나오면 C-레이션을 먹어야했는데, 병사들이 통조림 고기에 질려 추수가 끝난 밭에 남아있던 고추를 잘라 C-레이션과 함께 먹기도 했다고 한다. 16) 또 국내에서는 '파월장병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베트남 파병 장병들에게 김치.

¹⁴⁾ 채명신, 앞의 책, 225쪽,

¹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국방부. 2001, 872쪽.

¹⁶⁾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2권』, 국방부. 2002, 180쪽.

고추장 등을 보내는 운동도 전개되었다.17)

김치문제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북한군도 똑같이 겪는 문제였다. 북한군도 당시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김치를 만들어 항공편 으로 베트남에 파병된 조종사들에게 보급하였다. 18) 또 한국군 작전 지역에서 활동했던 북한 심리전부대는 베트콩(Vietcong)측에서 만들 어 준 김치를 제공받거나. 자체로 김치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19)

한국군에 대한 김치 문제는 미 상원의 청문회에서도 등장할 정도 였다. 한국군에 김치가 보급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1970년 2월 24일 개최된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른바 사이밍턴(Symington) 청문회 에서 풀브라이트(J. W. Fulbright)의원이 김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포터(William J. Porter) 주한 미국대사는 "배추, 생선, 마늘, 그 밖의 것을 한데 절인 것으로 한국음식에는 퍽 중요한 것이다. 이것 은 몇 달 잘 익으면 일종의 단백질 물체가 된다."고 답변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이 "베트남까지 가서 그들이 얻는다는 것이 썩은 내 나는 생선기름이란 말인가?"라고 묻자, 포터는 "김치란 그런 성 질의 것이다. 김치 문제는 주월한국군이 급식분야에서 당면한 한 가 지 문제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20)

¹⁷⁾ 파월장병지원위원회, 『자유의 십자군』, 파월장병지원위원회, 1967, 36쪽; 파월장병 지원위원회, 「파월장병에게 김치보내기 운동계획(1967.1.23)」; 윤충로, 「베트남전쟁 참전의 안과 밖」、『한국현대생활문사 1960년대』,창비, 2016, 181쪽.

¹⁸⁾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군사편찬연구소, 2017, 123쪽, 김일성은 1966년 10월 19일 베트남으로 파병가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조선사람들은 된장, 고추 장, 김치 등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면서 베트남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언급하 였다. 그러면서 쌀과 된장은 북한에서 가져가고, 김치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겠다. 고 발언한 바 있다. 김일성, 「윁남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신주의자들의 숭 고한 국제적의무로 된다(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1966.10.19.), 『김일성전집』제37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383-384쪽. 북한은 베트남을 '웯 남'으로 표기한다.

^{19) 『}동아일보』, 1969년 10월 23일,

²⁰⁾ 국회도서관.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 국회입법조사국, 1971, 53~54쪽.

김치 등 한국형 식단의 보급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한국군사령관 채명신은 USMAC-V에 한국 고유의 음식을 전투식량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군에서는 한국식 음식으로 구성된 새 C-레이션을 보급해 주었다. 여기에는 밥, 김치, 꽁치 통조림 등이 포함되었다. 21) 채명신에 따르면, 맛도 괜찮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와이에 있는 일본 사람이 만들어 납품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일본 사람이 만든 것을 장병들에게 먹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채명신은 김치 등 한국식으로 만든 전투식량을 국내로부터 지원받고자 국방부에 국산 김치 통조림 제작을 요청했다. 이것은 일본인이 만든 김치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가능하다면 한국산 전투식량을 미군에 납품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였다. 22)

당시 한국정부가 국산 전투식량의 개발을 통해 미군에 납품을 시도한 배경에는 1966년 3월 4일자 이른바 '브라운각서(Brown Memorandum)'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주한 미국대사 브라운(Winthrop G. Brown)이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보낸 이 문서는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미국의 원조약속이 담겨있었다. 브라운각서 상의 경제협조사항에는 '남베트남 주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남베트남 주둔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위한 물자 중결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3

²¹⁾ 채명신, 앞의 책, 226쪽.

²²⁾ 채명신, 위의 책, 227쪽.

²³⁾ 전사편찬위원회, 1981, 266쪽. 다만 여기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구 매품목이 ①한국에 생산능력이 있을 경우, ②한국이 규격과 납품 예정기일을 맞출수 있을 경우, ③한국의 물품가격이 극동의 기타 공급 가능처 가격과 비등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④기타점에 있어서 구매가 합중국 국방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할 경우이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에서 생산한 군복, 정글화 등이 납품되고 있었 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식량보급문제를 해소하고. 군납을 통한 수출도 구상하게 되었 던 것이다 24)

3.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군납

가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의 설립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 는 이를 맡아 추진할 조직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대한종합식품주 식회사(이하 '대한종합식품'으로 약칭)이다 대한종합식품은 베트남 전쟁기 주월한국군에 대한 한국형 전투식량의 생산 보급 및 종합관 리를 목적으로 1966년 9월 1일 서울시 중구에 설립된 회사였다. 국 내 23개 통조림 공장을 모체로 만들어진 이 회사의 설립에 들어간 비용 2억 5천만 원은 전액 산업은행이 출자하였다. 25) 초대 사장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최영희였으며, 예비역 장군인 양국진과 산업 은행 출신의 이형철이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26)

^{24) 1966}년 8월 10일 외무부는 남베트남에 대한 군납제기와 관련한 브라운 대사의 공 한을 접수하고, 군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업계에 대한 정부지원을 전개하 고 있었다. 외무부, 「한국군월남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실천현황 1966년도 종합검토 보고서(1966.12.30), 14쪽.

^{25) 『}경향신문』, 1966년 8월 31일; 『매일경제』, 1966년 9월 2일.

²⁶⁾ 이후 최영희는 국회의원을 거쳐, 1968년 2월 국방장관에 임명되었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담당했던 양국진이 사장으로 1972년까지 활동 하였다. 1972년 9월에는 김두만(전 공군참모총장)이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1974년 민영화 이후에는 김두만은 이 회사의 회장으로 추대되고, 한국스레트그룹 회장(벽 산그룹의 전신) 김인득이 사장이 되었다.

대한종합식품의 설립은 1966년 5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에 대한 '지시 각서'로부터 출발하였다. 27) 이 지시이후 바로 상공부에 '종합식품공업심의위원회'가 5월 10일 구성되었다. 28) 이 위원회는 식품공업에 대한 지도육성과 베트남 파견 국군 및 기술자를 위한 종합식품의 국산화와 그 조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29) 이어서 6월 14일 산업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식품회사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8월 19일에는 국내 50여 개 통조림 가공업체 중 시설, 기술, 경영능력 등을 조사하여 비교적 우수한 업체 23개 공장을 후보공장으로 선정한 뒤 9월 1일부로 대한종합식품이 설립되었다. 30)

이 회사는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생산, 보급의 전 과정을 담당했다. 전투식량의 생산과 관계되는 각각의 통조림공장, 통조림 용기의 제조를 담당하는 제관공장, 통조림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 등이 관여되어 있었다. 대한종합식품은 이러한 생산공장을 모두 관리하였고, 수출입 업무도 관할하였다. 대한종합식품은 설립과정에서 알 수 있듯, 정부주도의 회사이었으며, 경제기획원, 농림부, 상공부이외에 외무부, 국방부 등 유관부서가 모두 관여하고 있었다. 실질적인 감독은 농림부로 일원화되었고, 관계부처는 행정지원을 담당하였다. 31)

대한종합식품은 1973년 3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군한

²⁷⁾ 상공부, 「국무회의 의안번호 제176호(1967.6) C-레이숀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 현황」.

^{28) 『}매일경제』, 1966년 5월 25일.

²⁹⁾ 종합식품공업부문위원회는 상공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청와대 정무(수산)담당비서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재무부이재국장, 국방부 군수국장, 농림부 농업생산국장, 상공부 상역국장, 국립보건원 검정부장, 중앙수산검사소장, 한국산업은행 관계이사, 그리고 식품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등이었다.

³⁰⁾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씨레이숀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³¹⁾ 농림부,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행정감독체계 일원화(1968.2.28)」.

뒤 전투식량의 수출 판로가 막히게 되자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한국군 철군 이후 한동안 유지되던 대한종합식품은 1974년 11월 최 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설립 6년여 만에 완전 민영화되었다 ³²⁾

나,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과 미군의 품질 검사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은 1966년 5월 7일 국내 전투식량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이후 곧바로 추진되었다. 산업은행에 구성된 종 합식품회사설립추진위원회 주도로 1966년 7월 5일 1차 시제품을 제 작하고, 이어서 8월 5일에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메뉴를 확정짓고, 2차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33) 당시 국내에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 에 의해 건립된 통조림 생산시설이 계속 유영되고 있었고, 광복이후 에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미 국제개발처(USAID) 등의 지원 을 받아 통조림 제조산업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품질수준은 낮 을지라도 시제품 생산은 가능한 상태였다.³⁴⁾

그러나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군 의 군납기준을 충족시켜야 했고. 특히 김치를 통조림으로 만드는 것 은 이전에는 없던 것이라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1966년 8월 11일 생산된 시제품 10상자를 베트남의 채명신 사령관에게 보내 새롭게 제작한 한국산 전투식량의 평가와 함께 미군과 현지 교섭을 지시하였다.35) 그러나. 당시 시제품에 대 해 채명신은 문제가 있었다고 회고한다. 김치 통조림에서 시뻘건 녹

^{32) 『}동아일보』, 1974년 11월 6일.

³³⁾ 상공부 「국무회의 의안번호 제176호(1967.6) C-레이숀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 현황.

³⁴⁾ 상공부 「상공부장관이 UNKRA 대표에게 보낸 서신(1954.5.10)」.

³⁵⁾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물이 나와 먹을 수 없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국내 통조림 제조기술이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열대 기후에서 식품 의 변질을 막는 기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부족한 통조림 제조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종합식품의 기술부를 외부의 전문가로 개편하는 한편 특수분야의 기술적인 개발을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기술자를 기술고문으로 초빙도 하였다. 또한, 제품 포장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부산에 건립하였다. 36)

이를 통해 보완된 시제품을 1966년 9월 12일 주한 미 합동군사고 문단을 통해 미 육군의 네이틱(Natick) 시험소로 보냈다.³⁷⁾ 네이틱은 미 군의 전투복, 전투식량 등 전투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³⁸⁾ 한국이 자체 생산한 전투식량을 미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다. 당초 예상으로는 1967 년 4월쯤 최종 시험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네이틱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로 진행결과도 알려졌다. 1966년 12월 주미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1차 분석결과 칼슘이 불충분하고, 비타민 A 및 C가 충분하지 못하며, C-레이션 중량이 미군용 C-레이션에 비해 절반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39) 그러나, 1967년 2월에는 한국 김치 통조림이 성분 내구성 시험을 통과했고, 고온에서 김치성분의 내구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군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 40) 이후 최종 시험결과는 시제품을 보낸

³⁶⁾ 경제기획원, 「식료품 공업에 관한 번스틴 처장 회한(1967.1.26)」; 대한종합식품주 식회사. 「씨레이숀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³⁷⁾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³⁸⁾ 네이틱은 미 육군 산하기관으로 이 기관이 위치한 메사추세츠주 네이틱의 지명이 기도 하다. 네이틱 군인연구발전공학센터(NSRDEC: Natick Soldier Research,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enter)에서는 미 육군의 신형 물자시스템의 개 발 및 테스트, 전투식량 및 미래 전투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³⁹⁾ 외무부, 「한국군월남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시공한실천현황 1966년도 종합검토 보고서(1966.12.30)」, 14쪽.

^{40) 『}매일경제』, 1967년 2월 28일.

지 약 7개월이 지난 1967년 3월 29일 나왔다. 결과는 한국의 시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하다는 평가였다. 이로써 김치 통조림을 포함한 한국형 전투식량의 미군 군납을 위한 기술적 조건이 충족되게 되었다.

다. 대미 군납 교섭과 계약 추진

전투식량 시제품에 대한 미군의 품질검사가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대미 납품을 위한 교섭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미교섭의 책임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장관에게 부여되었으나,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에서도 측면지원하였다. 41)

한국정부의 대미교섭은 베트남과 한국, 미국에서 상호 연계하여 전개되었다. 먼저, 베트남 현지에서는 채명신과 USMAC-V와의 교섭이 이루어졌다. 미군 측에 한국산 제품의 군납을 설득하고, 이것을 미국방부에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한국형 전투식량의 보급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하나는 국내의 통조림 제조기술이 미국의 군납에 필요한기준을 충족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1970년 1월 주한 미국대사포터도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이것은 근본적으로 김치를 통조림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42) 다른 하나는 당시 미국의 이여 농산물을 제공받는 국가의 제품은 미 군납으로 받을 수 없다는 미국법이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이른 바 곡물차관(PL-480)을 통해 많은 양의 식량을 원조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통조림 제조 기술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국내 회사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미군의 기술검사를 통과

⁴¹⁾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씨레이숀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⁴²⁾ 국회도서관,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 53~54쪽.

함으로써 해결되었다. 피원조국가의 물품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타결되었다. 채명신이 USMAC-V의 웨스트모얼랜드(William C. Westmoreland) 사령관에게 한국형 전투식량의 수출대금을 한국이 미국에서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물물교환 형식을 제의해 타결되었다. 43) 이 과정에서 1966년 10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수행한 국방장관이 MAC-V 사령관을 만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44)

베트남현지에서 채명신 사령관과 USMAC-V 사령관 간에 한국형 전투식량 군납에 의견이 합의된 이후, 1966년 10월 6일 USMAC-V 는 현지 사령관에게 부여된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의 시험 조변 (調辯)을 상급부대인 태평양사령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10월 25일 원안대로 미 국방부에 건의되었다. 45) 10월 31일에는 존슨 (Lyndon B. Johnson) 대통령과 함께 방한한 러스크(David D. Rusk) 국무장관에게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한국측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진전된 성과는 얻지 못했다. 11월 7일에는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만나 전투식량 군납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확정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한 상태였다. 46)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양국 정부 간에 정치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국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47)

우선, 한국정부는 1966년 11월 10일 미국주재 한국대사관의 이규성 공사와 수석무관이 국무부 극동담당부차관보를 만나 대미 군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네이틱의

⁴³⁾ 채명신, 앞의 책, 229쪽.

⁴⁴⁾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⁴⁵⁾ 외무부, 「한국군월남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사공한실천현황 1966년도 종합검토 보고서(1966.12.30)」, 13쪽;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전투식량 30만식 시험 생산계획(1966.10.7)」, 3쪽.

⁴⁶⁾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⁴⁷⁾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씨레이숀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시험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시험결과가 양호하더라도 적정 가격과 공급능력. 그리고 미국의 국제수지와 베트남 전비문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한국정부는 1967년 3월 3 일 정일권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을 미국에 보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였다. 납품 가격 인하가능성과 전투식 량 납품대금을 대미 수입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48)

이러한 대미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1967년 4월 네이틱에서 한국의 통조림 시제품에 대한 미국의 시험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납품기준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오자. 1967년 5월 12일 미국은 한국산 전투 식량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한국 측의 의견을 타진해 오기 시작했 다.49) 이어서 1967년 5월 15일 미국은 전투식량 품목 중 김치에 대 한 우선구매를 표명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대미교섭방침을 확정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할 단계로 평가하고 교섭에 나갔다.50) 그 리고. 1967년 5월 31일 대미납품교섭방침을 확정하고. 주미대사에게 정식으로 훈령을 보냈다. 훈령의 내용은 1967년 회계년도가 시작되 는 1967년 7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51)

그러나, 가격측면에서도 한 미간의 이견이 존재했다. 한미 양측 이 제시한 단가는 한국측이 63달러. 미국측이 56.51달러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단가 58.975달 러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67년 10월 7일 경제기획원장관과 주한 미 대외원조처(USOM) 처장 간에 합의 서명하였다. 52) 당시 한미

⁴⁸⁾ 삼화제관주식회사. 「삼화제관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낸 문서-수출용 통 조림 공관 및 C-Ration 제조시설 완료와 현황보고(1967.1.17),

⁴⁹⁾ 삼화제관주식회사, 「삼화제관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낸 문서-수출용 통 조림 공관 및 C-Ration 제조시설 완료와 현황보고(1967.1.17).

⁵⁰⁾ 외무부 「한국군월남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원조에 관한 주한미대사공한실천현황 보고-경제협조부분(1967.6.12.), 15쪽.

⁵¹⁾ 외무부, 위의 문서, 9쪽; 삼화제관주식회사, 위의 문서.

⁵²⁾ 대통령비서실, 「보고번호 제67-754호, 파월장병의 전투식량(C-레이숀) 생산공급에 관한 보고(1967.10.17)₁.

간의 합의내용을 보면, 일단 1968년 6월 30일까지 약 7개월분에 해당하는 7,093,985달러의 K-레이션을 납품하는 것이었다. 1차분 납품 개시시점은 12월 28일로 하였다. 한미 간에 납품 계약이 체결되자, 청와대에서는 대한종합식품에 대해 생산부족 자금 8억 3000만원의 긴급지원과 수출검사법에 의한 자체 검사기관 지정, 수출금융회수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였다.53)

라. 미국 군납계약과 K-레이션 제품화

1967년 10월 7일 한미 간의 전투식량 납품계약 체결 후 10월 20일 부터 대한종합식품과 생산공장에서는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였다. 54) 이렇게 생산된 국산 전투식량은 1967년 12월 30일 109만식분의 1차 선적에 이어 1968년 1월 8일 215만식분이 선적되어 베트남으로 향했다. 55) 이로써 주월한국군에는 1968년 1월부터 K-레이션이 보급되었다. 56)

K-레이션은 한국인의 기호를 고려해 K-1~K-6까지 6가지 종류로 구성되었다. 구성품은 주요품목 11가지와 부속품목 5개로 구성되었다. 11가지의 주요품목은 흰밥과 김치, 멸치 파래무침, 돼지고기조림, 쇠고기조림, 오징어조림, 꽁치조림, 두부전, 콩자반, 장조림, 쏘세지조림 등 반찬 10가지였다. 5가지 부속품목은 부속대, 숟가락, 판따개, 소상자, 대상자였으며, 부속대는 인삼차, 가루고추장, 설탕, 소금, 낌, 담배, 휴지, 성냥으로 구성되었다. 57) 6종류의 K-레이션은 흰밥을 기본으로 10가지 반찬이 적절하게 편성한 것이었

⁵³⁾ 대통령비서실, 위의 문서.

^{54) 『}매일경제』, 1967년 10월 23일.

^{55) 『}매일경제』, 1968년 1월 9일.

⁵⁶⁾ 주월사정리단, 앞의 책, 1185쪽.

⁵⁷⁾ 상공부, 「국무회의 의안번호 제176호(1967.6) C-레이숀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 현황」.

으며, 각각의 메뉴 구성은 〈표 1〉과 같다.

구성 구성	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주 품		흰밥 멸치파래무침 김치	흰밥 돼지고기조림 김치	흰밥 쇠고기야채조림 김치	흰밥 오징어조림 두부전	흰밥 꽁치조림콩자반	흰밥 쏘세지조림 장조림
부 품	속 목						

(표 1) 한국형 전투식량의 메뉴구성

그러나, 주월한국군이 국산 전투식량을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앞선 1967년 2월이었다. 이것은 미군 군납이 아니라 국민들의 위문품 형태였다. 1966년 12월 8일 국방부는 쌀밥과 김치 등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형 전투식량 15만 상자(2천 7백만 원 어치)를 구매하여 파병장병들의 성탄절 위문품으로 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58) 이렇게 보내진 K-레이션은 1967년 2월 10일 한국군에게 처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59)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에서 시제품에 대한 기술검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1966년 10월 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전투식량 30만식 시험생산'에 돌입한 상태였었다. 60) 국방부도 이에 따라 우선 10월 27일 15만식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1967년 2월 7일 납품이 완료되었다. 61) 이후에도 1967년 1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내각에 대해 파병장병들에게 '김치보내기

^{*} 출처: 상공부, 「C-레이숀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현황(1967)」.

^{58) 『}경향신문』, 1966년 12월 8일,

⁵⁹⁾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군사편찬연구소, 2007, 878쪽.

⁶⁰⁾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업무연구서 제1호-전투식량 30만식의 시험생산방법의 연구 (1966.10.17)」.

⁶¹⁾ 상공부, 「국무회의 의안번호 제176호(1967.6) C-레이숀 대미납품교섭에 관한 추진 현황」.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라고 지시하면서 한국형 전투식량의 보급은 이어졌었다.⁶²⁾

1966년 10월 전투식량 30만식 시험생산은 K-레이션의 대량생산을 통한 제품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었다. 시험생산을 통해 제품생산의 여건을 확보하고, 제품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시험생산에 참여한 업체는 12개의 생산업체와 2개의 부속대 제조업체 등 모두 14개였다. 대한종합식품에서는 10월 7일 선정된 14개 업체를 소집하여 대통령의 의도와 생산계획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생산준비에 돌입하였다. 63) 당시 전투식량을 생산한 업체와 품목별 배당량은 〈표 2〉와 같다.

제품명	부종류	소요량	제조자	배당량	소재지
흰밥	평1호	300,000	영풍어업주식 Co	150,000	삼척
원립		300,000	조선수산수출(주)	150,000	포항
돼지고기조림	휴대	50,000	동창실업 Co	50,000	속초
소고기양채조림	휴대	50,000	유창산업(주)	50,000	제주
멸치파래무침	휴대	50,000	불로식품(주)	50,000	마산
쏘세지조림	휴대	50,000	조일식품공업사	50,000	서울
꽁치조림	휴대	50,000	대림수산(주)	50,000	죽변
오징어조림	휴대	50,000	조일산업(주)	50,000	강구
두부전조림	평3호	50,000	원양수산 Co	50,000	감포
콩자반	평3호	50,000	국제수산(주)	50,000	충무
장조림	평3호	50,000	대한냉동공업 Co	50,000	양포
김치	평3호	150,000	화남산업 Co	150,000	나주
비소대		200 000	동신산업	150,000	대전
부속대		300,000	서울약품	150,000	서울

〈표 2〉 생산품목 수량 하청업자별 배당표

^{*} 출처: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전투식량 30만식 시험 생산계획(1966.10.7), 13쪽.

^{62) 『}매일경제』, 1967년 1월 17일.

⁶³⁾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업무연구서 제1호-전투식량 30만식의 시험생산방법의 연구 (1966,10,17)」.

또한, 대한종합식품은 각 생산공장의 기술책임자를 집합시켜 본 격적인 생산에 따르는 제조기술 및 품질관리 사항을 교육하였다. 당 시 서울에 위치한 조일식품 주식회사에서 대한종합식품의 연구실장 및 기술요원이 강사가 되어 규격해설. 원료신선도 및 배합. 제조방 법, 품질관리법, 위생관리 등을 강의하였다. 또 12명의 훈련된 기술 감독원을 각 생산공장에 상주시켜, 원료의 신선도, 배합 기계조정, 살균조건, 냉각, 보관, 위생 등을 감독하게 하였다. 생산되는 제품 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한종합식품의 연구실에 보내 분석 평가 하도록 하였다. ⁶⁴⁾

통조림 제조를 위한 제관용 시설도 보완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 것은 삼화제관이라는 업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일본으로부터 장 비를 도입 · 설치하였다 국내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일 본 기술진들이 방한하기도 하였다. 1966년 12월 24일 장비도입과 운영에 관한 교육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장비 가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것은 국내 유일의 국제수준의 통조림 제관시설이었다. 이전 까지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여 왔던 내부도장관을 이때부터는 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게 되었던 것이다.65)

시험생산 과정에서 내부적인 검토문제도 제기되었다. 국방부로부 터 사양규격서를 받았으나. 농산물과 수산물 재료의 계절적인 수급 의 제한. 포장에 대한 국내 제조기술의 낙후로 인한 품질의 문제. 현재 국내설비로 미군 레이션 상자규격품 생산의 불가능 등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66) 계절적 영향을 받는 식품재료에 대한 소요량의 적기공급 문제도 고려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⁶⁴⁾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전투식량 30만식 시험 생산계획(1966.10.7)」.

⁶⁵⁾ 삼화제관주식회사. 「삼화제관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낸 문서-수출용 통 조림 공관 및 C-Ration 제조시설 완료와 현황보고(1967.1.17),

⁶⁶⁾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업무연구서 제1호-전투식량 30만식의 시험생산방법의 연구 $(1966.10.17)_{\perp}$

아래 문제들은 해결되었다.⁶⁷⁾ 또한 시험생산과정 중에 미국측의 국내 통조림업계에 대한 산업기술조사도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미 군납의 필수과정 중 하나였다.⁶⁸⁾

시험생산 과정을 거친 뒤 1967년 10월 7일 첫 군납 계약이 체결되고, 본격적인 한국형 전투식량의 생산이 개시되었다. 이후 1968년 5월에는 1968년 7월부터 1969년 6월까지 1년분 11백만 달러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군할 때까지 한국형 전투식량은 계속해서 생산 보급되었다. 69)

4.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 결과

가 식량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

K-레이션의 개발과 보급은 주월한국군의 전투식량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K-레이션의 보급으로 한국군은 한·미및 한·남베트남 간의 협정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한국인의 독특한지방적 욕구'의 식량을 공급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K-레이션의 보급을 통해 당시 주월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A·B· C-레이션을 공급받고, 남베트남군으로부터 쌀과 식염을 공급받는

⁶⁷⁾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업무연구서 제2호-계절품목의 재고투자의 시기 규모 및 방법의 연구(1966.10.27)」. 특히 김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김장철인 11월 하순에서 12월 하순 1개월간으로 이 시기를 노치면 원료획득이 거의 불가능하고, 봄 소채(蔬菜)는 인공재배로 인해 높은 가격이 소요되었다. 또 꽁치, 고등어, 멸치 등 수산물도 계절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컸다.

⁶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통조림 업계에 대한 미측의 산업기술조사 실시 의뢰 (1966.11.25)」.

^{69) 『}매일경제』, 1968년 5월 21일; 『동아일보』, 1968년 5월 24일.

가운데, 국내로부터는 K-레이션과 된장, 고추장 등을 공급받게 되었다. 당시 한국군의 1인당 1일 급식기준은 미군으로부터 A 또는 B-레이션 4.5L/B, C-레이션 1/6박스, 남베트남으로부터는 백미 800g, 식염 15g,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추장 28g, 된장 20g, K-레이션 1/24박스(15개 품목)을 공급받았다. 70) 〈표 3〉은 당시 한국군의 급식기준을 나타낸다.

획득	품 목	단위	급식기준		ш ¬	
부대			주월군	본국	비 고	
미군	A · B-레이션	L/B	4.5		A-레이션: 35개 품목, B-레이션: 22개 품목	
미근	C-레이션	Box	1/6		1일 2식 급식(조·중식), 석식은 K-레이션	
남	백미	g	800	576	백미는 자유급식	
베트남 군 	식염	g	15	20		
	고추장	g	28	10		
본국	된장	æ	20	90		
	K-레이션	Box	1/24		15개 품목(부속대 포함)	

(표 3) 한국군 급식기준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군은 하루에 2끼는 A, B-레이션 또는 C-레이션을 먹었고, 1끼는 K-레이션을 급식하였다. 하루에 1끼는 한국형 전투식량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남베트남으로부터지원받은 백미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한국군은 식량보급면에서 남베트남과 미군 양측으로부터 식량을 제공받고, 국내로부터도 전투식량을 제공받게 됨으로써 당시 채명신 사령관의 언급처럼 국내는 물

^{*} 출처: 주월사 정리단, 『월남전종합연구』, 1199쪽,

⁷⁰⁾ 주월사정리단, 앞의 책, 1199쪽.

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먹는 군대로 불릴만하였다.⁷¹⁾ 또한 쌀 잉 여분이 발생해 이를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대민 구호물자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⁷²⁾

한국형 전투식량은 베트남 파병장병에게만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정부는 파병장병뿐만 아니라 민간 파견기술자들에게도 이것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⁷³⁾ 또한, 국내에서도 1971년 3월 프리덤볼트(Freedom Volt)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이나 1972년 10월 유신당시 계엄군 등에게 제공되면서 국내의 장병들도 한국형 전투식량을 경험할 수 있었다. ⁷⁴⁾

한편, 한국형 전투식량의 미 군납을 통해 한국의 수출실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종합식품은 1968년 1월부터 연간 1200만 달러의 수출을 시작으로, 1973년도까지 총 5,639만 달러의 전투식량을 수출하였다. 75) 이러한 수출실적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였다. 1968년 상공부에 따르면 1968년 9월 기준 1천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올린 회사는 2개, 5백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올린 회사는 7개에 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한국형 전투식량의 군납을 담당했던 대한종합식품은 825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실적 3위업체가 되었다. 또 5백만 달러 이상 기업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76)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의 물품 군납을 통한 외화수입이 1억 8천 8백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중 전투식량이 약 30% 정도의 비

⁷¹⁾ 당시 주월한국군의 식단 열량은 미군 및 남베트남군보다 높았다. 이것은 한국군이 Same Base, Same Level을 적용받아 미군과 동일한 식량을 제공받고, 추가적으로 남베트남군으로부터 쌀과 식염 등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주월사정리단, 앞의 책. 1199쪽.

⁷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3권., 국방부, 2003, 148쪽.

^{73) 『}매일경제』, 1967년 10월 7일.

^{74) 『}동아일보』. 1971년 3월 1일; 『매일경제』, 1972년 10월 21일.

⁷⁵⁾ 주월한국군사령부,「귀국보고(1973)」.

^{76) 『}매일경제』, 1968년 10월 28일.

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⁷⁷⁾

한국형 전투식량의 개발과 생산은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과 전투 식량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국군의 전투식량 개발은 베트 남전쟁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는 비빔밥, 햄 볶음밥, 아몬드케이크. 볶음김치 등 다양한 전투식량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 다. 78) 또한 당시 국내 식품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 니라. 유휴(遊休) 상태에 있던 통조림 공장에 하청을 줌으로써 국내 유휴시설의 활용 및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국가의 지원으로 미 군 납품생산시설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적 수준의 생산 및 위생시 설을 갖추는 성과도 있었다.79)

나 정부주도 특수목적 사업의 효과와 한계

대한종합식품은 파월한국군에 대한 한국형 전투식량 공급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정부주도로 설립된 회사였다. 청와대를 중심으 로 경제기획원, 상공부, 국방부, 외무부, 재무부, 농림부, 산업은행 등 정부 관계부처와 기관의 지원 하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설립목적과 추진과정은 결과적으로 조기에 성과를 이루는 데 기여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수한 설립목적과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 은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베 트남전쟁의 지속여부와 미군에 대한 군납이라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사업초기부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1966년 9월 5일 국내 한 언론은 대한종

⁷⁷⁾ 최동주,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연구』 제11 호, 2001, 212쪽.

^{78) 『}중앙일보』, 2015년 11월 4일,

^{79) 『}경향신문』, 1966년 9월 5일; 『매일경제』, 1967년 10월 7일,

합식품을 '한국적 의지의 표상'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베트남전쟁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통조림의 수출시장개척과 국내소비촉진을 통한 식생활개선책도 진지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⁸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은 1968년 후반부터 베트남에서 부분적인 철군을 시작하였고, 한국군도 1971년 말부터 1단계 철군을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국산전투식량의 납품 규모는 급속히 감소하였다. 실제로 대한종합식품은 1972년까지만 해도 전체 매출액 중 약 65%가 군납이었지만, 1973년엔 약 20~30%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81) 또, 1970년에는 미군납의 주체였던 태평양사령부가 구매계약을 늦추면서 납품량을 추정해 미리 생산했던 통조림의 재고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일도발생하였다. 82)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에서도 주월한국군의 철군에 맞춰 K-레이션 생산계획을 축소 조절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83)

1973년 3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완전철군하면서 대한종합식품은 중대한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내 내수판매와 수출 판로 개척 등 당면과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쇠고기밥, 닭고기밥, 소시지밥, 팥밥, 비빔밥 등 각종 밥통조림, 굴통조림, 삼계탕 및 인삼 주스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해외 수출의 성과도 있었지만, 군납 수요가 사라진 데 따른 위기는 매우 컸다. 그리고, 1974년 대한종합식품의 전액 출자자였던 산업은행이 업체의 대각을 결정하면서 대한종합식품은 한국스레트그룹(벽산그룹의 전신)에 인수되었다. 1988년에는 ㈜펭귄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80) 『}경향신문』, 1966년 9월 5일.

^{81) 『}매일경제』, 1973년 1월 25일.

^{82) 『}매일경제』, 1969년 6월 6일.

⁸³⁾ 국방부, 「작전952-380(1972.11.15), 작전기확국장이 군수기확국장에게 보낸 협조전」.

1991년 진로그룹으로 다시 넘어가는 등의 과정을 거치다 2008년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84)

5 결 론

지금까지 베트남전쟁 시기 파월한국군의 식량보급 문제와 K-레 이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한종합식품의 설립과 역 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베트남전쟁 당시 파월한국군의 식량보급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남 베트남 및 미군의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파병기간이 경 과하면서 한국형 식량보급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한국정부 의 주도하에 K-레이션이라는 <u>하국</u>형 전투식량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종합식품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어 K-레이션의 개 발 및 생산을 담당하였다. K-레이션은 미군 군납을 통해 베트남의 한국군에게 보급되면서 한국군의 전투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외화획 득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의 식량보급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처음으로 개발했던 전투식량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군인들의 전투식량 문제는 현재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현대전쟁은 보 급과 군수의 전쟁이라고 하듯. 군수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 다. 이와 발맞춰 전투식량문제는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계속해서 진 화를 겪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종류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의 편의성을 증진한 전투식량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84) 『}부산일보』, 2013년 12월 23일,

비상식량 및 여가활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전투식량을 응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투식량 발전의 출발점은 바로 베트남전쟁 당시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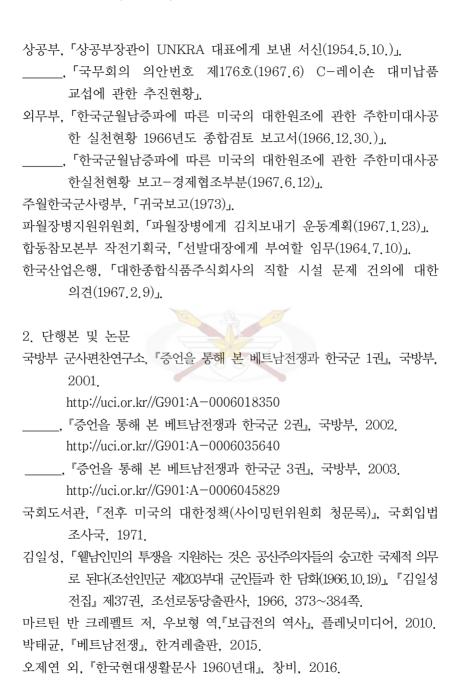
그러나, 이 연구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식량문제 및 전투 식량 개발에 관한 선도적 연구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도 지니고 있다. 먼저,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단계에서 국내 학계 연구자들의 활약에 대한 미시적인 측면의 접근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 군의 전 투식량 개발이 국내 유관산업에 미친 영향도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베트남전쟁시기 한국형 전투식량 개발은 군대와 기업 간의 협업이었다는 점에서 크게는 전쟁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 의 공백이 채워지길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9, 12, 27, 심사수정일: 2020, 2, 6 계재확정일: 2020, 2, 18,)

주제어: 베트남전쟁, 주월한국군, 전투식량,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K-레이션. 네이틱

〈참고문헌〉

1. 1차 사료
경제기획원, 「식료품 공업에 관한 번스틴 처장 회한(1967.1.26)」.
국방부, 「한미실무자급 합의서(1964.9.6)」.
, 「한미군사실무약정서(1965.9.6)」.
, 「한미군사실무자협정서(1965.2.8)」.
, 「한월군사실무약정서(1965.9.5)」.
, 「한월군사실무자 협정서(1965.2.7.)」.
,「작전952-380(1972.11.15.), 작전기획국장이 군수기획국장에게
보낸 협조전」.
농림부,「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행정감독체계 일원화(1968.2.28)」.
대통령비서실, 「보고번호 <mark>제67</mark> -583호, <mark>파월</mark> 장병에 대한 국산전투식량
공급에 관한 건의(1967.8. <mark>31.</mark>)」.
,「보고번호 제67-754호, <mark>파월장병의</mark> 전투식량(C-레이숀) 생산
공급에 관한 보고(1967.10.17.)」.
, 「문서-대비정 1335.21-140, 파월장병전투식량(씨-레이숀) 생
산공급을 위한 긴급부족자금 조치에 관한 지시(1967.10.20)」.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업무연구서 제1호-전투식량 30만식의 시험 생
산방법의 연구(1966.10.17.)」.
, 「전투식량 30만식 시험 생산계획(1966.10.7.)」.
,「업무연구서 제2호-계절품목의 재고투자의 시기 규모 및 방법
의 연구(1966.10.27.)」.
, 「씨레이숀 대미 교섭 경위와 대책에 대한 건의(1966.11.8.)」.
, 「국방장관과 합동군사고문단장과의 회의록(1966.11.7.)」.
, 「통조림 업계에 대한 미측의 산업기술조사 실시 의뢰(1966.11.25)」.
삼화제관주식회사, 「삼화제관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낸 문서-
수출용 통조림 공관 및 C-Ration 제조시설 완료와 현황보고
(1967.1.17).



- 윤충로, 「베트남전쟁 참전의 안과 밖」, 『한국현대생활문사 1960년대』, 창비, 2016, 167~190쪽.
-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군사편찬연구소, 2017. http://uci.or.kr//G901:A-0008082242
-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샘터, 1991.
-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국방부, 1981.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134512
- _____, 『파월한국군전사 제10집』, 국방부, 1985.
-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 주월사정리단, 1974.
-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13. http://uci.or.kr//G701:B-00093047546
- 최동주,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 연구』 제11호(2001.1); 205-244,
 -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5729329.
-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군사편찬연구소, 2007. http://uci.or.kr//G901:A-0006172629
- 파월장병지원위원회, 『자유의 십자군』, 파월장병지원위원회, 1967.

3. 신문 및 인터넷 자료

- 『경향신문』. (1966.12.8). "쌀밥, 김치도 담긴 한국식 C레이션 제조."
- 『경향신문』. (1966.8.31). "종합식품회사 설립."
- 『경향신문』. (1966.9.5). "통조림 월남행."
- 『대한뉴스』. (1966.7.23). "제580호 채명신 장군의 기자회견."
- 『동아일보』. (1968.5.24). "파월군 C레이숀 11백만 달라 한미, 공급계약 체결."
- 『동아일보』. (1969.10.23). "월남에 북괴 심리작전단."
- 『동아일보』. (1971.3.1). "대한종합식품 참가장병들에게 쌀밥통조림 희사."
- 『동아일보』. (1974.11.6). "대한종합식품 완전 민영화."
- 『매일경제』、(1966.5.25), "종합식품 공업부문위 설치."
- 『매일경제』. (1966.9.2). "종합식품회사 발족."
- 『매일경제』. (1967.1.17). "파월장병에 김치 보내기."

『매일경제』. (1967.2.28). "국산 김치통조림 합격."

『매일경제』. (1967.10.7). "식품공업계에 달러·박스."

『매일경제』 (1967.10.23). "C레이션 가공 본격화."

『매일경제』. (1968.1.9). "1백 30만불 획득."

『매일경제』. (1968.5.21). "미, 구매계약을 승인."

『매일경제』. (1969.6.6). "재고처리 골치 C레이션 납품 부진."

『매일경제』. (1968.10.28). "5백만불 이상 9사, 백만불 수출은 71사."

『매일경제』. (1972.10.21). "대한종합식품서 통조림 12만통 계엄사에 기증."

『매일경제』. (1973.1.25). "종합품 올뛰 군납 크게 줄어 내수 판매에 차중."

『부산일보』. (2013.12.23). "[Sea&Talk] (주)펭귄 F&B 김영조 영업이사."

『중앙일보』. (2015.11.4). "미군 전투식량에 피자·파스타...상온서 3년 가."

미국 육군 군인연구발전공학센터(http://nsrdec.army.mil/#/). (검색 일: 2019.10.17).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Type Combat Ration(K-MRE)'s Development Process During the Vietnam War

Lee, Sin-jae

So far, there has been not enough research on the matter of military provisions Korean Forces during the Vietnam War.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combat food for Korean Forces during the Vietnam War and the Korean type combat ration(K-MRE) that emerged to resolve it.

The Korean Forces in Vietnam were basically supplied with food from South Vietnam and the 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in Vietnam. However, as the issue of Korean food was raised continuall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Korea General Foods Co. to resolve the problem of Korean type combat ration, called 'K-Ration' and to achieve results in acquiring foreign currency during the Vietnamese War.

The Vietnam War was the first overseas dispatch of Korean Forces, and it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military. In this regard, the case studies during the Vietnam War are still useful.

Keywords: Vietnam War, Korean Forces in Vietnam, Combat Ration(MRE), Korea General Foods Co(KOGEFOOD), K-Ration, Natick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71-121 https://doi.org/10.29212/mh.2020..114.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소련의 전략문화와 적군(赤軍)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정하*

- 1. 글을 시작하며
- 2.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
 - 가. 출생연도
 - 나. 출생지역
 - 다. 민족(natsional'nost') 및 경제적 배경
 - 라. 러시아 제국군에서의 경력
- 3. 소련의 전략문화: 새로운 군사기술에 대한 태도
- 4. 글을 나가며

1. 글을 시작하며

군사 혁신과 군사교리의 성격은 각 시기의 기술혁신과 그 기술의 군사적 변용에 영향을 받는다. 기술 발전과 그 영향력에 대한 면

^{*} 서울대학교 한국서양사연구회 연구원

밀한 분석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하지만 군사 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과 적용 그 이상을 의미하며, 기술 그 자체가 혁신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군사정책의 집행이 국가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각국 군사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군사기술의 수용 태도나 군사정책의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군사교리의 변화는 결코 고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도 않다. 기술발전 정도, 지정학적 조건, 대외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치체제의 특성, 국내정치적 조건, 민군관계, 전략문화의 직접적인 구현체인 군부 엘리트와 군사조직에 대한 다면적 이해 또한 군사 혁신과 군사교리 연구에 필수적인 이유이다.

소련 군부 연구자에게 지금까지 적군(赤軍)1) 기병과 적군 기병지위관은 '불가촉천민'에 불과하였다. 이들에 관한 근거 없는 수많은 신화가 난무하며, 대체로 그 신화들은 기병 지휘관이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에 보수적이기에 현대전이 요구하는 군사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발전과 새로운 군사기술은,2) 적군 기병의 존재 그 자체를 러시아의 후진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편견은 군사기술과 군사교리 그리고 소련의 당군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히 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구미 각국의 군사 혁신 문제는 단순히 기술도입과 예산확보의 문제를

¹⁾ 러시아 내전에서의 백군(白軍, Belaia armiia)과 대비하여, 본고는 '노농적군(勞農 赤軍: Raboche-kres'ianskaia Krasnaia armiia)'의 약칭인 '적군(赤軍, Krasnaia armi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²⁾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군사기술이 전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맥스 부트, 「Made in War 전쟁이 만든 신세계: 전쟁, 테크놀로지 그리고 역사의 진로』 (플래닛미디어, 2007), pp.229-298; Geoffrey Wawro, "War, Technology, and Industrial Change, 1850-1914," Roger Chickering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War: Vol. 4 War and the Modern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 Pr., 2012), pp.45-68.

넘어서는 개별 국가의 전략적 입장과 국내 정치적 문제 더 나아가 각 군부의 전략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소련의 군사 혁신은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도입에 반대하는 기병 지휘관의 시대착오적 태도'와 '혁신적인 기갑 지휘관의 현대성' 의 충돌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적군 기병과 그 지 휘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소련의 당군 관계를 피상적으로 이해 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군사교리와 군사정책 수립 과정에 내재된 복 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도록 하였다. 3)

이러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군 기병은 러시아 내전에서 적군이 승리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광 활한 전선에서 수행되던 러시아 내전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전선에서 펼쳐진 양상과는 달리, 기동전이 '부활'할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광대한 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력이 부족하다는 요소 등이 후진적인 도로 체계와 맞물리며, 적군 기병과 백군(白軍) 기병 모두 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내전 초반 백군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이나 적군이 결국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모 두 기동력에 기반한 기병 운용에 있었다.

안톤 데니킨(Anton I. Denikin) 예하 백군의 활약으로 1918년 6월 러시아 내전의 주전장인 남부 러시아에서 적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

³⁾ 소련사 특히 군사 문제 연구의 고질적인 사료 부족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경향의 주되 원인은 군사 기술적 사안과 사회정치적 사안을 분리하여 다루는데 기인한다. 새로운 군사기술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경향으로 인해, 많은 역사 연구는 새로운 군사기술과 이를 도입하고자 했던 소수 '혁신적'지휘관 에만 초점을 맞추어 군사 문제를 이해하였다. 소련 붕괴 이후 문서고 혁명의 혜 택을 받았던 연구들도 냉전 시기의 연구 경향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ary R. Habeck, Storm of Steel: Development of Armor Doctrine 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1919-1939 (Ithaca: Cornell Univ. Pr. 2003); Richard W. Harrison,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Lawrence, Kan.: Univ. Pr. of Kansas, 2001).

고 있었다. 그러나 병력 통계에 따르면, 당시 적군은 백군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적군이 남부 전선에서 참패 를 겪고 있던 가장 큰 원인은 백군의 압도적인 기병 병력과 기동력 에 있었다. 백군 기병의 규모는 적군 기병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적군 정치국(Politicheskaia upravlenie RKKA)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남부 전선에서 백군은 보병 4만 5.000명과 기병 4만 명과 야 포 약 130문 그리고 기관총 100정 이상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적군 제8군. 제9군. 제10군은 보병 9만 3.580명. 기병 1만 5.908명. 야포 240문. 기관총 992정을 보유하고 있었다.4) 압도적 인 수의 기병을 앞세운 백군의 전술은 보다 유연했고. 기병을 주 공격선에 대규모로 배치하여 신속한 기동을 통해 적군에게 큰 타격 을 주었다. 5) 내전 초기에 기병의 군사적 가치에 회의적이었고 심지 어 기병이 백군을 상징하는 반혁명적 병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던 적군 지휘부도 1919년 가을이 되면 그 태도를 바꿀 수 밖에 없었 다. 1919년 9월 명령서 "프롤레타리아여! 말을 타라!(Proletarii. na konia!)"에서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기병은 가장 반동적인 계급의 공격과 방어에 중요하게 사용된 무 기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 무기를 그들로부터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6)

⁴⁾ 러시아 국립 군사문서고(Rossiiskii Gosudarstvennyi Voennyi Arkhiv: 이하 RGVA로 표기), f. 9, op. 26, d. 160, ll. 1-6.

⁵⁾ A. S. Bubnov, S. S. Kamenev, R. P. Ideman, and M. N. Tukhachevskii, *Grazhdanskaia voina 1918–1921: Voennoe iskusstvo Krasnoi armii.* 3 vols. (Moscow: "Voennyi vestnik", 1928), vol. 3, p.262.

⁶⁾ L. Trotskii, "Proletarii, na konia!" Voennoe delo, nos. 28-29 (1919), pp.889-891. 적군 지휘부의 태도 변화와 함께,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도 기병대 창설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발표한다. RGVA, f. 4, op. 18, d. 2, ll. 117-119. 이외에도 다음을 보라. V. V. Ovechkin, "Iz' iatie loshadei u naseleniia dlia Krasnoi armii v gody grazhdanskoi voiny," Voprosy istorii, no. 8 (1999), pp.114-124.

러시아 내전은 기병의 전쟁이었다. 7) 덕분에 내전 당시 기병 지휘 관으로 활약했던 인물 다수가 승리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군부 엘리 트층을 형성하였다. 게오르기 주코프(Georgii K. Zhukov), 세묜 티모셴코 (Semen K. Timoshenko), 콘스탄틴 로코솝스키(Konstantin K. Rokossovskii). 키릴 메레츠코프(Kirill A. Meretskov)와 같은 기 병 지휘관이 대표적이다.⁸⁾ 스탈린과 클리멘트 보로실로프(Kliment. E. Voroshilov) 국방인민위원장 그리고 세묜 부됸늬(Semen M. Budennyi) 적군 기병총감과 같은 인물 다수가 기병 지휘관이었거 나 이들 지휘관과 밀접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러시아 내전에서 적군 기병으로 복무한 인물의 영향력은 제2차 세 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25년 소위 '프룬제 개혁'부터 1991년 소련 붕괴까지 소련의 '국방장관'의에 오른 인물은 총 10명이었다.

⁷⁾ 기병의 역할이 크다보니, 백군과 적군 양측 모두 전체 병력에서 기병의 비율이 높 았다. 1919년 중순 데니킨 장군 휘하 11만 명의 백군 중 5만 8.000명이 기병이었 다. RGVA, f. 5, op. 1, d. 188, ll. 106-107, 1920년 브란겔(Petr Nikolaevich Vrangel') 휘하 4개 군단 약 6만 명의 병력 중 거의 3만 명이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RGVA, f. 6. op. 4. d. 641. l. 79. 남부 전선보다도 그 중요도가 떨어졌던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기병의 비중은 높았다. 1919년 콜차크(Aleksandr Vasil'evich Kolchak) 제독 휘하 병력 12만 7,000명 중 대략 3만 3,000명이 기병이었다. RGVA. f. 5. op. 1. d. 188. ll. 106-107. 적군의 경우도 동일하였다. 1918년 중순까지도 적 군의 기병 대 보병 간 비율은 1:9였으나, 폴란드-소비에트 전쟁(Sovetsko-pol'skaia voina, 1919~1921) 기가에는 대략 1:5.5로 변화하다. RGVA, f. 5. op. 1. d. 188. ll. 8-9.

⁸⁾ A. Ia. Soshnikov et al., Sovetskaja kavalerija: Voenno-istoricheskij ocherk (Moscow: Voenizdat, 1984); S. M. Budennyi, Proidennyi put', 3 vols. (Moscow: Voenizdat, 1959–1973); I. V. Tiulenev, Sovetskaia kavaleriia v boiakh za rodinu (Moscow: Voenizdat, 1957); idem., "Kavaleriia,"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4 vols. (Moscow: Voenizdat, 1977), vol. 4, pp.10-15; S. S. Khromov, Grazhdanskaia voina i voennaia interventsiia v SSSR: Entsiklopediia (Moscow: Soviet entsiklopediia, 1983), pp.137-138, 364-367.

^{9) &#}x27;국방장관(Ministr oborony)'은 1953년 이후부터 사용된 호칭이다. 1917~1934년 까지는 '군사해사인민위원(Narodnyi komissar po voennym i morskim delam)'. 1934~1946년까지는 '국방인민위원(Narodnyi komissar oborony). 1946~1950년 까지는 '군무장관(Ministr Vooruzhennykh Sil)', 1950~1953년까지는 '전쟁장관 (Voennyi ministr)' 등의 호칭이 사용되었다.

이들 중 연령상의 이유로 러시아 내전에 참전하지 못했던 3명10)과 지휘관 경험이 전혀 없었던 니콜라이 불가닌(Nikolai A. Bulganin)¹¹⁾을 제외한, 6명이 군부 최고의 지위에 임명되었다. 이들 중 총 4명즉, 보로실로프(재임 기간: 1934~1940년), 티모셴코(재임 기간: 1940~1941년), 주코프(재임 기간: 1955~1957년), 안드레이 그레치코(Andrei A. Grechko, 재임 기간: 1967~1976년)가 러시아 내전에서 기병으로 복무했던 인물들이다.¹²⁾ 이들 모두 내전에서의 전공과 인적 교분을 바탕으로 내전 이후 군부 엘리트층을 형성하였다.¹³⁾즉 기병 지휘관은 소련 군부 엘리트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련 당군 관계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었다.

기존 소련사 연구 특히 군부 관련 연구는 소수 고위 지휘관과 정 치지도자 간의 관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었고, 근거 없는 소문

¹⁰⁾ 이 3명은 1976~1984년 국방장관 드미트리 우스티노프(Dmitrii Fedorovich Ustinov, 1908~1984), 1984~1987년 국방장관 세르게이 소콜로프(Sergei Leonidovich Sokolov, 1911~2012), 그리고 1987~1991년에 소련의 마지막 국방장관을 지낸 드 미트리 야조프(Dmitrii Timofeevich Iazov, 1924~)이다.

¹¹⁾ 니콜라이 불가닌(Nikolai Aleksandrovich Bulganin, 1895~1975)은 스탈린 사후 인 1953~1955년 국방장관 그리고 1955~1958년 소련 수상을 역임하였지만, 러시 아 내전기에는 공안기관이었던 체카(VChK)에서 그리고 내전 이후에는 모스크바에서 당관료로 활동하였다. 소련 원수 계급을 받기는 했지만, 이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국방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¹²⁾ 러시아 내전기에 주코프는 기병 소대 지휘관으로, 그레치코는 사병으로 복무했다. 따라서 러시아 내전 시기의 기병 연대 이상 지휘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본고는 이 두 인물을 다루지 않는다. 이들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V. O. Daines, Zhukov (Moscow: Molodaia gvardiia, 2005); G. K. Zhukov, Vospominaniia i razmyshleniia. 2 vols (Moscow: Olma-Press, 2002); A. A. Grechko, Cherez Karpaty. 2nd ed. (Moscow: Voenizdat, 1972).

¹³⁾ 나머지 2명의 인물은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Aleksandr Mikhailovich Vasilevskii, 1895~1977)와 로디온 말리놉스키(Rodion Iakovlevich Malinovskii, 1898~1967)이다. 이들은 각각 1949~1953년과 1957~1967년에 '국방장관'을 역임하였다. 바실렙스키와 말리놉스키 모두 제국군 부사관 출신이며, 러시아 내전에서 바실렙스키는 서부전선에서 말리놉스키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보병 지휘관으로 복무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vtobiografiia A. M. Vasilevskogo," Voennoistoricheskii zhurnal (이하 Vizh로 표기), no. 4 (1990); V. O. Daines, Vasilevskii (Moscow: Veche, 2012); M. S. Golubovich, Marshal R,Ia. Malinovskii (Moscow: Voenizdat, 1973).

등 소수의 인물이 전하는 상충하는 증언에 기반하고 있었다. 더 나 아가 군사사 연구에 만연한 소수 유명 지휘관에 대한 '열광'과 기술 결정론적 태도 또한 연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기갑 교리와 관련된 미하일 투하쳅스키(Mikhail N. Tukhachevskii)와 그 주변 인물들을 다룬 연구는 많지만. 군부 엘리트로서 소련 당군 관계의 성 격을 좌우했고 향후 '종심작전 이론(Teoriia glubokoi operatsii)' 발전 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적군 기병 지휘관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존 재하지 않았던 것도 이를 반증한다 14)

본고는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군사 교리와 군사사 연구에서 도외시되었던 적군 기병 지휘관을 집단전 기(collective biography)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5) 지휘 관들의 인적 정보와 경력 정보를 토대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밝히고. 소련 군부 엘리트의 형성과 전략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 본고의 목적이다. 16) 지휘관에 관한 분석은 러시아 내전부터 숙

¹⁴⁾ 기병이나 기병 지휘관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것과는 달리, 기갑 병과와 그 지휘관 에 관해서는 연구서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집 또한 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A. O. Belykh eds.. Glavnoe avtobronetankovoe upravlenie: Liudi. sobytiia, fakty v dokumentakh, 5 vols. (Moscow: Ministerstvo oborony RF, 2004-2009); S. A. Maev, Ogon', bronia, manevr. 2 vols. (Moscow: Glavnoe avtobronetankovoe upravlenie MO RF. 1999-2001).

¹⁵⁾ 일반적으로 집단전기(collective biography)는 방대한 전기적 자료에 기반하여. "역사적 행위자의 삶을 집단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행위자 집단의 공통된 배경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L. Stone, "Prosopography," Daedalus, no. 100 (1971), p.46.

¹⁶⁾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연구는 문화적 요소가 군사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한다. 정치문화와 군사문화 그리고 소위 '전략적 선택' 간의 연관성에 천착한 일군의 연구들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한 국가의 뿌리 깊은 '신념의 집합(set of beliefs)'과 역사적 경험이 전략 사고 방식과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형성한 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보라. Jack Snyder,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Nuclear Options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1977); Colin Gray "National Style in Strategy: The American Example," International Security, no. 2 (1981), pp.35-37; Carl Jacobson, Strategic Power: USA/USSR (New York: St. Martin's, 1990).

청 직전이었던 1936년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연대장(급) 이상 기병 지휘관으로 복무한 301명¹⁷⁾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¹⁸⁾ 그러나 지면상의 한계로 본고는 러시아 내전 시기(즉 1917~1922년)에 활동했던 적군 기병 지휘관 154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2.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출생연도

지휘관들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이 러시아 내전 이전 어떤 사회경제적 상태를 경험했는지 가늠 토록 한다. 지휘관 154명 중 출생연도가 확인된 인원은 총 150명이다. 이들의 출생연도는 1857년부터 1899년까지 대략 40년의 편차를 보이지만, 1880년 이전 즉 1857~1879년에 태어나 러시아 내전 발발 당시 37세에서 59세였던 지휘관은 10명(6.7%)에 불과하다. 실제로 최고령 지휘관이었던 1857년생 세르게이 셰이데만(Sergei M.

¹⁷⁾ 필자는 작전 명령서를 포함한 문서고 자료, 간행 사료집, 인명사전, 회고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기반하여, 러시아 내전 시기, 1920년대, 1930년대에 운용되고 있던 기병 부대를 추적한 후 각 시기 연대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던 총 301명의 지휘관의 이력을 러시아 내전 시기부터 1936년 숙청 직전까지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들 지휘관은 시기에 따라 3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즉 러시아 내전 시기에 연대장(급)이상 직책에 있었던 154명, 내전 이후 1920년대에 연대장(급)이상 직책으로 새롭게 승진하였던 61명, 그리고 1930년대(정확히는 1931년에서 숙청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1936년)에 연대장(급)이상의 직책으로 새롭게 승진한 86명의 지휘관이 바로 그것이다. 향후 다른 지면을 통해서 집단적기적 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소개될 기회를 희망한다.

¹⁸⁾ 연대장 이하의 지휘관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들 지휘관 전체를 모두 추적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추적된 지휘관의 경우에도 인적정보 및 경력 정보가 매우 파편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치장교라 할 수 있는 군사 인민위원(voennyi kommissar)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Sheideman)¹⁹⁾과 1860년생 표도르 A. 포드구르스키(Fedor A. Podgurskii)²⁰⁾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출생연도	인원 (명)	비율 (%)	출생연도	인원 (명)	비율 (%)
1857	1	0.7	1887	7	4.7
1860	1	0.7	1888	8	5.3
1866	1	0.7	1889	7	4.7
1872	1	0.7	1890	6	4.0
1877	2	1.3	1891	7	4.7
1878	1	0.7	1892	13	8.7
1879	3	2.0	1893	10	6.7
1880	6	4.0	1894	8	5.3
1881	3	2.0	1895	8	5.3
1882	1	0.7	1896	12	8.0
1883	5	3.3	1897	13	8.7
1884	4	2.7	1898	8	5.3
1885	6	4.0	1899	2	1.3
	총	150	100		

〈표 1〉 적군 기병 지휘관의 출생연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출생연도는 1885년(혁명 당시 31세)에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892년(혁명 당시 24세)에서 1897년 (혁명 당시 19세) 구간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휘관의

¹⁹⁾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셰이데만(Sergei Mikhailovich Sheideman, 1857~1922). 귀족 출신. 전 제국군 장성. 1883년 니콜라이 총참모학교(Nikolaevskaia akademiia General' nogo shtaba) 졸업.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제2군 사령관. 혁명 이후, 두 이들 예브게니 셰이데만(Evgenii Sergeevich Sheideman, 1890~1938)과 알렉산 드르 셰이데만(Aleksandr Sergeevich Sheideman, 1897~1938)과 함께 적군에 자원입대. A. G. Kavtaradze, Voennye spetsialisty na sluzhbe Respubliki Sovetov 1917—1922 gg. (Moscow: Nauka, 1988), p.202, 209, 256.

²⁰⁾ 표도르 알렉산드로비치 포드구르스키(Fedor Aleksandrovich Podgurskii, 1860~1929). 귀족 출신. 전 제국군 장성. 1887년 니콜라이 총참모학교 졸업. 1917년 기병 병과 중장 승진. 1918년 적군 자원입대. 1919년 제13기병사단 지휘관. 1924년 제대. RGVA, f. 1, op. 1, d. 43, l. 302; d. 110, l. 69; d. 113, l. 261, 146, 260, 268, 2734; d. 164, l. 125-126, 117, 134; d. 240, l. 25.

42.7%(64명)가 이 6년 정도의 구간에 해당한다. 구간별 비율의 경우, 1880~1885년 구간 16.7%(25명), 1886~1890년 구간 23.3%(35명), 1891~1895년 구간 30.7%(46명), 그리고 1896~1899년 구간 23.3%(35명)이다. 요컨대, 지휘관의 79.3%에 달하는 총 119명이 1885~1898년에 출생했으며, 혁명 발발 당시 18세에서 32세의 연령대에 속해 있는 동일 세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평균 출생연도는 1888/1889년이다. 따라서 혁명 당시 적 군 기병 지휘관의 평균 연령은 대략 28~29세였다. 지휘관들의 평균 출생연도를 감안하면, 상당수 지휘관의 부모나 조부모가 1861년 농노해방 이전에 농노였을 개연성도 있다. 이들의 생애에서 의미 있는 최초의 정치적 사건은 그들이 대략 15~16세에 발생했던 1905년 혁명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대략 26~27세가 되었을 때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였다. 1905년 혁명을 경험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뒤 다시 1917년 혁명의 소용돌이에 내몰린 이들 '전선귀환병(frontoviki)'에게 러시아내전은 또 다른 '형성 경험(formative experience)'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1)

²¹⁾ 러시아 내전과 '형성 경험'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Sheila Fitzpatrick, "The Civil War as a Formative Experience," Abbott Gleason eds., Bolshevik Culture: Experiment and Order in the Russian Revolution (Bloomington: Indiana Univ. Pr., 1985); Stephen F. Cohen, "Bolshevism and Stalinism," Robert C. Tucker ed. Stalinism: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New York: Norton, 1977).

나 출생지역

기병을 향한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의구심 때문에, 적군 기병은 내전 중반까지 중앙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다. 보병이 나 포병과 같은 병과가 적군 지도부의 계획과 지원을 받았다면 22) 1919년 초중반까지 적군 기병은 지역 파르티잔 지휘관의 지휘하에 제한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조직되었다 23) 즉. 각 지휘관의 고향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파르티잔 조직이 적군 기병의 중핵이 었고. 소규모 파르티잔 조직이 인근 지역의 다른 파르티잔 조직과 병합하면서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24) 백군에 맞선 소규모 기병 파 르티잔 활동이 1918년부터 각 지역에서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병 부대가 1919년 가을 이후에야 적군 지도부의 '추후 승인'을 거쳐 단 대호(單隊號)를 부여받았던 것이나, 러시아 내전 당시 기병 지휘관 으로 복무했던 154명 중 '최소' 112명(72 7%)이 지역 파르티잔 지휘

²²⁾ 적군의 병력충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N. Movchin. "Komplektovanie krasnoi armii v 1918-1920 gg." Bubnov et al., Grazhdanskaia voina, vol. 2, p.86.

²³⁾ 남부 전선 혁명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1918년 봄 로스토프의 살스크 지역에 만도 기병 1.800명 포함 약 6만 명으로 구성된 최소 45개의 파르티잔 조직이 있 었다. RGVA, f. 8383, op. 1, d. 26, l. 8.

²⁴⁾ Budennyi, Proidennyi put', vol. 1, p. 123, 적군 기병 형성은 한마디로 무질서 하게 산재해 있던 다양한 파르티잔 부대들을 일선 지휘관 간의 '비공식적'합의와 병합을 통해 단일 부대로 확대 재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기 병군(Pervaia konnaia armiia)의 최초 기반은 보리스 두멘코(Boris Mokeevich Dumenko. 1888-1920)와 부됸늬가 각각 따로 이끌던 소규모 파르티잔 부대였다. 이 두 지휘관이 지휘하던 소규모 부대는 주변 지역의 다른 소규모 파르티잔 조직 과 병합하면서, "부됸늬 기병군단(Konnyi korpus Budennogo)"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이 기병군단은 두 개의 독립적인 기병사단, 즉 오카 고로도비코프의 제4기병 사단과 티모센코의 제6기병사단을 병합한 결과물이었다. V. L. Genis, "Pervaia konnaia armiia: Za kulisami slavy" Voprosy istorii, no. 12 (1994), pp.95–96. 이 두 개 기병사단 역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소규모 파르티잔 조직을 병합한 것이었다. RGVA. f. 245. op. 4. d. 70. l. 20. 다음도 보라. Ivan V. Tiulenev, Pervaia konnaia v boiakh za sotsialisticheskuiu rodinu: Ocherk boevykh deistvii (Moscow: Gosvoenizdat., 1938), pp.3-7.

관으로 활동하다 이후 적군 지도부의 정식 임명을 받았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 물론, 제국군 기병으로 복무한 경력을 인정받거나, 보병사단의 소규모 별동 기병대 지휘관으로 복무하거나, 혹은 기병의 군사적 역할이 강조되었던 1919년 이후 중앙정부의 기병 확대 정책으로 기병으로 복무하게 된 지휘관도 상당수 있었다. 25) 그러나 적군 기병 상당수가 다양한 파르티잔 조직에 기반하고 있었던 점과함께, 전투를 거치면서 소규모 파르티잔 조직의 개별 작전만으로는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체'병합을 통해 확대 재편되었던 점은 기병을 다른 병과와 구별 짓는 주요한 특징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출생연도만큼 중요한 요소는 지휘관의 출생지역이다. 어떤 지휘관이 어떤 부대에서 어떤 인물과 같이 복무했는가라는 문제는 그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 어느 지역에서 파르티잔 활동을 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출생지역 분포는 뚜렷한 지역적 편중을 보인다. 출생지역의 추적이 가능했던 총 144명의지휘관 중.²⁶⁾ 72.2% 즉 104명은 남부 러시아, 구체적으로는 우크

²⁵⁾ 카자크 출신 전 제국군 대령이었던 필리프 미로노프(Filipp Kuz' mich Mironov, 1872~1921)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미로노프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였던 1916년부터 제32 돈 카자크 연대 부지휘관이었으나, 1917년 말 연대병력 전체와 함께 적군에 합류하였다. 합류 직후인 1918년부터 제32 돈 자카크 연대 지휘관에 임명되었고, 반란 혐의로 체포되기 전인 1920년 9~12월까지는 제2기병군(2-ia Konnaia armiia) 지휘관에 임명되었다. 다음을 보라. Sergei Starikov and Roy A. Medvedev, Philip Mironov and the Russian Civil War (New York: Knopf, 1978); N. A. Sokolov-Sokolenok, Po putevke komsomol'skoi (Moscow: Voenizdat, 1987), pp.114-124; A. I. Boiarchkov ed., Vospominaniia (Moscow: AST, 2003), pp.69-82; V. Danilova eds., Filipp Mironov: Tikhii Don v 1917-1921 gg: Dokumenty i materialy (Moscow: "Demokratiia", 1997). 제2기병군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N. Efimov, Deistiia 2-oi Konnoi Armii v 1920 godu (Moscow: Voenizdat, 1926).

²⁶⁾ 다음 10명의 지휘관 즉, 바실리 고닌(Vasilii Matveevich Gonin, ?~1940), 게오르기 에키모프(Georgii Mikhailovich Ekimov, ?~1920), 그리고리 콜파코프 (Grigorii Grigori evich Kolpakov, ?~1920), 보리스 포포프-라덴스키(Boris Mikhailovich Popov-Ramenskii, 1896~1938), 그리고리 오쿠네프(Grigorii Ivanovich Okunev, 1888~1930), 알렉산드르 먈콥스키(Aleksandr Ivanovich Mialkovskii, 1887~?), 바르폴로메이 드미트리예코(Varfolomei Ivanovich Dmitrienko,

라이나, 돈바스(Donbas) 지역, 북캅카스 지역 출신이었다. 가장 높은 수치는 돈바스 지역으로 총 57명(39.6%)의 지휘관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 파르티잔 활동을 펼쳤던 인물들이 이후 제1기병군(Pervaia konnaia armiia) 예하 제4, 제6, 제11 기병사단의 지휘관을 형성한다. 그 다음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47명(32.6%)이여기에 해당하며, 이 지역 출생 지휘관은 이후 비탈리 프리마코프(V. M. Primakov)의 '제8 붉은 카자크 기병사단(8-ia kavaleriiskaia diviziia Chervonnogo kazachestva)'과 그리고리 코톱스키(G. I. Kotovskii)²⁷⁾의 '제17 붉은 카자크 기병사단(17-ia kavaleriiskaia diviziia Chervonnogo kazachestva)'의 주축이 된다.²⁸⁾

^{1896~1938),} 블라디미르 네스테로비치(Vladimir Stepanovich Nesterovich, 1895~1925), 이반 보이틔나(Ivan Antonovich Voityna, 1880~?), 그리고 미하일 메이에르(Mikhail Georgievich Meier, 1887~1920)의 출생지역은 확인할 수없었다.

²⁷⁾ 그리고리 코톱스키(Grigorii Ivanovich Kotovskii, 1881~1925). 우크라이나계 소 상공인 출신. 전 제국군 준시관. 1918년 적군 입대. 1924년 암살. 코톱스키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seph L. Wieczynski eds.,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이하 MERSH로 표기), 55 vols. (Gulf Breeze, Fla.: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1976-), vol. 18, pp.76-79; A. S. Esaulenko eds., Kotovtsy: Biograficheskie ocherki (Kishinev: Izd. Kartia Molodoveniaske, 1979), pp.179-182; A. F. Tkachenko, Rossiiskie deiateli Ukrainskogo proiskhozhdeniia: Istoriia otnoshenii Ukrainy i Rossii v litsakh za 337 let (1654-1991). Entsiklopedicheskii spravochnik (Kiev: Aristei, 2005). p. 74; Anatolii P. Shikman, Deiateli otechestvennoi istorii: Biograficheskii slovar'-spravochnik (Moscow: AST, 1997), vol. 1, p.410.

^{28) &#}x27;붉은 카자크(Chervonnoe kazachestvo)'로 불리지만, 카자크의 이미지를 차용했을 뿐이지 실제로 카자크로 구성된 부대는 아니었다. 프리마코프 예하 기병사단 또한 애초 우크라이나 지역의 파르티잔 부대의 병합으로 확대 재편된 부대이다. 1919년 5월 이후 남부 전선에 파견되었다. RGVA, f. 33988, op. 2, d. 145, l. 198. 1919년 12월 4일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명령 제2062/442호로 사단은 '제8 붉은 카자크 기병사단(8-ia kavaleriiskaia Chervonnogo kazachestva)' 이라는 호칭을 부여받는다. RGVA, f. 14, op. 1, d. 4, ll. 18-19; V.A. Antonov-Ovseenko, Zapiski o grazhdanskoi voine, 4 vols. (Moscow: 1924-1933), vol. 2, p.95. 제8기병사단은 1920년 12월 13일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명령 제 2797/559호로 제17기병사단과 통합되어 제1 키예프 기병군단(1-i Kievskii konnyi korps)으로 재편된다. A. Martynova ed., Chervonoe kazachestvo: Sbornik

중앙 동원기관에 의해 러시아 전역에서 충원되었던 여타 병과와 달리, 지휘관들의 출생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적군 기병이 지역 파르티잔 조직을 기반으로 시작된 데에서 비롯되 었다. 달리 말해. 적군 기병 부대의 상당수가 특정 지역의 파르티잔 조직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관들 또한 특정 지역 출 신자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29)

다. 민족(natsional'nost') 및 경제적 배경

적군 기병에 관한 통념 중 하나는 적군 기병 대부분이 카자크이 며, 이들이 혁명과 내전의 혼란 속에서 등장한 "약탈에 굶주린" 비 적(匪賊)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많은 연구자에게 적군 기병은 "볼 셰비키 진영에서 싸운다는 점을 제외하면, 볼셰비키의 정책과는 아 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 대부분은 카자크이며. 적군의 군사적 승리 를 약탈에 이용하기 위한 파르티잔이나 비적떼에 불과했다."30) 적 군 기병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전혀 근거가 없다.

적군 기병 지휘관 대부분은 카자크가 아니었다. 민족 정보가 확 인된 총 148명31)의 지휘관 중 카자크는 26명(17.6%)에 불과했다.

materialov po istorii Chervonogo kazachestva (Khar' kov. 1923–1924), pp.114–116.

²⁹⁾ 지휘관뿐만 아니라 부대원 전원이 한 마을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경우도 빈번하였 다. RGVA, f. 245, op. 1, d. 70, l. 20.

³⁰⁾ Norman Davies, Whites Eagle, Red Star: The Polish-Soviet War (New York: St. Martin's, 1972), p.17. 다음도 보라. Thomas Fiddick, "The Miracle of the Vistula: Soviet Policy versus Red Army Strategy," Journal of Modern History, no. 4 (1973), p.639; W. Bruce Lincoln, Red Victory: A History of the Russian Civil War 1918–1921 (New York: Simon & Schuster, 1989).

³¹⁾ 다음 6명의 민족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6명의 지휘관은 알렉세이 바딘 (Aleksei Lavrent'evich Badin, 1887~1935), 그리고리 바투린(1880~1925), 표 트르 추구노프(Petr Petrovich Chugunov, 1881~1922). 엘리세이 고랴초프 (Elisei Ivanovich Goriachev, 1892~1938), 게오르기 코체르긴(Georgii Anatol' evich Kochergin. 1885~1934). 그리고리 스토수이(Grigorii Osipovich

이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대략 80%(총 122명)가 넘는 지휘관이 카자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실제 지휘관의 대부분은 러시아인(77 명. 52.0%)과 우크라이나인(21명, 14.2%)이었다. 즉, 적군 기병 지 휘관의 과반수를 넘는 총 98명(66.2%)이 카자크가 아닌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었다. 그 밖의 민족으로는 유대인 8명(5.4%). 벨라 루스인 4명(2.7%). 폴란드인 3명(2.0%). 아르메니아인 2명(1.4%)이 있다. 이외에도 칼미크인 32) 리투아니아인 33) 세르비아인 34) 독일

Stosui. 1880~1937)이다.

³²⁾ 오카 고로도비코프(Oka Ivanovich Gorodovikov, 1870~1960), 농민 출신, 전 부사관. 부됸늬와 함께 파르티잔 활동. 1920년 제2기병군 지휘관. 1938년 적군 기병총감. I. V. Stavitskii ed., Oka Gorodovikov: Vospominaniia, issledovaniia, dokumenty (Elista: Kalmytskoe knish, izdat., 1976); I. L. Obertas, General Oka Gorodovikov (Elista: Kalmytskoe knish. izdat., 1970). 고로도비코프의 저 작도 참고하라. O. I. Gorodovikov, Vospominaniia (Moscow: Voenizdat, 1957); idem, V riadakh Pervoi konnoi: rasskazy konarmeitsa (Moscow: Voenizdat, 1939); idem., Rozhdenie Pervoi konnoi (Tashkent: Gosizdat UzSSR, 1936); idem, Konnitsa proshlogo i 2-ia Konnaia v Severnoi Tavrii (Tashkenk: Gosizdat UzSSR, 1937); idem., Konnitsa v Otechestvennoi voine (Iz opyta boevykh deistvii) (Moscow: Voenizdat, 1942).

³³⁾ 펠릭스 발투시스-제마이티스(Feliks Rafailvich Baltushis-Zhemaitis, 1897~1957). 전 기병 장교. 1939~1940년 총참모군사학교 선임교관. 1940년 리투아니아 인민 군 총참모장. A. I. Eremenko, Gody vozmezdiia 1943-1945 (Moscow: 'Finansy i statistika', 1985), 2nd ed., p.69; G. K. Zhukov, Vospominaniia i razmyshleniia, 2 vols. (Moscow: Olma-Press, 2002), vol. 1, pp.108-109; E. Ia. Iatsovskis, Zabveniiu ne podlezhit (Moscow: Voenizdat, 1985), p.52; Iu. I. Paletskis, V dvukh mirakh (Moscow: Izd. Polit, Lit., 1974), p.48; O. F. Zhemaitis, "Vosstanie v g. Shiauliae v kontse 1918-nachale 1919 godov i suď ba ego rukovoditelia," Voprosy istorii, no. 4 (2003); idem., "Pervyi boi 16-i Litovskoi strelkovoi divizii," VIZh, no. 6 (2005).

³⁴⁾ 다닐로 세르디치(Daniilo Fedorovich Serdich, 1896~1937). 농민 출신. 전 부 사관. 1918년 1월부터 유고슬라비아인과 헝가리인으로 구성된 파르티잔 부대 지휘. RGVA, f. 28361, op. 3, d. 838, l. 13. 1937년 벨라루스 군관구 소속 제 3군단 지휘관. 내전 당시 제1기병군 복무. 세르디치와 부됸늬의 관계에 대해서 는 다음을 보라. D. F. Serdich, "Pervaia vstrecha s Budennym," *Pervaia* konnaia v izobrazhenii ee voitsov i komandirov (Moscow: Gosizdat, 1930). pp.85-88. 다음도 보라. I. D. Ochak, Danilo Serdich: Krasnyi komandir (Moscow: Politicheskoi literatury, 1964).

인,³⁵⁾ 그루지아인,³⁶⁾ 잉구시인,³⁷⁾ 그리고 라트비아인³⁸⁾ 지휘관이 각각 1명씩이었다.

	비율 (%)	인원수
카자크	17.6	26
러시아	52.0	77
우크라이나	14.2	21
유대	5.4	8
벨라루스	2.7	4
폴란드	2.0	3
아르메니아	1.4	2
기타	4.7	7
총합	100	148

(표 2) 적군 기병 지휘관의 민족 구성

카자크가 민족개념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사회계층을 의미한다면,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확인된 총 146명의 지휘관³⁹⁾ 중, 카자크 26명(17.8%)을 제외

³⁵⁾ 니콜라이 블륨(Nikolai Iakovlevich Blium, 1893~1942). 사무직 노동자 출신. 전 주사관.

³⁶⁾ 바실리 키크비드제(Vasilii Isidorovich Kikvidze, 1895~1919). 시무직 노동자 출신, 제국군 사병. 1919년 1월 11일 전투 중 사망. V. Petrov, "Proslavlennyi nachdiv V. I. Kikvidze," *VIZh*, no. 2 (1975), pp.117-120; M. I. Buzukashvili, *Nachdiv Kikvidze* (Moscow: Voenizdat, 1977).

³⁷⁾ 보리스 라비놉스키(Boris Iakovlevich Lavinovskii, 1896~1936). 농민 출신. 제 국군 장교. 1917년 적군 입대. 1921년 제14 별동기병여단 예하 제2기병연대 지휘 관. 1926년 공군으로 병과 이동.

³⁸⁾ 에두아르드 빌룸손(Eduard Fridrikhovich Vilumson, 1893~1931). 농민 출신. 전 장교. P. S. Korovin ed., *Orskaia biograficheskaia entsiklopediia* (Orenburg: 'Iuzhnyi Ural', 2005), p.48.

^{39) 154}명의 지휘관 중 다음 8명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알렉세이 바딘(Aleksei Lavrent' evich Badin, 1887~1935), 미론 폴루노프(Miron L' vovich

한 120명 대부분은 농민(64명, 43.8%)이었다. 나머지 지휘관의 사 회경제적 배경은 귀족(18명, 12 3%), 사무직 노동자(sluzhashchie, 40) 11명. 7 5%)와 노동자(10명. 6 8%) 순이다

	비율 (%)	인원수
카자크	17.8	26
농민	43.8	64
노동자	6.8	10
귀족	12.3	18
사무직 노동자	7.5	11
인텔리겐치(01/41)	4.8	7
소상공인(Meshchanstvo)	2.7	4
수공업자	2.0	3
사제	2.0	3
총합	100	146

(표 3) 적군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러한 수치는 당시 적군 기병과 관련된 몇몇 보고와도 일맥상통 한다. 예컨대 제1기병군의 경우, 내전 막바지인 1920년 말 지휘관 과 사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2%는 농민, 14%는 카자크. 20%는 노동자, 4%는 인텔리겐치야 출신이었다. ⁴²⁾ 비록 이 자료에 보고된 농민의 비율이 지휘관의 농민 비율(43.8%)보다 높기는 했지

Polunov, 1892~1937), 그리고리 스토수이(Grigorii Osipovich Stosui, 1880~ 1937). 보리스 아카토프(Boris Nikolaevich Akatov. 1899~1938). 엘리세이 고랴 초프(Elisei Ivanovich Goriachev, 1892~1938), 바실리 크류첸킨(Vasilii Dmitrievich Kriuchenkin. 1894~1976). 그리고리 오쿠네프(Grigorii Ivanovich Okunev. 1888~1930). 예브게니 주라블료프(Evgenii Petrovich Zhuravlev. 1896~1983).

⁴⁰⁾ 하급 공직자나 사기업의 경리직까지도 포함한 사무직 종사자.

⁴¹⁾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까지도 포함.

⁴²⁾ RGVA, f. 4, op. 9, d. 21, ll. 2-4. 다음도 참고하라. Tiulenev, Pervaia konnaia v boiakh, p.3.

만, 이 수치 역시 지휘관의 대다수가 카자크가 아니라 농민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평균적인 적군 기병 지휘관'은 1890년 즈음 남부 러시아 농민 가정에서 출생한 러시아인 혹은 우크라이나인이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이노고로드니예(Inogorodnie)'였다.

이노고로드니예는 1861년 농노해방 이후 카자크가 보유하고 있던 비옥한 남부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비(非) 카자크를 의미한다. 43) 러시아 제국에서 전통적으로 카자크는 제국군에서 기병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자치권과 토지소유권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44) 카자크와 이노고로드니예 간 사회경제적 차이는 러시아 내전기 남부 러시아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 기병과 그 형성을 이해할 때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노고로드니예는 남부 러시아에서 농업노동자혹은 소작인으로 생활했으나, 토지에 관한 여러 문제와 소작문제로 카자크와 첨예한 긴장을 빚고 있었다. 45)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남부 러시아 전체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카자크가 이지역 토지의 약 80%를 소유하고 있었다. 46) 1917년 농업통계에 따

⁴³⁾ 이노고로드니예는 1861년 농노해방 이후 남부 러시아지역에 이주-정착하였던 다양한 집단을 의미한다. 1917년경이 되면, 카자크가 이 지역 인구의 소수자가 되어버린다. 이 지역에서 카자크를 대표하였던 돈 카자크와 쿠반 카자크는 전체 인구중 단지 약 43%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Semen S. Khromov, *Grazhdanskaia voina i voennaia interventsiia v SSSR: Entsiklopedia* (Moscow: Sovetskaia entsiklopediia, 1983), p,199, 310.

⁴⁴⁾ Shane O'Rourke, *The Cossack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7); Robert H. McNeal, *Tsar and Cossack, 1855~1914* (New York: St. Martin's, 1987).

⁴⁵⁾ 이노고로드니예 관해서는 다음도 참고하라. 구자정, 「러시아 혁명기 쿠반 카자크 분리주의(Samostiinost')의 기원을 찾아서-19세기 말 20세기 초 남부 러시아 쿠 반 지역의 이노고로드니예 문제」, 『슬라브학보』 제29권 2호 (2014), pp.47~80; Peter Kenez, Civil War in South Russia, 1919-1920: The Defeat of the Whi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p.112-139.

⁴⁶⁾ Konstantin A. Khmelevskii, *Krakh krasnovshchiny i nemetskoi interventsii na donu (aprel' 1918–mart 1919 goda)* (Rostov: Izdat, Rostovskogo universiteta, 1965), pp.20–22.

르면, 남부 러시아 인구 중 약 25%가 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었 고, 이는 결국 대다수 농민은 소작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 하였다. 카자크 중에서도 빈농이 있었지만 이노고로드니예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이들 중 약 94.8%는 어떤 토지도 소 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7) 농노의 손자이자 그 자신이 이노고로드 니예였던 부됸늬가 회고하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돈강 인근의 토지 는 카자크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노고로드니예는 카자크의 토지에서 소작을 하거나 농번기에 날품팔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노고로드 니예가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48) 이 노고로드니예 입장에서 카자크가 누리는 특권과 토지는 분노의 대 삿이었다

경제적 조건이 이노고로드니예에 비해 좋았다고 하더라도 카자크 내부에서도 19세기 러시아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분화가 심각하였다. 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정치국의 세르게이 구세프 (Sergei I. Gusev)가 "적군 기병의 일부는 소비에트 정권을 따르는 빈곤한 카자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49)고 지적했듯이. 당시의 현 실에 불만을 품었던 빈곤한 카자크도 적군 기병의 주요 충원기반이 었다. 50) 특히 전선에서 돌아온 카자크 출신 '전선 귀환병'은 자신들 이 처한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 1918년 4월 초 돈 지

⁴⁷⁾ Vladimir A. Zolotov and Aleksandr P. Pronshtein, Za zemliu, za voliu: Iz istorii narodnykh dvizhenii na Donu (Rostov: Rostovskoe knizh. Izd., 1974), p.214.

⁴⁸⁾ Budennyi, Proidennyi put', vol. 1, p. 9. 당시 혁명군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 서에서도 적군 기병의 60% 이상이 이노고로드니예라고 명시하고 있다. RGASPI. f. 74, op. 1, d. 408, l. 201.

⁴⁹⁾ Voennyi vestnik, nos. 2-3 (1921), p.16.

⁵⁰⁾ 몇몇 연구에 따르면, 카자크 중 24.6%는 빈곤층이었고, 특히 북부지역과 북동지역 에서 이 비율은 더욱 높았다. Aleksandr I. Kozlov, Na istoricheskom povorote (Rostov: Izd-vo Rostovskogo universiteta, 1977), p.114; A. P. Pronshtein, Istoriia Dona s drevneishikh vremen do padeniia krepostnogo prava (Rostov: Izdat. Rostovskogo universiteta, 1973), p.201.

역에서만 이노고로드니예뿐만 아니라 전선에서 귀환한 카자크로 구성된 120개의 소비에트가 존재하고 있었다. 51) 전선에서 생존하여 자신의 고향인 남부 러시아의 스타브로폴(Stavropol')로 돌아왔으며 이후 제2기병군 지휘관이 될 고로도비코프는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빈곤한 카자크와 이노고로드니예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갔다. 불만은 전선에서 돌아온 병사들에 의해 카자크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빈농이 카자크 지주를 위협하여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52)

남부 러시아의 빈곤층이었던 이노고로드니예와 상당수 카자크가 경험했던 사회경제적 상황이 이 지역에서 적군 기병을 형성하는 데 큰 동기를 부여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는 적군 기병 지휘관의 출생 지역이 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라. 러시아 제국군에서의 경력

내전이 진행되면서, 지휘관 부족에 시달리던 적군 지휘부는 소위 '군사 전문가(Voenspetsy)'라고 불렸던 제국군 장교 출신을 영입할수밖에 없었다. 내전 막바지에 적군 지휘관의 약 1/3이 전 제국군 장교였으며, 20명의 전선군(front)⁵³⁾ 지휘관 중 17명이 전 제국군 장교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지휘관급에서는 그 수치가 더 높았다. 사단과 군단급 지휘관 중 83%,⁵⁴⁾ 군관구 지휘관의 54%,

⁵¹⁾ 남부 러시아에서의 소비에트 건설과정은 다음을 보라. Sergei A. Smirnov and Anzhelina P. Kupaigorodskaia, *Vyrosli my v plameni: Zapiski voennogo kommissara* (Leningrad: Lenizdat, 1976), p.76; D. I. Riabyshev, *V ogne boev* (Rostov: Rostovskoe knish, Izdat., 1972), p.43.

⁵²⁾ Gorodovikov, Vospominaniia, p.44.

⁵³⁾ 전선군(戰線軍; *front*)은 19세기 중후반 러시아 제국군에서 처음 사용된 군 편제 이다. 규모는 40만~150만 명으로 다양하였다.

⁵⁴⁾ Kavtaradze, Voennye spetsialisty, pp.208~209.

보병 연대 지휘관의 82%와 포병 연대 지휘관의 89%가 제국군 장 교 출신이었다.55) 즉. 연대급 이상 부대 지휘관 중 제국군 장교 출 신이 아닌 경우는 15% 이하였다. 56)

그러나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파르티잔 조직에 기반하여 발전한 특징으로 인해. 적군 기병은 다른 병과와는 매우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적군 기병 지휘관 대부분은 제국군에서 부사관 혹은 사 병으로 근무하던 인물이었다.57) 133명의 지휘관 중.58) 69명 (51.9%)은 장교 출신이었으나 나머지 64명(48.1%)은 부사관이나 사 병으로 복무했던 지휘관이었다. 보병 병과와 포병 병과에서 장교출 신자의 비율이 최소한 80%가 넘었음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69명이라는 제국군 장교출신 자의 수치에는 32명의 준사관(praporshchik)59)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69명의 제국군 장교 출신 중 37명의 '기간(kadrovyi)'장교 를 제외한 32명은 준사관이었다. 준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초

⁵⁵⁾ Sergei A. Fediukin, Sovetskaia vlast' i bruzhuaznye spetsialisty (Moscow: Mysl'. 1965), p.77.

⁵⁶⁾ Kavtaradze, Voennye spetsialisty, p.210; P. A. Shevotsukov, Stranitsy istorii grazhdanskoi voiny: Vzgliad cherez desiatiletiia (Moscow: Prosveshchenie, 1992), p.37.

⁵⁷⁾ Sergei S. Kamenev. Zapiskio grazhdanskoi voinei voennom stroitel'stve (Moscow: Voenizdat, 1963), p.140.

^{58) 154}명의 지휘관 중, 러시아 내전 이전에 복무 경험이 전혀 없던 인물도 13명이나 되었다. 복무 경험이 없던 13명을 제외한 총 141명 중 다음 8명의 과거 군경력 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게오르기 키모프(Georgii Mikhailovich Ekimov, ?~1920). 바실리 고닌(Vasilii Matveevich Gonin, ?~1940), 표도르 모로조프(Fedor Maksimovich Morozov, 1892~1920), 미론 폴루노프(Miron L'vovich Polunov, 1892~1937), 니콜라이 포포프(Nikolai Zakharovich Popov, 1899~1937), 보리 스 아카토프(Boris Nikolaevich Akatov. 1899~1938). 알렉산드르 일류쉬 (Aleksandr Kuz'mich Iliushin, 1888~1938), 예브게니 쉬베초프(Evgenii Nikolaevich Shvetsov, 1886~1937).

⁵⁹⁾ Praporshchik은 제국군의 준사관 계급을 의미한다. 이 계급은 1917년에 폐지 된다.

급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부사관과 사병을 대상으로 설립된 준사관학교(shkola praporshchikova)에서 단기간 집중훈련을 받고 배출된 장교였다.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부사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고려하면, 적군 기병 지휘관의 구성 중 제국군 장교 출신은 대략27.8%(37명)에 불과하다. 반면 부사관과 사병의 비중은 72.2%(96명)로 증가한다. 더 나아가 이 수치에 복무 경험이 없었던 13명의지휘관까지 포함 시킨다면, 적군 기병에서 제국군 장교 출신의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실제로 준사관 출신과 부사관 출신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동일하였다. 37명의 기간 장교 중, 귀족 출신은 16명(43,2%)이었으나, 32명의 준사관 출신 지휘관 중 귀족 출신은 유리 사블린(Iu. V. Sablin)이 유일하였다. 60) 부사관 출신 지휘관의 경우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단기교육을 통해 장교가 된 32명의 준사관 중, 48,4%(15명)은 농민 출신, 12,9%(4명)은 노동자 출신, 그리고 9.7%(3명)은 카자크였다. 61) 이러한 적군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과거 군경력은 새로운 군사기술 수용을 포함한 전략문화적특징이라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⁶⁰⁾ 유리 사블린(Iurii Vladimirovich Sablin, 1897~1937). 에스토니아 타르투 (Tartu) 출생. 1915년 모스크바 상업학교(Moskovskii kommercheskii institut) 재학 중 사회주의자—혁명가당(Partiia sotsialistov—revoliutsionerov) 입당. 1917년 제16기병사단 지휘관. 1921~1924년 우크라이나 군관구 예하 제46보병사단 지휘관. 1925년 비행학교 졸업. 1925~1931년 우크라이나 군관구 예하 제99 보병사단 지휘관. 1936년 트로츠키파 반혁명 음모로 체포 및 처형. 다음을 보라. MERSH, vol. 33, pp.11—14; Heinrich E. Schulz eds., Who Was Who in the USSR: A Biographic Directory Containing 5,015 Biographies of Prominent Soviet Historical Personalitie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2), p.490; V. Polikarpov, "Komdiv Sablin," VIZh, no. 8 (1965), pp.31~39; A. Vertinskii, Dorogoi dlinnoiu (Moscow: Pravda, 1990), p.115.

⁶¹⁾ 나머지 9명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수공업자(2명), 사무직 노동자(2명), 인텔리겐치 야(2), 소상공인(2명), 사제(1명)였다.

3 소련의 전략문화: 새로운 군사기술에 대한 태도

적군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의미 가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적군 기병 지휘관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출신 농민이었으며, 군경험이 있 던 인물은 제국군에서 주로 부사관과 사병으로 복무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19세기 후반 기병과 관련된 제국군의 군사정책. 즉 1882년 의 소위 '용기병개혁(Dragunskaia reforma)'과 어우러지면서, 적군 기병 지휘관이 새로운 군사기술의 수용에 있어 백군 기병을 포함한 여타 국가의 기병과는 다른 문화와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1866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Austro-Prussian War)과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Franco-Prussian War)은 산업혁명 의 영향력이 군사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전쟁이었다. 새로운 상황 에서 기병의 역할은 감소하였고. 전투의 결과는 이제 보병과 포병의 화력 운용이 결정하는 듯이 보였다.62) 기병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 제국군에서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검류와 기병 돌 격에 집착했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제국군 기병의 새로운 기술 에 대한 대응과 수용은 유연했으며 실용적이었다. 기병 총감으로 '용기병개혁'을 주도하였던 니콜라이 수호틴(Nikolai N. Sukhotin) 은 적절한 개혁과 운용이 있다면, 기병의 군사적 역할은 여전히 유 효하다고 생각했다.63) 그는 미국 남북전쟁이 기병의 새로운 전술-

⁶²⁾ Geoffrey Wawro, The Austro-Prussian War: Austria's War with Prussia and Italy in 1866 (Cambridge: Cambridge Univ. Pr., 1996), pp.290-291; Michael Howard, Franco-Prussian War, (New York: Routledge), pp.115-118.

⁶³⁾ 수호틴은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이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N. N. Sukhotin. Reidy i poiski kavalerii vo vremia amerikanskoi voiny 1861-65 (Moscow: Shtab Moskovskogo voennogo okruga. 1875). 비슷한 시기 군사이론가였던 겐 리히 레에르(Genrikh Antonovich Leer)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G. A. Leer. Publichnye lektsii o voine 1870-71 godov mezhdu Frantsiei i Germaniei

전략적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특히 화기로 무장한 대규모 기병의 전략적 거점에 대한 기습이야말로 남부군으로 하여금 북부군의 수적 우세를 상쇄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군사기술로 인해 높아진 화력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으며, 화력만 적절히 결합한다면 기병이 가지고 있는 기동력은 더욱 큰 역할을 할 터였다. 64) 1882년에 러시아 제국군은 경기병(hussar)과 창기병(uhlan)을 용기병(dragoon)으로 전환하였다. 14개 창기병 연대와 14개 경기병 연대전체를 용기병으로 전환시켜 총 46개의 용기병연대를 제국군 '정규' 기병으로 보유하게 된다. 65) 소총과 대검으로 무장하고 기존의 기동력에 더해 증강된 화력을 결합한 새로운 기병이, 새로운 군사기술과 달라진 전장에 대한 러시아 제국군 기병의 해법이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적군 지휘관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것은, '용기 병개혁'이 황실 소속이었던 카자크 부대나 근위 연대, 이민족 부대 (inordnye voiska)⁶⁶⁾ 등의 '비정규군(irreguliarnykh voiskakh)'에게

ot Sedana do kontsa voiny (St. Petersburg: Departament udelov, 1873), pp.16-17.

⁶⁴⁾ Sukhotin, *Reidy i poiski kavalerii*, pp. 221-222. 다음도 보라. P. A. Zaionchkovskii, *Samoderzhavie i russkaia armiia na rubezhe XIX-XX stoletii*, 1881-1903 (Moscow: Mysl', 1973), pp.203-205.

⁶⁵⁾ Nikolai Sukhotin, "Zametka o kavalerii," Voennyi sbornik, no. 8 (1874), pp.295-299. 당시 이러한 생각은 다른 많은 군사이론가의 지지를 받았다. N. D. Novitskii, "Zametki o boevoi naznachenii i obuchenii kavalerii," Voennyi sbornik, no. 3 (1876), pp.61-68.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보라. Zainchkovskii, Samoderzhavie, p.136; V. A. Sukhomlinov, Vospominaniia (Berlin: Russkoe universal' noe izdat., 1924), p.29, 52-53; Bruce Menning, Bayonets Before Bullets: The Imperial Russian Army, 1861-1914 (Bloomington: Indiana Univ. Pr., 1992), pp.145-146. 1876년 가을에는 "유럽 최초로 미국식 기병 기습이 중심이 된 기동훈련"이 폴란드에서 있었다. N. Sukhotin, "Nabeg letuchogo otriada za Vislu. Epizod iz kavaleriiskikh manevrov," pt. 1-2. Voennyi sbornik, no. 11 (1876), pp.125-153; no. 12 (1876), pp.365~398.

⁶⁶⁾ 이민족 부대는 이노로드치(Inorodtsy) 즉 러시아 정교도가 아닌 비(非)슬라브인 신분의 남성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1874년 포고령은, 이노로드치의 병역 면제와

는 적용되지 않고 ⁶⁷⁾ 오직 러시아 제국 전쟁부(Voennoe ministerstvo) 소속 '정규군(reguliarnykh voiskakh)'에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귀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근위 연대나 카자크와 소수민족 이 복무하던 '비정규' 기병은 1882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전술과 교리를 유지한 반면, 제국군 징집대상으로 분류된 민족 즉, 주로 러 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이 복무하던 '정규' 기병은 모두 용기병에 기반한 전술과 교리를 따랐던 것이다. 68)

아울러, 기존 황실 소속이었던 이민족 부대를 정규군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명시 하였으나, 이민족 부대의 대부분은 예산상 및 관행상의 이유로 황실 소속으로 남 이 있었다. Polnoe sobranie zakonov Rossiiskoi Imperii. Sobranie vtoroi. 55 vols. (St. Petersburg, 1830–1884), vol. 49, no. 52983 (1874), p.27.

⁶⁷⁾ 이후 군사적 필요에 의해 근위 기병 중 2개 연대도 용기병으로 전환되었다.

⁶⁸⁾ 크림 전쟁(Krymskaia voina, 1853-1856)의 패배 이후, 전쟁부 재상 드미트리 밀류틴(Dmitrii A. Miliutin)은 21세 이상 모든 남성의 6년 의무복무에 기반한 국민개병제를 입안하고, 이는 1874년 정식으로 포고된다. 하지만 제국 내 모든 남성이 징집대상은 아니었고, 상당수는 법적으로 병역 면제되었다. 예컨대 투르 케스탄, 아무르지역, 프리모르스크 지역의 남성이나, 북캅카스 지역, 아스트라한 지역, 그리고 카자흐스탄 지역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이노로드치도 병역에서 면제되었다. 합법적 면제 외에도. 햇젓력 미비와 관햇상의 이유로 병역 면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874년 포고령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증명서(kvitantsii) 를 발급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기존 제도를 금지했으나, 실제로 이런 관행은 이 후에도 계속되었다. 증명서를 불법 거래하는 암시장도 횡행하여, 1874년 이전 합법적 증명서 발급에 485루블이 들었던 반면, 1874년 포고령 발표 직후 증명서 는 암시장에서 1만 루블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A. V. Fedorov, "Zakon o vsesoslovnoi voinskoi povinnosti 1874 goda i krest'ianstvo." Istoricheskie zapiski. vol. 46 (1954). p.185. 따라서 국민개병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실제 충원 인원 특히 정규군 인원은 주로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벨라루스인이었다. 소위 '밀류틴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 A. Zaionchkovskii, Voennye reformy 1860–1870 godov v Rossii (Moscow: Izdat, Moskovskogo Universiteta, 1952); E. Willis Brooks, "Reform in the Russian Army, 1856-1861," Slavic Review, no. 43 (1984), pp.63-82; Forrestt A. Miller, Dmitrii Miliutin and the Reform Era in Russia (Knoxville, Tenn.: Vanderbilt Univ. Pr., 1968). 제1차 세 계대전 직전까지도 병력충원 문제는 제국군 지휘부의 최대 고민 중 하나였다. 1897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제국 전체 인구 중 러시아인의 비율은 44%였으며, 우크라이나인과 벨라루스인을 합쳐도 67%에 불과하였다. Henning Bauer eds.. Die Nationalitaeten des Russischen Reiches in der Volkszaehlung von 1897, 2 vols. (Stuttgardt: Franz Steiner, 1991), vol. B, p.73.

1882년 '용기병개혁'의 적용 범위와 교리의 차이는, 약 35년 뒤러시아 내전의 주전장이었던 남부 러시아에서 나타났다. 적군 기병과 백군 기병 모두 러시아 제국군이라는 동일한 군사조직에서 배태되었지만, 적군 기병과 백군 기병은 완전히 다른 전투 방식과 전략문화를 보여 주었다. 화기 사용을 꺼리고 도검류와 기병 돌격에 집착하는 모습은 백군 기병의 전형적인 특징⁽⁵⁹⁾이었던 반면, 적군 기병의 주된 전술은 '타찬카(tachanka)'에 설치한 중(重)기관총 사격과 포격 그리고 적 후방과 측면에 대한 기동이었다. 70) 요컨대, 1882년의 '용기병개혁'이 표방했던 것과 같이, 적군 기병 지휘관에게 중요했던 점은 기병의 기동성과 화력의 결합이었다. 결국 남부러시아에서 펼쳐진 백군 기병과 적군 기병 간 전투는 상이한 계급간 충돌이라는 측면과 함께, 1882년 용기병개혁부터 시작된 두 개의 상이한 군사조직과 상이한 군사교리 그리고 새로운 군사기술에 대한 상이한 '전략문화'의 충돌이었던 것이다. 71)

4. 글을 나가며

기존 연구는 적군 기병 지휘관의 새로운 군사기술 수용 태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거나 소련의 당군 관계를 정치지도부와

⁶⁹⁾ Ivan D. Kosogov, "Taktika krupnykh konnykh mass v epokhu grazhdanskoi voiny," A.S. Bubnov et al. *Grazhdanskaia voina* (Moscow: Voenizdat, 1928), v. 1, p.162.

⁷⁰⁾ Ibid. p.174. 다음도 참고하라. 이정하, 「러시아 내전기 적군(赤軍) 기병의 형성과 유용」、『군사』, no. 98 (2016), pp.361~395.

⁷¹⁾ Kamenev, Zapiski o grazhdanskoi voine, p. 140. 적군 기병 지휘관이 화약 무기 사용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던 것에는 지휘관의 상당수가 제국군에서 보병부대에 근무한 배경도 작용하였다. 이 또한 백군 기병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Budennyi, Proidennyi put', v. 1, p.64.

소수의 지휘관 간 관계로만 치환해 왔다. 본고는 집단전기적 접근을 통해 적군 기병 지휘관이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졌으며 무엇이 그들을 백군이 아닌 적군에서 복무토록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 여주었던 전술과 전략문화적 특징이 무엇에서 기인하였는지를 살펴 보았다

적군 기병의 형성을 둘러싼 특징과 아울러, 당시의 정치적 상황 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남부 러시아라는 공간에서 동일한 사회경제 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던 한 '세대'를 적군 기병 지휘관으로 등장하 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휘관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에 속 했고 적군에서 복무했으므로 적군 기병의 전략문화를 그저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틀 속에서 해석하면 되는가? 1917년 이전의 정치 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154명의 지휘관 중, 볼셰비키가 아니 라 하더라도 어떤 정파와 연관되어 있던 인물은 단지 12명(7.8%)에 불과했으며, 1917~1918년에 공산당에 가입했던 36명의 지휘관을 포함하더라도 총 154명의 지휘관 중 48명(31.2%)에 불과하였다. 물 론. 적군 기병 지휘관을 정치적 신념이나 혁명에 어떠한 헌신도 하 지 않은, 그저 전쟁의 혼란을 이용한 '비적떼'라고 볼 수는 없겠지 만. 그렇다고 해서 적군 기병 지휘관과 그들이 보여준 전략문화를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해석하기 힘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전반적 으로 볼 때. 적군 기병 지휘관은 남부 러시아 빈곤층을 대표하는 계층이었으며 최소한 1861년 농노해방부터 내전 당시까지 러시아 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모순이 배태해낸 인물들이었다. 정치적 격변을 경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던 그들에게 러시아 내전은 일종의 기회였고. 적군 기병에서의 복무는 당시 자신 들이 처해있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소련 군부의 전략문화를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설명했던 기존의 연구 외에도. 적군 기병 지휘관이 내전에서 보여준 전술과 기술 수 용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전략문화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기병, 특히 적군 기병은 별다른 논증 없이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교리의 변화에 부정적이라고 치부되었다. 소련의 군사정책과 군사교리를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폐해와 함께, 이러한 '기술결정론적 태도'는 소련의 군사교리와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첫째, 러시아 제국군의 군사정책과 둘째,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적군 기병 지휘관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국군 기병의 태도를 물려받았다. 보수의 아성이었던 제국군 기병이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대응에서 보여주었던 유연함과 기동과 화력의 결합이라는 원칙은 러시아 내전 시기 남부 러시아의 전장에서 적군 기병 지휘관을 통해 재현되었다. 더 나아가, 내전 이후 군부 엘리트층을 형성했던 이들이 새로운 기술에 취하던 태도도이 두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될 터였다. 따라서 소련의 군사혁신이나 전략문화와 관련된 논의는,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인물과 혁신적 인물 간의 충돌'이라는 단순한 틀을 넘어 보다 다층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적군 기병 지휘관에 관한 분석은 군사 혁신과 전략문화를 논할 때 군사기술 수용에 대한 이해가 일방적이어서는 안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는 한 국가의 전략문화를 판단할 때 각각의 정책과 군 사교리에 영향을 준, 보다 구체적인 구조와 조건을 추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혁명과 내전,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군부 엘리트의 등장 때문에 적군 기병은 러시아 제국군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듯 보이나, 실제 적군 기병은 제국군 기병의 전략문화를 담지하고 있었다.

전략문화란 오로지 한 나라의 지리적 조건이나 기후 혹은 정치체 제의 성격 등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군사정책을 실제 로 집행하는 군부 엘리트와 군사조직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도 아 니다. 비인가적 요소와 인가적 요소라는 양 극단의 한 지점이 아닌.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적군 군부 엘리트와 군사조직에 대한 정교하고 다면적인 접근은, 소련의 전략문화에서 러시아의 환경적 요소와 소련 특유의 정치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 해왔던 그리고 역사 연구에서 기술결정론의 영향을 받았던 기존 분석을 재고하는 시도이다. 동시에 이는 러시아 내전 시기 적군 기병의 전략문화와 더 나아가 내전 이후와 장기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 소련의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20. 1, 3, 심사수정일: 2020. 2, 6. 게재확정일: 2020. 2, 18.)

주제어: 적군 기병 지휘관, 러시아 내전, 집단전기, 전략문화.

이노고로드니예

〈부 록〉 러시아 내전기 적군(赤軍) 기병 지휘관 기본 이력(154명)

순서	0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에서의 계급
1	보리스 0카토프 (Boris Nikolaevich Akatov)	1899-1938	러시아	?	?
2	알렉산드르 안토노비치 (Aleksandr Trifonovich Antonovich)	1877-1937	러시아	귀족	사관(장군)
3	이오시프 아파나센코 (losif Rodionovich Apanasenko)	1890-1943	러시아	농민	준사관
4	게오르기 아르마데로프 (Georgii Aleksandrovich Armaderov)	1888-1956	러시아	귀족	사관(대위)
5	알렉세이 바딘 (Aleksei Lavrent'evich Badin)	1887-1935	5	?	사병
6	세르게이 바일로 (Sergei Il'ich Bailo)	1892-1937	우크라이나	농민	사관(대위)
7	0f코프 발라호노프 (lakov Filippovich Balakhonov)	1892-1935	러시아	수공업자	준사관
8	펠릭스 발투쉬스-제마이티스 (Feliks Rafailovich Baltushis-Zhemaitis)	1897-1957	리투아니아	농민	준사관
9	그리고리 바투린 (Grigorii Nikolaevich Baturin)	1880-1925	?	인텔리겐치야 ¹⁾ (변호사)	사관(대위)
10	파벨 바흐투로프 (Pavel Vasil'evich Bakhturov)	1889-1920	카자크	카자크	N/A
11	이반 벨로프 (Ivan Panfilovich Belov)	1893-1938	러시아	농민	부사관
12	알렉산드르 벨렌코비치 (Aleksandr Mikhailovich Belenkovich)	1897-1937	러시아	노동자	사병

¹⁾ 의사 등의 전문직을 인텔리겐치야에는 의사 등의 전문직종 종사자도 포함시켰음.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에서의 계급
13	미하일 블리노프 (Mikhail Fedoseevich Blinov)	1892-1919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14	니콜라이 블륨 (Nikolai lakovlevich Blium)	1893-1942	독일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준사관
15	표트르 보레비치 (Petr Mikhailovich Borevich)	1890-1921	폴란드	농민	준사관 (대위)
16	세묜 부됸늬 (Semen Mikhailovich Budennyi)	1888-1973	러시아	농민	부사관
17	콘스탄틴 불라트킨 (Konstantin Filippovich Bulatkin)	1889-1925	카자크	카자크	준사관
18	0F코프 체레비첸코 (lakov Timofeevich Cherevichenko)	1894-1976	우크라이나	농민	부사관
19	표트르 추구노프 (Petr Petrovich Chugunov)	1881-1922	?	노동자	부사관
20	표트르 다비도프 (Petr Mikhailovich Davydov)	1894-1973	러시아	농민	부사관
21	니콜라이 데다예프 (Nikolai Alekseevich Dedaev)	1897-1941	러시아	농민	부사관
22	미하일 데미체프 (Mikhail Afanas'evich Demichev)	1885-1937	러시아	농민	준사관
23	니콜라이 디린 (Nikolai Petrovich Dirin)	1891-1937	러시아	농민	준사관
24	바르폴로메이 드미트리옌코 (Varfolomei Ivanovich Dmitrienko)	1896-1938	우크라이나	농민	준사관 (중위)
25	이반 돔니치 (Ivan Nesterovich Domnich)	1885-1920	러시아	농민	부사관
26	일리야 두빈스키 (Il' ia Vladimirovich Dubinskii)	1898-1989	유대인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N/A

순서	0 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27	보리스 두멘코 (Boris Mokeevich Dumenko)	1888-1920	우크라이나	농민	부사관
28	파벨 듸벤코 (Pavel Efimovich Dybenko)	1889-1938	우크라이나	묑민	사병
29	게오르기 에키모프 (Georgii Mikhailovich Ekimov)	?-1920	러시아	농민	?
30	세르게이 판데예프 (Sergei Gavrilovich Fandeev)	1891-1920	러시아	농민	부사관
31	기이야 기이 (Gaia Dmitrievich Gai)	1887-1937	아르메니아	인텔리겐치야 (교사)	준사관 (대위)
32	바실리 글라골레프 (Vasilii Pavlovich Glagolev)	1883-1938	러시아	귀족	사관 (대령)
33	표트르 그네딘 (Petr Vissarionovich Gnedin)	1893-1 <mark>962</mark>	러시아	농민	부사관
34	알렉산드르 골리코프 (Aleksandr Grigor'evich Golikov)	1896-1937	러시아	소상공인 (Meshchanstvo)	사관 (중위)
35	바실리 골루봅스키 (Vasilii Stepanovich Golubovskii)	1891-1961	러시아	농민	부사관
36	바실리 고닌 (Vasilii Matveevich Gonin)	?-1940	러시아	농민	?
37	보리스 고르바초프 (Boris Sergeevich Gorbachev)	1892-1937	벨라루스	농민	부사관
38	엘리세이 고랴초프 (Elisei Ivanovich Goriachev)	1892-1938	?	?	부사관
39	알렉산드르 고르바토프 (Aleksandr Vasil'evich Gorbatov)	1891-1973	러시아	농민	부사관
40	오카 고로도비코프 (Oka Ivanovich Gorodovikov)	1879-1960	칼무크	농민	부사관

순서	0 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에서의 계급
41	표트르 그리고리예프 (Petr Petrovich Grigor'ev)	1892-1937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42	마카르 아키모프 (Makar Mikhailovich lakimov)	1891-1938	카자크	카자크	사병
43	알렉산드르 일류쉰 (Aleksandr Kuz'mich Iliushin)	1888-1938	러시아	인텔리겐치야	?
44	블라디미르 이오노프 (Vladimir Mikhailovich Ionov)	1879-1946	카자크	카자크	사관 (대령)
45	블라디미르 카찰로프 (Vladimir lakovlevich Kachalov)	1890-1941	러시아	농민	준사관 (대위)
46	이반 카쉬린 (Ivan Dmitrievich Kashirin)	<mark>189</mark> 0–1937	카자크	카자크	사관
47	니콜라이 카쉬린 (Nikolai Dmitrievich Kashirin)	1888-1938	키자크	카자크	사관
48	세르게이 하르라모프 (Sergei Dmitrievich Kharlamov)	1881-1965	러시아	귀족	사관 (대령)
49	미하일 하츠킬레비치 (Mikhail Georgievich Khatskilevich)	1895-1941	유대인	농민	사병
50	알렉산드르 흐멜코프 (Aleksandr Mikhailovich Khmel'kov)	1880-1937	러시아	사제	N/A
51	이오시프 호룬 (losif Ivanovich Khorun)	1884-1962	러시아	노동자	부사관
52	바실리 키크비드제 (Vasilii Isidorovich Kikvidze)	1895-1919	그루지야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사병
53	레오니드 클류예프 (Leonid Lavrovich Kliuev)	1880-1943	러시아	묑	사관 (중령)
54	바실리 크니가 (Vasilii Ivanovich Kniga)	1883-1961	우크라이나	농민	준사관

104 | 軍史 第114號(2020. 3.)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 국군 에서의 계급
55	게오르기 코체르긴 (Georgii Anatol'evich Kochergin)	1885-1934	?	농민	준사관(중위)
56	이반 코추베이 (Ivan Antonovich Kochubei)	1893-1919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57	알렉산드르 콜친 (Aleksandr Fedorovich Kolchin)	1898-1937	러시아	농민	N/A
58	이반 콜레소프 (Ivan Petrovich Kolesov)	1880-1921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59	니콜라이 콜레소프 (Nikolai Petrovich Kolesov)	1891-1928	카자크	카자크	사병
60	그리고리 콜파코프 (Grigorii Grigor'evich Kolpakov)	?-1920	우크라이나	농민	사병
61	바실리 코롭코프 (Vasilii Vasil'evich Korobkov)	1884-1968	키자크	카자크	부사관
62	파벨 코르준 (Pavel Petrovich Korzun)	1892-1943	벨라루스	귀족	부사관
63	이반 코소고프 (Ivan Dmitrievich Kosogov)	1891-1938	러시아	사제	준사관
64	그리고리 코톱스키 (Grigorii Ivanovich Kotovskii)	1881-1925	우크라이나	소상공인 (Meshchanstvo)	준사관
65	니콜라이 크리보루치코 (Nikolai Nikolaevich Krivoruchko)	1887-1939	우크라이나	농민	부사관
66	바실리 크류첸킨 (Vasilii Dmitrievich Kriuchenkin)	1894-1976	러시아	?	부사관
67	블라디미르 쿠르듀모프 (Vladimir Nikolaevich Kurdiumov)	1895-1970	러시아	농민	사관
68	미하일 쿠즈네초프 (Mikhail Andreevich Kuznetsov)	1896-1941	러시아	농민	준사관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에서의 계급
69	표트르 쿠리쉬코 (Petr Vasil' evich Kurishko)	1894-1921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70	보리스 라비놉스키 (Boris lakovlevich Lavinovskii)	1896-1936	잉구시	농민	사관 (대위)
71	미하일 레반돕스키 (Mikhail Karlovich Levandovskii)	1890-1938	폴란드	농민	준사관 (대위)
72	야코프 례브다 (lakov Antonovich Levda)	1894-?	도자명	카자크	부사관
73	표도르 리투노프 (Fedor Mikhailovich Litunov)	1886-1920	러시아	농민	부사관
74	니콜라이 리트비노프 (Nikolai Nikolaevich Litvinov)	1896-?	우크라이나	노동자	준사관
75	미하일 루킨 (Mikhail Fedorovich Lukin)	1892-1970	러시아	농민	준사관
76	이반 루네프 (Ivan Fedorovich Lunev)	1896-1962	러시아	농민	부사관
77	미하일 릐센코 (Mikhail Filippovich Lysenko)	1890-1964	러시아	뇡민	사병
78	표트르 미카로프 (Petr Grigor'evich Makarov)	1898-1943	러시아	농민	사병
79	발렌틴 말라홉스키 (Valentin Aleksandrovich Malakhovskii)	1894-1871	러시아	묑	부사관
80	이반 마나가로프 (Ivan Mefod'evich Managarov)	1898-1981	러시아	노동자	사병
81	그리고리 마슬라코프 (Grigorii Savel'evich Maslakov)	1877-1921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82	니키포르 메드베데프 (Nikifor Vasil' evich Medvedev)	1888-1973	러시아	농민	부사관

순서	0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에서의 계급
83	미하일 메이에르 (Mikhail Georgievich Meier)	1887-1920	유대인	귀족 ²⁾	사관 (대위)
84	야코프 멜쿠모프 (lakov Arkad'evich Mel'kumov)	1885-1962	아르메니아	노동자	사관 (대위)
85	알렉산드르 먈콥스키 (Aleksandr Ivanovich Mialkovskii)	1887-1931 (?)	러시아	귀족	사관 (대위)
86	블라디미르 미쿨린 (Vladimir Iosifovich Mikulin)	1892-1961	러시아	귀족	사관 (대령)
87	그리고리 미로넨코 (Grigorii Ivanovich Mironenko)	1883-1970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88	필리프 미로노프 (Filipp Kuz'mich Mironov)	1872-1921	카자크	카자크	사관 (대령)
89	표도르 모로조프 (Fedor Maksimovich Morozov)	1892-1920	카자크	카자크	?
90	드미트리 무르진 (Dmitrii Konstantinovich Murzin)	1889-1938	러시아	귀족	사관
91	이반 나이데노프 (Ivan Andreevich Naidenov)	1889-1975	러시아	노동자	준사관
92	블라디미르 네스테로비치 (Vladimir Stepanovich Nesterovich)	1895-1925	벨라루스	노동자	준사관 (대위)
93	이반 니키틴 (Ivan Semenovich Nikitin)	1897-1942	러시아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부사관
94	바실리 노비코프 (Vasilii Vasil'evich Novikov)	1898-1965	러시아	농민	사관

²⁾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19세기 중후반 몇몇 유대인들이 정부 요직을 맡게 됨으로써 귀족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에서의 계급
95	그리고리 오쿠네프 (Grigorii Ivanovich Okunev)	1888-1930	러시아	?	사관
96	알렉산드르 파르호멘코 (Aleksandr lakovlevich Parkhomenko)	1886-1921	우크라이나	농민	N/A
97	페오판 파르호멘코 (Feofan Agapovich Parkhomenko)	1893-1962	러시아	농민	준사관
98	세묜 파톨리쵸프 (Semen Mikhailovich Patolichev)	1879-1920	러시아	수공업자	준사관
99	레오니드 페트롭스키 (Leonid Grigor' evich Petrovskii)	1897-1941	우크라이나	인텔리겐치야	준사관
100	표도르 포드구르스키 (Fedor Aleksandrovich Podgurskii)	1860-1929	러시아	귀족	사관 (장군)
101	보리스 포그레보프 (Boris Andreevich Pogrebov)	1898-1942	러시아	소상공인 (Meshchanstvo)	N/A
102	빅토르 포그레보프 (Viktor Andreevich Pogrebov)	1897-?	러시아	소상공인 (Meshchanstvo)	준사관
103	미론 폴루노프 (Miron L'vovich Polunov)	1892-1937	유대인	?	?
104	니콜라이 포포프 (Nikolai Zakharovich Popov)	1899-1937	카자크	카자크	?
105	보리스 포포프-라멘스키 (Boris Mikhailovich Popov-Ramenskii)	1896-1938	러시아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N/A
106	판텔레이몬 포타펜코 (Panteleimon Romanovich Potapenko)	1886-1938	우크라이나	농민	N/A
107	세묜 포쵸류코 (Semen Fedorovich Potseluiko)	1884-1941	러시아	농민	부사관

108 | 軍史 第114號(2020. 3.)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에서의 계급
108	비탈리 프리마코프 (Vitalii Markovich Primakov)	1897-1937	우크라이나	인텔리겐치야 (교사)	N/A
109	니콜라이 라키틴 (Nikolai Vasil'evich Rakitin)	1895-1937	러시아	인텔리겐치야 (교사)	사관 (대위)
110	콘스탄틴 로코솝스키 (Konstantin Konstantinovich Rokossovskii)	1896-1968	폴란드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부사관
111	프로코피 로마넨코 (Prokofii Logvinovich Romanenko)	1897-1949	우크라이나	농민	준사관
112	이반 로쥐코프 (Ivan Andreevich Rozhkov)	1893-1920	우크라이나	농민	사병
113	드미트리 랴브셰프 (Dmitrii Ivanovich Riabyshev)	1894-1 <mark>985</mark>	카자크	카자크	사병
114	표트르 루드추크 (Petr Lukich Rudchuk)	1893-1969	벨라루스	농민	사관
115	유리 사블린 (Iurii Vladimirovich Sablin)	1897-1937	러시아	귀족	준사관
116	알렉산드르 사포쥐코프 (Aleksandr Vasil' evich Sapozhkov)	?-1920	카자크	카자크	준사관
117	미하일 사벨례프 (Mikhail Ivanovich Savel'ev)	1896-1970	러시아	농민	부사관
118	니콜라이 사빈 (Nikolai Alekseevich Savin)	1892-1931	러시아	사제	N/A
119	세르게이 사비츠키 (Sergei Mikhailovich Savitskii)	1897-1937	우크라이나	농민	준사관
120	이반 셀리바노프 (Ivan Vasil'evich Selivanov)	1886-1942	러시아	농민	부사관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 국군 에서의 계급
121	다닐로 세르디치 (Daniilo Fedorovich Serdich)	1896-1937	세르비아	농민	부사관
122	니콜라이 셸로코프 (Nikolai Kononovich Shchelokov)	1887-1941	러시아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사관 (대령)
123	티모페이 샵킨 (Timofei Timofeevich Shapkin)	1885-1943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124	세르게이 셰이데만 (Sergei Mikhailovich Sheideman)	1857-1922	러시아	귀족	사관 (장군)
125	야코프 셰코 (lakov Vasil'evich Sheko)	1893-1938	러시아	농민	사관 (대위)
126	그리고리 쉡콥라소프 (Grigorii Kirillovich Shevkopliasov)	1878-1920	키자크	카자크	준사관
127	예브게니 쉬베초프 (Evgenii Nikolaevich Shvetsov)	1886-1937	러시아	농민	?
128	안드레이 시델니코프 (Andrei Nikanorovich Sidel'nikov)	1895-1983	러시아	농민	부사관
129	바실리 소콜롭스키 (Vasilii Danilovich Sokolovskii)	1897-1968	러시아	농민	N/A
130	표트르 소벤니코프 (Petr Petrovich Sobennikov)	1894-1960	러시아	귀족	사관 (중위)
131	그리고리 스토수이 (Grigorii Osipovich Stosui)	1880-1937	?	?	사관
132	표트르 스트레푸호프 (Petr lakovlevich Strepukhov)	1889-1945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133	콘스탄틴 스테프노이-스피자르늬 (Konstantin Ivanovich Stepnoi-Spizharnyi)	1898-1938	러시아	인텔리겐치야 (교수)	사관 (대위)

110 | 軍史 第114號(2020. 3.)

순서	0 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134	세르게이 스베쉬니코프 (Sergei Arkad'evich Sveshnikov)	1883-1933	러시아	귀족	사관 (대령)
135	알렉산드르 타르놉스키-테르례츠키 (Aleksandr Maksimovich Tarnovskii-Terletskii)	1898-1943	유대인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N/A
136	세묜 티모셴코 (Semen Konstantinovich Timoshenko)	1895-1970	우크라이나	농민	부사관
137	이반 툴레네프 (Ivan Vladimirovich Tiulenev)	1892-1978	러시아	노동자	준사관
138	니콜라이 토민 (Nikolai Dmitrievich Tomin)	1886-1924	카자크	카자크	부사관
139	예브게니 트리포노프 (Evgenii Andreevich Trifonov)	1885-1937	카자크	카자크	사병
140	콘스탄틴 트루노프 (Konstantin Arkhipovich Trunov)	1866-1920	러시아	농민	부사관
141	세묜 투롭스키 (Semen Abramovich Turovskii)	1895-1937	유대인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부사관
142	콘스탄틴 우샤코프 (Konstantin Petrovich Ushakov)	1896-1943	러시아	귀족	사관 (중위)
143	레오니드 바이네르 (Leonid lakovlevich Vainer)	1897-1937	유대인	수공업자	부사관
144	드미트리 바이네르흐-바냐르흐 (Dmitrii Anan' evich Vainerkh-Vaniarkh)	1888-1938	유대인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N/A
145	바실리 보도피아노프 (Vasilii Fedorovich Vodop' ianov)	1889-1937	러시아	농민	부사관
146	이반 보이틔나 (Ivan Antonovich Voityna)	1880-?	러시아	귀족	사관 (대위)

소련의 전략문화와 적군(赤軍) 기병 지휘관의 사회경제적 배경 | 111

순서	이름	생몰년도	민족	사회적 배경	러시아 제국군 에서의 계급
147	에두아르드 빌룸손 (Eduard Fridrikhovich Vilumson)	1893-1931	라트비아	농민	사관 (중위)
148	세르게이 비쉬넵스키 (Sergei Vladimirovich Vishnevskii)	1893-1967	러시아	귀족	사관 (대위)
149	니콜라이 자베갈로프 (Nikolai lakovlevich Zabegalov)	1884-1937	러시아	귀족	사관
150	드미트리 즐로바 (Dmitrii Petrovich Zhloba)	1887-1938	우크라이나	농민	부사관
151	이반 지베로프 (Ivan Georgievich Ziberov)	1897-1986	러시아	농민	부사관
152	예브게니 주라블료프 (Evgenii Petrovich Zhuravlev)	1896-1983	우크라이나	?	준사관
153	스테판 조토프 (Stepan Andreevich Zotov)	1882-1938	카자크	카자크	사관
154	알렉산드르 주보크 (Aleksandr Efimovich Zubok)	1893-1937	우크라이나	사무직노동자 (Sluzhashchie)	준사관

〈참고 문헌〉

러시아국립군사문서고 (Rossiiskii Gosudarstvenni Voennyi Arkhiv, RGVA)

Fond 1-행정국 Upravlenie delami

Fond 4-국방인민위원회 행정국 Upravlenie delami pri narodnom komissare oborony

Fond 5-공화국 최고사령부 서기국 Sekretariat glavnokomanduiushchego vsemi vooruzhennymi silami respubliki (glavkoma)

Fond 9-적군(赤軍) 정치국 Politichesko upravlenie RKKA

Fond 14-남부 전선 최고사령부 참모부 Shtab verkhovnogo glavnokomanduiushchego sovetskimi voiskami iuzhnykh respublik

Fond 245-제1기병군 행정국 Upravlenie 1 konnoi armii Fond 28361-소련군 중앙박물관 Tsentral'nyi muzei vooruzhennykh cil SSSR

Fond 33988-공화국 혁명군사위원회 제1부의장 서기국 Sekretariat 1-go zamestitelia predsedatelia RVSR (RVS SSSR)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고 (Rossiiskii Gosudarstvennyi Arkhiv Sotsial'no-Politicheskoi Istorii, RGASPI)

> Fond 74-보로쉴로프 클리멘트 예레모비치 Voroshilov Kliment Efremovich (1881~1969)

구자정. 「러시아 혁명기 쿠반 카자크 분리주의(Samostiinost')의 기원을 찾아서-19세기 말 20세기 초 남부 러시아 쿠반 지역의 이노고로 드니예 문제」, 『슬라브학보』 제29권 2호 (2014).

UCI: G704-000301. 2014.29.2.009

이정하. 「러시아 내전기 적군(赤軍) 기병의 형성과 운용」, 『군사』 제98호 (2016).

DOI: 10.29212/mh.2016..98.361

- 부트, 맥스. 송대범·한태영 공역. 『Made in War 전쟁이 만든 신세계: 전쟁, 테크놀로지 그리고 역사의 진로』(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 Antonov-Ovseenko, V. A. Zapiski o grazhdanskoi voine, 4 vols. (Moscow, 1924-1933).
- "Avtobiografiia A. M. Vasilevskogo,"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4 (1990).
- Bauer, Henning. eds. Die Nationalitaeten des Russischen Reiches in der Volkszaehlung von 1897, 2 vols. (Stuttgardt: Franz Steiner, 1991).
- Belykh, A. O. eds., Glavnoe avtobronetankovoe upravlenie: Liudi, sobytiia, fakty v dokumentakh. 5 vols. (Moscow: Ministerstvo oborony RF, 2004–2009).
- Boiarchkov, A. I. ed. Vospominaniia (Moscow: AST, 2003).
- Brooks, E. Willis. "Reform in the Russian Army, 1856–1861," Slavic Review no. 43 (1984). https://doi.org/10.2307/2498735
- Bubnov, A. S; S. S. Kamenev; R. P. Ideman; M. N. Tukhachevskii. Grazhdanskaia voina 1918–1921: Voennoe iskusstvo Krasnoi armii, 3 vols. (Moscow: "Voennyi vestnik", 1928).
- Budennyi, S. M. Proidennyi put, 3 vols. (Moscow: Voenizdat, 1958–1973).
- Buzukashvili, M. I. Nachdiv Kikvidze (Moscow: Voenizdat, 1977).
- Cohen, Stephen F. "Bolshevism and Stalinism," in Robert C. Tucker ed. Stalinism: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New York: Norton, 1977).
- Daines, V. O. Zhukov (Moscow: Molodaia gvardiia, 2005).
 ______. Vasilevskii (Moscow: Veche, 2012).
- Danilova, V. eds. Filipp Mironov: Tikhii Don v 1917—1921 gg: Dokumenty i materialy (Moscow: "Demokratiia", 1997).
- Davies, Norman. Whites Eagle, Red Star: The Polish-Soviet War (New York: St. Martin's, 1972).

- Efimov, N. Deistiia 2-oi Konnoi Armii v 1920 godu (Moscow: Voenizdat, 1926).
- Eremenko, A. I. Gody vozmezdiia 1943—1945 (Moscow: 'Finansy i statistika', 1985).
- Esaulenko, A. S. eds. Kotovtsy: Biograficheskie ocherki (Kishinev: Izd. Kartia Molodoveniaske, 1979).
- Fediukin, Sergei A. Sovetskaia vlast' i bruzhuaznye spetsialisty (Moscow: Mysl', 1965).
- Fedorov, A. V. "Zakon o vsesoslovnoi voinskoi povinnosti 1874 goda i krest'ianstvo," Istoricheskie zapiski vol. 46 (1954).
- Fiddick, Thomas. "The Miracle of the Vistula: Soviet Policy versus Red Army Strategy," Journal of Modern History no. 4, vol. 45 (1973). https://doi.org/10.1086/241109
- Fitzpatrick, Sheila. "The Civil War as a Formative Experience," in Abbott Gleason eds. Bolshevik Culture: Experiment and Order in the Russian Revolu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 Genis, V. L. "Pervaia konnaia armiia: Za kulisami slavy," Voprosy istorii no. 12 (1994).
- Golubovich, M. S. Marshal R.Ia. Malinovskii (Moscow: Voenizdat, 1973).
- Gorodovikov, Oka I. Rozhdenie Pervoi konnoi (Tashkent: Gosizdat UzSSR, 1936).

Konnitsa proshlogo i 2—ia Konnaia v Severnoi Tavrii
(Tashkenk: Gosizdat UzSSR, 1937).
V riadakh Pervoi konnoi: rasskazy konarmeitsa
(Moscow: Voenizdat, 1939).
Konnitsa v Otechestvennoi voine (Iz opyta boevykh
deistvii) (Moscow: Voenizdat, 1942).

. Vospominaniia (Moscow: Voenizdat, 1957).

- Gray, Colin. "National Style in Strategy: The American Example,"
 International Security, no. 2 (1981).
 https://doi.org/10.2307/2538645
- Grechko, A. A. Cherez Karpaty 2nd ed. (Moscow: Voenizdat, 1972).
- Habeck, Mary R. Storm of Steel: Development of Armor Doctrine in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1919–1939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 Harrison, Richard W.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Lawrence, Kan.: Univ. Press of Kansas, 2001).
- Howard, Michael. Franco-Prussian War: The German Invasion of France 1870-1871 (New York: Routledge, 2001).
- Iatsovskis, E. Ia. Zabveniiu ne podlezhit (Moscow: Voenizdat, 1985).
- Jacobson, Carl. Strategic Power: USA/USSR (New York: St. Martin's, 1990)
- Kamenev, Sergei S. Zapiski o grazhdanskoi voine i voennom stroitel'stve (Moscow: Voenizdat, 1963).
- Kavtaradze, A. G. Voennye spetsialisty na sluzhbe Respubliki Sovetov 1917–1922 gg. (Moscow: Nauka, 1988).
- Kenez, Peter. Civil War in South Russia, 1919–1920: The Defeat of the Whi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 Khmelevskii, Konstantin A. Krakh krasnovshchiny i nemetskoi interventsii na donu (aprel' 1918—mart 1919 goda) (Rostov: Izd-vo Rostovskogo universiteta, 1965).
- Khromov, Semen S. Grazhdanskaia voina i voennaia interventsiia v SSSR: Entsiklopedia (Moscow: Sovetskaia entsiklopediia, 1983).
- Korotkov, I. A. Istoriia Sovetskoi voennoi mysli: Kratkii ocherk, 1917–1941 (Moscow: Nauka, 1980).
- Korovin, P. S. ed. Orskaia biograficheskaia entsiklopediia (Orenburg: Iuzhnyi Ural, 2005).

- Kozlov, Aleksandr I. Na istoricheskom povorote (Rostov: Izdat. Rostovskogo universiteta, 1977).
- Leer, G. A. Publichnye lektsii o voine 1870-71 godov mezhdu Frantsiei i Germaniei ot Sedana do kontsa voiny (St. Petersburg: Departament udelov, 1873).
- Lincoln, W. Bruce. Red Victory: A History of the Russian Civil War 1918-1921 (New York: Simon & Schuster, 1989).
- Maev, S. A. Ogon', bronia, manevr. 2 vols. (Moscow: Glavnoe avtobronetankovoe upravlenie MO RF, 1999–2001).
- Martynova, A. ed. Chervonoe kazachestvo: Sbornik materialov po istorii Chervonogo kazachestva (Khar'kov. 1923–1924).
- McNeal, Robert H. Tsar and Cossack, 1855-1914 (New York: St. Martin's, 1987).
- Menning, Bruce W. Bayonets Before Bullets: The Imperial Russian Army, 1861–1914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 Miller, Forrestt A. Dmitrii Miliutin and the Reform Era in Russia (Knoxville, Tenn.: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8).
- Millet, Allen R. and Williamson Murray eds. Military Effectiveness, Vol. 2: The Interwar Period (Boston: Allen and Unwin, 1988).
- Novitskii, N. D. "Zametki o boevoi naznachenii i obuchenii kavalerii," Voennyi sbornik no. 3 (1876).
- Obertas, I. L. General Oka Gorodovikov (Elista: Kalmytskoe knish. izdat. 1970).
- Ochak, I. D. Danilo Serdich: Krasnyi komandir (Moscow: Politicheskoi literatury, 1964).
- O'Rourke, Shane. The Cossack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7).
- Ovechkin, V. V. "Iz'iatie loshadei u naseleniia dlia Krasnoi armii v gody grazhdanskoi voiny," Voprosy istorii no. 8 (1999).

- Paletskis, Iu. I. V dvukh mirakh (Moscow: Izd. Polit. Lit-ry, 1974).
- Petrov, V. "Proslavlennyi nachdiv V. I. Kikvidze,"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2 (1975).
- Polikarpov, V. "Komdiv Sablin."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8 (1965).
- Polnoe sobranie zakonov Rossiiskoi Imperii, Sobranie vtoroi, 55 vols. (St. Petersburg, 1830–1884).
- Pronshtein, A. P. Istoriia Dona s drevneishikh vremen do padeniia krepostnogo prava (Rostov: Izdat. Rostovskogo universiteta, 1973).
- Riabyshev, D. I. V ogne boev (Rostov: Rostovskoe knish. Izdat, 1972).
- Schulz, Heinrich E. eds. Who Was Who in the USSR: A Biographic Directory Containing 5,015 Biographies of Prominent Soviet Historical Personalitie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2).
- Serdich, D. F. "Pervaia vstrecha s Budennym." Pervaia konnaia v izobrazhenii ee voitsov i komandirov (Moscow: Gosizdat, 1930).
- Shevotsukov, P. A. Stranitsy istorii grazhdanskoi voiny: Vzgliad cherez desiatiletiia (Moscow: Prosveshchenie, 1992).
- Shikman, Anatolii P. Deiateli otechestvennoi istorii: Biograficheskii slovar'-spravochnik (Moscow: AST, 1996).
- Smirnov, Sergei A; Anzhelina P. Kupaigorodskaia. Vyrosli my v plameni: Zapiski voennogo kommissara (Leningrad: Lenizdat, 1976).
- Snyder, Jack.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Nuclear Options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1977)
- Sokolov-Sokolenok, N. A. Po putevke komsomol'skoi (Moscow: Voenizdat, 1987).

- Soshnikov, A. Ia. et al. Sovetskaia kavaleriia: Voenno-istoricheskii ocherk (Moscow: Voenizdat, 1984).
- Starikov, Sergei; Roy A. Medvedev. Philip Mironov and the Russian Civil War (New York: Knopf, 1978).
- Stavitskii, I. V. ed. Oka Gorodovikov: Vospominaniia, issledovaniia, dokumenty (Elista: Kalmytskoe knish. izdat, 1976).
- Stone, L. "Prosopography." Daedalus no. 100 (1971).
- Sukhomlinov, V. A. Vospominaniia (Berlin: Russkoe universal'noe izdat, 1924).
- Sukhotin, Nikolai N. "Zametka o kavalerii," Voennyi sbornik no. 8 (1874).
- _____. Reidy i poiski kavalerii vo vremia amerikanskoi voiny 1861–65 (Moscow: Shtab Moskovskogo voennogo okruga, 1875).
- _____. "Nabeg letuchogo otriada za Vislu. Epizod iz kavaleriiskikh manevrov," pt. 1–2. Voennyi sbornik nos. 11–12 (1876).
- Tiulenev, Ivan V. Pervaia konnaia v boiakh za sotsialisticheskuiu rodinu: Ocherk boevykh deistvii (Moscow: Gosvoenizdat, 1938).
- _____. Sovetskaia kavaleriia v boiakh za rodinu (Moscow: Voenizdat, 1957).
- _____. "Kavaleriia,"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4 vols. (Moscow: Voenizdat, 1977).
- Tiushkevich, S. A. et al. Sovetskie vooruzhennye sily: Istoriia stroitel'stva (Moscow: Voenizdat, 1978).
- Tkachenko, A. F. Rossiiskie deiateli Ukrainskogo proiskhozhdeniia: Istoriia otnoshenii Ukrainy i Rossii v litsakh za 337 let (1654–1991). Entsiklopedicheskii spravochnik (Kiev: Aristei, 2005).

- Trotskii, L. "Proletarii, na konia!" Voennoe delo nos. 28–29 (1919). Vertinskii, A. Dorogoi dlinnoiu (Moscow: Pravda, 1990).
- Wawro, Geoffrey. The Austro-Prussian War: Austria's War with Prussia and Italy in 186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War, Technology, and Industrial Change, 1850-1914,"
 The Cambridge History of War: Vol. 4 War and the Modern
 World, Roger Chickering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Wieczynski Joseph L. eds.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55 vols. (Gulf Breeze, Fla.: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1976–).
- Zaionchkovskii, P. A. Voennye reformy 1860–1870 godov v Rossii (Moscow: Izdat. Moskovskogo Universiteta, 1952).
- _____. Samoderzhav<mark>ie i</mark> russkaia armiia na rubezhe XIX-XX stoletii, 1881-1903 (Moscow: Mysl', 1973).
- Zhemaitis, O. F. "Vosstanie v g. Shiauliae v kontse 1918—nachale 1919 godov i sud'ba ego rukovoditelia," Voprosy istorii no. 4 (2003).
- _____. "Pervyi boi 16-i Litovskoi strelkovoi divizii," Voenno- istoricheskii zhurnal no. 6 (2005).
- Zhukov, G. K. Vospominaniia i razmyshleniia 2 vols. (Moscow: Olma-Press, 2002).
- Zolotov, Vladimir A; Aleksandr P. Pronshtein. Za zemliu, za voliu: Iz istorii narodnykh dvizhenii na Donu (Rostov: Rostovskoe knizh. Izd-vo. 1974).

(Abstract)

Soviet Strategic Culture and the Red Army's Cavalry Commanders' Socio-Economic Background

Lee, Jeong-ha

The Red Army's Cavalry commanders, a group of military personnel who played an influential role in the victory of red army during the Russian Civil War and formed the Soviet military elites after the war, have been almost entirely neglected by previous historiography. The belief that these commanders were more conservative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and thus were unable to meet the technological challenges of modern warfare has been prevalent. In a broader context, however, this fallacy mainly stems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y inherent in military doctrine and the process of making military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154 Red Cavalry commanders in the Russian Civil War, analyzing their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former military profiles. Based on the database built with approach of collective biography, the article demonstrates who the commanders were, why they joined the Red Army, and the strategic culture stemmed from their social background and the Imperial Russian Army.

The Red Cavalry commanders were primarily from the poorest segment of southern Russia. Their Socio—economic status was a strong factor in motivating inogorodnie and poor Cossacks to form the Red army Cavalry against the White Army in southern Russia. They were also the same 'generation' who shared social—political experiences from the 1861 Emancipation Reform until the Civil War, it is clear that their opposition to the status quo disinclined them to join the White Army, at the very least, Furthermore, this certain tendency helped the Red Cavalry

commanders take a very different stand on military innovation and strategic culture. Unlike the White Cavalry, the Red Cavalry was the strategic culture bearer of the Imperial Russian cavalry, inheriting many features such as the attitude toward new military technologies and the combination of fire power and mobility.

Keywords: Red Army's Cavalry Commander, Russian Civil War, Collective Biography, Strategic Culture, Inogorodni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123-157 https://doi.org/10.29212/mh.2020..114.12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의 동북 9성 개척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유경진*

- 1. 머리말
- 2. 西京 출정 배경과 주력군 편성
- 3. 여진 정벌의 목표점과 전략
- 4. 고려의 城 상실 사례
-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 예종대에 진행된 여진 정벌과 동북 9성 개척은 불과 2년 만에 9성을 여진에게 돌려줌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 경험은 이후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의 토대가 되었고 조선으로 계승되었다.¹⁾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¹⁾ 동북 9성에 대한 고려 및 조선시대 인식의 추이에 대해서는 이정신, 「고려조선시대 윤관 9성 인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32, 2012 참조.

그런데 그 범위에 대한 자료적 문제로 조선후기 실학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관건은 북방 경계로 인식되었던 公嶮鎭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로 모아졌다.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들이 동북 9성을 함흥평야 일대에 비정한 뒤 이것이 한동안 정설로 자리했으나 1970년대후반부터 한국학계는 공험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었다는 『세종실록』지리지 기사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는 전해지던 말을 채록한 것이었고, 그 내용 또한 현실적으로 무리가 큰 것이었다. 무엇보다 실증적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찍이 몇몇실학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동북 9성이 吉州 이남에 분포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두만강북설을 지지하는 데에는 자국의 영토를 확장해 보려는 입장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 학계가 동북공정에 수반하여 함흥평야설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론의 차원에서 다시 두만강북설이 주목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주장에 반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증적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 동북 9성을 두만강 이남, 또는 마천령 이남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2)

그런데 근래『고려사』지리지의 동북 9성 연혁에 대한 분석적 이

²⁾ 동북 9성의 범위에 대한 연구 상황은 다음 논고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상술하지 않는다.

권영국, 「일제시기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동북면의 국경·영토 인식」, 『史學研究』 115, 2014.

윤경진,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鎮 立碑'문제」, 『歷史외實學』 61, 2016. 한편 최근에 다시 두만강북설을 편 견해가 있으나(이인철,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9성의 위치 연구」 『仙道文化』 23, 2017), 기존 주장들과 동일한 실증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조선초기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말東北面 영토개척과 영토의식 : 公嶮鎮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 『한국문화』 88, 2019 참조.

해를 토대로3) 길주가 북방 경계였다는 실학자들의 설을 재확인하 고. 그동안 하나의 전제처럼 간주되었던 공험진의 立碑가 실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처음 6성 개척 때 공험진 지역에 古 碑(마운령비로 추정)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고구려의 비' 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고구려 舊地의 수복을 표방했던 것이며. 이것이 고려말 영토 개척 과정에서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는 내용으로 변형되었다고 이해하였다.4)

하지만 범위 설정만으로 동북 9성에 대한 이해가 마무리되는 것 은 아니다. 그와 더불어 개척과 상실. 환부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9성의 실체와 역사적 의미를 온전 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9성을 환부하는 배경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그 일환이다. 그동안 기록에 나타나는 여진의 집요한 공격과 반환 요청. 방어의 어려움 등과 더불어 고려 정계의 내부 사정 등이 환부 이유로 언급 되었다.5) 이에 대해 고려가 9성 개척의 명분으로 내세운 고구려 구 지의 수복이라는 주장을 遼(거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음이 지적되었다. 고려의 주장은 이미 획정된 압록강 방 면의 영토 경계를 동요시킬 수 있었고. 이를 우려한 요가 고려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결국 환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6)

이러한 성과에 의해 동북 9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구체화되었지 만, 아직 풀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를 모 아서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 를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³⁾ 윤경진, 「고려후기 東北面의 지방제도 변화: 州鎭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72, 2015.

⁴⁾ 윤경진, 앞의 논문, 2016.

⁵⁾ 鄭修芽「尹瓘勢力의 形成: 尹瓘의 女眞征伐과 관련된 몇 가지 問題의 檢討를 중 심으로」, 『震檀學報』66, 1988.

⁶⁾ 윤경진. 「고려 예종대 동북 9성 환부의 경위와 배경」. 『震檀學報』 128, 2017(1).

첫째, 고려군이 開京이 아니라 西京에서 출정식을 갖고 동계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진 정벌의 명분과 서경의 역사성을 매개로 고구려계승의식이 자연스럽게 지적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北界 병력의 동원이라는 맥락 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발해 유민의 북계 정착이라는 前代 이래의 상황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것이다.

둘째, 고려군이 여진을 정벌하며 도달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표점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출정 당시 계획한 공격 목표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맞추어 고려군의 전략도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초기의 개척 범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동북 9성의 범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준거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伊板嶺(마천령)이 당초의 목표점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양방향에서 공격하는 전략이 구사되었음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동북 9성이 길주 이남에 분포한다는 입론과 조응한다.

셋째, 기존에 영토 개척과 축성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동시에 '상실'의 사례도 상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설치 과정의 9성과 철거 과정의 9성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추가 축성과 더불어 상실 또는 폐지 사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철거 과정에 보이지 않는 宜州와 平戎鎮은 철거 이전에 여진에게 빼앗겼고, 공험진은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면서 폐지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7) 고려의 상실은 여진에게는 탈환을 의미하므로 이에 관한 정황이 『金史』를 비롯한 여진쪽 기록에 나타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이다.

⁷⁾ 윤경진, 위의 논문.

2 西京 출정 배경과 주력군 편성

예종 2년(1107) 여진 정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원정군 이 開京이 아니라 西京에서 출정했다는 점이다. 이 해 유10월 예종 은 출정을 앞두고 개경의 順天館 南門에서 閱兵하였고 尹瓘과 吳延 寵을 각각 원수와 부원수로 임명하였다.8) 그리고 11월에 서경에 행 차하여 12월에 威鳳樓에서 윤관 등에게 鈇鉞을 주어 출정케 하였 다 9) 개경에서 지휘관을 임명해 놓고 실제 출정은 서경에 가서 진 햇한 것이다.

출정군은 서경에서 東界로 이동하였다. 앞서 개경에서 열병이 있 었으므로 해당 부대는 개경에서 곧바로 동계로 진입하는 것이 시간 과 비용에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면, 서경에서 출정식은 가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서경에 행차하였다. 당시 日官이 주청하기를, "마땅히 서경에 임어하여 장수를 파격하십시오"라고 하므로 이 행차가 있었다 10)

위에는 서경 행차가 日官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나 의미는 나와 있지 않다지만, 대략 두 가지 측면에 서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서경과 여진 정벌의 상징적 관계이다. 그것은 고구려계승

^{8)『}高麗史』刊2. 睿宗 2년 紀10월 壬寅. "以將伐女眞 御順天館南門閱兵 分賜銀布 洒食 以尹瓘爲亓帥 吳延寵爲副亓帥"

^{9)『}高麗史節要』 27. 睿宗 2년 12월, "王御威鳳樓 賜尹瓘吳延寵鈇鉞 以遣之"

^{10) 『}高麗史』 212, 睿宗 2년 11월 庚午, "幸西京 時 日官奏 宜御西京 以遣將帥 故有 是行"

의식으로 모아진다. 원정의 성과와 의의를 담은 林彦의「英州廳壁上記」에는 여진 정벌의 명분으로서 고구려계승의식이 명시되어 있다. 곧 여진이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던 부류라고 전제하고, 이곳에 있는 '고구려 古碑'를 내세워 이곳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상실한 곳을 이번에 수복했다는 것으로 원정의 의의를 제시하였다.¹¹⁾ 이러한 이념은 여진 정벌 당시부터 이미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보면, 서경 출정식은 그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서경 출정의 이유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숙종 9년(1104) 정벌 때에는 개경에서 출정하였다. 이 해 정월 林幹을 判東北面行營兵馬使로 삼고 宣政殿에서 부월을 주어 보냈다.12) 임간이 패전한 후 2월에 다시 윤관을 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삼고 重光殿에서 부월을 주어 보냈다.13) 양자 공히 임명과 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종 때 출정에서 일관의 요청은 지휘관을 임명한 뒤 28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종은 5일 뒤 서경에 도착하였고, 14)이로부터 10일 만에 원정군이 동계에 도착하였다. 15) 그 사이에 윤관 등에게 부월을 내리는 출정식이 거행되었다. 지휘관 임명 후 서경 행차까지 한 달 가까이 소요된 것과 달리 도착 후에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11) 『}高麗史』 刊96, 列傳9 尹瓘, "女眞本勾高麗之部落 聚居于盖馬山東 世脩貢職 被我祖宗恩澤深矣 (중략) 而本勾高麗之所有也 其古碑遺跡 尚有存焉 夫勾高麗失之於前今上得之於後 豈非天歟"

^{12) 『}高麗史』 권12, 肅宗 9년 정월 癸未, "王以門下侍郎平章事林幹 判東北面行營兵馬事 御宣政殿 授鈇鉞"

^{13) 『}高麗史』 권12, 肅宗 9년 2월 乙丑, "以樞密院使尹瓘 爲東北面行營兵馬都統 御重 光殿 授鈇鉞遣之"

^{14) 『}高麗史』 권12, 睿宗 2년 11월 乙亥

^{15) 『}高麗史節要』 27. 睿宗 12년 12월 乙酉. "瓘延寵至東界 屯兵于長春驛"

주목할 부분은 대규모 병력이 개경에서 서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라면 불과 5일만에 서경에 도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국왕의 행차는 이보다 훨씬 더 소요된다. 일례로 문종 7년(1053)의 행차를 보면, 9월 丙戌에 출발하여16) 10월 10월 庚子에 대동강에 도착하였다 17) 15일이 걸린 것이다. 예종 2년의 서경 행차는 국왕 의 행차로 보더라도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인데, 여기에 대규모 부 대의 이동까지 생각하기는 어렵다. 제반 준비가 서경에 갖추어진 상 태에서 국왕 일행과 지휘관. 그리고 일부 병력 정도만 서둘러 갔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개경에서 열병한 부대는 소규모이거나 개경에서 바로 동계로 행군했을 것이고. 지휘관이 인솔하고 출정한 주력 부대는 서 경에 집결한 별도의 병력이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병력은 北界 에서 징발된 군대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서 別武班 편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18) 유관은 숙종 9년 의 패전 이유를 "적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賊騎我步] 대적 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말을 가진 자[有馬者]는 神騎 軍으로, 말이 없는 자는 神步軍을 비롯한 여러 兵種으로 편성하였 다. 그리고 승려로 편성된 降魔軍을 두었다.

그러나 이렇게 충원된 군사들이 원정군의 주력이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징발 대상이 상시적인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고 징발과 동원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예종 원년(1106) 11월에 시행된 閱兵이19) 사실상 이들이 징발된 후 처음 취한 훈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高麗史』 27. 文宗 7년 9월 丙戌

^{17) 『}高麗史』 刊7. 文宗 7년 10월 庚子

¹⁸⁾ 別武班에 대한 연구 동향은 金洛珍, 「고려 숙종‧예종대 여진정벌과 별무반의 전 술체계」, 『韓國學論叢(국민대)』 47, 2017 참조.

^{19) 『}高麗史』 刊12. 睿宗 원년 11월 癸巳. "尹瓘吳延寵 閱神騎神步軍於崇仁門外"

따라서 이듬해 진행된 원정에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²⁰⁾ 이 점에서 별무반 편성 기사 중 다른 내용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西班과 여러 鎭府의 군인은 四時로 훈련하게 하였다 21)

위 기사는 기존 군인들에 대한 훈련 강화를 담고 있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훈련을 받은 점에서 새로 편성된 군대와 성격을 달리한 다.²²⁾ 그리고 여러 진·부의 군인이란 결국 兩界에 배치된 군인들이 었을 것이다.²³⁾

앞서 숙종 9년의 원정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정은 당시 長城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에 대한 대응이었고, 개경에서 파견된 지휘관이 거느린 일부 중앙군과 함께 동계의현지 병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임간을 파견할 당시 李瑋를西北面行營兵馬使로, 金德珍을 東北面行營兵馬使로 삼은 것을 보면, 동계에 인접한 북계 일부 지역의 병력도 동원되었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당시 임간의 책무는 '가서 방비하는 것[往備之]'이어서 적극적인 정벌의 성격은 아니었다. 임간이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깊이 들어간 것이 패전의 원인이었다고 지적받은 것 또한 이러한

²⁰⁾ 기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상무예를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무반이 기병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특수병을 강화한 보병 중심의 체계였다는 지적도 있다(김낙진, 앞의 논문, 2017, 165쪽).

^{21)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西班與諸鎭府軍人 四時訓練" 兵志에는 '西班'이 '兩班'으로 되어 있다.

²²⁾ 김낙진도 이들이 특수병과 함께 실제 전투를 수행하였고, 일반 군현에서 동원된 부대는 축성 등 공역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았다(김낙진, 앞의 논문, 2017, 172~173쪽).

²³⁾ 이에 五軍이나 州鎭軍의 전투부대가 그대로 별무반에 편입되었고, 이 때문에 별 무반은 전투부대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李基白,「高麗 別武班考」,『金載元回甲記念論叢』, 1968:『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199쪽).

성격을 반영한다. 24)

연이은 패전에 고려는 병력 증강을 위해 전국적인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기병을 증강하였다. 당연히 북계 병력이 더 큰 규모로 동원되었을 것이다. 새로 편성된 군대의 한계와 중앙군의 수적 제한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병력 증강은 북계 병력의 투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서경에 집결시킨 뒤 동계로 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휘관 임명 후 서경행차까지 소요된 한 달은 바로 북계 병력의 편제와 이동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숙종 때 마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숙종은 동왕 9년 5월 南京 건설을 마친 후²⁵⁾ 7월에 남경에 행차하여²⁶⁾ 10월에 돌아왔다.²⁷⁾ 그리고 이듬해 8월 다시 서경에 행차하였다.²⁸⁾ 이행차의 배경으로는 남경 건설로 위상 저하가 우려되는 서경을 위무하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남경 건설은 숙종 6년(1101)에 시작되었고,²⁹⁾ 즉위 후 서경에 간 적이 없던 숙종은 동왕 7년에 처음으로 서경을 다녀왔다.³⁰⁾ 남경 건설에 따른 서경 위무는 이 행차에서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숙종 10년(1105)의 행차는 이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숙종이 여진 정벌 실패 후 이를 다시 실현할 의지를 강력하게 천 명하였음을 감안하면, 서경 행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원정을 위한 준 비에 있었을 것이다. 특히 숙종은 서경 순행 중 위독해지고 결국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였다. 이는 당시 행차가 무리를 무릅쓰고 강행

^{24) 『}高麗史節要』 27, 肅宗 9년 2월, "幹又邀功 引不教之兵 遽出與戰 敗死者大半"

^{25) 『}高麗史』 권12, 肅宗 9년 5월 甲午, "南京宮闕成"

^{26) 『}高麗史』 212, 肅宗 9년 7월 戊戌, "幸南京"

^{27) 『}高麗史』 권12, 肅宗 9년 10월 辛亥, "王還宮"

^{28) 『}高麗史』 권12, 肅宗 10년 8월 乙亥, "幸西京"

^{29) 『}高麗史』 권11, 肅宗 6년 9월, "是月 置南京開創都監"

^{30) 『}高麗史』 권11, 肅宗 7년 7월 庚戌, "幸西京"

된 것임을 짐작케 하는데, 그것이 여진 정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윤관이 별무반 창설을 건의한 시점은 숙종 9년 12월이다.³¹⁾ 이듬해 서경 행차는 그에 이어 전쟁의 기반을 갖추는 과정이었으며, 서경의 출정은 이 때 이미 입안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계는 동계에 비해 州鎭의 수도 많고 주둔군의 규모도 컸다. 거 란과 전쟁을 치른 데다가 이후 興遼國의 반란 등 요동 지역의 정세 변동도 있었다. 압록강 동안의 保州 지역을 두고 거란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재연될 여지도 상존하였다. 자연 히 고려의 군사력은 북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³²⁾

또한 이 지역에는 국초 이래 이주하여 토착화된 부류들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발해 유민이다. 발해 멸망 후 고려에 유입된 유민들은 대부분 북계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33) 태조 17년(934) 발해 태자 大光顯이 내투할 때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온 것으로 되어 있고, 34) 태조 22년(939) 한 해에 2천여 호가 내투하였다. 35) 경종 4년(979)에도 발해인 수만이 내투한 기사가 있다. 36) 과장은 있겠으나 많은 무리가 온 것은 분명할 텐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곳은 북계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거란의 2차 침입 때 잡아간 발해인으로 요동 지역에 2개 州를 설

^{31) 『}高麗史』 281. 兵1 五軍 肅宗 9년 12월 "尹瓘奏 始置別武班"

^{32) 『}高麗史』 兵志 州縣軍조에 정리된 양계 군사 규모를 보면, 行軍 수에서 북계는 약 39,000여 명, 동계는 약 11,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북계의 군액이 동계보다 4배 가까운 규모인 것이다(액수 계산은 李基白, 「高麗州縣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46~247쪽 및 250~251쪽 참조). 또한 동계는 동해안에서 남 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登州 이남의 병력이 투입될 여지가 적었다.

³³⁾ 李種明,「고려에 來投한 渤海人考」,『白山學報』4,1968,218쪽. 金昌謙,「後三國 統一期 太祖 王建의 浿西豪族과 渤海流民에 대한 政策研究」, 『成大史林』4,1987,76~79쪽.

^{34) 『}高麗史』 22、太祖 17년 7월、"渤海國世子大光顯 率聚數萬 來投"

^{35) 『}高麗史』 22, 太祖 22년, "是歲 渤海人朴昇 以三千餘戶 來投"

^{36) 『}高麗史』 22, 景宗 4년, "是歲 渤海人數萬 來投"

치한 것은 당시 북계에 정착한 발해인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보 여준다 37) 이들은 고려가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38) 그 뒤 현종대 흥요국 반란으로 다시 많은 수의 발해인이 내투하였다 39) 이들 또한 북계에 정착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 현 지인화된 그 후예들이 여진 정벌에 우선적으로 동원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발해 유민을 위시한 북계 주민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성 종 때 崔承老의 상서에서 그 단서가 발견된다.

바라건대 要害를 택하여 강역을 정하고 十人으로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할 수 있는 자를 뽑아 그 防戍에 충원하십시오. 그리고 偏將을 뽑아 統領하게 하면 京軍이 번갈아 방수하는 수고를 면하고 군량을 수송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0)

위 건의는 거란과 접하고 있는 서북방의 방어에 대한 것이다. 여 기서 최승로는 '土人'을 선발하여 방수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토인이란 서북방에 토착한 무리를 말하는데. 여기에 남도에서 徙民된 부류 외에 국초부터 유입되어 정착한 발해 유민도 다수 포 함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발해 유민이 북방 방어를 위한 군사력으로 운용되었을 것인데, 이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大道秀 등 발해계 인물이 활약한

^{37) 『}遼史』 248, 地理2 東京道 寧州, "統和二十九年 伐高麗 以渤海降戶置" 『遼史』 248,地理2 東京道 歸州,"太祖平渤海 以降戶置 後廢 統和二十九年 伐 高麗 以所俘渤海戶 復置"

³⁸⁾ 유경진, 「고려초기 三韓—統意識과'高麗三京': 東京 연혁의 역사적 합의」, 『한 국중세사연구』51, 2017②, 375~376쪽.

^{39) 『}高麗史』 25. 顯宗 21년 5월 乙丑, "契丹水軍指麾使虎騎尉大道李卿等六人來投 自是 契丹渤海人來附甚眾"

^{40) 『}高麗史』 282. 兵2 鎭戍 成宗 원년 6월. "乞擇要害 以定疆域 選土人能射御者 充其防戍 又選偏將 以統領之 則京軍免更戍之勞 菊粟省飛輓之費"

것을 통해 뒷받침된다. 그는 최승로가 말한 '偏將'에 해당하며 발해 계 주민으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했을 것이다. 이러한 前史에 비추어 여진 정벌에 북계 주민을 동원하는 방안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⁴¹⁾

한편 여기서 발해계 주민과 별무반 중 신기군의 편성과의 관련성이 유추된다. 별무반 편성에서 말을 가진 사람을 신기군으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주가 바로 기병이 될 수는 없다. 말을 가진 자의 편성이 가지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말의 '징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려 후기에는 백관이나 사원의 승려로부터 말을 내게 하여 戰馬에 충당하는 조치가 자주 보인다. 42) 이것은 강제적인 조치로서 '징 발'로 표현되는 사례도 보인다. 43) 이렇게 말을 내는 사람들은 별무반에서 말하는 '有馬者'와 현실적으로 다를 수 없다. 그렇다면 별무반의 '有馬者' 편성은 실제 이들을 기병으로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말 징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징발하는 데 상응하여 그 말을 타고 전투에 참여하는 기병이 상정된다. 고려말의 사례는 대개 기병의 수적 증강보다는 말의 결핍이나 노쇠화로 허술해진 기병을 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원종 14년(1273) 사례를 보면, 民馬를 빼앗아 군사의 여윈 말과 바꾸는 내용도 있어⁴⁴⁾ 이러한 원리를 짐작할 수 있다.

⁴¹⁾ 조선초기의 사례지만, 내부한 女真 幹都里 등을 內地에 옮겨 藩屏으로 삼았다고 한 것도 비슷한 원리를 내포한다(『高麗史』 권46, 恭讓王 4년 3월 庚子, "幹都里兀良 哈諸酋長 皆授萬戶千戶百戶等職有差 月賜米穀衣服馬匹 諸酋感泣 皆內徙爲藩屏"

⁴²⁾ 몇 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 282, 兵2 馬政 忠烈王 13년 5월, "令百官出戰馬及器皿"

[『]高麗史』 282, 兵2 馬政 恭愍王 8년 12월, "令承宣以上出馬一匹 又括禪教各寺僧徒馬 以充軍用"

[『]高麗史』 282, 兵2 馬政 恭愍王 11년 10월, "令文臣出戰馬"

^{43) 『}高麗史』 282, 兵2 馬政 辛福 원년 9월, "徵諸寺住持僧戰馬各一匹"

^{44) 『}高麗史』 刊82, 兵2 馬政 元宗 14년 2월, "令諸王 宰樞 四品以上 各出馬一匹 五六品二員 幷出一匹 或奪民馬 以換軍士痩馬"

이에 대해 별무반은 기존의 운영 규모 이상으로 기병을 증강하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말을 징발하게 되면 기존 병력 자원 중 기병으 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당시 고려 사회에서 이 것이 가능한 존재는 북계 주민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최승 로가 "활쏘기와 말타기를 할 수 있는 자"의 동원을 말한 것에서 유 추된다. 이 때 발해계 주민은 본거지나 정착지에서 전쟁 상대인 여 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내투 이후 여러 代가 내려왔다는 점에서 '발해인'으로서 성격이 많이 희석되었겠지만. 지역 여건상 과 거의 전통을 상당 부분 유지했을 것이다.

遼가 혼란에 빠진 예종 12년(1117) 요에서 내투한 부류 중에 '渤海' 가 따로 언급되고 있어45) 고려에서 발해를 여전히 구분되는 범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북계에 정착한 발해 유민의 후손들도 상당 기간 발해의 정체상과 습속을 유지했을 것이다. 따라 서 발해계 주민은 기병을 활용한 전술 운영에서 남도 출신보다 훨씬 적합한 존재였다. 이 점에서 실제 신기군으로 편성된 주력 부대는 북계 병력, 그 중에서도 발해계 주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6)

이처럼 북계의 상주 병력, 또는 현지인들이 대대적으로 전쟁에 투입되었다고 할 때. 이들이 개경에 집결했다가 동계로 이동하는 것 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남도 지역에서 충원된 이들은 개경에 모여 열병을 거쳤겠지만.47) 북계의 병력은 서경에 모인 뒤 바로 동

^{45)『}高麗史』 권14, 睿宗 12년 정월 壬辰, "渤海五十二人 奚八十九人 漢六人 契丹十 八人 熟女眞八人 自遼來投"

⁴⁶⁾ 김낙진은 당시 여진 정벌에서 기병 작전이 확인되지 않고 주로 守城戰이 주류였 다고 지적하였다(김낙진, 앞의 논문, 2017, 174~175쪽). 그러나 기병전은 여진 부 락을 소탕하는 '공격'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수성전은 축성 후 이를 공격 하는 여진에 맞서는 '방어'의 성역이므로 그 맥락이 다르다. 고려 원정군이 빠른 시일에 여진 부락을 불태우고 축성을 진행한 것은 초기 공격 전술이 기병 중심으 로 전개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⁴⁷⁾ 후술하듯이 右軍은 선박을 이용해 길주로 북상하였다. 북계 주민은 이러한 전략에 적 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군은 남도에서 치출된 병력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예종은 이러한 사정에 맞추어 서경에 행차하여 이곳에서 출정식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의 舊都로서 서경의 상징성과 고구려 失地의 회복이라는 명분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었다. 앞서 고려는 거란과의 1차 전쟁을 협상으로 마무리하고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당시 서 희는 압록강 너머로의 진출까지 도모했으나 전쟁 재발을 우려한 성종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성종은 전쟁 과정에서 割地論을 제시한 구신라 계열을 무마하기 위해 경주를 東京으로 삼았다. 이는 기존 고구려계승의식의 후퇴를 의미하였다 48)

그런데 현종 즉위 후 다시 거란이 침공하였고, 고려는 개경이 함락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北界 諸城이 분전하면서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이 때 북계에 정착해 있던 발해 유민은 전쟁에 공을 세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잡혀가는 피해를 입었다. 고려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였다. 현종 3년(1012)지방제도 개편에서 동경을 폐지한 것은 그 일환으로서 북계 주민및 발해 유민의 정체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49)

예종대의 여진 정벌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여진 정벌 자체가 고구려 구지의 수복이라는 명분을 걸고 있었다. 이 명분은 이미 국초의 북방 개척에 투영되고 있었다. 여기에 다수의 발해 유민이 정착하였던 만큼, 북계 주민은 타 지역에 비해 고구려계승의식이 강했을 것이다. 그러한 북계 주민이 여진 정벌에서 주력군을 형성하였다. 이들을 서경에 모아 출정식을 가지는 것은 군사 운용의 실용적 측면과 더불어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여진 장벌의 동력으로 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었다. 일관이 서경에서 출정할 것을 청한 것 또한 이러한 요소를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⁴⁸⁾ 윤경진, 앞의 논문, 2017②, 365~372쪽.

⁴⁹⁾ 윤경진, 위의 논문, 2017②, 372~380쪽.

3 여진 정벌의 목표점과 전략

동북 9성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지만 기존에 크 게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고려가 여진 정벌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영토개척 과정과 그 결과로서 개척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원정 과정에서 그 범위가 미달될 수도 있고. 그보다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1차 원 정이 단기간에 승전과 축성으로 귀결된 만큼. 초기의 개척 범위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북 9성의 범위가 길주를 상한으로 한다면, 고려 워정군의 목표 또한 이와 연관될 것 이다. 따라서 원정 목표에 대한 검토는 길주이남설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고려 원정군의 당초 목표점에 대해서는 다음 두 기사가 발견 되다

① 여진은 본래 말갈의 남은 무리로서 수당 때 勾高麗에게 병합되었다. 뒤에 취락을 이루어 山澤에 흩어져 살며 통일되지 않았다. 이 중 定州朔州와 가까운 곳에 사는 자는 간혹 內附했으나 臣屬했다가 반기를 들었다 하였다. 盈歌와 烏雅束이 연이어 추장이 되어 자못 무리의 마음을 얻어 그 세력이 점차 강해졌다. 伊位 경계에 산이 이어져 있어 동해 연안에서 일어나 우리 북쪽 변경에 이르니 지세가 헊하고 거칠어 人馬가 지날 수 없었다. 그 사이에 한 길이 있어 세상에서 甁項이라 칭하며 한 구멍으로만 출입할 뿐이라고 하였다. 공을 노린 자가 가끔 건의하여 그 길을 막으면 오랑캐의 길이 끊어질 것이니 군대를 보내 평정할 것을 청하였다. 50)

^{50) 『}高麗史』 296. 列傳9 尹瓘. "女眞 本靺鞨遺種 隋唐間 爲勾高麗所幷 後聚落 散居 山澤 未有統一 其在定州朔州近境者 雖或內附 乍臣乍叛 及盈哥烏雅束 相繼爲酋長 頗得家心 其勢漸橫 伊位界上 有連山 自東海岸崛起 至我北鄙 險純荒翳 人馬不得 度 間有一徑 俗謂瓶項 言其出入一穴而已 邀功者 往往獻議 塞其徑 則狄人路絶 請 出師平之"

② 처음에 조정에서 瓶頂을 얻어 그 길을 막으면 오랑캐의 우환이 영구히 끊어질 것이라 하였는데, 그곳을 攻取해 보니 수륙으로 도로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소문과는 전혀 달랐다.⁵¹⁾

위의 두 기록을 연결해 보면 고려의 원정은 伊位 경계상에 있는 瓶項을 차단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伊位'는 '伊板'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⁵²⁾ 이에 비추어 보면 고려군의 공격 목표점은 이판, 곧 마천령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서 定州와 朔州는 고려의 長城에 의해 형성된 동여진 방면 경계의 兩端을 표상하며, 산이 이어져 동해안에서 일어나 북쪽 변경에 이른다고 한 것은 개마고원을 가리킨다. 이것은 「영주청벽상 기」에서 고려의 개척 범위에 대해 서쪽과 북쪽이 개마산이라고 한 것에 조응한다. 이판령은 이 개마산의 동쪽 끝에 위치한 고개이다. 고려군은 정주 관문을 나서서 이판령 병항을 목표점으로 정벌을 진행한 것이다.53)

고려의 공격 전략도 이에 맞추어 전개되었다. 다음 두 기사는 이 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① 左軍이 石城 아래에 도착하여 여진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譯官 戴彦을

^{51) 『}高麗史』 296, 列傳9 尹瓘, "初 朝議以得瓶項 塞其徑 狄患永絶 及其攻取 則水陸 道路 無往不通 與前所聞絕異"

⁵²⁾ 실상 '位'와 '板'은 글자가 유사하여 기록 과정에서 이표기가 발생할 수 있다.

⁵³⁾ 쌍성총관부 수복 직후인 공민왕 6년 고려 都堂에서 行省에 보낸 글을 보면, "若於 伊板隘口 設置關防 以謹出入 庶無後患(『高麗史』 권39, 恭愍王 6년 8월 戊午)"이라는 구문이 보인다. 여기서 "隘口'는 "瓶頂"과 같은 의미로서 이판령 병항이가지는 지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려사』 윤관 열전에서 사방으로 길이 트여 있었다고 한 것은 원정 실패의 명분적 이해와 관련된다. 곧 당초 목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적시함으로써 당시 원정을 국력을 소비한 무모한행위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윤관이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탄핵을당한 것과 연결된다(『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瓘等妄興無名之兵 敗軍害國 罪不可赦 請下吏").

보내 항복을 설득하였다. (중략) 또 崔弘正金富丽과 錄事 李俊陽을 보내 伊拉侗을 치게 하니 적이 맞서 싸웠다 오래 걸려 이겼다 54)

②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니 文冠은 左軍兵馬使로 참전하였다. 石城을 공격하여 합락하고 福州城을 쌓았다 55)

위의 두 기사는 여진 정벌 초기의 전황을 정리한 것이다. ①은 左軍이 石城과 伊位洞을 공격한 상황을 담고 있고. ②는 석성을 함 락한 후 福州를 설치한 내용이다 죄군의 지휘관이 바로 文冠이어서 두 기사가 같은 전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여진은 석성을 지키며 고려군과 일전을 치렀고. 고려는 拓俊京의 분전으로 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 56)

그런데 ①의 내용을 보면 석성 함락 후 곧이어 伊位洞을 공격하고 있다. '伊位'는 앞서 언급한 대로 '伊板'과 같은 명칭이므로 이위동은 이판령 인근에 위치하며,57) 석성 또한 이곳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고려는 석성을 함락한 후 이판령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이곳에서 여 진을 격파함으로써 이판령의 길목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 전투로 설치된 복주 또한 이판령에 인접할 것인데. 이 점에서 복주를 端州 연혁에 연결한 『고려사』 지리지 기록은 타당성을 가진다. 58)

^{54) 『}高麗史』 刊96. 列傳9 尹瓘. "左軍到石城下 見女眞中聚 遺譯者戴彦論降(중략) 又遣弘正富弼錄事李俊陽 擊伊位洞 賊逆戰 久乃克之"

^{55) 『}高麗史』 297, 列傳10 文冠, "尹瓘征女真 冠以左軍兵馬使從 攻石城克之 築福州城"

^{56) 『}高麗史』 296. 列傳9 尹瓘."遂入石城拒戰 矢石如雨 軍不能前(중략)是俊京殺 身報効之秋也 遂至石城下 擐甲持楯 突入賊中 鑿殺酋長數人 於是 瓘麾下 與左軍 合擊 殊死戰 大破之"

⁵⁷⁾ 이에 앞서 伊位村의 용례가 보인다(『高麗史』 권11, 肅宗 6년 2월 乙巳, "東女眞伊 付村都領怪夫等三十人 來朝").

⁵⁸⁾ 고려말 東北面의 신설 州鎭 중에서 동북 9성과 연혁이 연결된 것은 咸州와 吉州. 端州 등 세 곳이다. 이 중 단주는 명칭이 달라졌음에도 연혁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자료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5, 24~30쪽), 이에 비추어 복주의 위치와 설치 과정은 본래 목표점이었던 伊位를 이판령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윤관 열전 기록을 보면, 석성과 이위동의 승전을 끝으로 1차 원정의 전투가 마무리되고, 그 동안 각 부대가 달성한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윤관은 정부에 승첩을 고한 뒤 장수들을 보내 地界를 획정하고 英州雄州福州·吉州 등 4개의 성을 쌓았다. 59)

그렇다면 길주 방면은 언제 어떻게 진출한 것일까. 당시 출정은 이판령 아래의 복주를 건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여기서 더 북상하여 길주를 건설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명백 히 關門이 설치되고⁶⁰⁾ "적의 경내 깊숙이 들어가 있다"⁶¹⁾는 길주가 복주보다 남쪽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복주가 이판령 남쪽의 단주라면 길주는 이판령 북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며, 고려말에 설치되는 길주와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길<mark>주</mark> 방면의 개<mark>척</mark>이 육로가 아니라 해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얻을 <mark>수</mark> 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이해 의 단서를 제공한다.

여진 병사 수만이 와서 雄州를 포위하였다. 최홍정이 士卒을 독려하니 무리가 모두 싸움을 생각하였다. (중략) 척준경이 사졸의 찢어진 옷을 입고 밤에 줄을 타고 성을 내려와 定州로 돌아와 군대를 정돈하고, 通泰鎭 길로 가서 也等浦로부터 吉州에 이르렀다. 적을 만나 싸워 크게 이기니 성안 사람들이 감동하여 울었다 62)

⁵⁹⁾ 고려는 곧이어 추가로 中城과 山城을 쌓았는데, 이들이 각각 咸州와 公嶮鎮이다. 두 성의 축조는 英州 등 기존 4城으로 구성되는 영역 안에서 보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는 공험진이 길주 이남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근거가 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6, 15~17쪽).

^{60)『}高麗史』 213, 睿宗 4년 3월 乙卯, "行營兵馬判官許載金義元等 與女眞 戰于吉州關外 斬三十級 獲其鐵甲牛馬"

^{61)『}高麗墓誌銘集成』許載墓誌銘,"一日拓定九城 以兵馬判官 入守吉州 其時九城中唯吉最近虜境 以故虜攻之日甚"

위 기사는 웅주성이 포위되었을 때 이곳을 탈출하여 원병을 이끌고 온 척준경의 활약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정주로 돌아온 척준경이 야등포를 이용해 길주로 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척준경이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척준경이 구원하고자 하는 곳은 웅주이며, 웅주는 관문이 설치된 길주보다 남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척준경은 해로를 통해 길주로 간 다음, 이곳에서 웅주로 내려온 것이다. 63)

실제 후대에도 선박 편으로 길주로 들어가는 사례가 보인다.

8년에 왕이 趙敦을 보내 壓書를 가지고 가서 유시케 하니, 조돈이 登州에 이르러 배를 타고 반 달을 가서 海陽에 이르러 새서를 내렸다. 趙小生 등이 조돈을 따라 入朝하려다가 다른 뜻을 품고 무장을 하고 기다리니 조돈이 바로 배를 타고 돌아왔다. 64)

위 기사는 공민왕 8년(1359)에 조돈이 해양, 곧 길주로 가서 조소생 등을 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조돈은 등주에서 배를 타고 길주로 갔으며, 역시 배를 타고 돌아왔다. 이는 당시 이판 령 북쪽으로 갈 때에는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처음 여진 정벌을 통해 4성을 설치하는 과정에도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원정은 석성에 복주를 설치하고 이위동을 확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그보다 북쪽에 있 는 웅주와 길주는 이와 다른 방향, 곧 해로를 통해 길주 방면에 상 륙한 다음, 공격 목표였던 이판령 방면으로 남하하면서 설치되었다.

길주 방면의 경략은 당시 출정군 중 右軍이 담당하였다. 출정 기

⁶³⁾ 윤경진, 앞의 논문, 2016, 24~25쪽.

^{64) 『}高麗史』 2111, 列傳24 趙暾, "八年 王遣暾齎璽書往諭. 暾至登州浮海 舟行半月 至海陽 賜璽書 小生等 欲從暾入朝 復懷異志 衷甲而待 暾即登舟而還."

사를 보면, 윤관은 53,000명의 본진을 이끌고 정주 大和門을 나섰고, 金漢忠이 이끄는 中軍 35,700명은 安陸戍를 나섰다. 문관이 이끄는 左軍 33,900명은 정주 弘化門을 나섰고, 김덕진이 이끄는 右軍 43,800명은 宣德鎮의 安海戍와 拒防戍 사이를 나섰다. 그리고 船兵別監과 元興都部署使鎮溟都部署副使는 船兵 2,600명을 이끌고 道鱗浦를 나섰다.

주목되는 것은 우군이 선덕진의 안해수와 거방수 사이로 나섰다는 점이다. 선덕진은 장성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바다에 인접해 있다. 그리고 안해수는 중군이 경유한 안륙수와 대비하여 해안 경비와 관련됨을 짐작할 수 있다. 곧 우군은 바다 쪽으로 이동한 것인데이는 바로 선박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선병별감의 지휘 아래 원흥도부서와 진명도부서 관할의 선박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각각 원흥진과 진명현을 출발하여 도린 포에 집결했다가 출정하였다. 이 때 동원된 선군 2,600명은 전투 병력이 아니라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인력이며, 이 선박에 탑승하여 이동한 전투 병력이 바로 우군이었다. 이들은 선덕진을 나와 도린포 로 이동하여 이곳에 모인 선박을 타고 길주 방면으로 올라가 경략 을 진행하였다. 우군의 수가 좌군이나 중군에 비해 많은 것도 이들 이 이판령 이북에서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응 주가 포위되었을 때 최준경이 탈출하여 원병을 이끌고 간 것 역시 주변 지역에서 직접 지원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좌군은 내륙 방면의 경략을 담당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고려는 함주-영주-복주-웅주-길주를 연결하는 간선로 외에 갑산 방면으로도 추가 경략을 진행했음이 지적되었다. 고려말 英州로 비정되는 북청에서 멀리 떨어진 갑산이 길주 방면보다 먼저 개척된 것은 앞서 이 방면의 개척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65)

⁶⁵⁾ 윤경진, 앞의 논문, 2016, 27~29쪽.

고려군은 영주에 근거를 두고 加漢村 甁項 방면으로 진출을 도모 하였다. 일차 진출은 실패했지만, 곧이어 여진의 내투가 있었다.

추장 阿老喚 등 403인이 진영 앞으로 와서 항복을 청하였다. 남녀 1.460여 이이 또한 左軍에 항복하였다.66)

위의 기사는 영주성 방면의 전황 설명 중에 등장하는데. 여진이 좌군에 항복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좌군의 거점이 영주성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좌군은 영주성을 발판으로 갑산 방면으로도 추가 경략을 수행했던 것인데. 이는 고려의 진군 방향에서 왼쪽에 해당한다. 이에 대응하여 바다 쪽은 오른쪽이 된다.

결국 고려군은 이파령을 목표점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에서 이워 적으로 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육로를 통해 이판령으로 진주하는 한 편. 선박을 이용하여 이판령 북쪽에 상륙하여 남하하였다. 이와 같 이 해로를 이용한 것은 육로 이동 거리가 길어 군대가 지치고 도중 에 여진과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목표점인 이판령 병항이 좁은 길 하나만 있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해로를 통해 이판령 북쪽에 상륙한 후 남하하며 개척을 진행 함으로써 병항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자 한 것이다 67)

^{66) 『}高麗史』 396. 列傳9 尹瓘. "酋長阿老喚等四百三人 詣陣前請降 男女一千四百六 十餘人 又降于左軍"

⁶⁷⁾ 고려는 원정 후 거란에 보낸 表文에서 "여진의 弓漢里(길주)가 본래 고려의 땅이 며 근래 수복하여 성을 쌓았다"고 주장하였다(『高麗史』권96. 列傳9 金仁存. "國 家初築九城 使告契丹表稱 女眞弓漢里 乃我舊地 其居民 亦我編氓 近來 寂邊不已 故收復而築其城"). 이 점에서 원정의 목표점을 궁한리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원 정 과정은 길주에 상륙한 후 이판령 방면으로 내려오는 것이어서 최종 목표점은 이판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궁한리가 지목된 것은 결과적으로 길주 지 역까지 개척된 것에 따른 서술로 이해된다.

4. 고려의 城 상실 사례

『고려사』에 정리된 여진 정벌 기사는 대부분 고려의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 특히 전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활동에 무게가 실려 있는 탓에 전투 성과 중심으로 기술된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성의 함락과 상실 같은 피해 상황에 대한 서술은 드물며 내용도 소략하다.

반면 『金史』 등 여진쪽 기록은 당연히 여진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적고 있다. 이 또한 관련 인물들의 전과가 부각되는 특성을지닌다. 다만 『고려사』 기록에 보이지 않는 전황, 특히 고려에 불리한 기록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으로 채용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당시 전황에 대한 보완적 이해가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여진의시각에 의한 과장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고려가 여진을 정벌하고 개척한 지역은 9성으로 통칭되지만 기록에 나오는 성은 12개이다. 주지하듯이 축성 기사에 보이는 宜州와 平戎鎮, 公嶮鎮은 철거 기사에 나오지 않고, 반대로 축성 기사에 보이지 않는 崇寧鎮과 眞陽鎮, 宣化鎭이 철거 기사에 보인다. 이를 아울러 인정한다면 축성 수는 12개가 되며, 68) 도중에 일부 성이 추가되는 이면에서 일부가 상실 또는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중공험진은 전략적 가치의 하락으로 도중에 폐지된 것이며, 의주와 평융진은 갑산 방면으로 추가 진출하면서 설치했다가 여진의 공격으로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69)

이러한 전황과 관련하여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⁶⁸⁾ 송용덕, 앞의 논문, 2011, 81쪽.

⁶⁹⁾ 윤경진, 앞의 논문, 2016, 29쪽.

고려가 慰懶甸에 9성을 쌓으니 渾坦이 이를 공격하였다. 마침 木里門甸에서 적을 만나 오랫동안 힘써 싸웠다. 阿里가 창을 들고 달려나가 그 장수를 진중에서 찌르니 적이 마침내 궤멸되었다. 호탄이 石滴歡과 徒門水에서 군대를 합치니 아리가 앞장서서 적병을 물리치고 그 두 성을 취하였대取其一城 고려가 쳐들어 왔으나 우리 군대가 要害를 지키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에 돌아갔다. 70)

위의 기사는 『금사』 斜卯阿里 열전의 것으로서 고려의 동북 9성 개척에 맞서 사묘아리가 아버지 혼탄과 함께 2개 성을 취한 사실이 보인다. 이에 따르면 고려는 9성을 축조한 후 여진의 공격으로 두 성을 빼앗긴 것이 된다

9성 지역 중 길주는 철거 직전까지 최전방으로 전투가 벌어졌으 므로 이 방면에서 개척의 후퇴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9성이 순차적으로 철거된 것에 비추어 두 성은 철거 기사에 열거된 성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은 추가 진출한 갑산 방면에서 발 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71)

당시 전황은 영주성을 거점으로 전개된 가한촌 병항 방면의 전투

^{70) 『}金史』 280. 列傳18 斜卯阿里. "高麗築九城於曷懶甸 渾坦攻之 遇敵於木里門甸 力戰久之 阿里挺槍馳刺其將於陣中 敵遂清 渾坦與石滴歡合兵於徒門水 阿里首敗敵 兵 取其二城 高麗入寇 以我兵屯守要害 不得進 乃還"

⁷¹⁾ 갈라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런데 하나의 지명 단위가 설정될 수 있 는 범위를 고려하면, 고려의 장성을 하한으로 하는 갈라전의 범위가 자연 지형의 경계가 분명한 마천령을 넘기는 어렵다. 이 경우 갈라전보다 9성의 축성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다. 그런데 "갈라전의 9섯 축조"는 갈라전과 9섯이 같은 범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9성 축조 지역이 갈라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곧 갈라전은 여진이 고려에게 빼앗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에 대 해 9성은 고려가 여진으로부터 확보한 지역을 표상한다. 한편 같은 기사에서 고려 와 여진은 木里門甸에서 충돌하는데, '甸' 이라는 같은 어미를 사용하 것에서 목리 문전을 갈라전과 구분되는 인접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목리문전은 추가 개척이 이루어지는 갑산 방면으로 비정할 수 있다. 한편 津田左右吉도 갈라전을 마천령 이남으로 보았다(津田左右吉,「尹瓘征略地域考」,『朝鮮歷史地理』2, 南滿 洲鐵道株式會社, 1913;『津田左右吉全集』11, 岩波書店, 1963).

와 연결된다.⁷²⁾ 고려는 두 성을 빼앗긴 후 다시 공격했으나 여진이 요해를 지킴으로써 이를 돌파하지 못하였다. 이 요해가 바로 가한촌 병항으로 판단된다.⁷³⁾ 고려는 처음에 이곳을 넘어 갑산 방면으로 진출하여 성을 쌓았으나 여진의 반격으로 이를 상실하였고, 다시 수 복을 도모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외에도 여진에게 성을 상실하는 내용이 보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이것은 관련된 성의 위치와 전황을 이해 하는 데에도 참고가 된다. 먼저 「李坦之墓誌銘」에 다음 기사가 보 인다.

걸어서 元興鎭에 이르러 수송선을 빌려 타고 100여 인과 함께 노를 저어 꽃과 섬을 따라 별을 이고 邦頭浦에 이르러 정박하니 배를 내려 雄州城에 들어갔다. (중략) 7일이 지나 유골을 수습하여 함에 넣어 등에 지고 돌아오려는데 강한 적들이 성벽에 달라붙어 그 성을 攻陷하고 승기를 타고 돌격하니 도망가 숨을 방법이 없었다. 몸을 빼내 탈출하여 강가를 따라 桃林浦에 이르렀다. 74)

⁷²⁾ 송용덕은 당시 전투에서 고려가 여진의 공격으로 공험진과 평융진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송용덕, 앞의 논문, 2011, 99쪽). 이는 徒門水를 두만강으로 보고 두 곳이 길 주 이북에 있다는 추론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험진을 최북단 경계 지역으로 보고, 평융진 또한 길주 이북, 나아가 두만강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方東仁, 『韓國의 國境確定 研究』, 一潮閣, 1997, 173~175쪽). 『高麗史節要』에는 3성의 추가 축성과 사민에 대해 朴景綽이 비판하며 "更深入狄境 列置城地"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高麗史節要』 권7, 睿宗 3년 3월), 추가 축성 지역 중 의주는 장성 이남이고 통태진은 정주와 웅주 사이에 있으므로 박경작의 지적은 평융진을 가리킨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의주는 장성 이남의 宜州(예종 때 명칭은 湧州)와 다른 곳이고, 갑산 방면 또한 적경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평융진을 길주 이북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金史』에 보이는 徒門水를 두만강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거니와 길주를 구원하러 가다가 공험진에서 전투가 벌어진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⁷³⁾ 가한촌 병항은 북청과 갑산 사이에 있는 요해처인 후치령으로 추정된다.

^{74) 『}高麗墓誌銘集成』李坦之墓誌銘,"步戛元興鎮 借乘轉輸紅 與百許人 放榜循花島 戴星 至泊邦頭浦 下舡 入雄州城(중략)涉七日 拾骸安函 背負將還 迨勁敵蟻附 攻陷其城 乘勝突戰 无有遁逃之地 抽身出走 循江涯 至桃林浦"

^{&#}x27;花島'에 대해서는 섬 이름으로 보기도 하지만, 특정 섬이 항해를 나타내는 '徇'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戴星'과 병칭된다는 점에서 연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

이탄지는 웅주에 출정해 있던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직접 웅주로 갔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여진이 웅주성을 '攻陷'한 것으로 되어 있 다 이에 따르면 웅주는 철거 이전에 상실한 것이 될 수 있다. 하지 만 이미 상실한 곳을 철거 대상으로 열거할 이유가 없거니와 웅주 는 가장 늦게 철거된 곳이다.

여기서 기사 내용을 세밀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구문은 여 진이 웅주를 '공함'한 후에 "승기를 타고 돌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함 후에도 전투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곧 '공함'은 성의 '상실'까 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돌파한 여진군이 성내로 '진입'하 여 전투를 벌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웅주가 일시 함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진이 이곳을 지속적으 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척준경이 원군을 이끌고 가서 구워한 사 정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고려가 회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진이 웅주를 공격하여 함락에 상응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더라도 고 려가 이곳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앞서 인용한 사묘 아리 열전 기사는 명확히 2개의 城을 '取'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려의 반격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웅주의 전황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금사』에는 駝吉城의 함락과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① 고려가 갈라전에 9성을 쌓으니 阿徒罕이 선봉이 되었다. 고려에서 海島에 주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도한이 무리 30인을 이끌고 밤에 건너가서 그 진영과 목책 전함을 불태우고 크게 무찔렀다. 마침내 陀吉城을 함락하고 곧이어 8성이 모두 함락되니 공이 최고였다. 75)

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 '島는 '鳥'의 오독일 여지도 있는데(윤 경진, 2016 앞의 논문, 185쪽, 주 50)), '循花島(島)'는 낮의 항해를, '戴星은 밤 의 항해를 각각 나타내면서 밤낮으로 항해했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75) 『}金史』 381. 列傳19 阿徒罕. "高麗築九城於曷懶甸 斡塞御之 阿徒罕爲前鋒 高麗 有屯於海島者 阿徒罕率聚三十人夜渡 焚其營柵戰艦 大破之 遂下陀吉城 既而八城 皆下 功最"

② 斡塞와 烏睹本이 駝吉城을 공격하니 아리는 성벽을 뚫어 문을 만들었는데 날이 저물어 들어갈 수 없으므로 군대로 지키게 하고 아침에 마침내 그 성을 취하였다.⁷⁶⁾

위의 두 기사는 고려의 동북 9성 개척 때 이에 대항한 여진의 아도한과 사묘아리의 활동을 담고 있다. 두 기사에 보이는 陀吉城과 駝吉城은 같은 곳으로, 통상『고려사』기록의 길주로 보고 있다.77)

타길성에 대해 ①에는 함락 사실만 나오지만, ②에는 '取'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웅주성과 달리 타길성은 함락되어 여진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①의 내용을 보면, 앞에 고려의 9성 축조를 말한 뒤 타길성 함락에 이어 "8성을 모두 함락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여진이 9성 지역을 모두 수복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9성 환부를 여진의 '攻取'로 해석하는 맥락에서 구성된 셈이다. 길주는 9성 환부 결정 직전까지 공방이 벌어졌던 곳이고, 9성 철거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따라서 길주 전투와 9성 환부를 연결하면 여진이 먼저 길주를 차지하고 이어 나머지를 수복했다는 맥락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길주 공취는 9성의 '환부'를 여진의 '수복'으로 치환하여 이해한 결과인 것이다.

한편 다음 기사는 자료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이다.

고려가 출병하여 갈라전을 침구하고 나아가 9성을 쌓으니 宗子 贈原王 付實款이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였다. 왕이 따라서 그 성[其城]을 공격했으나 오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 왕이 우두머리에게 말하기를, "저들의 외부 지원을 막고 보급로를 끊으면 공격하지 않아도 함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그 성 5개를 항복시켰다[降其城五].78)

^{76) 『}金史』 280, 列傳18 斜卯阿里,"斡塞烏睹本攻駝吉城 阿里鑿墉爲門 日已暮 不可入 以兵守之 旦日遂取其城"

⁷⁷⁾ 송용덕, 앞의 논문, 2011, 100쪽.

^{78)『}滿洲金石志補遺』外編, 莊義王完顏婁室碑(『石刻史料新編』 제1집 23책), "□麗出

위의 기사는「莊義王完顔婁室碑」에 나오는 내용으로, 고려의 9성 개척에 대한 여진의 반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고려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5개 성'을 항복시켰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여 진은 9성 철거 이전에 5개 성을 함락하여 장악한 것이 된다. 79)

그런데 이 기사를 실제 5개 성의 함락 기사로 보는 데에는 몇 가 지 의문이 따른다. 우선 위 기사는 고려의 9성 축조 후 여진이 특 정한 성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성을 오래 공격해도 함락하지 못하다가 보급로를 끊어 항복시켰다는 것이므로 '그 성(其 城)'은 여러 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에 이어 5개 성을 항복시킨 것이라면 그와 연결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만. 위 기사는 장의왕의 방안을 수용한 것에 이어 곧바로 함락 사실이 나온다

실상 이 구문이 9성 중에서 5개 성을 함락한 것이라면 표현도 "降其五城"과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것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다. 실제 『금사』 사묘아리 열전에는 "取其二城"이라는 표현 형식이 보 인다

그렇다면 이 구문에서 '五'는 함락한 성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어지는 구문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듯하다. 후속 기사는 "위왕 알대를 따라 와ㅁ닦의 반란을 토벌하였다[從魏王斡帶 討訛□潭叛]"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 적이 시작된다. 이에 비추어 '五'는 뒤이은 사적 기사의 주어인 '王'의 오독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9성 공격 때 "王從之"라는 표 현이 있음에 비추어 "從魏王斡帶"의 주어로서 '王'이 들어가는 것 이 자연스럽다.

兵 侵曷曷懶甸 進築九城 宗子贈原王付實款 帥師討之 王從攻其城 久之而不克 王 言之於帥日 宜遏彼外援 絕其餉道 可不攻自下 從之 降其城五"

⁷⁹⁾ 송용덕은 이 구문을 5개 성의 함락으로 해석하고 공험진, 평융진, 웅주, 길주, 그 리고 나머지 하나로 추정하였다(송용덕, 앞의 논문, 2011, 101쪽).

이 비문에는 결락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위 구문에도 '高麗'의 '高'를 비롯해 판독되지 않은 글자가 나타난다. 이는 판독 당시 비문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曷懶甸'을 '曷曷懶甸'으로 '曷'을 중복 기재하고 있어 전사 과정의 오류도 감지된다. 특히 '五'와 '王'은 글자가 매우 유사하여 비문에 부분적인 결락이 발생할 경우 오독의 소지가 크다. 이 점에서 '五'는 '王'으로 고쳐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장의왕의 활동에서 함락한 성은 5개가 아니라 1개가 된다. 이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갑산 방면의 최전방에 있 던 것으로 추정되는 宜州이다. 사묘아리 열전에 보이는 두 성의 함 락과 같은 사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사묘아리 열전에는 지휘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5.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 예종대 동북 9성 개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그것은 예종이 서경까지 가서 출정식을 행한 이유, 초기에 계획한 목표점과 그에 따른 전략, 그리고 도중에 성을 상실한 사례에 대한 실증적 검토 등이다. 그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종은 여진 정벌을 앞두고 개경에서 지휘관을 임명했지만 서경까지 가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는 日官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되어있고, 여진 정벌의 명분과 서경의 상징성에 비추어 고구려계승의식과의 관련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정군 편성과도 깊이 연관된다.

숙종 9년의 여진 정벌은 소요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었다. 개경에서 지휘관을 파견하였고, 동원된 군대는 지휘관이 인솔한 중 앙군과 현지의 주둔군이 주력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연이어 여진 정 벌에 실패한 뒤 고려는 별무반을 설치하고 전국적인 동원체제를 시 행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군대를 확보했지만, 단기간에 동원된 군 대의 전투력은 크게 제한되었다. 실제 당시 군대 확보와 더불어 여 러 鎭府의 병력을 상시적으로 훈련시켰다. 이들이 바로 원정군의 주력을 형성했으며, 그 핵심은 북계의 주둔군과 현지인이었다.

북계는 동계에 비해 軍額도 훨씬 많았고. 거란과의 전쟁과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국초부터 유입된 발해 유민이 이 지역에 정착하여 방어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토 착화된 발해계 주민들이 여진 정벌에 적극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별무반 편성에서 '有馬者'의 신기군 편성은 말의 징발을 의미하 며, 이 말을 공급받는 기병은 북계 지역에서 충원될 수밖에 없었다. 성종 초 최승로가 활쏘기와 말타기를 할 수 있는 土人을 뽑아 방수 에 충당하자고 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을 개경에 모은 뒤 동계로 이동하면 많은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된다. 이에 서경에 북계의 군사를 집결시키고 왕이 행차하 여 출정식을 거행함으로써 명분과 효율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지 휘관 임명 후 서경 행차까지 한 달이나 걸린 것은 이러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고려의 당초 원정 목표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문제는 개척 범위를 결정짓는 하나의 준거가 된다. 이 목표점은 伊位 경계 지역 에 있는 甁項이었다. '伊位'는 '伊板'과 같은 지명으로, 병항은 이판 령을 가리킨다. 고려의 공격 전략도 이에 맞추어 전개되었다. 정벌 초기 左軍은 伊位洞 방면의 石城을 공취하고 福州를 설치하였다. 복 주는 이판령에 인접한 端州(단천)에 해당한다.

이위동의 승전과 복주 설치를 끝으로 전투가 일단락되었다. 윤관은 승첩을 고한 뒤 地界를 획정하고 영주·웅주·복주·길주 등 4개성을 쌓았다. 이판령 북쪽의 길주 방면은 육로를 이용한 복주 방면과 별도로 해로를 이용하여 경략하였다. 웅주성이 포위되자 이곳을 탈출하여 원병을 이끌고 온 척준경은 선박 편으로 길주로 간 뒤 웅주로 내려왔다. 공민왕 때 조돈이 해양(길주)의 조소생을 회유하러왕래할 때에도 선박을 이용하였다.

길주와 웅주는 해로를 통해 북상한 뒤 이판령 방면으로 내려오면서 축성이 이루어졌다. 영주 방면을 좌군이 담당한 것에 대해 길주 방면은 우군이 담당했는데, 출정 당시 우군은 선덕진의 해안 방면으로 나와 도린포에 집결한 선박을 이용해 북상하였다. 좌군은 영주를 발판으로 갑산 방면으로 추가 진출을 도모하였다. 결국 고려군은 이판령을 목표점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에서 이원적으로 작전을 펼쳤으며, 그 결과 실제 개척 범위는 길주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려사』의 여진 정벌 기사는 고려의 입장이 투영되어 불리한 전황이 소략한 반면, 『금사』를 비롯한 여진쪽 기록에는 해당 상황이부각될 수 있다. 『금사』 사묘아리 열전에는 고려의 9성 개척에 맞서 두 성을 취하였고 요해를 방어하여 고려의 반격을 막아낸 기사가 있다. 이 두 성은 철거 기사에 보이지 않는 3성 중 의주와 평융진으로 추정된다. 당시 전황은 영주성을 거점으로 전개된 가한촌 병항 방면의 전투와 연결된다.

「이탄지묘지명」에는 이탄지가 웅주성에 출정간 부친의 부고를 듣고 원흥진에서 배를 타고 웅주로 간 기사가 보인다. 이것은 웅주가 길주와 함께 해로를 통해 연결되는 사정을 보여준다. 그가 도착한 후 여진이 웅주성을 '攻陷'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여진군의 성내 진입을 나타낸 것으로서 고려가 웅주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금사』 아도한 열전에는 고려군이 주둔한 해도를 공격하여 전함

을 불태웠으며 陀吉城을 함락하고 곧이어 8성을 모두 함락했다는 기사가 있다. 사묘아리 열전에도 駝吉城을 취한 기사가 있다. 두 성 은 같은 곳으로서 길주로 파악된다. 길주는 강화 직전까지 전투가 벌어졌고 가장 먼저 철거되었다. 타길성에 이은 8성의 함락은 동북 9성 환부를 종합하여 무력 수복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장의 왕완안루실비」에는 "降其城五"라 하여 5개 성을 항복시킨 기사가 있는데, 실제 상황은 특정 성 한 곳을 공략한 것으로서 해당 성은 의주로 추정된다. 그리고 '五'는 이어지는 기사의 주어인 '王'의 오독 으로 파악된다.

(원고투고일: 2019, 12, 29, 심사수정일: 2020, 2, 6, 게재확정일: 2020, 2, 18,)

주제어 : 동북 9성, 西京, 渤海, 伊板嶺, 東北面, 吉州

〈참고문헌〉

『高麗史』『高麗史節要』

『遼史』『金史』『滿洲金石志補遺』

김용선,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1.

권영국, 「일제시기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동북면의 국경·영토 인식」, 『史學研究』 115, 2014, 49~96.

UCI: G704-001261.2014..115.004

- 金昌謙,「後三國 統一期 太祖 王建의 浿西豪族과 渤海流民에 대한 政策研究」, 『成大史林』 4. 1987. 43~85.
- 金洛珍,「고려 숙종·예종대 여진정벌과 별무반의 전술체계」,『韓國學論叢 (국민대)』47, 2017, 147~182.

UCI: G704-SER000013600. 2017.47..005

方東仁,『韓國의 國境確定 研究』,一潮閣, 1997.

윤경진, 「고려후기 東北面의 지방<mark>제도</mark> 변화 : 州鎭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72, 2015, 333~366.

UCI: G704-001253, 2015... 72,007

- 윤경진,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鎭 立碑' 문제」, 『歷史와實學』61, 2016, 165~214. UCI: G704-002032.2016..61.011
- 윤경진, 「고려 예종대 동북 9성 환부의 경위와 배경」, 『震檀學報』128, 2017. 1~28.
- 윤경진, 「고려초기 三韓一統意識과 '高麗三京': 東京 연혁의 역사적 함의」, 『한국중세사연구』51, 2017, 353~395.
- 윤경진, 「고려말 東北面 영토개척과 영토의식 : 公嶮鎭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한국문화』88, 2019, 127~164.
- 李基白,「高麗州縣軍考」,『高麗兵制史研究』,一潮閣,1968,202~228.
- 李基白,「高麗別武班考」,『金載元回甲記念論叢』, 1968:『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195~208.
- 이인철,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9성의 위치 연구」『仙道文化』 23, 2017, 247~292, DOI: 10,35573/JKSC,23.7

- 이정신. 「고려·조선시대 윤관 9성 인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32, 2012, 107~140. UCI: G704-001262.2012..32.003
- 李種明, 「고려에 來投한 渤海人考」, 『白山學報』 4. 1968. 199~226.
- 鄭修芽「尹瓘勢力의 形成: 尹瓘의 女真征伐과 관련된 몇 가지 問題의 檢討를 중심으로」、『震檀學報』66, 1988, 1~33.
- 津田左右吉,「尹瓘征略地域考」,『朝鮮歷史地理』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1963. 307~341.



(Abstract)

The Study on some implications of the occupation for the Nine Fortresses in the Northeastern region during the period of Goryeo Dynasty

Yoon, Kyeong-jin

Examined in this study are some issues related to the Goryeo dynasty's establishment of the so-called Nine Fortresses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Korean peninsula.

The first issue is why King Yejong personally visited Seogyeong (西京, the Western Capital) to hold the celebration of the launch of the military campaign in this region. It was to weigh on the notion that the campaign was to reclaim the ancient territory of Goguryeo, and also to take advantage of all the Balhae(渤海) refugees ,who had earlier settled down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part of the campaign force. All the troops rallied in the Seogyeong area went over to the Dongbuk—myeon region(東北面), and subdued the Jurchen tribes there through subsequent attacks.

The second one is the question of what was the original objective of the campaign, and what was the main strategy. Initially, the goal of the campaign was to block Byeonghang(無項) point of the Ipan—ryeong (mountain pass), which was serving as a passage route for the Jurchens and their incursions into the Goryeo territory. So one wing of the Goryeo troops moved Northward on foot, while boats landed on the coast of Gilju(吉州) and delivered another wing of soldiers to head Southward. As a result, the Goryeo troops were able to expand the frontier line to the originally planned Ipan—ryeong(mountain pass) to the Gilju region.

The third one is the review of the existence of cases in which some

fortresses were possibly lost during the operation should be clarified with more concrete evidences.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original nine fortresses that were newly built and those which were eventually dismantled or given up. This suggests that there were actually some other (previously unaccounted) for tresses which were either newly created or abolished (or even lost) during those two periods. According to Jurchen records, Goryeo did lose some fortresses, and it seems such occurrences took place in the Gabsan area, which Goryeo reached after securing Yeongju(英州). Also, there is a case in which Goryeo actually protected a fortress yet documented differently in records (as lost). In this article, some earlier mis-readings of certain epitaphs' contents are also rectified and reinterpreted.

Keywords: the Nine Fortresses in the Northeast(동북 9성), Seogyeong(西京),

the Balhae(渤海), the Ipan-ryeong(伊板嶺),

the Dongbuk-myeon region(東北面), Gilju(吉州)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159–197 https://doi.org/10.29212/mh.2020..114.15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김경록*

- 1. 머리말
- 2. 전쟁초기 조선의 전황과 영<mark>천지역</mark> 의병의 창의
- 3. 영천성 수복과 전과
- 4. 경상좌도 의병의 영천성 수복 의미
-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사에서 임진전쟁은 당시 동북아 국제전쟁으로 한중일 삼국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 전쟁이다. 높은 관심은 현재의 국제정세와 연 결되어 자국중심 역사인식이 겹쳐져 삼국의 역사전쟁으로 현재진행 중이다. 한국학계의 방대한 임진전쟁 연구는 전쟁의 배경, 전개과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정, 국제관계, 군량, 병력, 무기체계, 전투, 강화교섭, 사회경제적 영향, 지역관점, 피로인, 인물 등 분야를 확대하며 상당하게 축적되 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있게 접근한 연구분야가 의병이었다.¹⁾

임진전쟁기 의병분야의 연구는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의병활동, 구성 등이 밝혀졌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연구는 한정된 사료에 주목하여 의병장 중심의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자칫 의병의 성격, 倡義과정, 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개인에게 집중시켜 의병에 참여하였던 당시 지역민들의 倡義의식이간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임진전쟁 초기 조선군은 전쟁대비가 미흡하여 일본군에 패하여 효율적인 전투를 치루지 못했다. 일본군은 신속하게 조선국왕을 생포하고 한양 도성을 점령하기 위해 축선중심으로 전투하며 북상했다. 그러나 후방지역에서 의병활동으로 주요 군사축선이 위태롭게되고, 명군의 참전으로 전쟁지도에 큰 변화를 초래되었다. 명군참전이전까지 일본군의 일방적인 진격을 후방에서 위협하였던 의병의군사활동은 임진전쟁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분야임은 명확하다. 기존의병연구의 성과를 바탕하면서 의병활동은 지역별 전투중심보다 임진전쟁 전체 전황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규 관군이아닌 의병이 연합하여 의병부대를 구성하고 상호 어떠한 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임진전쟁기 의병활동 가운데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의 다양한 지역 의병이 "倡義精勇軍"이란 의병연합부대를 구성하고 엄격한 기

¹⁾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 과비평사, 2000;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38, 2016;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100, 2016.

²⁾ 김석희, 「임진왜란의 의병운동에 관한 일고」, 『향토서울』15, 1962; 김강식, 『임진왜 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혜안, 2001; 허태구, 「金誠一 招論 활동의 배경과 경 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남명학연구』41, 2014 등.

율을 강조하며 지휘체계를 체계화하고, 부실한 군사장비에도 불구하 고 정예 일본군을 대상으로 공성전을 펼쳐 주요 축선상의 성을 수 복한 전과를 올린 전투가 영천성수복전투이다. 영천성수복전투를 임 진전쟁기 조선의 최초 육전이라 평가하는 연구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다 3) 본 글은 이러한 기존 연구성 과를 바탕으로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 및 임진전쟁에서 차지하 는 군사사적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4) 영천성전투, 영천전투 등 의 용어와 달리 영천성을 수복한 전투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임진전쟁 초기 전황 속에서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을 조선 군, 일본군, 의병 등으로 살펴보고 군사사적 성과를 정리한다. 추가하여 임진전쟁의 관점에서 영천성수복전투가 이후에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 및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쟁초기 조선의 전황과 영천지역 의병의 창의

임진전쟁의 발발 이후 영천지역에 일본군이 진주한 것은 제2진 주 장 加藤淸正이 22.800여 명의 일본군을 이끌고 동로의 언양, 울산으 로 진격하면서 그 선발대가 경주를 점령한 뒤 4월 23일 영천성에 무 혈 입성하면서였다. 당시 영천을 비롯한 경상도는 관군 지휘관의 도 망으로 일본군의 진격을 방어할 군사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상좌병

³⁾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47, 1994.

⁴⁾ 이형석, 『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화전투의 고찰」、『대구사학』47, 1994; 이광수, 「영천지역의 임란 의병활동」, 경북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13; 이재수. 「영천 읍성과 임진왜란」. 『역사교육논집』52, 2014; 이욱. 「임란초기 영천지역 의병 항쟁과 영천성 복성」, 『국학연구』26, 2015;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군사』95. 2015.

사 李珏, 수사 朴泓, 방어사 成應吉, 조방장 朴宗男과 邊應星, 안동부 사 鄭熙績 등 주요 지휘관은 근왕을 핑계로 담당한 군진을 버리고 도 망했는데, 정희적은 吉州까지 도망했을 정도였다. 그 결과로 이각은 주살되었다. 5) 영천에 입성한 일본군은 1,000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본진은 신령, 의흥, 용궁을 경과하여 조령으로 이동했다.

임진전쟁에 임하는 일본군은 전쟁목표가 수도 한양을 신속하게 점 명하고, 국왕 선조를 사로잡고자 하였다. 이는 전통시대 전쟁에서 전 쟁 상대국의 군주를 포획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목표 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군은 여러 제대의 작전목적지를 한양으로 설정하고 경과하는 지역에 대해 완전한 점령보다 주요 간선을 확 보하는 수준으로 전투를 수행했다. 즉, 일본군은 총 9번대의 지상군을 구성하여 부산에 상륙한 뒤 국왕생포와 한양점령을 목표로 진격했다.

구 분	지휘관(병력)	전체병력
1번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7,000명), 소 요시토시(宗義智: 5,000명), 마츠라 시게노부(松浦鎭言: 3,000명),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淸信: 2,000명), 오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 1,000명), 고토 스미하루(五 島純玄: 700명)	18,700명
2번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0,000명),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12,000명), 사가라 요시후사(相良頼房: 800명)	22,800명
3번대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5,000명), 오오토모 요시무네(大友吉統: 6,000명),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10,000명), 모리 가츠모토(毛利吉成: 2,000명), 시마즈 다다유타(島津忠豊)와 타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2,000명)	25,000명
4번대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4,800명), 토다 카츠타카(戸田勝隆: 3,900명)	14,000명
5번대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7,200명)	7,200명
6번대	초소카베 모토치카(長曾我部元親: 3,000명), 이코마 치카마사 (生駒親正: 5,500명), 쿠루시마 미치후사(来島通給: 700명)	9,200명
7번대	고바야 가 타가게(小早川隆景: 15,700명)	15,700명
8번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10,000명)	10,000명

〈표 1〉 일본군 구성과 현황(1592년 6월 3일)

^{*} 전거 : 李炯錫, 『임진전란사』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5) 『}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5월 1일(경신).

〈표 1〉과 같이 일본군은 병력 도합 158,700명으로 한양을 점령 하고. 연이어 평양성까지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부대재배치를 통해 점령지역 통치에 들어갔다. 이들 부대 이외에 일본군은 미야베 나가히로(宮部長熙) 2.000명. 기노시타 시계카타(木下重賢) 850명. 가키야 츠네후사(垣屋恒總) 400명, 가메이 코레노리(龜井眞矩) 1.000명, 난쵸 모토키요(南條元淸) 1.500명, 이무라 히로히데(齋 村廣英) 800명.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800명. 벳쇼 요시하 루(別所吉治) 500명. 나카가와 히데마사(中川秀政) 3,000명. 이 나바 사다미치(稻葉貞誦) 1.400명 등 12.000여 명을 후방지역에 남겨 후방경비를 담당했다.

이러한 일본군의 상륙 및 전투과정을 살펴보면, 小西行長이 지휘 한 1번대는 4월 14일에 병선 700여 척에 분승하고 오전 8시에 大 浦項을 떠나 오후 5시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였으며 당일 부산포 에 상륙하였다. 부산진전투, 동래성전투를 치루고, 조선 관군의 큰 군사 위협없이 양산·밀양·대구·상주·조령방면으로 진격했다. 뒤 이어 加藤淸正이 지휘한 2번대는 대마도에서 1번대의 승전소식을 듣고 부산에 상륙한 뒤 경주・영천・신령방면으로 진격했으며. 黑田 長政이 지휘한 3번대는 죽도 부근에 상륙하여 김해에 나아갔으며. 毛利吉成과 島津義弘이 이끄는 4번대는 김해에서 3번대와 함께 창 녕·성주·개녕·추풍령방면으로 진격했다. 福島正則 등이 지휘한 5번대는 4번대의 뒤를 따라 진격했으며, 小早川隆景 등이 지휘한 6번대와 毛利輝元 등이 지휘한 7번대는 후방을 지키며 진격했다. 宇喜多秀家가 지휘한 8번대는 5월 초에 부산에 침입하여 한양으로 진격했다. 9번대는 4월 24일에 壹岐島에 留陣하며 대기했다.



〈그림 1. 임진전쟁 초기 일본군의 진격로〉

일본군에 침입에 대한 조선군의 대응을 살펴보면, 조선 조정은 일본군의 침입 4일째 慶尚左水使 朴泓의 보고를 접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중앙에서 주요 장수를 선발하고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자 했다. 즉, 李鎰을 巡邊使로 삼아 조령과 충주방면의 중로를 방어하도록 하고, 成應吉을 左防禦使로 삼아 죽령과 충주방면의 좌로를 방어하도록 하고, 趙儆을 우방어사로 삼아 추풍령, 청주, 죽산방면의 서로를 방어하게 했다. 이외에 劉克良을 助防將으로 삼아 죽령을, 邊璣를 조방장으로 삼아 조령을 지키게 하였다. 즉, 임진전쟁초기 조선은 청주를 일본군 진격로로 파악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우방어사 조경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어구상에서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는 제외되었다.

성명	직책	
李鎰	巡邊使	
邊璣	경상좌방어사	
趙儆	경상우방어사	
成應吉, 梁士俊, 朴宗男, 邊應星	慶尚中·左·右助防將	
郭州榮	전라방어사	
李田義,金宗禮,李之時	전라중 · 좌 · 우조방장	
李沃	충청방어사	

(표 2) 임진전쟁 발발직후 조선 관군의 지휘체계

이러한 조선과 일본의 전쟁과정에서 일본군은 전쟁초기 일방적인 승전을 이어갔다. 이는 조선의 전쟁준비 부족 및 전쟁지도 부재에 원인이 있었다. 일본군이 신속하게 한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조선의 관군은 경상도에서 지리멸렬하였다. 처음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은 이일을 경상도에 파견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경상순찰사 金睟가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어 군사를 집합시키고 이일을 기다렸지만, 실제 도착한 군사도 군적에 기록된 인원과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오기로 한 이일마저 기한에 늦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군사가 흩어지고 말았다. 부대의 군기가 해이한 현상으로임진전쟁에 대비한 조선 관군의 부실한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군의 초기 패전으로 일본군은 경상도를 거쳐 유래없이 빠르게 북진했다. 영천지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일본군은 가토기요마사가 지휘하는 2번대의 일부 부대이다. 이 부대는 4월 21일 경주를 점령하고⁶⁾, 주력은 4월 22일 조선군을 좌병영성 전투에서퇴패시키고 경상좌로를 따라 진격했다. 일본군은 4월 23일, 영천과신령을 통과하여 일부 병력을 안동으로 진출시켰다. 7) 이때 조선군

^{*} 전거: 『亂中雜錄』권1, 壬辰上.

⁶⁾ 이형석. 『임진전란사』상. 1967. 256~257쪽.

⁷⁾ 조경남. 『劉中雜錄』권1. 임진년 4월 22~23일.

의 주력이라 할 좌방어사의 부대는 의흥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일본 군과의 전면 대응을 피하였다. 영천을 점령한 일본군은 신령으로 진격하여 점령함에도 좌방어 성응길과 조방장 박종남은 북쪽의 의흥에서 남하하지 않고 머물러 전투하지 않았다. 8) 이 당시 일본군 2번 대는 처음 2개 부대로 분진하여 경주와 좌병영으로 진출했으며, 경상좌도를 거쳐 북상 중이었다. 이들 부대는 영천, 신령점령 이후에도 지형에 따라 2개 부대로 분진한 뒤 합류하며 이동했다. 9)

진격하던 일본군은 전황에 따른 부대배치를 조정하여 점령지역을 확보하되 이를 적절히 안정화시키기 위한 병력배치를 고려했다. 한편, 1592년 6월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점령지에 대한 민정을 실시하며 부대구성을 재편했다. 실질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1~3번대는 부대를 유지하거나 보강했으며, 4~7번대는 후방지역에 주둔하며 지역점령정책을 펴도록 했다. 이는 아래 표와 같다.

지 역	지휘관	병 력
平壌지구	小西行長	약 20,000명
鳳山지구	大友吉統	약 6,000명
白川지구	黒田長政	약 5,000명
開城지구	戸田勝隆	약 4,000명
江原道 방면	毛利吉成,島津義弘	약 20,000명
京畿道 방면	宇喜多秀家	약 30,000명
忠州지구	蜂須賀家政	약 7,000명
開寧지구	毛利輝元	약 30,000명
錦山지구	小早川隆景	약 10,000명
釜山지구	羽柴秀勝	약 10,000명
咸鏡道 방면	加藤淸正,鍋島直茂	약 20,000명

(표 3) 1392년 8월 일본군의 부대배치 현황

^{*} 전거: 이형석, 『임진왜란사』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⁸⁾ 조경남. 『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3일.

⁹⁾ 池內宏. 『文祿慶長役』別編 第1. 吉川弘文館. 1936, 44쪽.

1592년 7월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의 7번대를 지휘하여 小早川隆景 이 부산에 상륙하여 일군을 창원을 통과하여 남원으로 진격하도록 하였지만, 官寧에서 의병장 곽재우에 의해 패전하여 성주에서 일본 군의 주력과 합쳤다. 즉. 조선에서 일본군의 후발군을 지휘한 小早 川隆景의 7번대는 원래 작전계획대로 한양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梨峙전투에서 패하는 등 작전에 차질을 가져왔다. 한편, 이 시기 해 상에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은 일본수군을 연이어 격파하여 한강으로 이어지는 수군의 진격작전이 좌절되었다. 조선군의 선전과 함께 일본군의 선전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錦山에서 招討使 高 敬命의 의병을 격파하고. 평양에서 명 선발부대 祖承訓을 격파하고. 함경도에서 臨海君과 여러 조선의 중신을 포로로 잡았다. 10) 즉. 6월 까지 연전연승하였던 일본군이 평양성 점령이후에는 보급과 작전지 역이 과도하게 넓어 작전의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를 인식한 조선 군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비록 소수의 선발대이지만 명군의 참전이 라는 전황 변화요소가 발생하자 진격을 멈추고 작전수정을 고민하 였다

이에 일본군은 부대 재편을 통해 전체 병력을 府. 郡. 縣 등 주 보급로상에 선과 점으로 배치하여 연락과 보급을 원활히 시행하고 자 했다. 이러한 전황 및 일본군의 병력배치를 고려하여 영천지역의 의병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의병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조 정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정과 관원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선조가 5월 3일. 개성에서 승정원의 관원들과 전황 및 민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통해 국왕 선조가 인지한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조 주변에 필요한 숫자의 관원이 없는 점. 민심 의 수습책 필요 등이 제기되며. 국왕의 일행이 피신한 평안도의 민

^{10) 『}孤臺日錄』권1. 임진 7월.

심마저 불안하여 국왕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內需司, 王子宮 등의 작폐를 엄금하고 평안도의 逋欠을 면제했다. 또한, 선조는 국왕으로서 자신의 통치에 대한 심각한 반성보다 지방 관원의 탐학으로 경상도 인민이 배반하였다고 인식했다. 무엇보다 감사 金睟가 착취하여 백성의 원망을 받았지만, 대체할 인물이 없 어 관직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었다.¹¹⁾

뒤이어 5월 23일, 선조는 피난 중에 전황이 궁금하여 대신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 12) 최흥원이 임진전투에서 관병이 패전 후 도망하고, 500명의 토병이 참전하지 않은 패전상황을 점검하고, 임 진강전투에서 순절한 申硈의 군병이 재집결하고. 南兵使가 보낸 3.500명이 집결하였음을 보고했다. 불리한 전황과 함께 載寧 屯田 의 저장곡 2만 석. 金谷倉 · 牙山倉 군량의 운반 등 군량문제를 점 검했다. 이 회의에서 충청지역 관병은 싸워보지도 않고 무너진다는 충청감사의 장계가 언급되었다. 윤두수가 충청감사의 장계에서 언급 된 충청지역 전황의 연패가 오랫동안 태평이 계속되어 백성들이 싸 움을 몰랐다고 분석한 점이 주목된다. 피난 중에 최고지휘부의 패전 원인을 조선 정부의 국방정책 실패, 관병의 훈련과 전투의지 부족, 지휘관의 무능 등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서 찾고 있었다. 군량의 운 반에 필요한 배와 뱃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인심 의 동향을 윤두수가 언급했다. 임진전투에서 조선군이 획득한 지도 가 백성들이 江華·喬桐의 뱃길을 일본군에게 준 것이었다. 임진전 쟁 당시 민심이반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좌찬성 崔滉이 조선군의 장점인 弓馬를 보내지 않고 지친 군 졸만 보내 패배하고 맹장마저 패하고, 척후를 활용하지 않아 일 본군의 복병에 패했다는 관군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승지 柳根

^{11)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5월 3일(임술).

^{12)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5월 23일(임오).

이 경상도에서 군사를 모집하도록 자신을 파격해 주도록 청하자 최 흥원이 일본군으로 인해 도로가 不通일까 염려되고. 모집하기 어려 울 것이며. 일본군의 敵勢와 人情도 모두 알 수가 없다고 언급한 내용이 당시 조선군과 민심을 말해 준다. 당시 민심이 근왕병 내지 의병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즉. 당시 선조와 조정은 민심이 크게 이반하여 의병 내지 근왕병 에 대해 크게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병이 일어날 것인 가에 대해 실제 큰 기대를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발하게 의병활동이 일어난 지역이 경상도였다. 이에 국왕 선조와 조정의 경상도 및 의병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영천을 비롯한 경상도의 민심은 이미 전쟁이전에 이반현상 을 보였다.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여 비변사에서 호남과 영남의 성읍 을 수축하였는데, 경상감사 김<mark>수의</mark> 주도로 이루어진 축성과정에서 인력동원에 치중하여 실제 방어에 유리한 험한 곳에 의지하지 않고. 평지에 성을 쌓아 높이가 2~3장에 불과했다. 이는 실전에서 방어 에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동원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피로감 이 높았다.13) 경상감사 김수에 의해 추진된 성읍수축은 영천ㆍ청 도 · 삼가 · 대구 · 성주 · 부산 · 동래 · 진주 · 안동 · 상주 · 좌우병영의 모든 성곽이 증축되고 참호가 설치되었다. 당시 영천의 성읍수축이 이루어졌지만, 방어능력을 제고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원망 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의 의병은 창의하여 의병작전을 전개했다. 이는 창의한 의병장들의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능력에 기 인한 측면이 있으며, 지역사회를 방어하고자 하였던 목적도 있었다.

일본군은 경주, 영천을 경유하여 신령, 의성, 인동으로 진출하자

^{13) 『}선조수정실록』권25. 선조 24년 7월 1일(갑자).

상대적으로 일본군 병력이 적은 상황에서 의병은 창의했다. 영천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의병이 창의한 것은 영천에 주둔한 일본군의 약탈과 살육행위에 대한 대응이라 평가할 수 있다.¹⁴⁾ 일례로 일본 군이 분묘를 파괴하고 분탕질을 하기도 했다.

영천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서 5월 초부터 鄭世雅. 鄭大任. 權應 鉄 등이 의병을 倡義하였다. 의병이 창의하였음에도 실제 경상도의 상황은 관원. 조선군. 백성의 도망으로 창의여건이 좋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경상감사 김수가 치계하여 보고한 6월의 경상도 상황은 일본군의 횡행. 조선 관원의 도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덕현령 安璡의 수성상황을 보고받고 장계를 가져온 인물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김수가 선조에 게 보고한 것이었다. 즉. 6월 말에 경상도는 일본군이 이미 주요 간선을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지역별로 일본군이 완전 장악하지 못 한 지역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통해안은 長鬐 이상, 안동ㆍ청송ㆍ眞 寶·봉화·예안·榮川·예천·풍기는 실제 일본군이 장악하지 못하 였으며. 언양. 울산·경주·永川·新寧·義興·의성·군위·比安 등 은 일본군이 횡행하며 부산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평안도로 병력 및 군수품을 조달하였던 군사요충지였다. 반면에 경상우도는 거창·안 음·함양·산음·단성·하동·곤양·사천·진주는 일본군이 진출하 지 못하였다.15) 영천지역은 신녕, 의흥 등과 함께 일본군이 점령하 고 일부 병력을 주둔시켜 축선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지역이었다. 이 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일본군의 직접적인 점령지역으로 창의에 쉽지 않은 지역이었음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영천지역을 비롯한 경상좌도 의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의병장이 창의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¹⁴⁾ 李魯, 『龍蛇日記』; 曺景溫, 『林溪實記』권4, 행장, 임진.

^{15) 『}선조실록』권27, 선조 25년 6월 28일(병진).

영천지역의 주요 의병장들은 영천성수복전투와 관련한 기록을 남기며 대체적으로 유사한 인식을 보인다. 임진전쟁이 발발하여 부 산진전투와 동래성전투의 패전이후 일본군이 한양을 향해 세 갈래 진격하였음을 서술했다. 1로는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인동을 거 쳐 상주에서 조선의 이일군대를 격파하였으며, 2로는 김해, 성주, 무계. 지례. 금산(김천). 영동. 청주를 거쳐 경기로 나아가고. 3로 는 장기, 기장, 울산, 경주, 영천, 신녕, 의흥, 군위, 비안, 용궁, 문경, 조령, 충주를 거쳐 한양으로 진격하였다고 전제했다. 이 과 정에 일본군이 군사축선을 유지하기 위해 5~60리마다 營柵을 시 설하여 수비하고 상호 연락망을 구축하였는데, 경상좌도의 요로였 던 영천에 많은 병력을 주둔시켜 노략질하여 백성의 피해가 심함을 언급했다₁₆)

영천지역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에 대한 학계의 주장은 상반된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난조 모토키요 (南条元清). 미야베 나가후사(宮部長房). 기노시타 시계카타(木下重 堅). 사이무라 마사히로(齊村政廣),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벳 쇼 요시하루(別所吉治).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등이 500~ 2.000명의 병력으로 경상도 중남부에 주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리 데루모토의 휘하에서 경상좌도의 여러 지 역에 분산 주둔하였으며. 조선의 각 거점지역에 있던 읍성을 성곽으 로 개축하거나 기존 시설이 不在하면 단기간에 繋城. 付城 등 부대 시설을 신축하여 주둔했다. 주둔과정에 식량을 약탈하고 조선인을 살해 내지 생포하였다. 무엇보다 식량은 주둔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 다. 단기간의 군량을 준비한 일본군의 입장에서 조선 현지에서 군량 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선인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었다. 조선인 과 충돌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주둔 일본군의 병력이 일정한 규모가

¹⁶⁾ 鄭湛、『永川復城日記』、

되어야 함에도 병력이 적어 위기의식이 발생하기도 했다.17)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영천의 유학 鄭大任, 鄭大仁이 창의하자 鄉中의 義士 曺希益, 曺珹, 辛俊龍, 鄭千里, 鄭碩男, 崔仁濟, 金大 海, 金演, 李得龍, 李蕃, 李榮根 등이 호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18) 초기 창의한 정대임, 정대인의 의병이 비록 큰 전투는 아니더라도 일본군과 조우하여 승리하면서 의병은 점차 세력을 규합하여 영천 의 鄭世雅, 신령의 權應銖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의병부대가 확대된 점도 중요하지만, 영천성수복전투의 시발점은 招論使 金誠一 의 초모활동이라 할 것이다. 전쟁직전 통신부사로 일본에 파견되었 다가 복귀하여 민심의 우려하여 일본의 침략을 부정하였던 김성일 은 전쟁이 발발하자 잘못된 보고에 대한 책임으로 파직되었다가 유 성룡의 변론으로 경상우도 초유사에 임명되었다.

김성일은 경상도의 士民들을 초모하는 글을 통해 일본의 침략으로 국난에 빠진 상황을 서술하고, 조선의 군사지휘관과 수령의 무능과 비겁함을 질타하고, 영남이 일본군의 소굴이 되어 버린 상황을 개탄했다. 군사지휘관과 수령의 비겁함과 마찬가지로 선비와 백성들의 책임도 추궁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가혹한 조세, 과중한 부역 등으로 백성들이 피폐해졌음을 인정하되 전쟁직전 축성의 노역은 전쟁대비의 국가노력이었음을 강조했다. 19)

김성일은 이와 함께 일본군의 갖은 횡포를 나열하고, 志士와 충신이 국난을 구해야 함에도 경상도 67개 고을 가운데 창의한 선비가 없음을 한탄했다. 일본군이 한양을 침범하고 평양으로 향하여 실제 대규모 병력이 경상도 전역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만약일본군이 조선 전역을 장악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것이기에

¹⁷⁾ 김경태, 2015, 앞 논문.

¹⁸⁾ 문수홍 「임란 중 경상좌도지방의 의병활동-임진년 영천·경주성 수복전을 중심으로-」,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론총』, 1984. 참조.

¹⁹⁾ 李魯、『龍蛇日記』.

그 전에 선비와 백성들이 창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일 은 영남의 유구함과 충절의 고향임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퇴계와 남 명의 道學과 講明으로 인심을 순화시키고. 倫紀를 바로잡음을 강조 하여 퇴계학파와 남명학파가 倡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파 의 사대부가 불충불효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면 衣冠을 갖추고 禮 樂을 배운 몸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논리였다. 김성일은 선조의 교서 를 내세우며, 경상도가 예의를 숭상하는 지방이며, 이곳에 사는 선 비로서 창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창의방법으로 격문이 도착하면, 고을 수령이 효유하고 변장은 사졸을 격려하고. 전현직 관원과 父老. 儒生 등이 서로 유시 하여 동지를 모으고 군사들을 이끌고 창의하도록 제시했다. 창의하 면 조정에서 포상할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했다. 20)

김성일의 초모활동에 호응하여 경상좌도의 영천지역에서도 정대 임을 비롯하여 진사 鄭世雅, 생원 曺希益, 전현감 곽회근 등이 호응 하여 창의했다. 5월 초에 창의한 영천의 의병은 大洞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鄭千里를 시켜 좌병사 朴晋에게 보고하였다. 박진은 정대 임을 伏兵將으로 임명하였는데, 일부 사대부가 군관의 소임을 맡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대임은 국가호위 및 일본군 토벌에 문무의 구별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의병은 민심을 같이하여 창의 10여 일에 900여 명의 병력이 집결했다. 한편, 좌병사 박진과의 지 휘관계에 있어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의병은 초유사 김성일의 통제 받기를 희망했다. 이때 鄭大任, 鄭湛, 정세아, 曺希益. 郭懷根 등이 동의했다. 6월에 접어들면서 정대임이 정천리로 하여금 성황산에 매복하도록 하고. 이번을 蓬川院에 잠복시켜 일본군의 행태를 정탐 하였다.

7월 초에 정대임은 일본군 300여 명이 신령의 요로에 나타나 北

^{20)『}鶴峯集』刊3. 招諭文. 招諭一道士民文.

習과 瓦村 등지에서 노략질하자 唐指山에 매복하였다가 급습하여 격퇴시켰으며, 7월 14일에 朴淵에서 신령 의병장 권응수, 의흥 복병장 홍천뢰 등과 함께 일본군을 격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²¹⁾

3. 영천성 수복과 전과

5월부터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던 경상좌도의 의병장들은 개별 전투를 치루며, 세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倡義精勇軍이란 의병연합부대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물이 영천성수복전투였다. 영천성은 당시 경상좌도의 경주에서 상주로 이어지는 군사축선에서 중간거점이었다. 창의정용군은 부수적으로 이동하는 일본군과의 조우전에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간 거점 영천성을 수복하여 일본군의 임진전쟁 戰爭指導를 붕괴시킴과 동시에 영천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했다.

창의정용군으로 영천성수복전투에 임하는 의병부대는 다음과 같다. 영천(김윤국, 정대임, 정세아, 정담, 조성, 조희익, 곽회근, 최인제, 정천리, 신준룡, 전삼익, 전삼달), 신녕(한척, 권응수, 이온수, 박응기, 정응거, 권응전, 권응평, 권응심, 권응신), 경주(권사악, 손시, 손엽, 최진립, 김응택, 최문병), 하양(조윤신, 신해), 경산(최대기), 의흥(홍천뢰, 홍경승, 이경천, 권황) 등이었다.

²¹⁾ 鄭湛,『永川復城日記』.



〈그림 2. 창의정용군의 의병연합부대〉

이들 의병장들은 여러 지역 수령과 의병의 참여를 요청하며, 7월 23일 추평에 진을 쳤다. 영천성에 火攻을 하기 위해 柴草를 마련했으며, 공성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었다. 전근대 공성전은 전투 가운데 가장 성공확률이 낮은 전투라 할 것이다. 공성을 위한 다양한무기체계가 효율적으로 준비되고 조달되어야 하며, 수성하는 쪽보다압도적인 병력동원이 있어야 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정예병력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동원된 주 병력은 의병이며, 관군과 달리 공성을 위한 무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은 당시 조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점에서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의병은 정탐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편의 봉우리에 병력을 파견하여 일본군의 동태와 규모를 파악하였다.²²⁾ 이는

²²⁾ 鄭湛. 『永川復城日記』.

전투에 있어 군사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활동으로 영천성 안의 일본군 군사상황을 파악하여 군사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23일 이후 권응수를 비롯한 의병장들이 추평에 도착하였다. 7월 24일까지 합류한 의병 병력은 3,560여 명이었고, 25일에는 경주에서 權士諤, 孫時, 崔震立 등이 100여 명을 지휘하여 참전했다. 지역별로 영천, 경주, 신녕, 하양, 자인, 의성, 의흥, 흥해, 영일, 대구 등 10여 지역의 의병이 참가하였다. 단순한 의병부대 뿐 아니라관군까지 영천성수복전투에 참여했다. 4,000여 명의 관군과 의병이 영천성을 탈환하고자 참전한 것이다. 또 안동에 주둔한 경상좌병사박진은 영천성수복전투를 듣고 권응수를 치하하며 군기·화약류를 지원했다. 23)

24일, 경상좌도 의병연합부대는 전투를 위한 지휘부를 구성하고 부대명칭을 倡義精勇軍이라 하였다. 임진전쟁 당시 많은 지역에서 의병이 창의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자신의 의병부 대를 창의정용군이란 별도의 부대명칭을 정립한 점은 무엇보다 정 규군이 아닌 의병의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열세의 무기체 계를 효율적인 부대지휘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또 한, 의병연합부대의 자존감을 제기하고 전투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 써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었다.

지휘부를 구성하였음은 지휘체계를 일원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며, 부대는 3개 부대로 편제했다. 권응수를 의병대장으로, 신해를 작총으로, 정대임을 중총으로, 최문병을 우총으로 삼고, 홍천뢰를 선봉장에, 김윤국을 별장에, 정세아와 정담을 찬획종사에 임명했다. 24) 정대임을 비롯한 의병장들은 영천성 전투의 규모와 작전의

²³⁾ 權應銖,『白雲齋實紀』22, 永川復城記.

²⁴⁾ 이형석, 앞의 논문, 423쪽.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에 군율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전의 소규모 전투와 달리 수성하는 1.000여 명의 일본군을 대상으로 공성의 어 려움 속에서 이탈 및 소극적인 전투자세에 대한 경계였다. 세부적으 로 군율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두려워하여 겁내어 말을 어지럽히면 목을 벤다.
- 2. 적을 보고 5걸음 물러나면 목을 벤다.
- 3 직무를 마음대로 하여 장수의 명령을 어기면 목을 베다.
- 4. 전투에서 대열을 이탈하면 목을 벤다.

영천성 전투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7월 25 일에 의병은 영천성수복공격이란 공성전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 화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화공을 위한 시초마련, 화약과 蒺 藜를 종이에 싸서 습기에 대비하였다. 또한, 소규모 병력으로 일본 군의 식수공급을 제약했다.

식수공급을 차단하자 26일 일본군은 별도의 병력으로 식수를 마 련하기 위해 성을 나왔지만, 홍천뢰, 이온수 등이 공격하여 초기 의 병과 일본군의 접전이 벌어졌다. 이 날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던 승 려가 일본군의 상황을 의병에 전달함으로써 다음 날 본격적인 영천 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25)

영천성수복전투의 부대간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천 성에 대한 지리에 익숙한 공격부대와 타 지역의 엄호부대로 재편하 였다. 공격은 권응수(의병대장), 박의장(경주판관), 신해(좌총), 홍천 뢰(선봉장), 한척(신녕현감), 조윤신(하양현감) 등이었으며, 엄호는 정대임(중총), 최문병(우총), 정세아(의병장), 정담(찬획종사), 김윤 국(영천군수), 조희익 신준룡, 이번, 조덕기(의병장) 등이 지휘하였

²⁵⁾ 鄭湛、『復齋實紀』刊公、永川復城日記;權應銖、『白雲齋實紀』刊2、永川復城記。

다. 별도로 정천리가 지휘하는 500명의 부대가 마현산에 주둔하며 상황에 따라 움직이도록 했다. 26) 그러나 실제 전투에서 공격부대, 엄호부대가 모두 혁혁한 전공을 거두는 싸움을 실행했으며, 권응수는 북문, 정대임은 남문을 맡아 구분하였을 뿐이다. 27) 즉, 전투과정에서 전공을 다투는 다른 전투와 달리 영천성 전투에 임하는 의병들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8)

27일 영천성수복전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공성전은 기본적으로 성안의 적으로 하여금 방어시설인 성을 나와 싸우도록 유인책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유인책이 불가하면 본격적인 공성을시행하는데, 우선적으로 화공을 통해 성안의 적을 혼란에 빠지도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성안의 적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은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성문을 격파하고 성안으로 진입하거나 상대적으로 낮거나 성벽이 구축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 성안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27일의 전투는 이러한 공성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전개되었다.

정대임이 지휘하는 부대가 남문을 공격하였으며,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지만, 성문을 열고 나와 싸우는 일본군과 접전하면서 의병의 기세는 높아졌다. 정대임의 분투로 여러의병장들이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으며, 남문을 통해 성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일본군 장수 法化가 투신하고, 정대임이 참수하였다.

권응수가 지휘하는 의병은 서북문을 통해 성안으로 진입하고자하였지만, 일본군의 저항으로 상황이 쉽지 않았다. 이에 권응수가물러서는 자를 참하고 공성을 독려하였다. 의병의 주춤하는 상황을 파악한 일본군이 성문을 열고 나오자 권응수를 비롯한 의병장들이병력을 지휘하여 일본군에 돌격하였다. 의병은 성문을 파괴하고, 사

²⁶⁾ 鄭湛, 위의 책, 같은 곳.

^{27) 『}선조실록』권46, 26년 12월 4일(계축).

^{28) 『}선조실록』권44. 26년 11월 5일(을묘).

다리와 목책으로 성안을 공격했다.

남문과 서북문으로 진입한 의병은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으며, 전 세가 불리해 진 일본군은 수세에 몰려 관사나 창고로 숨었다. 무엇 보다 정천리가 당시 성안에 포로로 잡힌 조선인을 풀어주고. 화공으 로 일본군을 위협한 점이 주목된다. 치열한 전투과정을 통해 일본군 은 대부분 전멸했으며, 일부 병력이 경주로 탈출했다.

치열하였던 영천성수복전투의 결과로 조선관군과 의병의 피해는 사망자 80여 명. 부상자 230여 명이었다. 또한. 일본군으로부터 200필 말을 노획하고, 900여 자루의 총통과 차업, 기타 안장과 채 식 의복 등을 노획했다. 영천성 전투를 통해 당시 일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던 1.090명을 풀어주기도 했다.29) 의병의 영천전투는 8월 1일, 선조에게 보고되었다 30)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된 실록기 사는 다음과 같다

"별장 권응수가 영천의 적을 격파하고 성을 되찾았다. 당시 일본군 천여 명이 영천성에 주둔하며 안동의 주둔한 적과 서로 호응하여 일로를 형성하였다. 영천의 사민이 여러 곳에 거주한 의병과 연결하여 공격하고자 박진에게 원조를 요청했다. 박진이 별장인 주부 권응수를 보내어 거느리고 진군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권응수가 의병장 정대임 · 정세아 · 조성 · 신해 등과 함께 군사를 지휘하 여 영천의 박연에서 적병을 격파하고 그들의 병기와 재물을 노획했다. 이에 여러 고을의 병력을 모아 별장 정천뢰 등과 진군하여 영천성에 이르자 적이 성문을 닫고 싸우지 않았다. 권응수가 병력을 집중하여 포위 성문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권응수가 큰 도끼로 앞서 들어가 적을 죽이니 여러 군사들이 기뻐하며 북을 울려 함성지르며 진격했다. 적병이 패하여 관아 창고에 들어가니 관군이 창고를 불질러 적을 모두 죽이고. 도망친 자도 우리 군에 차단되어 수십 명이 겨우 탈출하고 수급을 벤 것이 수백 급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을 수복하니 이군의 위세가 크게 일어났다. 안동 밑으로 주둔한 적이 모두 철수하고 상주로

²⁹⁾ 鄭湛、『復齋實紀』 刊상、永川復城日記。

^{30) 『}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8월 1일(무자).

가자 경상좌도 여러 고을이 안전하였다. 권응수는 용장으로 과감한 싸움은 다른 장수가 따르지 못했다. 이 일이 보고되자 통정대부를 가자하고 방어시에 임명했고, 정대임은 예천군수에 임명했다. 정세이는 가장 많은 병력을 가졌지만, 병력을 권응수에게 포함시키고 진중에 있지 않아 상을 받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상직을 차등있게 주었다.³¹⁾

실록기사에 영천성수복전투 이전의 상황 및 구체적인 전투과정이 묘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영천성수복전투로 인해 조선군과 의병의 사기가 높아졌으며, 일본군이 안동에서 상주로 이동하여 경상좌도의 여러 지역이 일본군의 수중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영천성수복전투의 성과를 당시 조선에서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영천성수복전투이후 경상좌도의 전황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1593년 1월 말 경상좌병사 朴晉이 仁同의 일본군을 격파하자 일본군은 대구로 물러났다. 32)

4. 경상좌도 의병의 영천성 수복 의미

임진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조선군의 연전연패는 경상좌도를 손쉽게 일본군에게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군은 신속하게 한양을 점령한 뒤 전선을 북쪽으로 확장하였다. 평양까지 점령하자 의주의 선조를 압박하기 위해 각지에 주둔한 병력을 북상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상좌도에 주둔하던 일본군도 적지 않은 병력을 북상시켰으며, 7월에 발생한 명군의 참전과 평양성전투는 일본군의 전쟁지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

^{31) 『}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8월 1일(무자).

^{32) 『}고대일록』권1, 癸巳, 1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영천성수복전투의 군사사적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본다. 첫째. 영천성수복전투는 임진전쟁에 임하는 일본군의 전 쟁지도를 잘 보여준다. 일본군은 무엇보다 한양 도성을 신속하게 점 령하고 국왕을 생포함으로써 전쟁승리 및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단 경로의 진격로를 통해 전선을 북쪽으 로 설정했다. 한양 도성의 점령까지는 이루었지만, 국왕의 피난으로 전선이 계속 북상하고 서해안을 통한 병력 및 군량의 조달이 어려 워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는 군사축선이 길게 연장됨을 의미하 며, 보다 많은 병력으로 연장된 축선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 군의 추가적인 병력 투입은 어려웠다.

5월 5일, 피난길에 오른 선조일행이 鳳山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 군이 한양에 집결하였으며, 조선은 韓應寅을 諸道都巡察使에 임명하 여 일본군에 대응하였다. 5월 7일에 전라좌수사 李舜臣 함대가 玉 浦 앞바다에서 일본 함선 26척을 격파하고, 이어서 合浦의 일본 함 선 5척을 격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司譯院判官 韓潤輔를 潦東에 급 파. 재차 임진전쟁의 전황을 통보하는 등 명군의 파병을 독촉하였 다 33) 일본군은 북진하기 위해 임진강 방어선을 붕괴시켰으며, 조 방장 劉克亮이 전사하기도 했다.

또한, 전쟁 초반 무능력함을 보였던 조선군이 재정비됨과 동시에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이 발생하여 각지에 소규모로 주둔 하던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졌다. 먼저 6월에 접어들면서 각지의 조선 군이 근왕병을 조직하여 북상하였다. 그러나 5일에 경상·전라·충 청도 3도 관찰사가 거느린 근왕병이 龍仁 文小山에서 와키사카 사혜 이(脇坂左兵衛)의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선봉장 白光彦, 李時之 등이 전사하기도 했다. 조선군의 패배가 있었지만, 근왕병으로 조직적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음은 일방적인 북상을 추진하던 일본

³³⁾ 김경록 「정유재란기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한일관계사연구』57, 2017, 참조

군 입장에서 전쟁지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점령한 지역에 대한 전쟁지도의 변화도 모색되었다. 경상좌도에 소규모로 주둔하였던 일본군은 식량조달을 위해조선인을 약탈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졌던 사대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일본군의 약탈에 대응하여 의병이 일어났다. 5월 25일에는 경상우도 의병장 郭再祐의 의병 부대가 鼎岩津을 도하하는 안코쿠지 에케이(安國寺惠瓊) 휘하의 일본군을 공격하여 함안 방면으로 격퇴시키기도 했다. 소규모의 지역 주둔군으로 안정적인 점령정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음을 반영한다.

둘째, 공성전을 통한 의병연합부대 창의정용군의 승리라는 점이다. 의병의 전투양상은 대체로 중요 길목을 차지하여 이동 중인 일본군에 대한 기습 내지 전투를 치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영천성수복전투는 의병이 연합하여 일본군이 주둔하였던 영천성을 공성전으로 수복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의병연합부대 창의정용군의 승리는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 의병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영천 지역 의병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기 시작한 계기는 첫째,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대장을 임명함으로써 지휘 체계가 확보되었으며, 둘째, 명군의 참전으로 유리한 전황이 전개되었으며, 셋째, 이전의 수 차례 영천 의병의 승리로 사기가 고조된 점을 원인으로 보는 연구도 있었다. 34) 분명 영천과 인근지역의 의병부대가 연합전선을 형성하였음은 영천성수복전투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임진전쟁 기간 중 여러 지역에서 의병이 창의하여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의병간 의견충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영 천성수복전투에 참여한 의병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의견충돌이 없었다. 이는 전투의 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의병이 주축이었던 부대가 공성전을 승

³⁴⁾ 이욱, 「임란초기 영천지역 의병 항쟁과 영천성 復城」, 『국학연구』 26, 2015.

리로 이끌었다는 점은 영천성수복전투의 가장 큰 의미라 할 것이다. 공성전은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가지고. 정밀한 공성장비를 갖추고. 잘 훈련된 부대가 수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 전투이다. 수성하는 입장에서 보유한 병력을 성곽에 의지하여 적절한 화력으로 지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전투이다.

공성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술은 수성하는 일본 군을 성밖으로 유인하여 격퇴하고 성문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었다. 실제 영천성 전투에서 배산이었던 마현산에 허장성세로 병력을 배 치한 뒤, 남문과 서북문으로 병력을 집중시키되 500여 명 규모로 전투를 유발하였던 점이 주효하였다. 일본군은 성문을 열고 나와 의 병과 접전을 벌였으며, 성벽 위에서 조총으로 이를 지원하였다. 성 을 나온 일본군이 기세를 높일 때, 정대임, 권응수 등 의병장들은 병력을 독려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성문을 통해 성안으로 진입하 는데 성공하였다. 공성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놓치지 않고 성안 으로 진입한 뒤 일본군과 격전을 더욱 독려한 점에서 의병장들의 지휘력이 발휘되었다.

셋째. 영천성수복전투의 승리는 경상좌도를 일본군의 수중에서 되찾고 일본군의 군사축선을 단절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군은 안동에서 상주로 이동하고, 일부 병력은 경주지역으로 후퇴했다. 이 는 북상하였던 일본군과 부산을 근거지로 군수 및 병력을 조달하는 군사축선이 단절됨으로써 많은 군사활동의 제약이 초래되었기 때문 이다. 6월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해상에서 唐項浦해전의 패배로 더욱 제약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6월 5일에 경상우도의 高靈 의병장 鄭仁弘 부대가 낙동강변의 茂溪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밤에 기습하기도 했다. 또한, 6월 15일, 일본군이 평양성을 함락함으로써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였다. 평양성 점령은 일본군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병력과 물자를 북쪽에 집중하여 최종적으로 선조를 압박함으 로써 전쟁의 승리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7월 8일에 梨時에서 광주목사 權栗이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의 일본 군을 맞아 격퇴함으로써 일본군의 전라도 석권이 저지되고, 조선수 군에 의해 한산도해전, 안골포해전이 벌어져 일본수군이 궤멸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더욱이 7월 17일에 명나라 요동 부총병 祖承訓의 부대가 참전하여 조선의 金明元군대와 함께 평양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35) 비록소수의 병력이었지만, 명군의 선발대가 평양성에 출병하여 전투하였다는 점은 일본군의 입장에서 새로운 전쟁지휘 및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경상좌도의 영천에서 의병을 주축으로 한 병력이 일본군을 격퇴시키고, 군사축선을 단절시키는 전공을 거둔 것이다. 소규모 병력을 축선 중심의 방어병력으로 주둔시켰던 일본군은 이후 요충지를 중심으로 병력을 집결시키는 방법으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의병 및 조선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새로운 전황을 초래했다. 명군의 선발대로 참전한 조승훈의 병력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가 실패하고, 유격장 史儒 등이 전사함은 조선군 전체에 큰충격을 초래했다. 조선은 임진전쟁 발발이후 명군의 참전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요동의 병력이 조선에 파견되었다. 명은 지역차원에서 요동의 병력을 통한 임진전쟁 파병을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6월 초에 寬奠參將 佟養正, 鎮守摠兵 楊紹勳, 副摠 祖承訓 등으로 하여금 의주를 통해 조선에 파견했다. 36) 실제 병력을 지휘한 인물은 조승훈이었다. 調度使 洪世恭의 치계에 표현된 명 요동군대는 廣寧遊擊 王守官, 原任參將 郭夢徵의 부대 506명, 말 779필, 副摠兵 조승훈의 부대 1,319명, 말 1,529필의 규

³⁵⁾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137, 2016. 참조.

^{36) 『}선조실록』권27, 선조 25년 6월 14일(임인).

모였다. 그러나 조승훈의 부대는 기율이 엄중하지 못하고 실제 전투 능력이 강하지 못했다. 37) 부총병 조승훈, 유격장군 史儒·王守官 등이 평양성을 공격한 날은 7월 17일이며, 일본군의 전투능력을 과 소평가한 명군은 전투에서 유격장군 사유, 千摠 馬世隆・張國忠 등 이 전사하는 패배를 당했다.38)

이러한 시점에 영천성수복전투의 승리가 전해지며, 조선 조정과 관군, 의병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8월 1일, 순변사 李賓의 조선군이 단독으로 평양성을 탈환하기 위 한 공격에 나선 점을 미루어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전까지 수세에 몰려 명군에 크게 의지하였다가 영천성 탈환을 계기로 조선군의 과 감한 평양성 공격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8월 2일에 의병장 趙憲 의 의병, 승려 靈圭의 승병, 충청도 방어사 李沃의 관군이 연합하여 청주성의 일본군을 격파하고 청주를 탈환하는 승전보를 가져오기도 했다. 물론 1달 반 뒤인 9월 9일에 경상좌병사 朴晋이 경주성의 일 본군을 공격하여 경주를 탈환하고. 신형무기인 비격진천뢰를 사용한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섯째, 임진전쟁 전황의 전환계기를 마련하고, 명군과의 관련성 이다. 조선은 임진전쟁이 발발한 뒤 지속적으로 전황을 명에 전달하 고 명군의 파견을 요구했다. 9월 15일에 요동에 자문을 보내 조선 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며 전쟁을 수행함을 강조하고 명군의 파견 을 요구했다. 이때 조선군이 거둔 성과를 내세우며 영천성수복전투 를 강조했다.

"전라도 병마절도사 崔遠이 8월 6일 의병장 金千鎰, 강화부사 尹湛, 月串鎭僉節 制使 李蘋 등과 배를 타고 진격하니 적이 퇴각하여 土城으로 들어갔는데. 諸軍이 2백여 명을 시살하고 수급 92顆를 얻었습니다. 적도 1천여 명이 永川郡에 주둔하

^{37) 『}선조실록』권27. 선조 25년 6월 20일(무신).

^{38) 『}선조실록』권28. 선조 25년 7월 20일(정축).

고 있었는데 7월 28일 경상병사 차晉이 돌격장인 訓練院奉事 權應銖 등에게 응모한 군사 2천여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本郡을 포위하게 한 다음 砲로 성을 공격하고 불을 질러 官숨와 창고를 불태우자 적도들이 놀라 무너졌습니다. 숭세를 타고 장졸이 추격하자 적병은 불타고 물에 빠져 죽는 자가 수없이 많았으며, 수급 517顆를 베었습니다. …(중략)… 왜적이 각 지방에 가득하여 날로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각기 지방의 해당 장수들이 참획하고는 있으나 대세가 꺾이지 않아 갈수록 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평양의 왜적과 황해 · 함경 두 도의 적도들이 聲勢가 서로 연결되어 수시로 출몰하는데 본국의 군사들은 피로가 너무 극심하니 민망할 뿐입니다."39)

처음 선조는 전황에 대한 자문을 보내기를 주저하자, 대신들이 명나라에 일본군을 무찌른 전황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달하게 되었다. 임진전쟁은 국제전쟁으로 평가되는 대규모 전쟁이다. 비록 명군의 전투능력과 상관없이 명군의 참전은 일본군의 군사전략 및 조선군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군 조승훈부대가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요동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에서 의병을 주축으로 한 부대가 공성전으로 군사축선의 요충지였던 영천을 수복한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지만, 본격적인 명군 참전을 요구하는 조선의 주장에 큰 힘이 되었다.

조선의 지속적인 파병요구 및 전황을 접한 명은 일본군의 본토침 략의 가능성을 확인하자 파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40) 명은 8월에 접어들면서 병부우시랑 宋應昌을 경략에 임명하고, 경략 송 응창이 군비 20만량, 贊畫으로 兵部主事 袁黃, 劉黃裳을 차출해 줄 것을 건의하자 만력제는 승인했다. 41) 즉, 명군의 파병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

^{39) 『}선조실록』권30, 선조 25년 9월 15일(임신).

⁴⁰⁾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논총』19, 2013. 참조,

^{41) 『}경략복국요편』.

일본군은 조승훈부대의 평양성 전투, 영천성수복전투, 청주성 전투 등을 전후하여 북상하는 전술을 바꾸어 진주성을 대규모로 공격하는 등 호남진출을 기도했다. 즉. 일본군은 명군의 참전이 가시화되면서 공세적인 입장에서 수세적인 입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일본군의 이러 한 입장전환을 유도한 것은 명군의 참전 가능성이었으며, 명군의 파 병을 요구하며 조선이 내세운 논리 중 영천성 전투가 제시되었다.

경략 송응창, 제독 이여송이 지휘하는 명군이 참전함으로써 임진 전쟁의 전황은 급변하여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한양으 로 후퇴하고, 뒤이어 남쪽으로 군대를 물리게 되었다. 명군의 참전 으로 일본군이 한반도의 남쪽으로 철수하자 선조는 무엇보다 각지 의 관원을 수령으로 임명하여 지방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1593년 3월에 田見龍(定州牧使), 崔琛(价川郡守), 李德弘(永川縣監), 宋徳潤(楊根郡守)、柳雲龍(豐基郡守)、趙誼(南原府使)를 임명했다.42) 이들 지역은 남해안의 일본군을 전투할 때. 후방지역으로 병력조달 과 군수지원의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영천현감으로 이덕홍이 임명되었다

한편, 1593년 조명연합군이 한양을 회복한 뒤 명군과 일본군 사 이에 강화회담이 본격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명군의 일본군의 철 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했다. 1593년 6월에 명군은 일본군 의 점령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다. 조선에 파견된 명군의 최고지휘관 이었던 경략 송응창은 조선의 지방 가운데 일본군이 점령하였던 지 방과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군의 점령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일본군의 전쟁지도 및 점령지역 의 일본군 친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조선은 자문 을 보내어 점령여부를 상세히 보고했다.⁴³⁾

^{42) 『}선조실록』권36. 선조 26년 3월 20일(을해).

^{43) 『}선조실록』권39. 선조 26년 6월 5일(무자).

〈표 4〉 임진전쟁시기 일본군의 점령현황

구분	군현	점령
	平壤,中和,祥原	0
평안도	等邊, 肅川, 成川, 定川, 安州, 龜城, 朔州, 昌城, 義州, 江界, 德川, 順川, 熙川, 雲山, 嘉山, 郭山, 宣川, 鐵山, 龍川, 渭原, 碧蓮, 博川, 理山, 寧遠, 慈山, 价川, 甑山, 咸從, 江西, 永柔, 龍崗, 三和, 順安, 江東, 三登, 陽德, 孟山, 泰川, 殷山	×
황해도	黃州, 海州, 瑞興, 平山, 豐川, 鳳山, 谷山, 遂安, 信川, 安岳, 載寧, 白川, 新溪, 牛峯, 文化, 松禾, 長淵, 甕津, 康翎, 殷栗, 江陰, 長連, 兔山	0
	延安	×
경기도	廣州,驪州,坡州,楊州,水原,富平,利川,仁川,長湍,南陽,楊根,豊德,加平,安山,朔寧,安城,麻田,高陽,龍仁,振威,永平,陽川,金浦,砥平,抱川,積城,果川,谷川,通津,交河,連川,陰竹,陽城,陽智,竹山	0
	江華,喬桐	×
강원도	原州, 淮陽, 襄陽, 春川, 三陟, 江陵, 鐵原, 通川, 平海, 旌善, 高城, 杆城, 寧越, 平昌, 金城, 蔚珍, 歙谷, 伊川, 平康, 金化, 狼川, 洪川, 楊口, 橫城, 麟蹄, 安崍	0
경상도	慶州, 星州, 安東, 昌原, 金海, 密陽, 善山, 大丘, 東萊, 草溪, 蔚山, 梁山, 清道, 醴泉, 永川, 興海, 金山, 咸安, 陝川, 慶山, 固城, 巨濟, 義城, 泗川, 鎖海, 開寧, 三嘉, 高寧, 宜寧, 河陽, 龍宮, 彦陽, 漆原, 仁同, 間慶, 咸昌, 知禮, 玄風, 軍威, 比安, 義興, 新寧, 靈山, 昌寧, 機張, 熊川	0
	青松,寧海,榮川,豐基、咸陽,南海,盈德,居昌,奉化,河東,淸河,安陰, 丹城,禮安,迎日,長譽,眞寶	х
함경도	安邊, 德原, 鍾城, 慶興, 文川, 高原, 三水, 端川, 洪原, 利城, 明川	0
	忠州, 淸州, 淸風, 丹陽, 槐山, 文義, 堤川, 懷德, 延豐, 陰城, 淸安, 鎭川, 永春, 報恩, 永同, 黃澗	0
충청도	公州, 洪州, 林川, 泰安, 韓山, 舒川, 沔川, 天安, 瑞山, 沃川, 溫陽, 鴻山, 德山, 平澤, 稷山, 定山, 靑陽, 恩津, 懷仁, 鎭岑, 連山, 尼山, 大興, 扶餘, 石城, 庇仁, 藍浦, 結城, 保寧, 海美, 唐津, 新昌, 禮山, 木川, 全義, 燕岐, 靑山, 牙山	×
	珍山,錦山,龍潭,茂州	0
전라도	羅州, 光州, 南原, 長興, 順天, 潭陽, 濟州, 寶城, 盆山, 古阜, 靈岩, 珍島, 渟昌, 金堤, 礪山, 靈光, 樂安, 昌平, 臨陂, 萬頃, 金溝, 綾城, 光陽, 龍安, 咸悅, 扶安, 咸平, 康津, 玉果, 高山, 泰仁, 沃溝, 南平, 興德, 井邑, 高敞, 茂長, 務安, 同福, 和順, 興陽, 海南, 求禮, 谷城, 長城, 珍原, 雲峯, 任實, 長水, 鎖安, 大靜, 旌義, 全州	×

^{*} 전거 : 『조선선조실록』권39, 선조 26년 6월 5일(무자).



〈그림 3.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우도의 일본군 점령지역〉

조선은 일본군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군이 철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中樞府事 尹根壽, 예조판서鄭昌衍, 이조참의 吳億齡, 사헌부 장령 李尚毅 등을 경략에게 파견하여 명군의 遺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략은 앞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점령여부를 점검하고 잔존한 일본군이 극소수로 곧 일본으로 회군할 것이라 판단하고 조선의 철수반대를 반박했다. 44)

영천성수복전투의 의미는 공신녹훈과정에서 부각된다. 전쟁이 끝 난 뒤 1604년(선조 37) 6월 6일, 선조는 元勳·大臣과 함께 공신녹 훈의 개정을 논의했다. 임진전쟁의 공훈은 신축년에 扈從과 征倭로 공신들을 나누어 녹훈되었으며, 1602년(선조 35)에 함께 녹훈하였 다. 이 때 言官이 나누어 녹공하고 27명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44) 『}선조실록』권41, 선조 26년 8월 26일(정미).

또한, 追錄한 鄭運 등도 삭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신녹훈의 최종 결과에 비율문제가 발생했다. 즉, 녹훈된 정왜무장은 이순신·권율·원균·고언백 등 4명뿐이었다. 영천수복의 權應銖, 해전에서 승리한 李億祺, 幸州대첩의 趙儆, 晋州의 金時敏·李光岳, 延安의 李廷麓 등 수성의 공이 있었지만, 공신녹훈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무장들의 사기문제가 관련되었다. 비록 무장은 아니더라도 임진전쟁초기에 대명사행 중이었던 申點은 玉河館에 머물다가 일본군의 침략소식을 듣고 請兵외교활동을 펼쳐 명군의 참전에 공이 있었다. 선조와 대신들은 최종적으로 공신녹훈을 개정하며, 권응수를 비롯한인물들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屬聖과 宣武공신으로 구분하되 3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45) 권응수의 경우, 전쟁기간 중 지속적으로 군사지휘관으로 활약하여 큰 공훈을 세웠다. 1597년(선조 30) 1월 23일, 경상좌도 방어사였던 권응수는 일본군선 150척이다대포에 정박하여 가등청정이 재침하였음을 보고하기도 했다. 46)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영천성수복전투의 배경이 되는 초기 전황 및 전투 과 정, 군사사적 분석을 개략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한 요약은 생략하 고 영천성수복전투에 참여하였던 의병들에 대한 연구에서 향후 필요 한 사항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영천성수복전투의 구체적인 경과과정에 대한 이해는 이미 사료와 적지 않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투에

^{45) 『}선조수정실록』권38, 선조 37년 6월 6일(을유).

^{46) 『}선조수정실록』권31, 선조 30년 1월 23일(갑인).

참여하였던 의병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병장의 창의동 기. 시대적 배경. 일본군의 주둔현황 등에 대한 일부 연구가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의병의 창 의를 사상적으로 학맥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현 실적인 창의동기를 밝혀봐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영천, 신녕, 의 흥. 경주 등 주변 지역의 당시 현황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정리되 어야 한다. 강력한 일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의 병이 창의하기 어렵다. 또한. 일본군의 점령여부를 지리적으로 구분 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첫 단계로 2019년 12월 에 있었던 "조선 1592년 임진전쟁과 창의정용군의 영천성수복전 투"와 같은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7)

둘째. 창의정용군과 의병활동에 대한 인물중심에서 부대중심으로 관점 전화이 필요하다 기존 임진전쟁의 의병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 구성과를 낸 것은 의병장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특정 인물 중심의 분석은 의병창의의 배경 및 과정, 의병활동의 성격 등 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자칫 인물에 과도한 집중을 하 여 의병부대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정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인물과 가문에 한정된 평가는 인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쟁적으 로 활동평가로 이어져 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에 영천성수복전투의 경우, 인물중심에서 벗어나 영천을 비롯한 경상좌도의 여러 지역에서 창의한 의병이 어떻게 창의정용군이라는 의병연합부대를 형성하고. 공성전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영천성수복전투에 참여한 의병장의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

⁴⁷⁾ 영천역사문화박물관이 주관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한 본 학술회의에서 지용스님의 "영천성수복전투 자료수집 현황". 김경록의 "영천성수복전투 전개과정과 특징". 김강식의 "의병의 시각으로 본 영천성수복전투", 최재호의 "임진 실기살상 영천 성수복전투"등의 발표가 있었다.

및 활동을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용한 방법론이 전쟁실기를 통해 분석이다. 민족, 군대 지휘관, 정치가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전쟁의 의미는 차이가 난다는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전쟁 三重性(trinity)"을 임진전쟁에 적용하면 경상 좌도의 의병장 가운데 정치가[官僚], 군대의 지휘관[義兵], 민족[戰 災民]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의병장이나 관원이 경험하는 범위와 자신의 위치에 따라 임진전쟁에 대응하는 현실 양상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48)

넷째, 최초의 육지전투에서 승리라는 관점보다 영천성수복전투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칫 최초라 는 이름에 집착하여 임진전쟁의 매우 중요한 전투였던 영천성수복 전투를 과도하게 평가하기 보다는 연대기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영 천성수복전투 전후 주요 전황, 정세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서 가 능하다. 오히려 영천성수복전투의 역사적 성격을 의병중심 부대가 제한된 상황에서 불리한 공성전을 펼쳐 승리하고, 명군의 참전을 불 러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천성수복전투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사료에서 영천성수복전투를 평가한 점, 실록을 비롯한 기록의 평가, 공신책봉과정에서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는 본 글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영천성수복전투 및 경상좌도, 경상우도의 주요 전투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2020, 1, 3, 심사수정일: 2020, 2, 6, 게재확정일: 2020, 2, 18,)

주제어: 임진전쟁, 영천성, 수복전투, 의병, 창의정용군, 공성전,

국제전쟁

⁴⁸⁾ 최재호, 「남명학파의 임진왜란 전쟁실기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11. 14쪽.

〈참고문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趙慶男. 『亂中雜錄』

鄭慶雲.『孤臺日錄』

李魯.『龍蛇日記』

曺景溫,『林溪實記』

鄭湛. 『永川復城日記』

金誠一,『鶴峯集』,

權應銖,『白雲齋實紀』

鄭湛.『復齋實紀』

宋應昌.『經略復國要編』

- 이형석, 『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13.
- 池內宏,『文祿慶長役』別編 第1, 吉川弘文館, 1936.
-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38, 2016(DOI: 10,19120/cy,2016,04,38,5)
-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100, 2016. (DOI: 10,29212/mh,2016.,100,67)
- 김경록, 「명대 監軍제도와 임진왜란시 파병 明軍의 監軍」, 『동양사학연구』 137, 2016.(DOI: 10,17856/jahs,2016,12,137,51)
- 김경록, 「정유재란기 파병 명군의 구성과 조명연합군」,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DOI: 10.18496/kjhr.2017.08.57.123)
-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 논총』19. 2013.
-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군사』95, 2015(DOI: 10,29212/mh,2015,.95,363)

- 문수홍 「임란 중 경상좌도지방의 의병활동-임진년 영천·경주성 수복전을 중심으로-」,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론총』, 1984.
-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이광수, 「영천지역의 임란 의병활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욱, 「임란초기 영천지역 의병 항쟁과 영천성 복성」, 『국학연구』26, 2015(DOI: 10.36093/ks.2015..26.003)
- 이재수, 「영천 읍성과 임진왜란」, 『역사교육논집』52, 2014(UCI : G704-002017. 2014..52.004)
-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 최재호, 「남명학파의 임진왜란 전쟁실기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11.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47, 1994.



(Abstract)

The Process of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 castle(永川城收復戰鬪) and features from the military historical point of view during the Imjin War(壬辰戰爭)

Kim, Kyeong-lok

During the Imjin War, the Joseon army's losing streak was caused by Japanese troops occupying both Hanyang(漢陽) and Pyongyang(平壤). The Japanese forces, which had pushed Pyugyang to press king Sŏnjo(宣祖) fled to Uiju(義州), were forced to make tactical changes due to community—centered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義兵) in the rear. Based on these previous research result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永川城 收復戰罰) and the military historical features of the Imjin War.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mjin War as Joseon, Japanese, and volunteer soldiers from the standpoint of the battle that re-seizured Yeongcheonseong(永川城戰鬪), unlike terms such as Yeongcheon Battle(永川 戰鬪) and to summarize the military history of the battle. In addition. we will look at how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was recognized, evaluated and utilized in the future from the Imjin War perspective.

After the outbreak of the Imjin War, the Japanese troops in the Yeongcheon region advanced north, leaving some part of troops behind.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in the Yeongcheon region joined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in the surrounding regions to form Changuijeongyong—army(倡義精勇軍) and continued fighting with the

Japanese army.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were rarely associated with each other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Even if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were united, they could not fight efficiently due to the disruption of the command system. Nevertheless, Changuijeongyong—army, which joined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united and prepared for battle to overcome regional turmoil and overcome the crisis. In response to the outbreak of the military service in Yeongcheon, in response to the rising from the surrounding area, various military veterans participated and agreed to the era of ousting Japanese troops without regard for mutual interests. In addition, an army leader(義兵將) with excellent military capabilities successfully commanded Changuijeongyong—army, which successfully ran a siege warfare, the most difficult battle of pre—modern times.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is a battle fought against the best Japanese troops by allied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not regular troops, and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with little military equipment. It was a battle that defeated a Japanese army, and a battle that defeated the Siege warfare, which was possible only with the overwhelming strength and experience of a poor soldier,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When the Japanese defeated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they lost the main strategic military route in Gyeongsang—do(慶尚道) and retreated to Gyeongju(慶州).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was later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Joseon demanded the Ming Dynasty. In other words,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was a very important battle not only in terms of war and combat history, but also in terms of military diplomacy. In conclusion, the Changuijeongyong—army in Yeongcheon was the best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in the early days of the war, and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castle won the most difficult battle of Siege warfare against the elite Japanese army armed with a fowling piece by the poor Changuijeongyong—army

with limited military equipments. The battle was a turning point that greatly changed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war.

This battle was of great military and diplomatic significance, leading to the involvement of Ming Dynasty's armed forces in Imjin War, and it was the best feature of the Imjin war as an international war.

Keywords: Imjin War(壬辰戰爭), Yeongcheon castle(永川城), Re-seizure

Battle(收復戰),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義兵), Changuijeongyongarmy(倡義精勇軍), Siege warfare(攻城戰),

International war(國際戰爭)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199-242 https://doi.org/10.29212/mh.2020..114.1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시대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위치 비정

홍영호*

- 1. 머리말
- 2.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조사 · 연구 현황과 문제점
- 3.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문헌 · 고고학적 분석과 위치 비정
- 4. 맺음말

1 머리말

강원도 영동지방의 봉수 제도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확인되므로 적어도 조선 건국기부터 설치되어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설치된 봉수는 이후에 간행된 지리지나 읍지에 보이는 그 명칭으로 볼 때 봉수지의 위치나 입지가 크게 변화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강원도의 해안지역에는 연변봉수가 주로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와 입지는 동해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 및 해적을 막거나 침입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관망과 감시[후망(堠望)] 및 서로 연락[相通]하

^{*} 문학박사, 태백 세연중 역사교사

기에 좋은 해안의 끝 부분, 즉 곶이나 해안의 비교적 높은 봉우리에 주로 설치되었다.1) 강원도 동해안 소재의 봉수는 대부분 연대(煙臺)와 호(壕)를 갖춘 평면 원형의 조선 전기 연변봉수 형태이고, 구조와 형태가 단순하다.2)

강릉지역 봉수의 폐기와 관련하여서는 『여지도서』에서 지금은 봉수가 폐지되어 터만 남아있다³⁾고 기술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그런데 『여지도서』 간성군 봉수조의 기록을 보면, 계해반정, 즉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 이후 왜(倭)에 대한 경계가 근절되면서 봉수가폐지되었다고 나온다.⁴⁾ 이 때문인지 『여지도서』를 보면 삼척을 비롯하여 평해, 강릉, 양양, 간성 등의 봉수를 '금폐(今廢)'라 소개하였고, 울진, 고성에는 봉수 항목만 두고 개별 봉수 명칭과 설명이 없어졌다. 그 구체적인 폐지 시기는 삼척부사(三陟府使) 유시회(柳時會, 재임기간: 1625~1629)의 재임 중인 병인년(丙寅年, 1626)에 남한산성을 쌓고, 영동 지방의 봉대(烽臺)를 폐지했다는 『척주선생안

¹⁾ 이들 봉수대의 해발 고도는 대략 100m 이내이며, 평균 고도는 82,6m로 주위보다 비교적 높지만 낮은 산봉우리에 해당한다(김경추, 「조선시대 봉수체제와 입지에 관한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35권 3호, 한국지리교육학회, 2001, 279~280쪽). 그런데 김경추의 위의 논문에서는 강원도 연변봉수의 해발고도를 측정해 기술하였는데(279쪽, 표2. 강원도 해안, 내륙별 각 봉수대의 입지), 개별 위치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와 사진조차 없는 까닭에 직접 활용하기 곤란하다.

조선 시대 동해안 연변봉수에 대한 조사 연구 성과도 있다(이철영·김성철, 「조선 시대 동해안지역 연변봉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제17권 2호(통권57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48쪽). 그런데 이 조사 연구는 부산 기장의 남산봉수에서 동해 어달산봉수까지 총 20개만 정밀조사를 한 까닭에 강원도 동해안의 나머지 지역인 강릉, 양양, 고성(간성)의 봉수대는 빠져 있다.

²⁾ 김주홍, 「한국 봉수의 구조와 특징」, 『고성 비지정문화재(삼포리 봉수지) 복원 및 활용 방안 학술세미나』,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 36쪽.

^{3) 『}여지도서』 강릉 봉수, "並今廢有遺址."

^{4)『}여지도서』 강원도 강릉진관소속 간성군 봉수,"烽燧三處 初屬襄陽大浦堡 癸亥反 正後 廟議以關東絶倭警革大浦堡所屬烽燧戍卒皆罷."

[『]관동읍지』「간성군지」봉수 및 『간성읍지』(1814), 『간성군읍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陟州先生案)』의 기록이 주목된다.5) 따라서 『척주선생안』의 병인년 폐지 기사와 『여지도서』의 폐지 기록은 영동 지방 봉수의 폐지 시기를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강원도 동해안의 연변봉수는 폐지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까닭에 봉수 노선과 봉수지의 명칭에 대한 인식은 이후의 지리지와 읍지에서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지금까지도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위치와 입지가 비교적 잘 전해지고 있다.6) 그러나 그동안에 전문 학술 기관이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봉수지도 여전히 존재하였고, 위치 비정에 논란이 되는 봉수지들도 있어 그 위치의 규명부터 필요하다. 특히 강릉지역 봉수는 그 위치가 더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조사를 통해 위치가 불확실하였거나, 논란이 되었던 연변봉수지들을 찾아 그 입지를 규명한 성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삼척지역은 봉수지 5곳 모두 위치와 입지 및 현상이확인되었고.7) 간성지역은 죽도산봉수의 위치가 규명되었으며.8) 강

⁵⁾ 김구혁(1798년 생~1859년 몰), 『척주선생안』, 부사 유시회(재임기간: 1625~1629), " … 丙寅築南漢山城嶺東廢烽臺 …." 병인년은 1626년(인조4년)이다. 이 기사는 다음 논문에서 처음 찾아 제공하였다.

김도현, 「삼척지역의 봉수 연구」, 『박물관지』1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4, 47~48쪽.

⁶⁾ 사실 여러 지명 유래지에는 봉수대, 봉화터 등으로 채록되었지만,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그 위치가 확인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강릉의 경우 사화산봉수, 주문산봉수 등이 그러한 예인데, 이 두 봉수는 필자가 현지 조사를 하여 그 위치를 처음 확인 하였다. 그 조사 과정과 논거는 이 글의 해당 봉수 항목에 서술되어 있다.

⁷⁾ 김도현, 「삼척지역의 봉수 연구」, 『박물관지』1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4, 29~93쪽. 이후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에 삼척지역의 연변봉수가 김도 현에 의하여 집필 수록되었다.

⁸⁾ 고성(간성)의 연변봉수 죽도(산)봉수의 경우 최초 현지조사에서 바닷가의 죽도바위를 죽도(산)봉수로 비정하였는데(지현병, 「고성군의 관방유적」,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10책, 1995, 123~126쪽), 이후 학술기관의 조사에서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김성범·심영섭,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개보-강원도 고성군편-」, 『문화재』3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249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원도 고성군 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유적조사보고 제10집, 2003, 179쪽;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고성군-』, 학술총서 27책,

릉지역은 해령산봉수와 사화산봉수 등의 위치가 확인되었다.⁹⁾

이 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강릉지역 봉수의 위치를 밝혀 그 입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동해안 연변봉수의 위치와 입지는 물론이고 봉수 노선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조사 · 연구 현황과 문제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에 우리나라의 성곽과 봉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집성한 전문 사전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 실린 강원도의 봉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2005, 114}쪽 지도 및 213쪽 죽도성지 설명 참조).

그러나 죽도(산)봉수는 바닷가의 죽도바위가 아니라 그 육지 쪽 옆의 산에 있는 지금의 삼포리봉수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이 삼포리봉수가 고려시대의 죽도수(竹島成)였다는 것도 논증하였다(홍영호, 2014, 「고성군 죽왕면 竹島(山)烽燧와 竹島戍에 대하여」『博物館誌』21,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19~44쪽).

⁹⁾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홍영호, 「고성군 죽왕면 죽도(산)봉수와 죽도수에 대하여」, 『박물관지』21, 강 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4, 19~44쪽.

홍영호, 「고려시대 동계 지역의 수 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군 사」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39~75쪽.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3)-평면 말굽형 성지를 중심으로-」, 『박물관지』25,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8, 49~72쪽.

¹⁰⁾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 2011.

〈표 1〉『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2011) 수록 강원도 봉수 현황

구분 조선(현재)	『세종실록 지리지』 봉화	『신증동국여지승람』 봉수	『한국고고학전문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쫚
간성(고성)	수(成山)	수산 (対山)	□ 「	1445 1517
"	なみ(正陽式)	정양산(正陽山)	•	
"	주도신(竹島山)	マエ(竹島)	삼포리봉수(三浦里峰) (죽도봉수리는 언급 없음)	1489
(199)199	닥년(德L)	덕신봉수(德山烽燧)	•	
"	수년(개山)	〜~~~~~~~~~~~~~~~~~~~~~~~~~~~~~~~~~~~~	수신봉수(水上烽隊)	1514
"	광정(廣丁)	本でといます。(草津上降域)	초잔난봉수(草津山烽隊)	1592
"	양천(陽江)	양의신봉수(陽麗)上烽隊	양한당수(陽野山烽隊)	1529
강릉(강릉)	~是:注2文	そそとととなる。	•	
"	人屋修少人)	人屋上居全(沙人工)路路	•	
"	かほ所制	소동と場合(所同山烽燧)	•	
"	•	がほとまか(海震上烽隊)	•	
"	2元(吾斤)	오근신봉수(吾斤山烽隊)	•	
» (동해)	0号5次2達	어달산봉수(於達山烽燧)	어달신봉수(於達上烽隊)	1529
삼척(삼척)	광산(廣津山)	みでいまか(魔津山烽隊)	광진신봉수(廣津山烽燧)	1398
"	양천(陽山)	양한분국(陽野山烽溪)	양한분수(陽麗孔烽隊)	1528
"	조관(草살)	초곡신봉수(草谷山烽燧)	초곡신봉수(草谷山烽燧)	1591
"	임원산(簡明元11)	임원신봉수(臨院山烽隊)	임원신봉수(臨院山烽燧)	1561
"	기막L(미참LL)	기곡신봉수(可谷山烽燧)	기곡と봉수(可谷山峰)	1369

위의 〈표 1〉로 볼 때 의외로 많은 연변봉수가 수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변봉수가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 었고, 전승 자료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고성(조선 시대의 간성)의 삼포리봉수는 그 부연 설명에서 죽도봉수라고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연변봉수로 보지 않았고, 양양의 덕산봉수는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¹¹⁾ 강릉은 6곳의 봉수 가운데 어달산봉수만 소개되었고 나머지 5곳은 소개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 〈표 1〉은 강원도의 연변봉수가 그 위치 비정에서 명확하지않은 것이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여전히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보여준다.

강릉지역의 봉수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5곳, 『신증동국여지승 람』에서는 6곳이 나온다〈표 2〉. 그 차이는 해령산봉수가 『세종실록 지리지』의 봉화 항목에는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봉수 항목 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된 6곳의 봉수는 이후의 지리지와 읍지인 『여지도서』, 『관동지』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 하지만 이 들 지리지보다 늦게 간행된 『관동읍지』와 『증수임영지』에는 5곳만 나오고, 오근산봉수가 빠지는데, 그 이유 역시 찾을 수 없다.

¹¹⁾ 덕산봉수는 지금의 속초 대포동 외옹치봉수이다. 한편 양양의 경우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광정봉수'가 빠지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초진산봉수'가 들어가 있는데, '초진산봉수'가 하광정리 하조대 부근에 있다는 채록 내용이 있다(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양양군, 206쪽, "봉우-재(초진산봉수, 봉화대)【산】현북면(縣北面) 하광정리(下光丁里)에 있는 산. 높이 70m. 이조(李朝) 때봉수대(烽燧臺)가 있어서 남쪽으로 양아산(陽野山), 북쪽으로 수산(水山) 봉수(烽燧)에 응하여 주었으며, 동쪽 기슭에 하조대(河趙臺)가 있음."). 이로 보아 명칭의 차이가 있지만 '초진산봉수'와 '광정봉수'는 동일한 존재로 판단된다. 말하자면『세종실록지리지』와『신증동국여지승람』의 봉수지는 사실상 서로 동일하다.

문헌(항목) 간행 연도		강릉의 봉수					
『세종실록』 「지리지」 봉화(烽火)	1454	어을달 (於乙達)	오근 (吾斤)	•	소이동 (所伊洞)	사화 (沙火)	주을문 注 乙 文
『신증동국여지승람』 봉수(烽燧)	1530	어달산 (於達山)	오근산 (吾斤山)	해령산 (海靈山)	소동산 (所同山)	사화산 (沙火山)	주 문 산 注文山
『여지도서』 봉수(烽燧) -병금폐유유지 (幷今廢有遺址)	1757 ~1765	어달산 (於達山)	오근산 (吾斤山)	해령산 (海靈山)	소동산 (所同山)	사화산 (沙火山)	주문산 注文山
『관동지』 「강릉부읍지(상)」 봉수(烽燧)	1829 ~1831	어달산 (於達山)	오근산 (五斤山)	해령산 (海靈山)	소동산 (所同山)	사화산 (沙火山)	주 문 산 注文山
『관동읍지』 「강릉」 봉수(烽燧) 금폐(今廢)	1871	어달산 <mark>봉</mark> (於達山烽)		해령산 <mark>봉</mark> (海靈山烽)	소동산봉 (所同山烽)	사화산봉 (沙火山烽)	주문진봉 (注文津烽)
『증수임영지』	1933	어달산봉 (於達山 烽)		해령산봉 (海靈山烽)	소동산봉 (所同山烽)	사화산봉 (沙火山烽)	주문산봉 (注文山烽)

〈표 2〉 조선시대 주요 관찬지리지의 강릉 지역 봉수 현황

이와 같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강릉대도호부 판내의 봉수처는 "봉화5처(烽火五處)"라 하여 해령산봉수가 독립 항목으로 없지만 봉화로를 연결하는 오근봉수 항목과 소이동봉수 항목에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봉수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해령(산)봉수가 나오므로¹²⁾ 실제로는 6개의 봉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관동읍지』에서도 오근산봉수가 독립 항목으로 나오지 않고 5곳만 기재되어 있지만 어달산봉수 항목에서 북쪽의 오근산봉수와 응한다¹³⁾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봉수 항목에 해령(산)봉수가 빠진 이유가

^{12) 『}세종실록지리지』 강릉 봉화, "吾近 北應府地海令 및 小伊洞 在府東北隅 南應海令 北應沙火."

^{13) 『}관동읍지』 강릉, "於達山烽, 自府南距八十里 南應三陟廣津山 北應五斤山 今廢言."

단순한 누락일 가능성이 높고,¹⁴⁾ 아니면 어떠한 군사적·제도적 원인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관동읍지』와 『증수임영지』에서 빠져 있는 오근산봉수도 이와 동일한 경우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지리지 및 읍지에서 보이는 강릉 지역 봉수의 명칭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다. 강릉지역 봉수에서 '주을문봉화(注乙文烽火)—주문산봉수(注文山烽燧)—주문진봉수(注文津烽燧)'와 '오근봉화(吾斤烽火)—오근산봉수(吾斤山烽燧)—오근산봉수(五斤山烽燧)'는 표기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들 봉수의 명칭이 사실상동일하므로 봉수지의 위치가 변화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봉수 명칭의 차이는 지역과 입지를 고려하여 다르게 표현한 한자 표기의 차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강릉지역에는 6곳의 봉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릉 지역의 봉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언급된 6곳의 봉수를 『한국지명총람』에서 찾아보면 어달산봉수, 오근산봉수, 해령산봉수, 사화산봉수, 주문산봉수 5곳이 나온다. 15) 그러므로 『한국지명총람』에 채록된 5곳의 봉수는 그 위치까지 확실히 파악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지명총람』은 물론이고 여러 지명유래지에서 봉수대, 봉화터 등으로 채록되었지만, 실상은 현지 조사를통해 그 위치가 확인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강릉지역에서는 지금의묵호 어달리와 대진리의 봉화재에 있는 어달산봉수대가 실제 확인되어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뿐, 나머지 5곳의 봉수지는 그 정확한 위치에 논란이 있다. 예를 들면 우선 해령산봉수는 지금의 강동면 안인리의 바닷가에 해랑당이 입지한 곶(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

¹⁴⁾ 이규대, 「어달산 봉수대의 역사적 변천」, 『동해 어달산 봉수대』, 강릉대학교 박물 관 학술총서 33책, 2001, 25쪽, 각주 39번.

¹⁵⁾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68쪽(봉화-재(烽火-)(봉수대, 어을달산, 어달산)], 68쪽(사화-산(沙火山)(사화산봉수)], 69쪽(주문산(注文山)(주문 산봉수)], 71쪽(오근-산(吾斤山)), 72쪽(해령-산(海靈山)(봉화재, 봉화봉)],

적이나, 그 외에도 강릉 남대천 하구와 바다에 접해 있는 견조도(堅造島, 지금의 안목항)로 보기도 한다. 16) 또한 주문산봉수도 주문진읍 향호리와 양양 현남면 지경리의 경계에 있는 향호 1리 바리봉(발우봉, 鉢峰, 發利峰)으로 보기도 하고, 17) 현재의 주문진 바닷가 일대로 보기도 한다. 18) 그리고 사화산봉수는 그동안의 학술조사에서도 그 위치가 확인되지 못하다가, 19) 최근에 들어와 사천진리 마을서낭당 자리임이 확인되었다. 20) 오근산봉수의 위치도 봉수대, 봉수터라 전해지나 경작지로 변하여 구체적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21) 여기에 『한국지명총람』에도 나오지 않는 소이동봉수(소동산봉수)의 위치도 매우 불확실하다. 소동산봉수를 남대천 하

¹⁶⁾ 박도식은 강릉 남대천 하구와 바다에 접해 있는 견조도(堅造島)를 해령수(海令戌)로 보고 있다(박도식, 「「동해<mark>안의</mark> 수군 유적 연구」에 대한 논평」, 『이사부, 새로운 동해의 시대를 열다』, 한국이사부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2009, 167쪽). 그렇다면 해령산봉수도 견조도로 본다고 볼 수도 있다.

¹⁷⁾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44), 430쪽. 이 발우봉 봉수를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동해 어달산 봉수대』, 『디지 털강릉문화대전』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주을문 봉수. 주문산봉수로 간주하고 기술하였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3판)], 657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3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22쪽, 강 릉(032) 위치 및 233쪽 1번 향호리 봉수지.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2쪽.

¹⁸⁾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429~430쪽.

¹⁹⁾ 사화산봉수는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유적 분포지도-강릉시-』, 『동해 어달산 봉수대』에는 항목은 있으나 위치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다.

²⁰⁾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58쪽.

²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3세)], 659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4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4~15쪽).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는 위치가 표기되어 있으나 봉수터의 흔적을 사진으로 찾을 수 없다(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151쪽, 묵호(033) 위치 및 295쪽 336번 심곡리 봉수지).

구의 북쪽 안목 바닷가에 있는 산(곶)으로 보거나,²²⁾ 내륙쪽인 포남 동 일대로 보기도 한다.²³⁾

이와 같이 강릉지역의 봉수는 채록은 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위치가 매우 혼란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화유적분포지도-동해시-』에는 어달산봉수,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는 오근산봉수, 해령산봉수의 위치가 표기되었으나, 나머지 소동산봉수, 사화산봉수, 주문산봉수는 그 위치가 표기되지 않았다. 심지어『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에는 강릉지역의 봉수가 한 곳도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릉지역의 봉수는 각각의 위치부터 올바르게 비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강릉지역의 각각의 봉수 항목에서 그 위치 비정을 시도하여 올바른 위치를 규명한 후, 그 현상을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봉수 명칭이 이후의 읍지 및 지리지에 그대로 나오므로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

3.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문헌·고고학적 분석과 위치 비정

가. 어달산봉수

어달산(어을달)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삼척 광진산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강릉 오근산봉수에 응한다. 『세

²²⁾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3쇄)], 649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4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3쪽.

²³⁾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34쪽.

종실록지리지』에서는 어을달산봉수, 『신증동국여지승람』부터 그 이후 의 사료에는 어달산봉수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 관련 문헌 자료 는 다음과 같다.

⟨표 3⟩	어달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 용
「세종실록』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어을달(於乙達)이 임내인 우계현 남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삼척 땅 광진에 응하고, 북쪽으로 오근에 응한다(烽火五處, 於乙達, 在任內羽溪縣南 南准三陟地廣津 北准吾斤).
「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 어달산봉수, 우계현 남쪽 30리에 있으며, 남으로 삼척부 광진산에 응하고, 북으로 오근산에 응한다(… 於達山烽燧, 在羽溪縣南三十里 南應三陟府廣津山 北應吾斤山).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 어달산, 관문 남쪽으로 80리이며, 남으로 삼척부 광진산에 응하고, 북으로 오근산에 응한다. 모두 지금 폐지되고 <mark>터만 남</mark> 아 있다(… 於達山, 自官門南距八十里 南應 <u>一時</u> 府廣津山 北應吾斤山, 並今廢有遺址).
『관동지』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 어달산, 관문 남쪽으로 80리이며, 남으로 삼척부 광진산에 응하고, 북으로 오근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於達山, 自官門南距八十里 南應三陟府廣津山 北應五斤山 今廢.
『관동읍지』「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어달산봉수는 부의 남쪽 80리이며, 남으로 삼척 광진산에 응하고, 북으로 오근산에 응한다. 지금은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於達山烽, 自府南距八十里 南應三陟廣津山 北應五斤山 今廢焉).

어달산봉수에 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대진리의 서 남쪽에 있는 산의 토루와 봉화대터가 어달산봉수로 칭한다고 하였 고,²⁴⁾ 『문화유적총람』과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북으로 오근산봉수, 남으로 삼척 광진산봉수와 응한다고 하여 이 어달산봉수가 조선시

²⁴⁾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江陵郡, "[40번: 봉수지] 望祥面 大津 里, 江陵ノ東南約八里半大津里西南山上ニ在リ土壘及烽火臺址僅ニ存スルノミー般 ニ於達山烽燧ト稱ス."

대 강릉의 연변봉수의 하나임을 알려준다. 25)

어달산봉수는 동해시 북동쪽 동해안의 어달리와 대진리 경계에 있는 월유산이라 불리던 어달산(해발 200m)에 위치하며, 대진동 산 24-4번지에 해당한다. 이 봉수지는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기념 물 제13호로 지정되었다. 어달산 봉수대가 위치한 곳은 태백산맥에서 동해 바다쪽으로 뻗어 있는 바닷가의 산 정상부(해발 185m) 동쪽 끝부분이다. 이곳에서는 동해 바다는 물론이고 사방으로 전망이좋으며, 북쪽으로는 강릉 심곡리까지도 조망이 된다.

어달산봉수의 현상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토루(土壘)와 봉화대터만 겨우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의 자료인 『문화유적총람』에서는 봉수대의 석축이 직경 약 9m, 높이 1~1.5m 정도로 붕괴된 상태라고 기술하였다. 어달산봉수대는 1971년에 정비·복원을 하였는데, 전문적인 고증을 거치지 않은 채 돌만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어달산봉수대를 올바르게 정비·복원하기 위하여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2000년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달산봉수대는 방형의 연대(煙臺: 불을 피우기 위한 시설)를 만들고, 주위로 둥글게 호(壕:도랑)를 파고, 호 바깥으로 토루를 만들은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달산봉수대의 규모와 구조는 세종 29년 병조에서 마련한 연변봉수의 연대 형태와 규모, 시설²⁶ 등과 유사하였다. 즉 연변봉

²⁵⁾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명주군, 446쪽, "묵호봉화대〈지기 13〉, 명주군 묵호읍 대진리 산 28, 임진왜란 때 築造되었다고 전하며 溟州郡 봉수대 중 가장 原形이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石築 아래 부분의 직경이 대략 9m, 높이 1~1.5m 정도인데 위에 쌓은 돌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다. 북으로 吾斤山, 남쪽으로 三陟府 廣津山에 응하였다."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68쪽, "봉화-재(烽火-)(봉수대, 어을달산, 어달산)【산】묵호읍(墨湖邑) 어달리(於達里)와 대진리(大津里)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00m. 이조 때 어달산(於達山) 봉수(烽燧)가 있어서, 북쪽으로 오근산(吾斤山), 남쪽으로 삼척부(三陟府) 광진산(廣津山)에 응하였음."

^{26) 『}세종실록』권115, 세종 29년(1447) 3월 4일(병인), "沿邊各處煙臺築造 高二十五

수의 연대 형태와 규모는 방형이고, 둘레에 호를 파며, 임시 건물도 설치하여 병기, 용수, 화기 등을 보관하였는데, 어달산봉수도 이와 유사하였다. 다만 높이는 어달산봉수대의 연대 상층부가 파괴되어 자세히 알 수 없다.

구분	형태	높이	둘레	4면 연대 기단 길이	호의 깊이와 넓이	목익의 길이
세종 29년	방형	25尺 (7.81m)	70尺 (21.86m)	각 30尺 (6.37m)	각 10尺 (3.12m)	각 3尺 (0.93m)
어달산 봉수대	방형	현재 0.6m	23,2m	평균 5.8m	깊이 0.8~1.3m, 폭 2,3m	확인 불가
비교	같음	상층부 교란	비슷	비슷	비슷	확인 불가

(표 4) 어달산봉수 현상 비교

이로 보아 동해 어달산봉수대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어달산봉수대의 연대 주변에서 수습된 백자류가 15C 후반~16C 후반으로 편년되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해 어달산봉수대를 조사하면서, 어달동봉수대 남쪽 약 1km 지점의 해발 217m 정상에서 조선 시대 초기의 봉수터로 추정되는 곳을 발견하였다. 이곳에는 현재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소를 세우면서 유적이 상당한 부분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백자 및 회청색 색조의 '卍+사격자문 기와'가 수습되었는데, 함께 수습된 백자류가 15~1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므로 봉수터는 그보다 선행한다고 보아조선 시대 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27)

^{*} 출처: 강릉대 박물관, 2001,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60쪽.

尺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 外掘塹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設木長三 尺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

²⁷⁾ 강릉대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33·57·63쪽. 한편 어달산봉수대는 원래 신라 시대부터 있던 자리에 1149년(의종 3년) 축조하였으며, 조선 시대에 와서 폐했다가 임진왜란 때 필요하여 다시 복원하였다는 채록 기사도 있다[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 3쇄), 651쪽].

그리고 어달산봉수대의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문화유적총람』에 흥미로운 기록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망상 심곡리에 있는 산성[장 안성]에 진장(鎭將)이 머물렀고, 대진리(어달동) 봉화대를 지키던 군 병(軍兵)이 주둔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8) 이 기사로 보아 망상 심곡리산성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머물거나, 토착세력가가 머무는 행정적 치소성(성채마을)이자 소규모 적의 침입시 유사시 입보(入保)하는 민보용(民堡用) 성으로 추정된다. 29)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외부의 침입을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심곡리산성에서 어달산봉수대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만호(萬戸)가 포진(浦鎭)과 봉화(烽火)를 모두 관리하므로 30) 동해시 어달동봉화와 망상동 심곡리산성 간에 연락체계가 있었다는 전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31)

나. 오근산봉수

오근산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어달산봉

²⁸⁾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명주군, 446쪽, "고현성지, 명주군 묵호 읍 심곡리산, 낮은 아산의 능선을 따라 둥글게 쌓은 1km 정도의 土,石混築城으로 長安城 또는 安土城이라 부르는데 鎭將을 두었었다고 전하고 혹은 大津里 봉화대를 지키던 軍兵이 주둔했다 전해지며 瓦片이 散在되어 있고 성의 윤곽만 알 수 있다."

²⁹⁾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1)-평면 말굽형 성지를 중심으로-」, 『박물관지』17,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0, 19~46쪽. 이와 비교가 가능한 사례가 있다. 앙양군 현북면 광정진성(廣丁鎭城)과 초진산봉수[광정봉수]도 유사하다. 광정진성은 '말발굽형'의 자연 능선을 활용한 성으로소규모 적을 피하기 위한 入保用民堡用 성채마을, 행정적 중심마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광정진성에서 직선거리로 가까운 위치인 바닷가 하조대에 초진산봉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정진성과 초진산봉수가 서로 긴밀한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³⁰⁾ 장학근, 「조선전기수군만호고」, 『해사논문집』26, 해군사관학교, 1987, 9~38쪽.

³¹⁾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2, 60쪽 각주 33번 참조.

내용

응하고, 북으로 해령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五斤山,自官門南距三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海靈山 今廢.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烽隊 今廢).

- 오근산봉수 항목 없음(注文津隆, 沙火山隆, 所同山隆,

海靈山烽, 於達山烽만 나옴).

수에 응하고, 북으로 해령산봉수에 응한다. 오근산봉수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지리지와 읍지에 강릉 지역의 봉수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관동읍지』에만 오근산봉수가 독립 항목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달산봉수를 소개하면서 북쪽으로 오근산봉수와 응한다고 기술되었으므로 실제 오근산봉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권153. 봉화가 5곳이니. … 오근(吾斤)이 북쪽으로 부(府)의 땅 「지리지」 해령(海令)에 응한다. … (烽火五處. … 吾斤.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北准府地海令,…). 봉화(烽火) ··· 오근산봉수. 우계현 북쪽 20리에 있으며, 남으로 『신증동국여지승락』권44. 어달산에 응하고 북으로 해령산에 응한다. … (… 吾斤山烽隊) 강릉대도호부. 봉수(烽隊) 在羽溪縣北二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海靈山…) … 오근산 관문 남쪽으로 30리이며 남으로 어달산에 『여지도서』 강원도 응하고, 북으로 해령산에 응한다. … 모두 지금 폐지되고 강릉부, 봉수(烽隊) 터만 남아 있다. … (… 吾斤山, 自官門南距三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海靈山. … 並今廢有遺址). … 오근산, 관문 남쪽으로 30리이며, 남으로 어달산에 『관동지』권9.

〈표 5〉 오근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隊)

『관동읍지』「강릉」

(1871)、 봉수(烽隊)

오근산봉수는 강동면 심곡리 해안단구 곶[산]에 위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유적총람』에서 '봉수대'라고 부르고,³²⁾ 『강릉의 지명 유래」에서도 강동면 심곡리에서 '봉화재(吾斤山)'로 채록되었으며, 봉

³²⁾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명주군, 450쪽, "명주심곡리봉수대지, 명주군 강동면 심곡리, 모두 耕作地와 뽕나무 밭으로 변하여 원형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곳을 주민들은 「봉수대」라고 부르고 있다."

화터의 구체적인 위치도 서술되었다.³³⁾ 그리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 -강릉시-』에는 심곡리봉수가 정동진 해안단구로 유명한 산 위의 평 탄면에 표기되어 있다.³⁴⁾

특히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심곡리 봉수를 오근산봉수로 부른다고 하므로, 35) 조선 시대의 연변봉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도 심곡리봉수가 오근산봉수라고 채록되었으므로 36) 심곡리 봉수를 오근산봉수로 보는 것이 옳다.

오근산봉수의 현상에 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토루와 봉화대터가 있다고 하였고,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이미 경작지로변하여 뚜렷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오근산봉수는 경작지가 되면서 멸실된 까닭에 그 정확한 위치는 물론이고 봉수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설에는 임란시(壬亂時) 강동면 산성우리(山城隅里)에 위치하고 있는 삼한성(三韓城)과 이 봉수지가 서로 연락되었다고 전한다. 37)

³³⁾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154쪽, "봉화재(吾斤山)-국수뎅이에서 마을 쪽으로 오다가 왼쪽 바닷가쪽으로 부채끝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산 위에 있는 봉화터.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오근산 봉수는 우계현 북쪽 20리에 있다. 남으로 어달산(동해시)에 응하고 북쪽으로 해령산으로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³⁴⁾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동해-』, 학술총서 19책, 1998, 151쪽, 묵호(033).

³⁵⁾ 조선총독부,『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江陵郡, "[34번: 봉수지] 資可谷面深谷里, 江陵邑ノ東南約四里半深谷里ノ北約十町ノ海岸ノ山上ニ在リ土壘及烽火臺址存スルノミー般ニ吾斤山烽燧ト稱ス."

³⁶⁾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강원편-』, 1967, 명주군, 71쪽, "오근-산(吾斤山)【산】지 필 북쪽 동해 바닷가에 있는 산. 이조 때 봉수대가 있어서, 남으로 어달산(於達山), 북으로 해령산(海靈山)에 응하였음."

³⁷⁾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 5, 1994, 254쪽.

다. 해령산봉수

해령산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오근산봉수에 응하고, 북으로는 소동산봉수에 응한다. 관련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6〉 해령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용
「세종실록』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 오근(吾斤)은 북쪽으로 부(府)의 땅해령(海令)에 응한다. 소이동(所伊洞)은 부(府) 동북쪽에있으며, 남쪽으로 해령에 응하고, 북쪽으로 사회에 응한다. … (烽火五處, … 吾斤, 北准府地海令, 小伊洞, 在府東北隅南淮海令 北准沙火 …).
『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 해령산봉수, 남으로 오근산에 응하고, 북으로 소동산에 <mark>응한다</mark> (… 海靈山烽燧, 南應吾斤山 北應所同山).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 해 <mark>령산, 관</mark> 문 남쪽으로 15리이며, 남으로 오근산에 응하고, <mark>북으로 소동산</mark> 에 응한다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海靈山, 自官門南距十五里 南應吾斤山 北應所同山 並今廢有遺址).
『관동지』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 해령산, 관문 남쪽으로 15리이며, 남으로 오근산에 응하고, 북으로 소동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海靈山, 自官門南距十五里 南應五斤山 北應所同山 今廢).
『관동읍지』「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해령산봉, 부의 남쪽 30리에 있으며, 남으로 어달산에 응하고, 북으로 소동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 海靈山烽, 自府南距三十里 南應於達山 北應所同山 今廢焉). * 필자: 남으로 어달산은 오근산의 오류임.

해령산봉수는 강릉 남쪽 강동면 안인진리 군선강 하구의 남쪽 곶 [산]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안인진 해안에서 돌출한 곶의 정상으로 봉화산으로도 불린다. 이 봉화산이 고지도에서는 해령산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곳이 조선시대 연변봉수가 확실하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산천조에 부의 동쪽 10리에 견조

도가 있고, 고적조에도 부의 동쪽 10리에 해령수가 있으므로 견조도가 해령수(海令戍)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8) 즉 강릉 동쪽 안목, 남대천 하구의 곶인 견조도를 해령수로 보고 해령산봉수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리지와 읍지의 봉수조에는 소동산봉수가 부의 동쪽 7리 또는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해령산봉수는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강릉 남쪽의 조선 시대안인포진과 봉수대가 있던 해령산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나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안인진에 봉화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³⁹⁾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안인진 봉화대가 어달동[대진리] 봉수대와 연결된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곳 봉화대를 조선 시대의 연변봉수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지명총람』 에서는 해령산[봉화재, 봉화봉]에 봉수대가 있고 조선시대에 오근산 봉수와 소동산봉수를 연결한다고 채록되었다.⁴⁰⁾ 이러한 『한국지명

^{38)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조에는 해령산이 부의 동쪽 27리에 있고(『신증동국여지 승람』권44 강릉, 산천조, 在府東二十七里), 견조도가 부의 동쪽 10리에 있으며 남 천으로 들어가는 바다 입구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강릉, 산천조, 在府東十 里南川入海之口)라고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해령수(海令成)가 부의 동쪽 10리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릉, 고적조, 海令戍, 在府東十里)는 기록이 있다. 그리하여 산천조에도 동쪽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방향과 거리가 동일하므로 이를 중시하여 해령수가 강릉 동쪽에 있다가 강릉 남쪽의 해령산으로 옮겨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유재춘, 「고려시대 외침과 강원지역의 성곽방어체제 재정비」, 『강원사학』 32, 강원사학회, 2019, 80쪽 각주 31번).

³⁹⁾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江陵郡, "[24번: 봉수지] 資可谷面安仁津里, 江陵 /東南約二里安仁津 /北海岸 /孤立山上二在 / 土壘及烽火臺址現存セリ."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명주군, 449쪽, "안인진봉화대, 명주군 강동면 안인진리, 해변으로 돌출한 俗稱 烽火山 山頂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築造되었다 전하며 墨湖大津里 봉화대 등 해변 돌출지역에 있는 봉화대와 서로 응하던 것 같다. 현재 봉화대의 위치는 큰돌 2개가 있을 뿐 石築의 흔적은 없어졌다."

⁴⁰⁾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72쪽, "해령-산(海靈山)〔봉화 재, 봉화봉〕【산】화비령(火飛續) 줄기 곧 나룻말 서북쪽 동해(東海)가에 솟아 있는 산. 산 위에 해령사(海靈祠)가 있고, 그 서북쪽으로 30m 되는 곳에 이조 때 봉수대(烽燧臺)가 있어서, 남쪽으로 오근산(吾近山), 북쪽으로 소동산(所洞山)에 응(應)하였음."

총람」의 채록 내용은 또 다른 지명 유래에서도 채록되었다. 41) 반면 안목의 견소동의 곶[산]에는 연변봉수였다는 지명 유래가 전해오지 않는다. 따라서 안인진의 봉수대를 조선 시대의 연변봉수인 해령산 봉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다.

해령산봉수는 『세종실록지리지』를 비롯하여 모든 지리지와 읍지에 서는 소이동[소동산]봉수의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 소이동봉수가 지금의 안목 강문의 견조도라면 그보다 남쪽 에 위치하여 서로 보이는 곶[산]에 위치한 안인 해령산을 해령산봉 수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신증동국여지승람』고적조에서 부의 동쪽 10리에 있다는 해령수(海令戍)의 위치도 이곳 해령산봉수지로 판단된다 42)

해령산봉수의 현상에 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토루 와 봉화대터가 있고.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석축의 흔적은 남아 있 지 않고 다만 큰 돌 2개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현재 이곳에는 군 부대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봉화대가 멸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막돌(자 연석)과 흙으로 축조되어 있었다고 한다 43)

⁴¹⁾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157쪽. "해령산(海靈山) - 마을 앞 바닷가에 있는 산으로 화비령 북쪽 줄기 낙맥이 된다. 규선강 하구에 있는 산 인데 산 위에 해령사가 있고, 그 서북쪽 30m 되는 곳에 烽燧臺가 있는데, 동국여 지승람에 보면 '해령산 봉수는 남쪽으로 吾斤山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所同山에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42) 『}세종실록지리지』의 간성군 봉수조를 보면 정양수(正陽戊)와 수산(戊山)이 있다. 봉수의 명칭에 '수(戌)' 자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수(戌)와 봉수(烽燧)와의 관련성 이 엿보인다(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⁴³⁾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3쪽.

라. 소동산봉수

소동산봉수(소이동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해령산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사화산봉수에 응한다.

자료명	내용
「세종실록,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 소이동(所伊洞)이 부(府) 동북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해령에 응하고, 북쪽으로 사회에 응한다 (烽火五處, … 小伊洞, 在府東北隅 南准海令 北准沙火).
『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 소동산봉수, 부(府)의 동쪽 7리에 있으며, 남으로 해령산에 응하고, 북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 所同山烽燧, 在府東七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 소동산, 관문 동쪽으로 7리이며, 남으로 해령산에 응하고, 북 <mark>으로</mark> 사화산에 응한 <mark>다</mark>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 所同山, 自官門東距七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並今廢有遺址).
『관동지』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 소 <mark>동산, 관문 동쪽으로 7리이며, 남으로 해령산에</mark> 응하고, 북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所同山, 自官門東距七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今廢.
『관동읍지』「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소동산봉, 부의 동쪽 10리에 있으며, 남으로 해령산에 응하고, 북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지금은 역시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所同山烽, 自府東距十里 南應海靈山 北應沙火山 今亦廢焉).

〈표 7〉 소동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소동산봉수는 주요 관찬지리지와 읍지에서 (강릉)부의 동북쪽 모퉁이(『세종실록지리지』), 동쪽 7리(『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관동지』) 또는 10리(『관동읍지』)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소동산봉수에 대해서는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뿐만 아니라 『한국지명총람』에도 나오지 않아 현재 그 구체적인 위치와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적총람』에서 포남동에 봉화대가 있다고 소개되어 있고, 44) 이 포남동에 있는 봉화대가 소동산(바같뫼,

⁴⁴⁾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강릉시, 355쪽, "강릉포남동봉수형대, 조

봉화산)에 있으며, 해령산과 사화산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봉수대로 채록된 바 있다.⁴⁵⁾ 그 근거는 소동산을 '바같뫼'로 불리는데, 이 말은 '바(所)+같은(同)'이라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지명 유래를 근거로 김기설은 포남동 뒤에 있는 봉화산이 소동산봉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⁴⁷⁾

반면 소동산봉수지가 지금의 강문동 안목, 남대천 하구 북쪽의 곳에 있는 견소도라는 견해들도 있다. 48) 하지만 이 견해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문화유적분포지도 -강릉시-』에는 견소도에 봉화대가 있다고 표기되지 않았다. 49) 그러므로 소동산봉수지가 포남동 봉수대와 견조도가 위치한 견소동50)

선 高宗21년(1884) 3월에 郵政總局을 설치하면서 烽火가 없어졌다. 시내에 남아 있는 봉화지는 笠岩洞 月臺山과 본 烽火烽 2개소가 남았다."

⁴⁵⁾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34쪽, "所同山(바같뫼, 봉화산), 강릉시 포남동 뒤에 있는 봉, 옛날 이곳에서 봉화를 올려 북쪽으로는 사천 사화산. 남쪽으로는 강동면 안인진리 해령산으로 보냈다."

⁴⁶⁾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34쪽, "봉화산(所同山, 바같뫼), 포남동 뒤에 있는 산으로 옛날 이곳에서 봉화를 올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所同山 봉수는 부 동쪽 7리에 있다. 남쪽으로 해령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사화산에 응한다"라 기록되어 있다. '바같뫼'란 말은 '바(所)+같을(同)'이란 말이 축약되어 '바같뫼'가 되었다. 참고로 봉화 이동로를 살펴보면 북쪽 현남면 남애리 陽也 山에서 남쪽으로 주문진 注文山, 사천면 진리 沙火山, 강릉 所同山, 강동면 안인리 海靈山, 강동면 심곡리 吾斤山, 동해시 於達山으로 이어진다."

⁴⁷⁾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34쪽.

⁴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3쇄)], 소동산 봉수 (所同山烽燧), 649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3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3쪽.

⁴⁹⁾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102쪽, 강릉(099).

포남동 봉화대(바같뫼)도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에는 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암동의 월대산 봉수대는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100쪽, 강릉(097)].

⁵⁰⁾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22쪽, 견소-동見召洞(견소, 견소진) 【동】본래 강릉군 남일리면(南—里面)에 속한 지역으로서, 견소(見召) 또는 견소진(見召津)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견소진리(見召津里)라 하여 군내면(강릉읍)에 편입되었다가, 1955년 강릉시제 실시와 더불어 견소동(見召洞)으로 고침.

봉수대 가운데 어느 봉수대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령산봉수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소이동봉수의 남쪽에 있고, 다른 지리지와 읍지에서도 소동산[소이동] 봉수의 남쪽에 있다는 점이 참고가 된다. 이렇게 보면 해령산봉수의 북쪽에 소동산[소이동]봉수가 위치해야 하는데, 만약 강문동 안목의 견조도를 해령산봉수로 본다면⁵¹⁾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사화산봉수 사이에 소동산봉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곶[산]이나 장소가 없다. 굳이 찾으면 경포호 석호와 바닷가에 있는 죽도봉을 소동산봉수로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안목의 봉수와 경포호의 봉수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포호 죽도봉에는 봉수와 관련하여 전승되어 오는 내용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 또한 안목의 견조도가 해령산봉수라면 그 북쪽에 위치한 소동산봉수는 사화산봉수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화산봉수는 사천진리의 바닷가에 위치한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해령산봉수가 안인진리 봉화산이 확실한 만큼 소동산봉수대는 안목의 견조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소동산봉수의 위치를 찾으려면 우선 연변봉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봉수대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던 사화산봉수와 주문산봉수의 위치가 최근에 바닷가 곶[산]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소동산봉수도 이들 봉수처럼 바닷가의 산이나 곶[산]에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해령산봉수와 사화산봉수의 중간에 위치한 곶인 안목 하구의 견소동이 소동산봉수지로 판단되고, 이는 견조도가 위치한 '견소동'의 지명이 소동산봉수대의 '소동'과 옛 지명인 소이동봉수대의 '소이동'과도 연결될 수도 있어 그 추정

⁵¹⁾ 그 근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산천조에 (강릉)부의 동쪽 10리에 견조도가 있고, 고적조에 (강릉)부의 동쪽 10리에 해령수가 있으므로 견조도가 해령수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해령산봉수를 강문 안목으로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다. 견조도를 해령산봉수로 볼 수 없지만, 봉수지로 본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견조도는 소동산(소이동)봉수지로 판단된다.

을 뒷받침해 준다

현재 안목 남대천 북쪽 하구의 곶인 소동산봉수대는 군사시설이 들어와 있어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

마 사화산봉수

사화산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 소동산봉 수에 응하고, 북으로 주문산봉수에 응한다. 관련 문헌 자료는 다음 과 같다.

(표 8) 사화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용
「세종실록」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 사화는 북쪽으로 연곡 주을문에 응한다 (烽火五處, … 沙火, 北准連谷注乙文).
『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 사화산봉수, 남쪽으로 소동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주문산에 응한다 (…沙火山烽燧,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 사화산, 관문 북쪽으로 20리이며, 남으로 소동산에 응하고, 북으로 주문산에 응한다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沙火山, 自官門北距二十里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並今廢有遺址).
『관동지』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 사화산, 관문 북쪽으로 20리이며, 남으로 소동산에 응하고, 북으로 주문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 沙火山, 自官門北距二十里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今廢).
『관동읍지』「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사화산봉, 부의 북쪽 20리이며, 남으로 소동산에 응하고, 북으로 주문산에 응한다. 지금은 역시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 沙火山烽, 自府北距二十里 南應所同山 北應注文山 今亦廢焉).

사화산봉수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도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전국의 유적을 집성한 『문화유적총람』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때문인지 사화산봉수는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학술 조사에서도 그 위치가 확인되지 못하였다.52) 하지만 사화산봉수의 위치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한 국지명총람』(명주)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사화—산(沙火山)(사화산봉수)[산](사천면(沙川面) 사천진리(沙川津里) 앞 북쪽에 있는 산. 높이 35m, 고려 때 사화수(沙火戌)가 있었고, 이조 때 봉화대가 있어서, 남쪽으로 소동산(所洞山), 북쪽으로 주문산(注文山)에 응하였음.53)

위의 기록은 사화산봉수가 사천진리 마을에 위치하였고, 이곳에서 소동산봉수와 주문산봉수가 연결되므로 사화산봉수가 조선시대 강릉지역의 연변봉수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54)

이러한 단서를 토대로 사화산봉수의 위치는 최근에 찾아졌다. 그 위치는 지금의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 자리이다.⁵⁵⁾ 이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이 옛날의 봉수대로 전해진다고 채록되었기 때문이다.⁵⁶⁾ 실제 1970년대에 간행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서도 '봉우재'로 서술되었으므로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이 봉화대였음임이 입증이 된다.⁵⁷⁾ 사화산봉수는 사천진리 북쪽의 뒷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한 교무암

⁵²⁾ 사화산봉수는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문화유적 분포지도-강릉시-』, 『동해 어달산 봉수대』에는 항목은 있으나 위치가 정확히 표기 되어 있지 않다.

⁵³⁾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명주군, 68쪽.

⁵⁴⁾ 이와 비슷한 지명 유래도 다음과 같이 더 찾을 수 있다.

 [&]quot;동두(東頭)-(사천:필자)진리 마을 주령을 이루고 있는 조그만한 재, 옛날 이곳에서 봉화를 올려 봉화재라고도 하는데 봉화는 남쪽으로는 강릉시 포남동 바 같뫼, 북쪽으로는 주문진 주문산으로 보낸다."(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218쪽).

⁵⁵⁾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19, 강워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58쪽.

⁵⁶⁾ 대담자: 최필수(1945년생) 증언, 前이장님, 현재 삼다도 횟집 운영.

⁵⁷⁾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 제8책, 1977, 12쪽 및 사진 20 참조.

(蛟門巖)을 마주보는 나지막한 산에 위치하였다. 강원도 동해안의 자연지형적 특징인 태백준령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가지능선 의 해안 끝 쪽 산에 봉수가 위치한 셈이다. 이곳에서 남쪽의 소동 산(견소도)봉수와 서로 보이므로 지금의 사천진 서낭당 자리가 사화 산봉수가 맞다고 판단된다.

사화산봉수지는 현재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 자리로 바뀌었고. 지 진해일(쓰나미)을 대피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 화산봉수지는 조선시대 연변봉수의 하나로. 봉수대가 폐지된 후 민 속 신앙의 장소로 변화한 사례를 보여준다.

나아가 허균이 지은 『성소부부고』를 보면 고려시대에 설치된 사화 산수(沙火山戍)가 교문암(蛟門巖) 위에 위치하였다고 나온다 58) 이 렇게 보면, 『한국지명총람 에서 고려 때 '사화수(沙火戍)'가 있었고. 이조 때 봉화대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조선시대의 사화산봉수 대가 고려시대에는 사화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 동해안에 설치된 군사 기지의 전방 초소인 수(成)는 바닷가의 전망 좋은 곳에 입지하여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외적을 감시하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마을에 빨리 알려 대비시키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고려시대 수(戍)는 남쪽과 북쪽으로도 서로 연결 하기 좋은 곳이나 곶[산]에 위치한 경우, 훗날 고려 말기~조선 전 기에 바다로부터 쳐들어오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봉화대를 설치하기에도 유리하므로 다시 활용되었을 것이다. 사화산봉수는 고 려시대의 수(戍)자리가 조선시대의 봉수(烽燧)로 연결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59)

⁵⁸⁾ 허균(許筠), 『성소부부고(惺所覆瓿稿)』 권70, 문부(文部)4, 애일당기(愛日堂記).

⁵⁹⁾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 「고성군 죽왕면 죽도(산)봉수와 죽 도수에 대하여.. 『박물관지』2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4. 19~44쪽; 「고려시 대 동계 지역의 수 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1, 『군사』99,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2016. 39~75쪽).

바. 주문산봉수

주문산(주을문)봉수는 조선시대 동해안의 연변봉수이며, 남으로는 사회산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양양 양야산봉수에 응한다. 관련 문헌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9) 주문산봉수 관련 문헌자료

자료명	내용
『세종실록』권153, 「지리지」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봉화(烽火)	봉화가 5곳이니, … 주을문은 북쪽으로 양양 임내인 동산의 양야에 응한다 (烽火五處, … 注乙文, 北准襄陽壬內洞山陽也).
『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강릉대도호부, 봉수(烽燧)	주문산봉수, 북쪽으로 양양부 양야산에 응하고, 남쪽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注文山烽燧, 北應襄陽府陽野山 南應沙火山).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부, 봉수(烽燧)	주문산, 관문 북쪽으로 40리이며, 북으로 양양부 양아산에 응하고, 남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모두 지금 폐지되고 터만 남아 있다 (注文山, 自 宫門치 距四十里 北應襄陽府陽野山 南應沙火山 並今廢有遺址).
『관동지』권9, 「강릉부읍지(상)」 (1829~1831), 봉수(烽燧)	주문산, 관문 북쪽으로 40리이며, 북으로 양양부 양아산에 응하고, 남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지금 폐지되었다(注文山, 自官門比距四十里 北應陽襄府襄野山 南應沙火山 今廢). * 필자: 한자 표기가 襄野山으로 표기됨.
『관동읍지』「강릉」 (1871), 봉수(烽燧)	봉수는 지금 폐하였다. 주문진봉, 부의 북쪽 40리이며, 북으로 양양부 양아산에 응하고, 남으로 사화산에 응한다. 지금은 폐지되었다(烽燧 今廢, 注文津烽, 自府北距四十里 北應襄陽府襄野山 南應沙火山 今廢焉). * 필자: 한자 표기가 襄野山으로 표기됨.

주문산봉수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와 해방 후에 문화유적을 집성한 『문화유적총람』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때문인지 주문산봉수는 그동안의 학술 조사에서 그 위치가 여러 곳에 비정되었다. 그러므로 주문산봉수는 정확한 위치부터 확인을 할필요가 있다.

주문산봉수의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지명총람』(명주)의 다음 기록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주문산(注文山)(주문산봉수)【산】주문진읍(注文津邑) 주문진(注文津)에 있는 산. 높이 39m. 이조 때 봉수대(烽燧臺)가 있어서 남쪽으로 사화산(沙火山), 북쪽으로 양양(襄陽) 양야산(陽野山)에 응하였음.60)

이 『한국지명총람』의 기록은 주문산봉수가 지금의 주문진에 있다고 기록된 가장 빠른 자료이다. 또한 『한국지명총람』으로 보면, 주문진의 주문산봉수가 조선시대에 남쪽의 사화산봉수와 북쪽의 양야산봉수를 연결하는 연변봉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한국지명총람』보다 늦게, 한국보이스카웃연맹에서 간행한『한국의 성곽과 봉수』에서는 향호리의 발우봉이 연변봉수인 주문산봉수라고 처음 보이며, 이후 여러 차례의 학술 조사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61) 이와 관련하여『한국지명총람』에도 향호리발우봉(바리봉) 봉수가 소개되었지만, 연변봉수라고 설명되지는 않았다. 또한 양양군 지명 유래를 보아도 바리봉에서 봉화를 올렸다는이야기는 있으나 남북으로 연결되는 봉수가 언급되지 않았다. 62) 그밖에 주문진읍 향호 2리 816번지의 향호2리 성지가 봉수지라고도전해진다고 하나. 63) 이곳은 높은 산봉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방이

⁶⁰⁾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명주군, 69쪽.

⁶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3쇄)], 657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53쪽.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22쪽, 강릉(032) 위치 및 233쪽 1번 향호리 봉수지.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12쪽,

⁶²⁾ 양양문화원, 『양양의 땅이름』, 1995, 290쪽, "지경리, 바리봉, 명주군과 양양군의 경계에 있는 높은 산봉이다. 옛날 이 봉에서 봉화를 올려 연락을 하던 곳인데 산 형국이 바리때처럼 생겼다하여 이름하였는데 鉢盂峯이라고도 한다."

⁶³⁾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249쪽.

조망이 되지 않으며, 남-북으로 연결되는 봉수도 볼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을 봉수대로 보기 곤란하다.

그런데 최초의 기록인 『한국지명총람』에서 주문진에 주문산봉수가 있고, 남북으로 연결되는 봉수까지 서술한 반면, 양양의 발우봉에서는 연변봉수와 연결된다는 내용이 없다. 여기에 동해안의 봉수가 바닷가에 입지하는 연변봉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지명총람』의 기사 내용이 옳다고 판단된다. 즉 주문진에 있는 봉수를 조선시대 연변봉수인 주문산봉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공교롭게도 『관동읍지(關東邑誌)』 「강릉(江陵)』(1871) 봉수조에서 '주문산봉수'가 '주문진봉수(注文津烽燧)'라는 명칭으로 '나루(津)'에 있다고 표기되어 있어 주목된다.64) 이를 통해 보아도 주문산봉수는 지금의 주문진 바닷가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 적이다. 또한 주문진리와 향호리는 행정 구역도 다르므로 주문산봉 수는 주문진(리)에 있는 봉수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동안 위치가 불확실하였던. 주문진봉수와 남쪽으로 연결되는 사화산봉수가 지금 의 사천진리 바닷가의 곶[산]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65) 주 문산봉수도 주문진 바닷가에 위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강원도 동해안 연변봉수가 모두 바닷가의 곶이나 산에 입지 한 점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실제 이 주문진 바닷가에 있는 주문산봉수는 북쪽의 양야산봉수 및 남쪽의 사화산봉수와 서로 보 인다. 결국 『관동읍지』에서 '주문진봉수(注文津烽燧)'으로 나오는 것 이 역사적ㆍ지리적 사실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연변봉수 인 주문산봉수는 주문진 바닷가에 위치하는 것이 옳으며. 향호의 북 쪽. 발우봉에 있다는 봉수는 연변봉수인 주문산봉수로 볼 수 없다.

^{64) 『}관동읍지』「강릉」(1871), 봉수, "注文津烽, 自府北距四十里 北應襄陽府襄野山 南 應沙火山 今廢焉."

⁶⁵⁾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그러면 주문산봉수의 구체적인 위치 비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 하여『한국지명총람』의 다음 지명 유래가 주목된다.

- 봉-꾸미(마을) 주문산 밑에 있는 마을 66)
- 주문진 등대(注文津燈臺) 【등대】 봉꾸미 동쪽에 있는 등대. 1918년에 세움.67)

위의 지명 유래로 보아 1918년에 세운 주문진 등대 자리가 '봉-꾸미'라 불리므로 이 위치가 봉화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된다. '봉꾸미'의 또 다른 지명 유래에서는 조선시대에 강릉 사천의 사화산봉수 및 양양 현남의 양야산봉수와 연결되는 봉수가 있었던 봉화터라고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 봉꾸미 - 오리진 바닷가 아래쪽으로 주문진산 밑에 있는 마을, 현 주문진 등대가 있는 터와 그 밑에 있는 나루, 옛날 이곳 산(등대가 있는 자리)에 봉화터가 있었다. 이곳에서 봉화를 남쪽으로는 사천 사화산, 북쪽으로는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양야산으로 보낸다. 봉꾸미란 '봉+굼이'라는 말인데, '봉구미'란 말은 '산줄기 낙맥 끝에 움푹 파인 곳'을 뜻한다. 68)

아울러 주문진 등대가 있는 이곳이 예전에 '봉수산'이었다는 일제 강점기의 기록도 있다.⁶⁹⁾ 따라서 조선시대의 연변봉수인 주문산 봉수지는 지금의 주문진 등대 일대가 맞다고 보아야 한다. 이곳에서는 남쪽으로 사천의 사화산봉수, 북쪽으로 현남의 양야산봉수가 조망되므로 서로 응할 수 있다.

⁶⁶⁾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명주군 주문리, 103쪽.

⁶⁷⁾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67, 명주군 주문리, 103쪽.

⁶⁸⁾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430쪽.

^{69) 『}동호승람(東湖勝覽)』권2, 축항(築港), 등대(燈臺), 주문진 옛 봉수산에 돌로 축대를 만들고 우선(郵船) 출입을 조망하였다(강릉문화원, 『국역 동호승람』, 2001, 84쪽).

동해안 연변봉수가 바닷가 항구[나루]가 있는 산에 입지하였음을 알려주는 좋은 근거가 있다. 지리지 및 읍지의 봉수지 명칭에서 '진(津)'이 들어간 봉수지 명칭으로 채록된 사례들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강릉 해령산봉수가 『문화유적총람』에서 '안인진봉화대'로 유적 명칭이 기술되었고, 70) 삼척 임원산봉수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임원진봉수'로 칭한다고 기술되었으며, 71) 양양의 수산봉수도 수산진 동북쪽 해안 산정에 봉수지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72) 『관동지(關東誌)』의 「고성군지(高城郡誌)」 봉수조에는 '봉수진(烽燧津)'이라 기술되어 있어 고성군의 봉수들이 '(바닷가) 항구[나루]'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73) 이로 보아 동해안 연변봉수가 바닷가의 곶[산]에 주로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문진 등대 자리가 주문산봉수로 판단된다.

현재 봉수대 자리에는 주문진 등대가 있다. 주문진 등대는 강원 도에서 처음 세워지고 가장 오래된 등대로 1918년 3월 20일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옛 봉수대의 흔적은 전혀찾아볼 수 없고, 그 주변에서도 봉수대와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⁷⁰⁾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명주군, 449쪽, 안인진봉화대(安仁津烽 火臺).

⁷¹⁾ 조선충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三陟郡, "[25번: 봉수지] 遠南面臨院里, … 一般二臨院津烽燧ト稱ス." 심의승의 『삼척군지』(1916)에서도 원덕면 구적(舊蹟)조에 "… 임원진(臨院津)에 설치하였던 봉화대(烽火臺)의 허물어진 터가 남아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삼척 임원산봉수 역시 임원진 바닷가의 산에 있는 것이다.

⁷²⁾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襄陽郡, "[7번: 봉수지] 異陽面桃花里, 水山津ノ東北約二百五十間ノ海岸山頂ニアリ方約五間石築, 完全."

^{73) 『}관동지』「고성군지」 봉수조. "'烽燧津'("烽燧津古有之而壬亂後革罷云")"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강릉지역의 연변봉수의 위치와 입지를 비정하기 위하여 문헌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봉수지 현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강릉지역 연변봉수는 바닷가의 곶[산]이나 바닷가의 산에 입지하였고, 거의 대부분 연결되는 봉수와 서로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바닷가에서 다소 내륙에 들어온 봉수들은 연변봉수가 아닌 다른 성격의 봉수이거나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봉수로 이름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동해안 각지역에서 다양한 위치에 분포한 여러 봉수들로 인하여 연변봉수들의 입지를 비정하기 어려웠는데, 결국은 바닷가에 위치하지 않은 봉수는 연변봉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연변봉수들의 명칭에 '산'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 '산'이 바닷가의 '곶[산]'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즉 바닷가 나루에 있는 곶[산]이 연변봉수지의 입지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산'이라는 봉수 명칭을 중시하여 바닷가가 아니라,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의 산을 연변봉수로 간주하면 오류이다.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릉 봉수조에 보이는 '해령산봉수 (海令山烽燧)'와 '사화산봉수(沙火山烽燧)'도 고적조에 보이는 '해령수 (海令戍)' 및 '사화수(沙火戍)'와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시대의 전방초 소인 '수(戍)'가 조선시대의 봉수지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그 위치와 입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글을 통해 강릉지역 연변봉수의 위치와 입지를 규명함으로써 조선시대 영동지방의 연변봉수는 사실상 그 위치와 입지가 거의 모두 확인된 셈이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는 앞으로 고려시대

230 | 軍史 第114號(2020. 3.)

동계지역의 군사 체계를 규명하고, 고려말기~조선전기 강원도 동해 안의 관방 운영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고투고일 : 2020. 1. 3, 심사수정일 : 2020. 2. 6, 게재확정일 : 2020. 2. 18.)

주제어 : 수(戍), 연변봉수(沿邊烽燧), 강릉(江陵), 조선시대(朝鮮時代),

어달산봉수(於達山烽燧), 오근산봉수(吾斤山烽燧), 해령산봉수(海靈山烽燧), 소동산봉수(所同山烽燧), 사화산봉수(沙火山烽燧), 주문산봉수(注文山烽燧)



〈참고자료〉



그림 1. 조선시대 강릉지역 그림 2. 어달산봉수의 위치 연변봉수 위치 분포도









그림 5. 사화산봉수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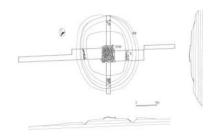
그림 6. 주문산봉수의 위치



그림 7. 동여도의 해령산(봉수)과 안인포



사진 1. 강릉(동해) 어달산 봉수대 연대와 환호 * 출처: 강릉대 박물관, 2001



도판 1. 강릉(동해) 어달산 봉수대 실측도 * 출처 : 강릉대 박물관, 2001



사진 2. 강릉(동해) 어달산 봉수대 방형기단 * 출처: 강릉대 박물관, 2001



도판 2. 강릉(동해) 어달산 추정 조선전기 봉수지 출토 卍자 무늬 기와 사진 및 탁본 * 출처 : 강릉대 박물관, 2001



사진 3. 강릉(동해) 어달산봉수 원경(북→남)



사진 4. 강릉 오근산봉수 원경(남→북)



사진 5. 강릉 해<mark>령산봉</mark>수 원경(북→남)



사진 6. 강릉 소동산봉수 원경1(서→동: 남대천 하구)



사진 7. 강릉 소동<mark>산봉수</mark> 원경2(서남→북동)



사진 8. 강릉 사화산봉수 원경(북→남)



사진 9. 강릉 사화산봉수 전경(동→서)



사진 10. 강릉 주문산봉수 원경(북→남)

〈참고문헌〉

- 1. 지리지 및 읍지류(고지도 포함) 등
- 『세종실록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여지도서』
- 『관동지』
- 『관동읍지』
- 『척주선생안』(김구혁. 생몰:1798~1859)
- 『삼척군지』(심의승. 1916)
-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1933)
- 『동호승람(東湖勝覽)』(최백순, 1937). 서울대 규장각(편)
- 『조선후기 지방지도』(강원도 · 함경도편, 2000.)
- 『성소부부고(惺所覆瓿稿)』(허균)
- 2. 단행본 및 저서

강릉문화원, 『국역 동호승람』,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전문사전(성곽·봉수)』, 2011

김구혁(1798년 생~1859년 몰, 배재홍 역), 『척주선생안』, 삼척시립박물관, 2003.

김기설, 『강릉지역 지명유래』, 인애사, 1997(3쇄)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상), 1977.

양양문화원, 『양양의 땅이름』, 1995.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하), 1989(1991 3쇄)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3. 논 문

김경추, 「조선시대 봉수체제와 입지에 관한 연구-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리학연구」35권3호, 2001.

- 김도현, 「삼척지역의 봉수연구」, 『박물관지』11호, 강원대 중앙박물관, 2004.
- 김성범·심영섭,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개보-강원도 고성 군편-」, 『문화재』30,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 김주홍, 「한국 봉수의 구조와 특징」, 『고성 비지정문화재(삼포리 봉수지) 복원 및 활용방안 학술 세미나』,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
- 유재춘, 「고려시대 외침과 강원지역의 성곽방어체제 재정비」, 『강원사학』32, 강원사학회, 2019.
- 이철영·김성철, 「조선시대 동해안지역 연변봉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 구』제17권 2호(통권 57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 uci G701:C-00036705617 G701:C-00036705617
- 장학근, 「조선전기수군만호고」, 『해사논문집』26, 해군사관학교, 1987.
- 홍영호, 「양양 후포매리 신라 산성의 고찰」, 『선사와 고대』30, 한국고대학회, 2009; uci G701:C-00030522677 G701:C-00030522677
-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1)-평면 말굽형 성지를 중심으로-」, 『박물관지』7, 강원대 중앙박물관, 2010.
-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수를 중심으로-」, 『박물 관지』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 홍영호, 「고성군 죽왕면 죽도(산)봉수와 죽도수에 대하여」, 『박물관지』2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4.
- 홍영호, 「고려시대 동계 지역의 수 조사 연구-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군사』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DOI: 10 29212/mh 2016. 99 39
-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3)-평면 말굽형 성지를 중심으로-」, 『박물관지』25,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8.
-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 지역 평지 포곡식 산성의 축조시기와 성격」, 『군사』 1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DOI: 10.29212/mh.2019.111.163
- 4. 보고서 및 현장지도위원회의 자료 강릉대학교 박물관.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 10책. 1995.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강릉시-』, 학술총서 19책, 1998. 강릉대학교 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동해시-』, 학술총서 19책, 1998. 강릉대학교 박물관, 『동해 어달산 봉수대』, 학술총서 33책, 2001.

; uci G701:A-00106620828 G701:A-00106620828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고성군-』, 학술총서 27책, 2005. 관동대학교 박물관, 『명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총서5, 1994.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및 제8책, 1977.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강원도 고성군 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유적조사보고 제10집, 2003.



(Abstract)

Determining the locations of th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Gangneung during the Joseon Dynasty

Hong, Young-ho

There were some signal—fire stations were on the seaside in the East Coastal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y are called coastal signal—fire stations. There were 6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region of Gangneung according to records. These are the list the names of these signal—fire stations from south to north, such are Eodalsan Bongsoo, Ogeubsan Bongsoo, Haeryeongsan Bongsoo, Sodongsan Bongsoo, Sahwasan Bongsoo and Jumunsan Bongsoo.

However, excluding Eodalsan Bongsoo,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he locations of 5 of these signal—fire stations. So through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ed to locate the places of these 5 signal—fire stations, and find out their common characteristics. To this end, the author critically analyzed bibliographic data, investigated the sites of the signal—fire stations, and determined the controversial locations of th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e locations of th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Gangneung. That is, thes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were located in the promontories on the seashore or in the mountains off the coast, and most of them were at a visible distance from adjacent signal—fire stations.

Also, the fact that some of the frontline guard posts of the Goryeo Dynasty, 'Soo (成),' used the same names and their locations confirmed that they were used as the sites of signal—fire sta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confirmed the location of th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Gangneung, and thus determined the locations of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the Yeongdong area.

Keywords: frontline guard post [Soo, 仝(戌)], Coastal signal-fire station (沿邊烽燧), Gangneung (江陵),

Joseon Dynasty (朝鮮時代),

Eodalsan Bongsoo (於達山烽燧: Eodalsan signal-fire station),
Ogeubsan Bongsoo (吾斤山烽燧: Ogeunsan signal-fire station),
Haeryeongsan Bongsoo (海靈山烽燧: Haeryeongsan signal-fire station),
Sodongsan Bongsoo (所同山烽燧: Sodongsan signal-fire station),
Sahwasan Bongsoo (沙火山烽燧: Sahwasan signal-fire station),
Jumunsan Bongsoo (注文山烽燧: Jumunsan signal-fire stati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243-280 https://doi.org/10.29212/mh.2020..114.2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아리마 세이호(有馬成甫)의 『조선역 수군사(朝鮮役水軍史)』(1942)에 보이는 이순신 비판론

김준배*

- 1. 서론
- 2. 아리마 세이호와 『조선역 수군사』
- 3. 『조선역 수군사』속의 조선 · 이순신 비판론
- 4. 해전사로서의 의의(意義) 상실
- 5. 결론

1. 서 론

본 논문에서 살펴 볼 것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시점에 간행된 『조선역 수군사(朝鮮役水軍史)』속에서 이순

^{*} 해군사관학교 제2외국어학과 조교수

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에 관해서이다. 『조선역 수군사』란 '조선 역=임진왜란(壬辰倭亂)'의 '수군=해전'에 관한 '사(史)'로서, 현대 한 국어로 풀이하자면 '임진왜란 해전사' 정도의 의미이다. 이 책은 당 시 해군 소장(少將)이었던 아리마 세이호(有馬成甫, 이하 세이호)에 의해 간행되었는데. 그는 군사사(軍事史) 전문가로서 이미 전쟁사에 관한 다양한 저술을 간행한 인물이었다. 그러한 그에 의해 저술된 『조선역 수군사』는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에 의하면 병학(兵學)의 입장에서 저술된 책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 이하 히데 요시)가 수군의 강화를 등한시했던 것. 그리고 조선 수군에 대한 인 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인해 조선 수군의 뼈아픈 반격을 받았고. 이 를 전쟁에 당면한 이 시기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 용이다.1) 이러한 기타지마 만지의 지적대로 이 책은 역사가라기보 다 군사사 전문가인 저자에 의해 저술되어, '병학' 즉 '군사학(軍事 學)'의 측면에서 임진왜란을 분석하고 있는 흔치 않은 저술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 개개 해전의 경위와 함께, 조선 일본 양쪽 군 대의 선박 구조. 병기의 기능 등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있다.2) 따라 서 국내에서 임진왜란 해전에 관한 연구를 전개한 많은 연구자들이 세이호의 『조선역 수군사』를 활발히 활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역 수군사』의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1942년 전까지 발행되어 왔었던 일본의 수많은 임진왜란 관련 문헌과는 다른 시각으로이순신과 임진왜란 해전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이호는 이순신 및 임진왜란 해전에 대해 학계의 평가는 물론, 일본 해군의 주류 평가와도 다른 반응, 즉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당시 군사사 전문가로서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세이호의 눈에 이순신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었으며. 그가 이

¹⁾ 北島万次、『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早稲田大学博士論文、1990、p.51.

²⁾ 北島万次(1990), 前掲書, pp.51-52.

순신을 그렇게 바라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를 살펴봄을 통해 당시 흔치 않았던 일본의 이순신 비판론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아리마 세이호와 『조선역 수군사』

가. 아리마 세이호의 약력

세이호의 저술 속 이순신에 관해 알아보기에 앞서. 저자 세이호 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의 사상은 어떠했는지에 관해 짚어보 고자 한다. 『일본 육해군 사전(日本陸海軍事典)』에 의하면 그는 1884년 구마모토(熊本) 현에서 태어나서, 1904년 해군병학교 제33 기로 입학하고 1905년 12월 이를 졸업하여, 1906년 소위로 임관하 였다. 이후 그는 1916년에 소좌(少佐, 소령)로 진급하였으며 포술학 교 교관 등을 역임하였고. 1925년에는 대좌(大佐, 대령)로 진급하여 항공본부 과장 등을 역임하다가 1929년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 3) 해군을 퇴역한 그는 이후 고쿠가쿠인(国学院) 대학교에서 화포(火 砲)에 관한 연구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4) 본격적으로 군 사사(軍事史) 전문가로 활약하게 된다. 그와 해군의 인연은 퇴역으 로 인해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1932년에서 1935년까지 그는 해군 성(海軍省)의 촉탁(囑託)으로서 『조병사(造兵史, 병기 생산에 관한 역사)』 편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화포 전문가였던 그의 전문 성이 발휘된 것이었다. 이후 그는 1936년에는 〈군사사학회(軍事史 學會)〉의 이사로서 활동하였으며, 이 시기 특히 그는 해군사에 관한

³⁾ 原剛、安岡昭男編,『日本陸海軍事典』,新人物往來社, 1997, p.445.

⁴⁾ 平田俊春,「有馬成甫博士追悼の記」,『軍事史學』9-3, 軍事史學會, 1973.12, p.107.

다양한 연구를 펼쳤다.⁵⁾ 이후 1941년 중일전쟁이 격화되자 그는 해군에 다시 소집되었으며, 1942년에는 제2해상호위대(第二海上護衛隊)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1943년에는 소장으로 진급하였다.⁶⁾

세이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국방사학회(國防史學會)〉를 주재 (主宰)하거나, 1962년에는 『화포의 기원과 그 전승(火砲の起源とその伝流)』7)을 간행했으며, 1967년에는 『일본 병법 전집(日本兵法全集)』8) 시리즈에「『갑양군감』과 고슈류 병법(甲陽軍鑑と甲州流兵法)」,「호조류 병법에 관하여(北条流兵法について)」,「야마가류 병법에 관하여(山鹿流兵法について)」와 같은 병법에 관련된 연구를 게재하고 있는 등, 병법・화포・군사사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1973년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군인으로서보다 군사사전문가로서 더 이름이 높았던 인물로서, 전역한 이후 더욱 빛을 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리마 세이호의 사상

세이호의 임진왜란 해전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저술이자,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선역 수군사』는 1942년 간행된다. 이 글의 원저(原著)는 서문에서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9) 본인이 1934년 9월부터 1935년 8월까지 『우미토 소라(海と空)』라는 잡지에 연재한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합(朝鮮役に於ける水

⁵⁾ 이 당시 세이호는 다음과 같은 해군사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有馬成甫, 「白村江の戰鬪とその教訓」,『軍事史研究』6-4, 軍事史學會, 1941.8; 有馬成甫,「源平の海戦を論ず」、『海と空』3-9, 海と空社, 1934.8; 有馬成甫、櫻井成広、『源平の海戦とその教訓』, 軍事史學會, 1939; 有馬成甫,「織田信長と海軍」, 雄山閣編輯局編, 『日本海軍史』, 雄山閣, 1934.

⁶⁾ 原剛、安岡昭男編(1997), 前掲書, p.445.

⁷⁾ 有馬成甫、『火砲の起源とその伝流』、吉川弘文館、1962.

⁸⁾ 石岡久夫編,『日本兵法全集』, 人物往来社, 1967.

⁹⁾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自序, p.2.

軍の行動並に作戦を論ず)」이라는 임진왜란 해전에 관련된 논문을 모아 여기에 살을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1934년 이 글을 저 술할 당시 세이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라는 글을 발표하기 1년 전인 1933년에 발표한 「제국 해군 건설의 정신과 그 발전(帝國 海軍建設の精神とその發展)」이라는 글에서 세이호는 "근세사에 있어 일본의 흥륭(興隆)은 경탄 그 자체"라며, "세계사에 비추어보아도 우리나라의 진전은 경이롭고 장래에도 실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일본 흥륭에 대한 경탄은 바로 일본해군의 발전에 대한 경이일 뿐"이라고 함으로써, 그가 이 시기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다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 해군의 발전에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 또한 그는 "지금 우리해군력의 향상은 구미인(歐美人)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위협으로까지 과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있어서는 구세주로서 갈망마저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일본 해군이 "중대한세계사적 의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1) 이 시점에서 이미 그는 '아시아의 구세주로서의 일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이호는 동년 발표한 『비상시 해군 국방 독본(非常時海軍國防讀本)』이라는 책에서도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한 것은 실로 제국해군"이며, "제국해군이 훈련, 연습 등에 매진하는 것이 조국을 안태(安泰)하게 지키는 것이자 동양의 평화·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2) 이처럼 그는 일본의 해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러한 일본의 해군이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¹⁰⁾ 有馬成甫,「帝國海軍建設の精神とその發展」,『日本精神講座』9, 新朝社, 1935, p.115.

¹¹⁾ 有馬成甫(1935), 前掲書, p.116.

¹²⁾ 有馬成甫, 『非常時海軍國防讀本』, 海軍協会, 1933.8, p.25.

다. 또한 그는 같은 책에서 "일본해군의 장족의 진보는 일본으로 하여금 명실상부하게 태평양의 주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¹³⁾ 그가 만주사변(滿洲事變)을 계기로 일본이 태평양의 주인이되었다고 의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체를 일본 해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사 수군역』의 원저가 되는「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라는 글은, 이러한 그의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하던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세이호의 태도는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 함」을 발표한지 1년 뒤인 1935년의 「신흥 일본의 각성과 해군건설 의 과정(新興日本の覺醒と海軍建設の過程)」이라는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현대의 일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계의 하나의 경이이다. 또한 경탄이다. 혹자는 일종의 경이롭고 무서운 존재로 보고 있기도 한다"고 하여, 자국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세계 의 평가 속에서 찾고 있다. 14) 즉 『조선사 수군역』의 원저. 「조선역 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라는 글을 작성할 당시 세이호 는 세계사 속에서 일본은 매우 경탄스러운 존재이자. 아시아 민족들 에게 구세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일본 해군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그가 해군성의 촉탁으로서 『조 병사』 편찬에 참여하고 있었던 시기와 일치하는데, 그러한 만큼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에는 그의 일본과 해군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중일전쟁(中日戰爭) 발발 이후 가속화되어. 그는 일본이 '신의 나라 (神國)'이며, 일본의 병학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 야말로 일본 우월주의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¹³⁾ 有馬成甫(1933.8), 前揭書, p.27.

¹⁴⁾ 有馬成甫,「新興日本の覺醒と海軍建設の過程」,『講演』4-3(下旬號),聯合通信社, 1935.3, p.1.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전체주의 체제로 돌입한다. 이듬해인 1938년 7월 세이호는 「시사잡감(時事雜感)」이라는 글에서 '국체명징(國體明徵)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각 학교에서 〈일본 국체학(國體學) 강좌〉를 열고, "신도학(神道學)·국학사(國學史)·일본 정신사·일본 병학사 등을 일관한 일본 국체관념의 특수성을 연구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 이는 그가 신국사상(神國思想)에 본격적으로 젖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이호가 해군에 의해 다시 소집되어 군인으로 복귀한 1941년, 위에서 언급한 국체명징 운동의 일환으로서 세이호는 「황국 병학의 원리(皇國兵學の原理)」라는 글을 발표한다. 그에 의하면 "황국 병학은 황위(皇威)를 발휘하는 도를 말하는 학문"이며, "우리나라의 본의를 명징하게 하여 그 본질이 되는 신무(神武)의 도를 현양하고자하는 것"이기에,16) "소・중・고에서 국체의 본의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7) 각 학교에서 국체의 본의를 교육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국체명징 운동의 요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세이호는 이 글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군사학을 소개하고, 이를 타국의 군사학과 비교함과 동시에 타국의 군사학을 비판함으로써, '우월한 일본'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한다. 여기에서 그는 『고지키(古 事記)』등의 서적을 인용하여 "황국은 신무(神武)의 나라"라고 주장 하면서 일본 병학의 우수성을 칭송하는 동시에¹⁸⁾ 중국과 서양의 병 학을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병학은 '무(武)'를 단순히 위력 (威力)으로 해석할 뿐이며, 도덕성이 결여된 학문이다.¹⁹⁾ 그에 의하

¹⁵⁾ 有馬成甫.「時事雜感」, 『2600』6-2, 自衛社, 1938.7, p.54.

¹⁶⁾ 有馬成甫,「皇國兵學の原理」,鹿子木員信編,『皇國學大綱』,同文書院,1941, p.26.

¹⁷⁾ 有馬成甫(1941), 前掲書, p.33.

¹⁸⁾ 有馬成甫(1941), 前揭書, p.3.

¹⁹⁾ 有馬成甫(1941), 前掲書, p.10.

면 『사기(史記)』혹은 『손자병법(孫子兵法)』은 '병은 흉기이다(兵者 凶器也, 『사기』)'라든가 '병은 부정한 방법이다(詭道兵者詭道也, 『손 자병법』)'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결여한 단순한 위력을 지칭하는 학문에 불과하며, 따라서 일본의 병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여 일본 병학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20) 또한 서구의 병학은 최근에 이르러 처음 일본 병학 수준에 도달했으며, 종래 전쟁기술학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었던 서양 병학이 처음으로 사상·정치·경제 기타 여러 방면을 총괄하는 일본 병학의 이념에 근접하여하나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하여, 21)일본의 전통적인 병학이 최근까지 서양의 병학보다 우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1934년의 원저「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 『조선역 수군사』으로 발전하게 되기까지 세이호는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과 신국사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황국의 병학은 세계 제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다. 『조선역 수군사』의 성립

『조선역 수군사』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1934년의 「조선역에서 수군의 행동 및 작전을 논함」이라는 논문과 해전의 경과 부분에서는 거의 일치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자서(自敍)의 추가와 일본 및 조선 각 수군의 발달 상황에 대한 추가적 기술, 그리고 후반부에 임진왜란 전반에 관한 분석의 추가라고 할 수 있다. 자서(自敍)에는 당시 일본의 시책이었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옹호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기술하고 있는데, 따라서 『조선역 수군사』의 1942년판 간행은 시대의 요구에 의해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옹호하

²⁰⁾ 有馬成甫(1941). 前掲書. p.16.

²¹⁾ 有馬成甫(1941). 前掲書. p.25.

는 의식하에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그가 당 시 제2 해상호위대에 배속 받은 해군 소장으로서 전쟁의 한 가운데 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세이호는 자서에서 "우리나라는 건국의 시초부터 대륙과는 밀 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는 진무 덴노(神武天皇)의 황도경영 조칙(皇都經營の詔)에 '팔굉일우(八紘一宇)'라고 선언하신 웅장하고 관대하신 말씀에도 명백하게 나타나시고 있다"22)라고 하며, 히데요 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대륙과의 정 상적인 관계에 복귀하고자 하는 행동"23)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 하면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 것은 건국의 시초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으로서, 초대 덴노가 선포한 '온 세상이 하나'라는 조칙에 의한 것이며,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를 보았을 때 자 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은 침략전쟁 이 아니라 대륙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다. 세이호는 이에 더해 현재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확립'이라는 목표가 일본 본래의 국시 (國是)라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당시의 군국주의자들의 논리를 보 여준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아공영권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매진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당연히 황국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 팔굉일우의 국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외는 아닌 것이다. 24)

²²⁾ 我邦は肇國の始より大陸とは密接不可分の関係に在った。是は神武天皇皇都經營の 詔に八紘一宇と宣せられた雄暉寛大の御詞にも顯現せられて居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白序. p.1).

²³⁾ 我國が肇國以来の大陸との正常なる関係に復歸せんとする行動(有馬成甫(1942). 前揭書, p.1~2).

²⁴⁾ 今や我國は大東亞共榮圈の確立を目指して邁進しつゝあるが、之れ亦當に皇國本來 の眞姿に還り、八紘爲宇の國是を實現せんとするものに外ならないのである。(有馬 成甫(1942). 前掲書. p.2).

제이호에 의하면 임진왜란도, 현 시점의 중일전쟁도 모두 침략전쟁이 아니다. 다만 이는 일본이 본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서 대륙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이 발발한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기까지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25) 이 시점에 임진왜란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중일전쟁과 과거 임진왜란이 '대륙침략'이라는면에서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이호 또한 이 시점에서 임진왜란 해전은 현재의 중일전쟁과 유사하여 좋은 연구대조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그는 1942년 현 시점에 『조선역 수군사』를 발간하고있다고 밝힌다.26) 따라서 『조선역 수군사』 또한 대륙침략을 수행하고 있던 1942년 당시, 과거 중국을 상대로 활약했던 일본 무사들의영웅담을 소환하여 현재 일본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의도하에 발간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군사사 전문<mark>가로</mark>서 1942년 당시에는 다시 해군 장교가 되어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세이호의 눈에 임진왜란 해전과 조선, 그리고 이순신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었을까?

²⁵⁾ 김문자에 의하면 히데요시는 1930년대 이후 조선 침략의 선구자 이미지에서 대륙 침략을 꿈꾸는 일본의 팽창주의와 세계 제패를 상징하는 인물로 변화해 나갔다. (김문자, 「에도시대 豐臣秀吉에 대한 인식」, 『중앙사론』46,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2017.12, p.294.) 또한 1936년이 되면 잡지 『역사공론(歷史公論)』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특집호를 발표하여 히데요시에 대한 현창을 시도하였으며, 1937년 3월에는 정부에 의해 〈국체의 본의(国体の本義)〉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히데요시의 존왕정신(尊王精神)이 강조되었다. 이에 더해 1938년 『역사공론』 7권 1호는「일본전사와 전쟁미담(日本戰史と戰爭美談)」 특집호로 구성되어, 이 안에서 임진 왜란을 비롯하여 청일전쟁 및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에서의 미담을 수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히데요시 및 각종 전쟁에서 활약한 일본인들에 대한 미담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²⁶⁾ 有馬成甫(1942), 前揭書, p.2.

3. 『조선역 수군사』속의 조선 · 이순신 비판론

세이호는 앞서 살펴보았듯 신국사상과 일본우월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한 만큼 세이호는 이 책에서 일본인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상대였던 조선인들과 조선의 제도, 특히 붕당정치(朋黨政治)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순신에게도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일본에서 임진왜란사를 서술할 때 조선의 정치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순신에 대한 비난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조선인과 조선의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

처음 살펴볼 『조선역 수군사』의 대목은 1592년 일본군의 침략을 목격한 경상우수사(慶尚右水師) 원균(元均)이 전라좌수사(全羅左水師)였던 이순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다. 이 당시 이순신은 각자 경비하는 구역이 다르기에 조정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 다며 이를 거절한다.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순신이 이를 거 절하자 원균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는데, 이 장면에서 세이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에 이르면 일종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면으로 조선의 수군 제도에, 또한 국민정신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²⁷⁾

²⁷⁾ とあるに至っては一種の悲劇と言はねばならぬ。而して一面に於て朝鮮の水軍制度 に、また国民精神に缺陷の存在を物語るものではないだらうか。(有馬成甫(1942), 前 掲書. p.56).

세이호는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조선의 수군 제도와 국민정신에 결부지어 해석하고 있으며, '국민정신에 결 함이 존재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한다. 또한 세이호는 이순신이 조정 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직책을 고려했을 때 적합 하다며 일견 이순신을 옹호하는 듯하지만, 결국 일본의 군인정신으 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우군의 위급함을 보고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원래 이 일에는 그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직분이 전라도좌수사였기에, 관할 외인 경상도에 명령 없이 원조를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대충 이유로는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인정신에 비추어 논해보면 언어도 단(言語道斷)이다. ²⁸⁾

이 대목에서 세이호는 일본의 군인정신이 조선의 군인정신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순신이 명령 체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마치 군인정신이 부족한 것, 즉 군인정신 중 용기나 의협심 혹은 이타심이 부족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이순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조선인의 개인주의, 조선 정치의 불건전함을 말해준다 고 주장하다

이것이 조선인의 개인주의적인 특장으로서, 실로 정치의 불건전한 상태가 인심에 반영된 일면이다.²⁹⁾

²⁸⁾ 彼は友軍の危急を見ても中々腰を上げなかった。元よりこの事には彼は一つの理由があった。それは、彼の職分は全羅道左水使であるから、管轄外の慶尙道に命令を得ずして赴援することは出来ないと云ふのである。これは一通りの理屈としては尤もなことである。然し我が軍人精神に照らして論ずれば言語同斷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55).

²⁹⁾ これが朝鮮人の個人主義的な特長であって、実に政治の不健全な状態が人心に反映した一面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57~58).

세이호는 이순신의 이러한 행동을 조선인은 물론 조선의 정치· 제도까지 비난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그는 조선의 붕당제도에 관해서도 비난하고 있는데, 이순신이 하옥되는 대목에서 의 세이호의 언급을 살펴보자.

이전부터 조선 조정 요인들 사이에는 동인(東人), 서인(西人)의 양 파벌이 있었으나 이 심각한 당쟁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다. 임진년(壬辰年) 이래 국난에 조우해서도 이 붕당의 쟁투는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순신(동인)과 원균(서인)간의 질투, 분개의 투쟁은 중앙정부에서의 양당의 투쟁을 관통하여, 이순신은 결국 면직당하고 잡혀서 심문(鞫問)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30)

이처럼 세이호는 조선의 붕당의 쟁투가 임진왜란 중에도 이어졌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이순신이 면직당하고 심문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조선의 제도를 비난하는 동시에 그는 이순신이 원균을 구하러 가지 않은 태도를 지적하며 조선인의국민정신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문화통치(文化統治) 시기 이순신에 대해 서술할 때 최대한 조선인들의반응을 고려하였던 일본의 연구자가 보여주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31) 민족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이 시기의 분위기를 설명해 준다.

³⁰⁾ 以前より鮮廷要人の間に東人西人の兩派があった。而してその深刻な黨争は久しい間続けられた。壬辰(文祿役)以来國難に遭遇してもこの朋黨の争鬪は繼續せられた。而して舜臣(東人)と元均(西人)との間の嫉妬憤炎の爭鬪は牽ひて中央政府に於ける兩黨の争ひに關通し、李舜臣は遂に職を免ぜられ捕へられて鞫問を受くるに至ったのである。(有馬成甫(1942)、前掲書、p.219).

³¹⁾ 김준배, 「일본 문헌 속의 이순신 표상(表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pp.394~416.

나. 이순신에 대한 비판

세이호는 조선인 개인의 성질과 조선의 정치·제도를 비난하는 한편, 당시 조선 수군의 지휘관들 또한 무능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먼저 그는 일본군 선발대의 상륙을 저지하지 못했던 경상좌수사(慶 尙左水師)였던 박홍(朴泓), 경상우수사였던 원균을 비난한다. 다음은 해당 대목이다.

어쨌든 경상도 좌·우수사는 우리군의 상륙·진출에 대해 하등의 행동도 하지 못했고, 무능의 극치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³²⁾

박홍과 원균에 대한 비난은 한국에서도 흔한 것이지만, 세이호는 이들에 대한 비난 이후 이순신 또한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고 서 술한다. 다음은 해당 대목이다.

경상좌수사 박홍 및 동(同) 우수사 원균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능함을 발휘했다고 한 것은 전술한 대로이나, 그렇다면 오직 이순신만 크게 활약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³³⁾

세이호는 이순신의 활약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순신이 원균의 요청에도 원군을 재빨리 보내지 않은 것이 결국 원균의 분노를 사, 후에 원균으로부터 참소를 받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 대목이다.

³²⁾ 兎も角慶尚道左右水使は我軍の進出上陸に対して何等の行動に出づる能はず、無能の極であったことは何人も之を否定することは出来ない。(有馬成甫(1942),前掲書, p.49).

³³⁾ 慶尙左水使朴泓並い同右水使元均は何等為す所無くして、全く無能振りを發揮したことは前述の通りであるが、然らば独り李舜臣のみ大に活躍したかと言ふに、然らずと言ふ外は無い。(有馬成甫(1942)、前掲書、p.54)。

이러한 순신의 태도가 후에 이르러 원균이 모함하는 이유의 한 가지가 되었다. 즉 이순신이 투옥되기에 이른 원인을 만든 것이다. …(중략)… (이순신이) 머뭇거 리며 지체한 것이 후에 여러 종류의 의혹을 낳은 것은 이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34)

당시 일본에서는 원균이 소인배이기에 이순신을 질투하여 그를 실각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세이호는 원균이 무능한 것은 사실이나, 이순신 또한 스스로 자신이 투옥된 원인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정유재란(丁酉再亂)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도해 소식을 접하고 이를 요격하라 는 명을 받았으나. 이순신이 이를 공격하지 않았던 대목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나는 전략상에서 고찰하여 이순신의 행동에 다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일본군이 속속 도착하는 정보를 얻었으나 어째서 주저하고 머뭇거려 진격할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인가? 그가 임진왜란 당초 머뭇거렸던 이유는 자기의 경비구역 외였다고 하는 구실이 훌륭하게 성립되었지만 이번에는 삼도수군통제 시(三道水軍結構)師)로서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최초와 동일한 구실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순신의 태도가 원균의 모함. 순변사(巡邊使) 이일(李 鎰)의 중상(中傷). 붕당의 질쟁(嫉爭) 등에 의해 죄를 묻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은 의심할 것 없는 것으로, 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순신의) 머뭇거리는 태도가 이순신 실각 원인의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35)

³⁴⁾ この舜臣の態度は後に至って元均の讒構の理由の一となった。卽ち李舜臣が入牢するに 立至った原因を作ったのである。…(中略)… 李舜臣の逡巡澁帶が後に諸種の疑惑を生み 出したことは、これに依ても知ることが出来る。(有馬成甫(1942)、前掲書、p.56~57)、

³⁵⁾ 吾人は戰略上より考察して李舜臣の行動に多大の疑問を有するものである。彼は日 本軍が續々倒着するの報を得たるのであるが、何故に躊躇逡巡して進撃の態度に出 でなかったか?彼の文祿の役當初に於ては逡巡の理由を以て自己の警備區域外のこ とであったと云ふ口實が立派に立つのであるが、今回は三道水師統制使として全責 任を有する立場に在って最早同一の口實は許されないのである。この李舜臣の態度 が元均の讒、巡邊使李鎰の中傷、朋黨の嫉爭等によって罪せらるる基因を為したこと は疑ないことであって、吾人はこの不可解なる逡巡の態度を以て李舜臣の失脚の原 因の最大なるものと思考するのである。(有馬成甫(1942), 前掲書, p.220).

앞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이호는 이순신이 정유재란 당시 일본 군의 도해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 실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하며, 이를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평가한다. 즉 앞 서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이 대목에서 세이호는 이순신이 실각한 가장 큰 원인은 이순신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 한 그의 평가는 당시 이순신의 실각이 원균의 모함과 붕당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전반적 담론과는 상이한 것으로서, 그는 이러한 원균의 모함과 붕당의 질쟁의 근본적 원인이 곧 이순신의 태도였다고 주장한다.

세이호가 그의 저술에서 이순신을 비난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순신을 칭찬하는 표현도 몇 군데에서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이순신이 명량 해전(鳴梁海戰)을 앞두고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일본 수군에 맞서겠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세이호는 "그 의기는 실로 칭찬해야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36)고 적고 있다. 그러나 세이호가 이순신을 칭찬하거나 이해한다고 표현하는 대부분의 대목에는 항상 단서가 붙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에서의 이순신의 공적은 실로 혁혁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눈부신 전공을 이순신 개인의 전략적 수완으로 귀결하여 그를 찬미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공의 뒤에 조선 수군이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37)

이러한 독특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야말로 이순신 같은 영걸(英傑)을 기다려 위대한 공적을 보고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깊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일 것이다.³⁸⁾

³⁶⁾ その意氣は実に稱すべしと言はなければならぬ。(有馬成甫(1942), 前掲書, p.252).

³⁷⁾ 文禄役に於ける李舜臣の功績は、誠に赫々たるものであった。さればその花々しい戦功を、李舜臣一個の戦略的手腕に歸し、彼を讚美することも亦當然のことである。然し乍らその成功の裏に、朝鮮水軍が特種の制度を有し、且つ特種の武器を持って居たことを忘れてはならぬ。(有馬成甫(1942)、前掲書、p.147).

이 대목에서 세이호는 이순신을 '영걸(英傑)'이라고 칭하고, 그의 공적은 '눈부신' 것이자 '실로 혁혁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는 이순신의 활약은 조선의 수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의 수군 제도가 이순신의 함대를 뒷받침하였기 때문에 이순신이 많은 공을 세운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가 앞서 "조선의 수군 제도에, 또한 국민정신에 결함이 존재한다"며 조선의 수군 제도를 맹렬한 비판한 것을 고려해본다면,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일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주장으로서 처음 살펴보았던 원균의 구원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던 것에 대해 세이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조정의 명을 받지 않는 한 출동할 수 없다고 원군을 보내는 것을 거절한 것은, 조선의 사정과 심정에서 생각해보면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9)

(이순신이 원병을 보내지 않음은) 아마 그의 지휘하에 있던 수군의 실력이 도저히 나아가 일전을 기할 실력이 없고, 또한 병사가 투지와 사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추정된다.40)

그 또한 자기를 알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41)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 세이호는 이순신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나름대로 고찰하여, '이순신이 자신의 상황을 알았던 것'으로 해석하

³⁸⁾ 斯かる特種な制度が存在して居ったればこそ,李舜臣の如き英傑を俟って偉功を奏することが出来たものであることは深く注意を要することであらう。(有馬成甫 (1942). 前掲書. p.177).

³⁹⁾ 朝廷の命を受けざる限り出動する能はずと赴援を斷はったのも、朝鮮の事情と心情とより考ふれば、一応の理由であり得たであらう。(有馬成甫(1942)、前掲書. p.58).

⁴⁰⁾ 恐らく彼の指揮下に在りし水軍の実力が、到底直に立って一戦を期すべき實力を缺き、且つ兵士が鬩志を缺いで居ったためであらうと推定せらるる。(有馬成甫(1942)、前掲書、p.60).

⁴¹⁾ 彼も亦自己を知るものと言はなければならない。(有馬成甫(1942), 前掲書, p.61).

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순신이 원균의 요청에 응할수 없었던 것은 그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조선의 사정'이 존재했고, '군사들의 실력·투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순신이때를 기다리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세이호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였던 이순신의행동에 대해 또한 '국민정신의 결함'이 존재하고, 이러한 태도는 '일본 군인정신에 비하면 언어도단'이며, '실각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세이호는 이순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평가는 1892년 일본 최초의 이순신 전기(傳記)인 『조선 이순신전(朝鮮李舜臣傳)』을 저술한 바 있는 오다기리 마스노스케(小田切萬壽助)의 서술 방식과 정반대이다. 오다기리 마스노스케가 이 순신이 원균을 구하러 나서는 것을 지체한 것에 대해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은 사소한 절차에 얽매이는 졸장부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담략이 크고 매사를 밝게 처리하는 이순신은 이와 같이 좁은 소견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42)며 이순신의 행동을 옹호한 것에 반해, 세이호는 이순신의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한편 세이호는 일본의 무장이 한산도 해전(閑山島海戰)에서 전사한 것에 대해서는 "용감하고 장렬한 무장의 최후이다"⁴³⁾라고 표현하며 그 용맹함을 칭찬한다. 반면 한산도 해전에서 이순신이 총탄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순신이 총탄에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⁴⁴⁾라고 기술한다. 이처럼 세이호의 저술 속에서 일본 무장이 전사한 것과, 이순신이 총탄에 맞아가며 활약한 것에 대한 평가에는 명백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⁴²⁾ 柴山尚則,「文祿水師征韓哈未-朝鮮李舜臣傳」,『偕行紀記事』82, 偕行紀, 1892, p.11~12.

⁴³⁾ 有馬成甫(1942), 前掲書, p.87.

⁴⁴⁾ 有馬成甫(1942), 前掲書, p.83.

4 해전사로서의 의의(意義) 상실

가. 임진왜란 해전의 의의 격하

『조선역 수군사』에서 세이호의 임진왜란 해전에 대한 평가 중 가 장 눈여겨 볼 것은. 그가 당시의 임진왜란 해전이 전쟁 전체 국면 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일 본의 많은 역사서에서 해전이 임진왜란 전체 국면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했다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으며, 45) 1890 년대 및 1900년대에 일본 해군 장교들이 임진왜란 해전의 의의(意 義)를 강조했던 것과도 상반된 것이었다. 46) 이는 한산도 해전과 명 량 해전에 대한 그의 평가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그는 영국인 제 임스 머독(James Murdoch)이 도쿄 제국대학에서 영문학교수로 재 직하며 발간한 『A history of Japan』(1903) 속에 실린 한산도 해 전에 대한 평가를 지적한다. 여기에서 제임스 머독은 한산도 해전을 극찬하며, 이는 "침략군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였다고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는데, 세이호는 이를 비판한다.

【A hitory of Japan】(한산도 해전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전 중 하나라고 민을 수 있다. 이를 가리켜 한국의 살라미스(Salamis)47)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침략군에 내려진 사형선고였다.48)

⁴⁵⁾ 김준배(2020), 앞의 글, pp.312-315.

⁴⁶⁾ 김준배. 「메이지 시기 해군장교의 저술 속 이순신(李舜臣)-오가사와라 나가나리(小 笠原長生)의 저술을 중심으로」, 『軍史』1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⁴⁷⁾ BC. 480년 9월 23일 제3차 페르시아 전쟁 중 그리스 연합해군이 살라미스 해협 에서 우세한 페르시아 해군을 괴멸시킨 살라미스 해전을 가리킨.

⁴⁸⁾ So ended, we may well believe, one of the great naval battles of the world. It may well be called the Salamis of Korea. It signed the death-warrant of the invasion.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a, Kelly & Walsh, 1903, p.337).

【조선역 수군사】이와 비슷한 논의는 우리나라(일본) 역사가들에게도 상당히 많다. 즉 이 해전의 패배를 갖고 해상권의 실추와 견주는 것으로서, 심한 것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평양에서 나아갈 수 없었던 것도 이 해전의 패배에 의한 것이라고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전에 참가한 일본 수군은 결코 전 수군이 아니며 단지 와키자가 야스하루(脇坂安治)의 군대에 지나지 않았기에, 이 패전이 하등 육상군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수군에 있어서 좋은 자극이 되어 처음 진심으로 해상작전을 계획하게 만든 좋은 영향을 주었고, 결국 정유재란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에 이르게 한 기인을 만든 것으로, 이 한 번의 전투를 갖고 전체 전쟁국면의 운명을 결정한 전투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믿는다. 49)

세이호 자신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당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한산도 해전이 일본의 육군을 진격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결국 임진왜란에서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으며,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의 군대뿐이기에 육군의 행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산도 해전의 결과로 인해 일본 수군은 전라 해상(海上)을 통해 평양의 육군과 합류할 수 없었고, 고니시유키나가는 평양성에 고립되었으며, 결국에는 조선ㆍ명 연합군에 패배하여 강화회담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 때문에 메이지시기 해군장교들이 이순신의 사례를 활용하여 해군력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세이호는 한산도 해전의 의의에 대한 기존의 설을 부정한

⁴⁹⁾ これに似たる論議は我國の史家にも相当ある。即ち此の海戦の敗北を以て失墜と見做し、甚だしきは小西行長が平壤より進出する能はざりしことも、この海戦に敗を採ったことに起因すると論じて居るのである。然し乍ら此の海戦に参加した日本水軍は決して全水軍ではなく、僅かに脇坂の一軍に過ぎなかったために、此の敗戰が何等陸上軍の行動に影響を與へざりしのみならず、我水軍に採って善き刺戟となり、初めて真剣なる海上作戦を計畫するに至った好影響を與へ、遂に慶長役に朝鮮水軍を全滅するに至った基因を為したのであって、此の一戦を以て全戦局の運命を決したる會戦と見るは当たらないと信ずる、(有馬成甫(1942)、前掲書、pp.99-100)。

다. 그리고 종래에는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Alfred Thayer Mahan) 의 '해상권(海上權) 이론'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다.

많은 논자들이 조선역에서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원인을 일본 수군이 불리했던 것에 귀결시킨다. 이는 "해상권의 쟁패는 전쟁의 국면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념에 기반한 논의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더욱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머핸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상권력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머핸 시대의 해상권력이라는 이념과, 조선역 당시의 사정과는 전혀 그 경우가 다르다. …(중략)… 머핸이 말하고 있는 의미의 해상권력의 사상은 아직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언하면 조선역 시대에 있어서는, 육상작전의 도움 없이 수상병력만으로는 도저히 적 수상병력을 파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다를 제입하는 자는 세계를 제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주 이야기되고 있다. 이 이념은 일견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중략)… 조선역의 경우에서는, 조선 수군은 누누이우리 수군의 일부를 파괴했지만, 나아가 우리 병참교통선을 위협하는 것도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 작전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도 불가능하여. 결국 조선 수군은 해상권력을 장익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50

앞서 밝힌 것과 같이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일본의

⁵⁰⁾ 論者多く朝鮮役の成果を完ふし得ざりし原因を日本水軍の不利なりしことに歸するものがある。是は「海上權の爭霸は全戰局を支配す」と言ふ理念に基いた議論である。然し此の議論は更に検討を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う。マハン以来今日に到って海上權力なる語が多く用ひられて居るが、厳密に言へばマハン時代の海上權力なる理念は、朝鮮役当時の事情とは全くその境遇を異にして居た。…(中略)… マハンの謂って居った意味の海上權力なる思想は未だ適用することは出来ないと言はなければならぬ。換言すれば朝鮮役時代に在ては、陸上作戦の助けなく水上兵力のみによっては到底敵水上兵力を破壊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のである。「海を制するものは世界を制す。」と云ふことがよく言はれて居る。此の理念は一見真理なるかの如く感ぜらるるが事実は決して然らず。…(中略)… 朝鮮役の場合に於ては、朝鮮水軍は屡々我が水軍の一部を破壊したが、進んで我が兵站交通線を脅かすことも出来ず、或は我が作戦を妨害する程積極的な行動にも出ることが出来ず、結局朝鮮水軍は海上權力を掌握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のである。(有馬成甫(1942)、前掲書、pp,288-290)。

해군 장교들은 머핸의 '해상권 이론'을 적용하여 임진왜란 해전을 해석했다. 이러한 해상권의 개념은 당시 해군의 확장을 바라던 일본 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던 일본에게 제해권 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었으므로, 해군은 해군력 확장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당시 해군 장교들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활약상을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해군력이 전쟁 전체국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입증하였으며, 따라서 이순신의 사례는 일본 역사 속에서 머핸의 '해상권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사례로서 활용되었다. 51)

세이호는 그러나 많은 선배 해군 장교들이 주장해온 바와 달리 임진왜란의 경우에는 머핸의 해상권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 이유는 조선 수군이 일본의 병참교통선을 위협하지 못했 고. 작전을 방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병참교통선이 란 일본 본국과 부산항 사이의 해로교통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 는데, 실제로 이순신의 함대는 일본 본국과 부산항 사이의 교통선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바 없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한다면 이순신과 그 의 함대의 활동은 머핸이 주장하는 '제해권'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 한 것은 확실하다. 또한 세이호는 조선 수군이 일본의 작전을 방해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임 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해상에서 일본의 수군을 격파하여 이들의 활동을 경상도 해안으로 제한시켰지만, 일본 수군이 육지에 상륙하 여 도망가는 경우에 이들을 제압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따라 서 이들은 해안가에 성을 짓고 농성을 벌이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의 "조선 수군은 해상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 했던 것"이라는 세이호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순신과 그의 함대의 활동이 한반도 남쪽 · 서쪽에서의

⁵¹⁾ 김준배(2018), 앞의 글, pp.93~94.

일본 수군의 활동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 수군의 활동은 일본 수군의 활동을 철저하게 차단하였으며, 따라서 일본은 본국과 부산항 사이의 병참교통선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부산항과 평양 간의 병참교통선은 유지하기는커녕 애초에 개척할 수도 없었다. 개전 이후 파죽지세로 북상한 일본군은 삽시간에 조선의 수도를 점령하였으나, 해로로 인한 보급이 제한되면서 육로를 통한 보급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때마침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의병(義兵)에 의해 육로를 통한 보급도 끊기며 큰 고통을 겪을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52) 더군다나 이러한 해전에서의 거듭된 패전으로 인해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에 해전을 피하고 연안에 성을축조하라는 명령까지도 내리게 된 것이다. 53) 따라서 세이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산도 해전에서의 일본 수군의 패전이 "하등 육상군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작전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도불가능"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세이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머핸이 주장하는 해상권의 개념은 19세기의 것으로서 16세기에 발생했던 임진왜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머핸 자신도 그의 저서에서 "전쟁 지역, 전쟁의수행, 양 군대의 병력, 이동의 난이도 같은 것들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규모와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라고 지적한다.54) 한산도 해전을 비롯한 임진왜란의 해전들

⁵²⁾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pp.52~53.

⁵³⁾ 北島万次,『豊臣秀吉の朝鮮侵略』,吉川弘文館,1995, p.111.

^{54) &}quot;과거의 역사를 연구한다면 원칙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원칙은 성공과 실패 속에서 드러난다. 조건과 무기는 변화한다. 그러나 조건에 대 처하거나 무기를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의 전술에서, 또는 전략 에 포함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전쟁작전에서 배울 수 있는 불변의 역사적 가르침 을 존중해야만 한다. …(중략)… 전쟁 지역, 전쟁의 수행, 양군의 병력, 이동의 난 이도 같은 것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규모와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중략)… 해군 작전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이 일본 수군을 해상에서 제압함으로써 일본군의 작전 반경을 제한 시켰으며, 조선 수군에게는 해상 활동의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상의 권력(sea power)'은 조선 수군에게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세이호의 주장에는 일견 일리가 있으나, 그의 주장을 자세히 분석해본다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승리한 해전의 의의를 격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존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이호의 이러한 주장은 그 자신의 논문에서의 발언과도 일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그의 1933년 9월 논문「만주국과 제국해군(滿洲國と帝國海軍)」에는 "제해권이 없었다면 일본군은 도저히 만주에서 이처럼 질풍신뢰(疾風迅雷)같은 전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5) 임진왜란 당시 그 자신의 언급과 같이 '질풍신뢰같은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육군이 가로막힌 것은 수군이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 발을 묶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결국 일본이 지리한 강화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이 결국 히데요시의 전략을 수정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한산도 해전을 '하등 육상군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해전이라고 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패전의 원인 미화

세이호는 또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해상권을 장악했다" 는 기존의 주장들 이외에도,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의 지휘관들 이 서로 공을 다투었기 때문에 해전에서 패배했다"는 기존의 주장 들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예를 들어 선배 해군 장교인 오가사와라

아니었다."(앨프리드 세이어 머핸,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책세상, 1999, p.44).

⁵⁵⁾ 有馬成甫,「滿洲國と帝國海軍」,『戰友』279, 軍人會館出版部, 1933.9, p.22.

나가나리(小笠原長生)는 1902년의 저작 『일본제국 해상 권력사 강 의(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에서 이순신이 명(明)의 장수 진린(陳 璘)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일본의 수군 대장들이 서로 전공을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과 대조 한다. 그리고는 이를 '승패를 가른 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56) 그 러나 세이호는 "출정 장수들의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이것이 전쟁 국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더 욱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57)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하다

지휘명령계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당시의 정황에서 장수들이 스스로 난국에 처하기를 다투어. 나아가 연신 선봉을 겨룬 것을 불화라고 칭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 병사들의 공세정신이 왕성한 장점(美點)을 발휘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8)

이처럼 세이호는 출정 장수들이 더 많은 공을 세우고자 선봉을 겨룬 것을 불화라고 칭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공세정신이 장점을 발 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출정 장수들 간의 불화가 결국은 패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후세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비난받아 온 것이며, 주요한 임진왜란 해전 실패 의 원인으로 여겨져 온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해군 대좌(大佐, 대령) 출신의 고니시 다테히코(小西干比古)는 1940년 「조선정벌을 생각하 다(朝鮮征伐を思ふ)」라는 글에서 "실로 공명의 다툼이 심했던 것 같다.

⁵⁶⁾ 小笠原長生、『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海軍大学校、1902.11, p.136.

⁵⁷⁾ 有馬成甫(1942), 前掲書, p.290.

⁵⁸⁾ 指揮命令系統の確立せざる当時の情況に於て、諸將が自ら難局に立たんことを在争 ひ進んで挺身先陣を競ったことは不和と稱すべきにあらずして寧ろ我が將士の攻撃 精神の旺盛なる美點を発揮したところのものであると観るべきであらうと思う。(有 馬成甫(1942). 前掲書. p.291).

···(중략)···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가토 요시아키(加藤嘉明) 등의 공명(功名) 경쟁은 패전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59) 여기에서 세이호가 주장하는 것은 '장수들이 선봉을 겨룬 것은 공세정신의 장점을 발휘한 것'이지만, 결국 이러한 공세정신이 패전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그 장점은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담론들과 반대되는 이러한 세이호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며, 일본 수군을 패배로 이끈 장수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은 전쟁, 임진왜란

군사사 연구는 과거 전쟁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통해 현재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 것을 그 중요 의의 중하나로 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작업을 통해 『조선역 수군사』는 임진왜란 해전사를 군사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교훈을 도출하는 데에 실패한다. 그에 의하면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전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일본 수군의 장수들은 전공을 다툼으로써 해전에서 패배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장점이 발휘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전투에서의 승리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된 원인을 장점이라고 칭하며 미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은 일본 측 입장에서 보자면 실패한 전쟁이지만 어째서 실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전쟁이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조선역의 교훈은 이르는 곳마다 연전연승한 우리 군이 어째서 종래에는 전과를

⁵⁹⁾ 実に功名争ひが激しかったらしい。…(中略)… 藤堂,加藤等の功名競争は敗軍の大原 因をなして居る。(小西干比古,「朝鮮征伐を思ふ」,『日本及日本人』390, 金尾文淵堂, 1940,11, p,19).

거두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점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에 있어서 특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시는 '조선역과 같이 방심하여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국민의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60)

위에서 세이호는 임진왜란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어째서 일본 이 실패하였는가'이며, 이것이 대륙침략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 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생각건대 전 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임진왜란에서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세이호는 『조선역 수군사』라고 하는 군사학 관점에서 바라본 임 진왜란 해전사에 관해 책을 간행하며 이를 통해 현재 중일전쟁에 교훈을 주고자 했다. 당연히 그 주된 분석 대상은 해전이었으며, 임 진왜란 전체 국면에 해전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해서 논하 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전에서의 승패가 임진왜란 전체 국면에 큰 영향을 주 지 못했고, 일본 수군의 장수들이 서로 공을 다투어 전투에서 패배 한 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점이 발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이 조 선 수군에 패배한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 시점 에서 어째서 임진왜란 해전사를 분석해야 하는지에 관해 그 의의를

⁶⁰⁾ 朝鮮役の教訓は到る處に連戰連勝した我軍が何故終極的な戰果を完うし得なかったかと云ふことに帰すべきであらう。此点は現下我国の直面して居つ支那事變に於て特に甚深の考慮を尽さ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である。一言にして言へば再び朝鮮役の如き不覚を繰返さざる様国民の研究と努力とを必要とすると云ふことである。想ふに戦争の勝敗を決するところのものは決して単純のものではない。(有馬成甫(1942), 前掲書, pp.296~297).

상실하게 만든다.

오히려 세이호는 임진왜란을 통해 교훈을 얻기보다 이를 통해 일 본을 칭송하기에 주력한다. 그에 의하면 임진왜란의 의의는 황위를 해외에 떨친 것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전투에는 때때로 승패가 있으나, 더욱이 최후에는 히데요 시의 사망(薨去)에 의해 한 뼘의 땅도 획득하지 못하고 방기(放棄)했기 때문에 연래의 출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히데요시가 죽은 후 국내가 갑자기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귀결시켜 야 하며, 히데요시 자신의 실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크게 황위를 해외에 발양했다고 하는 사실에 이르러는, 단지 이를 히데요시의 공적으로 해야만한다. 이 점에 조선역의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61)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이호는 일본군이 임진왜란에서 실패한 이유가 히데요시의 사망 이후 일본의 국내 정치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명백히 군사학의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분석한 그가 내리는 전쟁 실패의 원인은, 군비(軍備) 혹은 전략(戰略)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일본 내부의 정치적 불안에 의함이다.

이에 더하여 임진왜란 해전사를 분석함을 통해 세이호가 내리는 결론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바로 '인적요소'라는 것이다.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인적요소로서, 실로 국민의 의지와 기개(志氣) 여하에 있는 점을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곤고하고 결핍할 때에 울산성 농성전에서

⁶¹⁾ 軍事的觀點からすれば、戰鬪には時に勝敗あり、且つ最後に秀吉の薨去に依て寸土をも獲得せずして放棄したから、年来の出師の目的を達し得なかったとも言へる。然しその失敗の責任は寧ろ秀吉歿後の国内が忽焉として不統一となったことに帰すべきもので秀吉自身の失敗とは言へない。而して大に皇威を海外に發揚したと言ふ事実に至っては、只之を秀吉の功績とすべきである。此の点に朝鮮役の意義があり價値が存するのである。(有馬成甫(1942)、前掲書、p.284).

보여준 병사들의 인고를 생각하고, 대부대의 적군을 만나서는 사천 신채(泗川新 寒) 전투에서 시마즈군이 보여준 훌륭한 계략과 용감한 전투를 생각하고 또한 적의 감언이설에 대해서는 고니시의 착오(錯誤)을 되새겨서, 이러한 귀중한 선배의 체험을 활용하여 이로써 이번 전쟁(事變)의 전과를 달성하고, 황위 발양의 궁극적 성과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할 책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다 62)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세이호는 인적요소가 전쟁 승리의 핵심요소 이며, 이러한 선배들의 체험을 활용하여 이번 전쟁에서의 성과를 달 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본 국민이 다해야 하는 책무라고 주장한 다 군사학의 관점에서 전쟁사를 분석한 그가 내리는 결론이 제도나 전략 전술의 측면이 아니라.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병사들의 인 고'. '용감한 전투' 등 정신적 측면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시 일본에 '의지력으로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등 의 '정신국방(精神國防)'이라는 <mark>말이 성</mark>행했던 것을 생각해보면.⁶³⁾ 이는 당시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보다 놀라운 것은 임진왜란 해전에 관한 연구 이후에 세이호가 언급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례들은 오로지 육상전투 혹

⁶²⁾ 核心を為すところのものは、云ふ迄もなく人的要素であって、実に国民の志氣如何に 在ることを銘記しなくてはならない。困苦缺乏に遭ふては蔚山籠城に示したる將士 の忍苦を偲び、大敵に遭ふては泗川新寨に島津軍の顯はしたる善謀勇鬪を思ひ、また 敵方の甘言に接しては小西の陷れる錯誤に鑑み、夫れ等貴重なる先輩の体験を活用 し、以て今次事變の戰果を完ふし、皇威發揚の終極的成果を確保せんことに努むべき は、是れ當今我が国民の直面せる責務であると言はねばならぬ。(有馬成甫(1942).前 掲書. p.297).

⁶³⁾ 사토 데쓰타로도 1936년 『사상대책 정신국방(思想対策精神国防: 永遠性の非常時 に備へよ)』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정신국방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로지 황국 일본에서만 처음으로 보이는 특수한 국방, 즉, 만국에 탁월한 국체의 방위술"이라 고 주장한 바 있다. (佐藤鉄太郎、『思想対策精神国防: 永遠性の非常時に備へよ』、 大日本四恩会事務所. 1936. p.4).

은 외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 스스로가 자신의 저서에서 임진왜란 해전의 의의를 격하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세이호는 과거 일본의 전쟁 사례인 임진왜란 해전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쟁에 당면한 지금 일본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스스로 해전을 의미 없게 만들고 전투에서 패배한일본 장수들을 미화함으로써, 군비나 전략이 아닌 국내 정치상황이실패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전쟁의 핵심은 '병사들의 인고'와 '용감함'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저술한 『조선역 수군사』는 본래의 군사학적 전쟁사 분석이라는 목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종래에는 자신의일본 우월주의와 신국사상을 강화시키는, 또한 현재의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일본인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고 사기를 고양시키는 데에만 기여하고자 노력한 저술이 되어버렸다고 평가해야 적절할 것이다.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이후 발표된 세이호의 글에서도 『조선역 수 군사』와 유사한 종류의 주장이 발견된다. 그는 1958년 6월 「조선역의 해전(朝鮮役の海戦)」이라는 글을 『세계의 함선(世界の艦船)』 11호에 발표한다. 여기에서 그는 이순신을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순신이 기용되어 지휘를 했을 때에는 일본 수군에 연승했다. 그래서 그를 불세출의 영웅처럼 칭찬하는 역사가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세한 함대를 갖고 열세에 이긴 것은 당연하고, 이 같은 경우에 그 승리의 원인을 전부 이순신의 위대함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를 평범한 사령관이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세출의 영웅이라든가, 넬슨(Horatio Nelson)에 비할 만하다든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4)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이호는 이순신이 "우세한 함대를 갖고

⁶⁴⁾ 有馬成甫,「朝鮮役の海戦」,『世界の艦船』11, 海人社, 1958.6, p.50.

열세에 이긴 것은 당연하다"며, 그를 '불세출의 영웅' 혹은 '넬슨에 비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일본 해군 전략사상의 기초를 세운 사토 데쓰타로(佐藤鉄太郎)가 1908년 『제국 국방사론(帝国国 防史論)』에서 언급한 다음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래(古來) 전쟁의 장수로서 '기습군과 정공(正攻)군을 합치고 나누는 것(奇正分 合)'을 지극히 교묘하게 활용한 자는 결코 한둘에 그치지 않는다. 나폴레옹 (Napoléon)이 "전체로 부분을 치라"고 한 것도 이 뜻일 뿐이다. 그러나 해군 장수로서 이 시례를 살펴보면, 앞서 동양에서는 한국의 장수 이순신, 서양에서는 영국의 장수 넬슨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65)

위에 보이는 사토 데쓰타로의 주장은 세이호의 주장과 정확히 반 대되는 것이다. "전체로 부분을 치라"는 것은 즉 '우세한 병력으로 열세의 병력을 치라'는 뜻이다. 이것은 일견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아군의 대부대를 자신이 원하는 곳, 예를 들어 적군이 취약한 곳에 정확히 투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동력과 판단력, 정보력 등 이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다. 나폴레옹도 이와 같은 전술을 잘 활용 했기 때문에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다. 기동이 자유롭지 않은 함선 으로 전투를 벌이는 해군이 이를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숱하게 많았던 역사 속 해군 장수들 속에서 전술 을 실제로 행했던 사람은 이순신과 넬슨뿐이라고 사토 데쓰타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세한 병력으로 열세의 병력을 치면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이것

⁶⁵⁾ 古來ノ戰將ニシテ奇正分合ノ妙用ヲ尽シタルモノ必ズシモ一ニニ止ラズ。「ナポレオ ン」が「全ヲ以テ其ノ分ヲ撃ス」ト云ヒタルモコノ意義ニ外ナラヌノデアル。サリナガ ラ海軍將官トシテ之ヲ看レバ,先東洋ニアッテハ韓將李舜臣,西洋ニ在テハ英將「ネ ルソン」ヲ推サナケレバナラヌ。(佐藤鉄太郎、『帝国国防史論(上)』、原書房、1908、 p.399).

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장수의 자질인 것이다. 따라서 나폴 레옹이, 그리고 넬슨이 높게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어찌보면 세이호의 주장대로 "우세한 함대를 갖고 열세에 이긴 것은 당연"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이 전술의 기본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세이호가 해군 소장 출신의 군사사 연구 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대목은 세이호가 의도적으로 이순신을 격하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그가 의도적으로 이순 신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군사적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해군 장교이자 군사사 연구가였던 세이호는 1942년의 그의 저술 『조선역 수군사』를 통해 전쟁에 한창이던 일본에 교훈을 주고자 했다. 그는 이 저술에서 임진왜란 당시 개개 해전의 경위와 함께, 조선·일본 양쪽 군대의 선박 구조, 병기의 기능등을 상세하게 연구함으로써, 임진왜란 해전에 관한 많은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세이호가 자신의 임진왜란 해전 연구를 통해 그려낸 것은 부정적 인 면이 가득했던 조선의 정치 제도 및 개인주의적인 조선인, 군인 정신이 결여된 이순신과, 이에 대비되는 용맹하고 훌륭한 일본인이 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제시되는 그의 논거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상세한 연구의 결과 임진왜란 해전이 전쟁 전체 국면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 하며, 그 근거로서 조선 수군이 일본의 보급선을 차단하지 못한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의 육군이 결국 뜻하는 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 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는 일본 장수들이 공을 다투어 결국 전투 에서 패배하게 된 것을 미화하며, 이는 공세정신이 발휘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그는 스스로의 상세한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에서 의 실패의 원인을 찾고도. 이를 변호하여 스스로 자신의 논지를 약 화시키고 있으며,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적 요소이며, 그 사례로서 육상전 투와 외교에서의 사례를 거론하며, 해전에서의 교후을 도출하는 데 에 실패한다. 이러한 대대적인 연구의 결과, 결국 그의 저술은 『조 선역 수군사』이면서도 임진왜란 해전의 의미를 찾는 데에 실패했고. 단지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데에만 주력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1941년에 『해국독본(海國讀本)』을 저술한 오가사 와라 아쓰타카(小笠原淳隆)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순신을 대단히 칭 찬하고. 이순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마다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 郎)의 활약상을 소개하여 두 장수가 취한 행동의 유사성을 강조한 다. 또한 이순신이 "철저하게 적을 섬멸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표 현한다.66) 그러나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소년병들의 자살 특공을 미화하는 저서. 『소년 해국 이야기(少年海國物語)』(1942)에서는 이 순신을 가리켜 "도고 대장만큼 훌륭하지는 않다"고 말하며. 훌륭한 참모는 될 수 있으나 사령관감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 이 유로 제시되는 것은 "철저하게 적을 쳐부수려는 공격 정신이 없다" 는 것이다.67)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42년을 전후한 이 시 기의 일본에서 이순신을 서술했던 한 개인은. 자신의 불과 1년 전의 저술 내용을 완전히 부정해가면서 이순신보다 도고 헤이하치로가

⁶⁶⁾ 小笠原淳隆, 『海国読本』, 富士出版社, 1941, pp.206-224.

⁶⁷⁾ 小笠原淳隆. 『少年海国物語』、文祥堂. 1942. p.227.

276 | 軍史 第114號(2020. 3.)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1942년을 전후한 이 시기의 일 본 문헌 속 이순신 담론에는 특수성이 보이며, 이는 태평양 전쟁 시기 고조되었던 일본 중심주의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9. 12. 31, 심사수정일: 2020. 2. 6, 게재확정일: 2020. 2. 18.)

주제어 : 이순신, 아리마 세이호, 조선역 수군사, 일본의 이순신 담론,

임진왜란



〈참고문헌〉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김문자. 「에도시대 豐臣秀吉에 대한 인식」. 『중앙사론』46. 중앙대 중앙사학 연구소. 2017 12

김준배 「메이지 시기 해군장교의 저술 속 이순신(李舜臣)-오가사와라 나가 나리(小笠原長生)의 저술을 중심으로」、『軍史』107.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8. DOI: 10.29212/mh.2018.107.83

「일본 문헌 속의 이순신 표상(表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 책세상. 1999

有馬成甫、『非常時海軍國防讀本』、海軍協会、1933.8。

「滿洲國と帝國海軍」、『戰友』279、軍人會館出版部、1933.9.

「織田信長と海軍」,雄山閣編輯局編,『日本海軍史』,雄山閣,1934. 「源平の海戦を論ず」、『海と空』3-9、海と空社、1934.8、

「帝國海軍建設の精神とその發展」、『日本精神講座』9、新潮社、1935。 「新興日本の覺醒と海軍建設の過程」、『講演』4-3(下旬號)、聯合通 信社. 1935.3.

「時事雜感」 『2600』6-2』 自復計 1938 7

櫻井成広、『源平の海戦とその教訓』、軍事史學會、1939

「皇國兵學の原理」. 鹿子木員信編. 『皇國學大綱』. 同文書院. 1941. 「白村江の戰鬪とその教訓」、『軍事史研究』6-4、軍事史學會、1941.8、 『朝鮮役水軍史』,海と空社,1942.

「朝鮮役の海戦」、『世界の艦船』11、海人社、1958.6、

『火砲の起源とその伝流』. 吉川弘文館. 1962.

石岡久夫編、『日本兵法全集』、人物往来社、1967、

小笠原淳隆,『海国読本』,富士出版社,1941.

『少年海国物語』 文祥堂 1942.

小笠原長生 『日本帝国海上權力史講義』 海軍大学校 1902 11 北島万次、『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早稲田大学博士論文、1990、 『豊臣秀吉の朝鮮侵略』、吉川弘文館、1995.

小西干比古,「朝鮮征伐を思ふ」,『日本及日本人』390, 金尾文淵堂, 1940.11. 佐藤鉄太郎, 『帝国国防史論(上)』, 原書房, 1908.

> 『思想対策精神国防:永遠性の非常時に備へよ』,大日本四恩会事務 所、1936.

柴山尚則,「文祿水師征韓始末-朝鮮李舜臣傳」,『偕行社記事』82, 偕行社, 1892.

原剛、安岡昭男編.『日本陸海軍事典』, 新人物往來社. 1997.

平田俊春,「有馬成甫博士追悼の記」,『軍事史學』9-3, 軍事史學會, 1973.12. James Murdoch, 『A History of Japan』, Kelly & Walsh, 1903.



(Abstract)

The Criticism against Admiral Lee Sun-sin depicted in [®]A history of naval battles in the Imjin war_® by Arima Seiho

Kim, Joon-bae

This paper analyzes how Lee Sun-Sin is depicted in ^rA history of naval battles in the Imjin war, published in 1942, during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and what kind of authors' perceptions and backgrounds influenced these descriptions written in the book. This book was published by Arima Seiho, rear admiral, who was a war history expert already published various writings on war history.

What he portrayed in his A history of naval battles in the Imjin war were Joseon's negative side for political system, individualistic Koreans, Lee Sun-sin, who lacked military spirit, comparing to courageous and brilliant Japanese. To make this more effective, he argues against existing theories. However, his evidence presented with it was not convincing. He argues that these detailed studie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naval battles on the whole phase of the war was not significant, and that the Korean navy did not block Japanese supply lines. However, this is not true that Joseon navy's efforts have made it impossible for Japanese army to eventually wage war as intended. He also justifies that Japanese admirals struggled for achievement and merits, eventually leading to defeat in battle. In this way, he finds the cause of the failure in the Imjin War by his detailed research, weakens his argument by defending it, and repeats the lack of evidence. In conclusion, he argues that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war is the human element, as is the case in ground battles by army and diplomacy. Through this, he fails to draw lessons from the naval battle. In the end, his book focused on just enhancing the Japanese pride, which can be understood by the influence of Japanese centralism during the Pacific War.

Keywords: Lee Sun-sin, Arima Seiho, A history of naval battles in the Imjin war, The image of Yi Sun-sin in Japanese literature, the Imjin war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O 『한국 고대 군사사와 동아시아』 학술회의 개최

- 일시 : 2020. 1. 17.(금) 13:00 ~ 18:00

- 장소 : 전쟁기념관 2층 문화아카데미

- 세부진행 * 좌장 :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13:00	개회 및 인사 말씀
13:10~13:40	제1발표 : 서주시기 대 험윤 전역의 특성 발표자 : 이유표(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 김경록(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3:40~14:10	제2발표 : 나제동맹의 공수 전략 검토 발표자 : 위가야(성균관대학교) 토론자 : 정덕기(서울대학교)
14:10~14:40	제3발표 : 612년 고구려·수 전쟁의 전개 발표자 : 정동민(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 이정빈(충북대학교)
15:00~15:30	제4발표 : 648년 당 태종의 '평양 이남 백제토지' 발언의 해석과 효력 발표자 : 윤진석(계명대학교) 토론자 : 김낙진(전쟁기념관)
15:30~16:00	제5발표 : 고구려 영류산의 위치와 나당 연합군의 진군로 발표자 : 이상훈(육군사관학교) 토론자 : 박준형(해군사관학교)
16:00~16:30	제6발표 : 9세기 후반 일본의 노사(弩師 배치 배경 발표자 : 정순일(고려대학교) 토론자 : 한준수(국민대학교)
16:30~18:00	종합 토론 및 청중 질의, 폐회

282 | 軍史 第114號(2020, 3.)

o '19-4차 군사사 연구논문 발표회

- 일자 / 장소 : '19. 11. 26(화) / 연구소 회의실

- 참석인원 : 50여 명(연구소 및 군사사학회, 학계연구자 등)

13:50~14: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4:10~15:00	제1주제 : 일제강점기 군사관련 우편엽서와 프로파간다 발표자 : 신동규 (동아대)
15:00~15:40	제2주제 : 중일전쟁 직후 용산병참부의 긴급수송과 용산숙영지 발표자 : 김윤미 (부경대) 토론자 : 조건 (동국대)
15:50~16:30	제3주제: 극동전역의 관점에서 본 소련 원동군 88여단에 대한 시론 발표자: 하지앙동 (화동사범대) 토론자: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16:30~17:10	제4주제 : 1909년 하얼빈 러일회담과 대한의군 안중근의 이토 저격사건 발표자 : 김승기 (군사편찬연구소) 토론자 : 박민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7:10~17:50	제5주제 : 중국정부가 인식하는 중일전쟁과 그 의미 발표자 : 이원엽 (산동대) 토론자 : 기세찬 (국방대)
17:50~19:30	맺음말씀, 사진촬영, 폐회, 식사

2. 인사이동

ㅇ 파견

- 윤재두(군사사부) : '19. 12. 31, / 직업보도반

o 전입 / 신규임용

김태헌(군사사부) : '19. 11. 26. / 전입신범규(군사사부) : '20. 1. 2. / 신규임용

신간 도서 소개

내

임진기록

분

• 군사편찬연구소

구

- 신국판
- 2019. 12. 30.



임진전쟁시기 우의정 정탁이 전쟁지휘과 정에 접한 각종 군사보고서 및 명군, 일본군의 군사외교문서를 모아 정리한 전쟁기록이다. 국제전쟁으로써 임진전쟁의 역사성을 잘 보여 주는 본 사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문 서의 해독 어려움으로 학계 및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편찬연구소의 군 사문헌집 번역작업으로 소개하였다. 삼도수 군절도사 이순신의 장계, 권율의 장계, 충용장 김덕령의 장계 등 조선군 지휘관의 각종 보고 서와 명군 경략 송응창의 제본, 일본군 가등청 정의 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용

군사사 연구총서 제8집

- 군사편찬연구소
- 신국판
- 2019, 12, 26,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과 독립전쟁이란 특별기획으로 구성된 본 군사사연구총서 제8집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3·1운동인식과 군비논쟁,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전쟁의 군사사적 의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보병조전초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노병회의 보병조전초안 간행과 성격, 대한제국기 군인출신의 독립운동가 전환 실태"등의 다양한 연구성과가 수록되었다.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결과임시정부의 수립 및 독립전쟁의 본격화를 심도있게 연구한 성과물이다.

구 분	
동아시아 전후 처리와 중·소갈등 (1941-1952) • 정형아(전쟁사부)	195 다. 강대 가
• 신국판 • 2019, 12, 20,	으며 갈등 건

동이시아 전후처리와 중·소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는 세계전쟁사 분야의 연구성과물이다. 본 연구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강대국에 의해 논의된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가 각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주목하였으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나타난 중·소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용

내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중·소 양국의 동맹관계가 전후처리를 거치면서 갈등관계로 변화하였고, 또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으며, 동아시아의 냉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1945년 이후 전후처리와 국제상황의 변화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응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www.imhc.mil.kr

• 주요내용: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內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 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 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 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doi.org/10.12345 / imhmnd.2017.105..103.010
 -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학국 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 시 저자이름을 포함
-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워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02-748-1667(김태헌)

• FAX: 02-709-3111

• E-mail: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292
	적용대상	
제3조	적용범위	292
제4조	용어의 정의	292
제 5 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293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94
제7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295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296

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296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296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297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297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298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298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299
제16조	판 정	299
제17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299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00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300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301
부 칙		30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 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 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 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경지하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 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시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시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1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 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 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 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1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광서(조선대학교) 김강식(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근욱(서강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태헌(군사편찬연구소)

重 史 2020/3(第114號)

2020년3월9일印刷2020년3월15일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748-1667 FAX: 709-3111

印刷處_ 국군인쇄창 (M20020175)

本誌에 실린 論文内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14. 2020.3.

Yoon, Si-won The Process for Development of the reserve forces mobilization system of the R.O.K Army during the period of the first republic

in Korea between 1948-1960

Lee, Sin-jae A Study on the Korean Type Combat Ration(K-MRE)'s

Development Process During the Vietnam War

Lee, Jeong-ha Soviet Strategic Culture and the Red Army's Cavalry

Commanders' Socio-Economic Background

Yoon, Kyeong-jin The Study on some implications of the occupation for the Nine

Fortresses in the Northeastern region during the period of

Goryeo Dynasty

Kim, Kyeong-lok The Process of the Re-seizure Battle of Yeongcheon castle

(永川城收復戰鬪) and features from the military historical point

of view during the Imjin War(壬辰戰爭)

Hong, Young-ho Determining the locations of the coastal signal-fire stations in

Gangneung during the Joseon Dynasty

Kim, Joon-bae The Criticism against Admiral Lee Sun-sin depicted in TA

history of naval battles in the Imjin war, by Arima Seiho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ISSN 1598-317X